

2012

제15회 공무원문예대전



로드킬 (Road kill)

제15회 공무원문제대전수상작품집

초판인쇄 | 2012년 10월

초판발행 | 2013년 10월

발행 | 행정안전부

발행처 |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Tel. 02-2100-4257 / Fax. 02-2100-4369

펴낸곳 | 정우디피씨 02-2277-9541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있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12

제15회 공무원문예대전





풍부한 감성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공직 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을 따뜻하게 섬기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은 공무원문예대전에서 문학적 소질을 발휘하여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작품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공무원문예대전은 그동안 전·현직 공무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바람직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훌륭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대표적인 공무원 문예행사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공무원문예대전에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등 7개 부문에 총 2,00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그 중 50편을 최종 입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정진하며 틈틈이 갈고 닦은 예술적 재능의 결실로서, 삶의 정취가 담긴 진솔한 내용과 참신한 상상력이 넘치는 문학적 표현들이 두드러진 수준 높은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주옥과 같은 작품들을 모아 발간되는 작품집을 많은 공직자들이 접하고, 이를 통해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뜻 깊은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해 얻어진 풍부한 감성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공직 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을 따뜻하게 섬기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활동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10월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정의로운 문인이 되길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소설가 정비석 선생님과 시인 박목월 선생님의 문학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석 선생님은 전형적인 선비 스타일이었고, 박목월 선생님은 키도 크고, 꽤 멋쟁이로 보였습니다. 두 분이 문학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비석 선생님께서 “물은 H₂O인데 눈물은 H₂O가 아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글쓰기에서 논리적 비판과 예술적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연상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와 저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과대학 기계과나 전기과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저는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의 고집에 밀린 아버지께서 며칠을 두고 고민을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저기 다리 밑에 가면 밥 얻어 먹는 거지들이 살고 있는 줄 알제?” “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작가라는 사람은 말이다. 그런 거지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너 그렇게 할 자신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용기라면 네 맘대로 가거라.”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여든아홉 살인데,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그때 해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지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작가는 그 버림받고 불쌍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밝고 화려한 곳을 찾지 말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다 희망의 빛을 불어넣어야 하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작가가 그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당당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인이 많이 배출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제15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당선의 영예를 차지한 시인, 작가 여러분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문인들이 선발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 뒷전에서 땀을 흘리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 노고를 위로하면서,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정 중 명**



- 08 발간사 |
- 10 축사 | 정종명
- 533 심사평



시부문

대상

- 19 로드킬_전병호 | 인천중부경찰서

은상

- 21 창문, 열다 _ 김용아 | 인천 인동초등학교
- 23 일감을 찾아서 _ 한규동 | 서울 은평구청
- 25 간이역 _ 이종덕 | 왜관 중앙초등학교
- 27 실러겐스 _ 정석교 | 강원삼척시청

동상

- 29 늙은 해나무의 기침 _ 이성호 | 울산 중부소방서
- 31 오래된 의자 _ 박해술 | 부산 동평여자중학교
- 33 김진국 _ 김일하 | 울진소방서
- 35 주말부부 _ 이우권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 37 상가의 저녁 _ 김성욱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39 겨울 청대 밭에서 _ 박영식 | 남울산우체국
- 41 무화과 _ 변우연 | 서울 마포소방서



시조부문

금상

45 해후 _ 송태준 | 통계청

은상

47 민들레의 노래 _ 이상윤 | 대구 선원초등학교

49 오대산 전나무숲 전상서 _ 이우식 | 강원 평창군청

동상

51 시간의 각질 _ 최성희 | 별말 초등학교

53 한라 청미래덩굴 _ 임태진 | 제주 동부소방서

55 낙엽 _ 이규준 | 고성 생명환경농업연구소

57 매화 _ 이성배 | 향토예비군 장전1동대



수필부문

금상

61 풍금소리와 함께 걷는 길 _ 이해경 | 성남 송원초등학교

은상

69 합창, 수형자 그리고 교도관 _ 최남득 | 포항교도소

77 국가대표, 내 삶의 날개 _ 박민정 | 대통령실 경호처

동상

87 과일장수 아줌마 _ 이희태 | 대전광역시청

95 깨진 유리창 _ 강동규 | 춘천 경찰서

103 설산의 풍광 _ 배진철 | 김천 농소면사무소

109 그들의 아름다운 변신 _ 윤현봉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117 사형수의 부활 _ 장현덕 | 법무부 포항교도소

127 오늘날 같아라 _ 박성희 | 산운 초등학교



단편소설부문

금상

139 여명 _ 오상근 | 전주지방검찰청

은상

169 파리 _ 송영인 | 시흥 농곡초등학교

동상

195 낙화 _ 김명자 |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221 청춘자화상 _ 노학진 | 법무부 서울구치소

241 봄 _ 윤정아 | 대전용산고등학교

273 그리운 독재자 _ 김형중 | 읍촌초등학교



동시부문

금상

301 시험 보는 누에 _ 김종훈 | 울산 반전초등학교

은상

303 연 날리기 _ 최호열 | 서울 양천경찰서

305 택배 아저씨 _ 김계석 | 대전혜광학교

동상

307 팬잡아 _ 김수연 | 원정 초등학교

309 짝꿍 _ 오윤정 | 대전 자양주민센터

311 우체국 연주회 _ 장효정 | 인천 만석동우체국

313 민들레 흙씨의 비밀 _ 이우식 | 강원도 평창군청



동화부문

금상

317 이사가기 싫어요 _ 안안미 | 전남 함평초등학교

은상

329 미술이와 큰술이 _ 전병호 | 인천중부경찰서

동상

347 배불뚝이 가방 _ 백금태 | 경북 경산 봉황초등학교

359 우물안 개구리 _ 심진경 | 강원 정선읍사무소

373 덕고개의 여름 _ 이용옥 | 과천 문원초등학교

391 아빠가 웃었다 _ 김진우 | 천안교도소



희곡부문

금상

409 용서 _ 이종수 | 법무부 서울소년원

은상

457 장마 _ 이용옥 | 문원초등학교

동상

493 모래성과 홀로서기 _ 현근우 | 강원 보길환경연구원



시 부 문

대상

로드킬 _ 전병호

은상

창문, 열다 _ 김용아

일감을 찾아서 _ 한규동

간이역 _ 이종덕

실러캔스 _ 정석교

동상

늪은 해나무의 기침 _ 이성호

오래된 의자 _ 박해술

김진국 _ 김일하

주말부부 _ 이우권

상가의 저녁 _ 김성욱

겨울 청대 밭에서 _ 박영식

무화과 _ 변우연

로드킬 (Road kill)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죽음들이
살점을 발라 부고(訃告)장을 쓴다
한 바퀴,
한 바퀴 돌 적마다 부서지는 슬픈 기억들

속도에 길들여진 아스팔트 위
어둠은 속도를 숨기고 몰려왔다
속도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몸을 관통하는 순간
도살장 어느 외로운 죽음처럼
비명조차도 내뱉을 수 없는 찰나
검은 어둠이 몸속 내장을 핏고 지나갔다

바람도 길을 따라 흐르는 곳에서
각을 세우는 일은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바람도 길을 따라 흐르는 길 위에서 바퀴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길가에서 들려오던 아이들 웃음이 이불속으로 눕고,
무서리 꽃으로 피어나던 새벽녘
자유공원 팔각정 아래
귀가 시간을 놓친 어느 노숙자의 죽음처럼
돌아가지 못한 사체위로
별빛이 흩어지고 안개가 내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을 만들고 길을 지우는 밤
고양이의 눈빛처럼 날카로운 속도는
길 위의 움직임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밝히고 밝혀도 아프지 않는 밤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체들이
살점을 발라 수만 통의 부고장을 쓴다
별빛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밤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들이여



인천중부경찰서
전 병 호

※ 로드킬(Road kill)-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사망한 것



바다는
하얀 파도를 앞세워
날이 저문 날에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도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 한 날에도
매일같이 몰려와 내게 안부를 묻고 사라집니다.

이제, 바다에 서지 않는 날에도
멀리서 파도 소리 들리는 듯
곶속에서 파도소리 철썩 철썩 들려옵니다.

먼 곳에서 밀려온 파도가
해안가에 닿으면
아버지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나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지난겨울 어느 노숙자의 외로운 죽음처럼,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의 사체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픔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안위를 물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신록이 푸르도록 우거지는 5월, 나에게 가족이 있어 행복한 계절입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심사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창문,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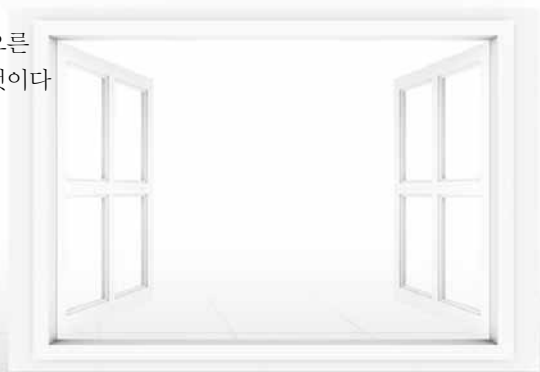
스물스물 어깨 넘어와
속눈썹 간질이는 한낮의 줄음
톡,
건드려 잠의 꿈지깃 하나 잡았다
놔줄까 말까
망설이는 틈 사이로
달아나려는 녀석을 놓쳤다

반쯤 남은 커피는
꽃샘추위 물러간 자리의 체온과 줄맞추느라
안간힘으로 식어가고
겨울을 활강하며 날아온 새
푸드득거리는 창문가엔
말간 소주처럼 차오르며 찰랑거리는 파란 하늘
사각으로 매달려있다

세상을 향해
가슴에 하나씩 매달아 둔 창문
열까 말까
망설이는 틈 사이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 새나온다
꽃눈에 새살 오르는 목련 나뭇가지처럼
실핏줄 같은 전선에 달뜬 전류가 흐르면
전원을 켜고
창문, 연다.
내일이면
온 세상과 소통하며 피어오른
평면의 목련꽃이 만개할 것이다



인천 인동초등학교
김 용 아





내다보면 길고 돌아보면 짧은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예쁜 추억 한 조각이 만들어졌네요. 행복한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시 쓰기’가 조금씩 내 삶에 말걸기를 작하면서, 마음의 벽에 빠져 나온 못을 빼버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무언가를 걸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시를 선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남편과 착하고 고운 아들 성휘, 성연이와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감을 찾아서

어머니가 쓰시던 브라더 재봉틀을
아파트 거실에 옮겨놓았다



서울 은평구
한 규 동

다리에 흠집이 있을 뿐 체온은 아직 따뜻했다
재봉틀 돌리던 페달에 끈끈한 윤활유가 아직 남아 있다
지금까지 손으로 가봉된 수많은 옷들이 거쳐 갔을,
재봉 바늘이 들락이던 구멍들과
지나온 시간에 나사들이 헐거워져 있다
저고리를 누비고 책상보를 누벼놓은 실밥이 모두 끊겼다
재봉틀 속에 조여진 바늘귀가 부러졌다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일을 재봉으로 누비며
業이란 業을 모두 지탱하던 다리는 아직은 든든하다
세월 속에 풀려가는 나사의 마디를 조이고
뽁뽁해진 구석에 재봉 기름을 쳤다
모두 비어있는 북에 새 색실을 감았다
장구 실패를 걸고 바늘구멍에 실을 끼우고
누벼지는 삶의 끝을 다시 잡고는
따뜻해진 재봉의 페달을 힘껏 밟는다.

오랜만에 소낙비 같은 재봉질 소리가
집안을 진동시키다
실밥 터진 바짓단의 상처들을
줄줄이 박아 놓은 어머니,
어느 날 바짓단이 모두 짧아진 내 바지





문학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것은 자아를 찾아 가는 길과 그 길을 가기 위해 심안(心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매일 새벽마다 신선한 풀을 베듯 써놓은 시어들을 쓰다 달다 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는 사랑하는 염소에게 감사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일상에서 물러 날 수밖에 없는 사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詩)로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다. 이제 무식덩어리라 할 수 밖에 없는 재봉틀에서 아직 식지 않은 어머니의 삶을 생각 했다. 줄줄이 누벼놓은 바지를 입으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다. 나에게는 그것마저도 행복한 시절이었다. 어버이날에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신다.

간이역

이제는 기차도 잘 서지 않는
간이역에 서서
빛바랜 시간표를 보면
출발시각이 지난 플랫폼처럼
비어있는 짧은 시간이 그립다.

때 없이 설레고 일 없이 아파하며
두근거리는 열정과 사랑에 잠을 잊었던
학창시절도 초임시절도
소실점 너무 아득히 멀어졌지만

스승의 가슴을 철길 삼아 나온 교단
우리의 가슴을 침목으로 놓은
철길을 밟고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갔으니
지난 서른 해는 보람이고 축복이었다.

종점으로 가는 시효 모를 기차표를 쥐고
짧은 사랑이 기적 울리며 떠난
간이역의 플랫폼에 서서
햇살 부서지는 철길을 본다.

철길이 아니고, 침목이 아니어도
나는 그저
침목을 고이는 한 개의 자갈이래도
내 가슴으로 지날
또 다른 기차를 기다릴 것이다.



왜관 중앙초등학교
이 종 덕



영산홍이 진 오월에 아카시아가 가득 피었다.

오늘이라는 간이역에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하여 여름이면 빈 교정에 배롱나무가 불타겠다.

창문을 열고 짙은 아카시아 향기를 가득 들인다.

실러캔스

아버지는 방안에서 물고기 화석 하나씩 빗어잡니다
 빛이 새지 않게 빗살 같은 그물로 채워놓고
 며칠 씩 비늘을 깎고 등뼈 세우는 날은
 등대가 보이는 지척에 띄워놓은 걸음
 어지럽지도 않은 물을 기억해 내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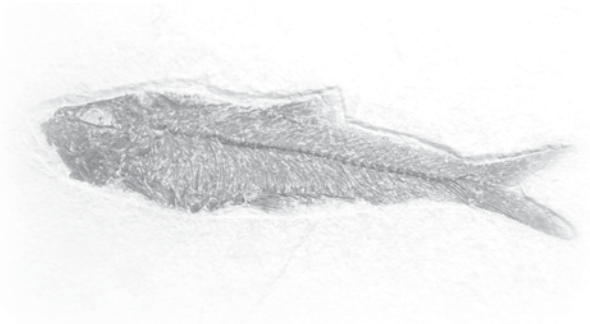
강원삼척시
정 석 교

소금꽃 피던 팔뚝 위 핏줄 도드라질 때 마다
 술을 드셔야 싱싱해진다며 평생 높이 세울 뜻은
 '그리움에 지쳐서……. 지쳐서……. 지쳐서…….'
 동백아가씨 노래 한 구절 감감하게 잊어버린 날
 바다와 거래한 내역이 하얗게 지워지고
 무너진 한숨은 파도보다 높아만 갑니다

바다만 바라보다 화석이 되어가도
 생선등뼈 가르느 방법 가르치지 않은 아버지
 부끄럽도록 하얀 밭살스러운 손으로
 싱싱한 바다 한 짐 안겨드리면 다시
 파도처럼 낭랑한 노랫소리 들을 수 있을까

어둠이 무섭게 몰아치는 바다 위
 띄워놓은 목선처럼 가벼워진 아버지의 몸
 봉창으로 간간 울리는 숨 가쁜 고래울음
 나직이 옆드려 스며드는 유리창마다
 바다를 품은 물고기 화석 하나씩 유명합니다
 불멸, 퍼렇게 곳곳한 어부라는 이름으로

※ 마다가스카르섬 및 코모로제도에서 현생하는 '살아있는 물고기 화석'





푸른 아침바다는 마음까지 다 비워버리고 가벼워진 하얀 파도만 간간이 갯바위를 안으려합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품고 가신 삶의 터전, 좀체 떠나보낼 수 없었던 마지막 손길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화석하나 새겨놓은 당신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십니다.
빈자리에 점점 더 깊은 그리움만 겹집해 있던 마음을 당신께 드리는 시로 슬픈 응어리들을 하나씩
풀어내립니다. 철쭉 같은 밤바다 위 희망 같은 등대 불빛처럼 말입니다.



울산 중부소방서
이 성 호

높은 해나무의 기침

나는 300년간 건천 금척마을 전설을 건지고 있는 터줏대감.
해수병에 짓눌려 때도 없이 마른기침을 해. 가슴팍 곳곳에 구멍이 뚫려 등
을 세우기 어려워 비스듬히 햇빛에 기대고 있어. 행한 가지 끝에 저녁노을이
머물다 가지. 읍내 의사들이 왕진 와서 외과수술을 받은 적도 있어. 지금도
입원 가료중이야. 한때, 내가 천개의 푸른 손을 펼쳐 까치, 곤줄박이들이 둥
지를 틀던 유아원이야. 땡벌에는 그늘을 넓게 깔아 동네 어른들 여름을 식히
고, 저녁에는 이야기꽃 두런두런 모기 불 따라 피워 오르던 경로당이야. 젊
은 시절, 방송 스피커를 짊어진 새벽중 울리던 새마을 방송국도 세들어 있
었어. 아랫말 박서방은 폐병 앓다 떠났고, 오방골 순이 방물장수와 눈 맞아
야반도주 동네소문, 나로부터 퍼져나갔지.

내 친구가 꽃상여를 타고 나타나면 구름 꽃 한 다발 안겨주었지.
잠깐 별리의 시간들 나눈 뒤 내 처진 손을 들어 가마를 배웅하기도 했지. 그
많은 단골손님 바람 속으로 떠났고, 몇몇 친구들은 집에서 가료중이야. 10
년 전에 중풍을 맞아 부엌이 한 마리만 앉아도 노구가 출렁거리지. 지금은
간직하고 있는 파끈한 심장도 없이 속이 텅 비어, 몸뚱이는 목어처럼 울지.
언젠가부터 내 가슴에 경로우대 이름표를 달고 있어. 나는 때도 없이 뜨거
운 기침을 해. 흠!

마을 앞 높은 해나무의 한 생애가
은빛 고요 속에 불타오르고 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
바람도 없고 말도 없다
허공의 울림을 내 원고지 갈피에 끼워 넣을 수 없을까
얼음보다 뜨거운, 용광로보다 더 붉은
오직 하나의 문장을 갖고 싶다

오래된 의자

구석진 교정의 벚나무
왜 저렇게 휘어졌는지
어린 날개를 파닥이는
연두색 이파리들은 모를 일이다.
이른 봄 꽃불을 지퍼
데워진 등지마다 재잘거리는 싹을 틔우는 일은
또 하나 나이테를 봉대처럼 허리에 감는 일.
꿈
무거운 하늘을 짊어지고 일어선 어깨가 꾸부정하다.
그래도 지게 위 목말을 태우듯
검게 탄 얼굴이 웃는다.

아이들 웃음
자잘한 발자국으로 흩어지면
정물처럼 비워져
다시 고쳐 앉을 수 없는
그늘이 깎아 만든 주름진 의자.
운동장 구석에 우두커니 놓여 있네.

기웃
교실 안 바라보며
세월의 뿌리까지
길게 기운 빈자리를
교실의 반듯한 의자는 모를 일이다.



부산 동평여자중학교

박 해 술



아주 작은 풀 한 포기도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변에서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풀밭이 한층 더 싱그러웠으면 합니다. 아내 이미화님에게 풀꽃 한 송이 바치고 싶습니다.

김진국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면회 가다
배롱나무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앉자마자 궁해지는 안부를 생각하다가
운동화 뒤축에 쓰인 '김진국'을 보다



울진소방서
김 일 하

추곡수매용 나락 가마니에
영주사과 로고가 찍힌 박스 생산자 칸에
매직으로 갈겨 쓴 '김진국'
푸르고 싱싱한 '김진국'을 내다 팔아
형은 대학을 갔고 누이는 먼서기와 연애를 했다

여섯 식구의 굵직한 제목이었던 '김진국'
시골집 마당에서 녹슬어 가는 경운기처럼
도무지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차츰 무게마저 덜어내고 있는
팔손의 노인을 싣고 허공을 비비고 있다
내내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배롱나무 가지를 꼭 물고 있는
일란성 꽃들
만장처럼 나부끼는 오후
그림자 하나가 다른 그림자에게 가고 있다



나무며 돌이며 풀, 꽃의 수작에 삶의 속도를 맡기는 시간이 많아졌다. 엄마 죽고 생긴 버릇이다. 내가 뺨먹은 등골에 바람이 들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아버지 꼭 붙잡고 도무지 잡히지 않는 시는 미친 짓이라며 걸돌던 시간에도 속죄하며 곧추 서야겠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뺨속까지 그리우면 시가 된다.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고자 했던 술한 날들, 고난의 행간을 그러모아 지금이 처음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

주말부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좋다
젊은 날 예고 없이 당신에게 다가간 것처럼
별걱 문을 열어도
어둠만이 깜짝 놀라 달아날 뿐이다

오늘도 기차를 타지 못했다

떠나지 못한 아쉬움과
아쉬운 만큼 뜨거운 가슴으로 포장밥을 데우고
며칠 째 앓아누운 김치와
마른 멸치 옆에 친구처럼 김 몇 장을 놓으며
여보 듬시다
내가 미처 사랑하지 못했던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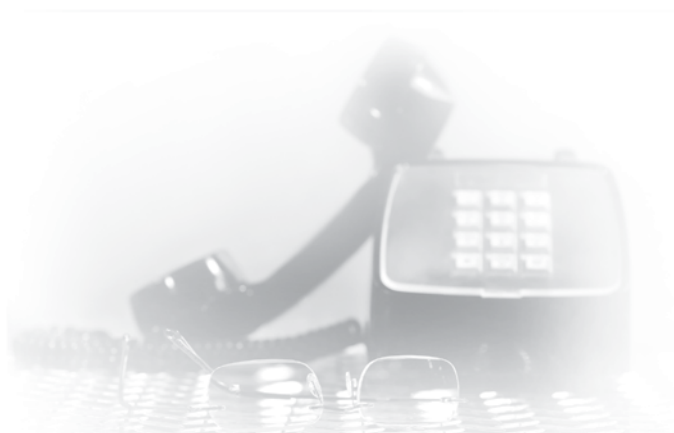
밥은 드셨나요?
전화기 속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손을 잡듯 수화기를 만지작거리면
그렇구나
안부는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것임을
목소리도 속살처럼 부릴 수 있음을
이제야 알게 해 준 당신

전화기 선 그 끝을 따라
오늘도 꼬불꼬불 기차가 가고 있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이 우 권





54세란 늦은 나이에 시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짓이 아님을 알았다. 그나마 주말부부의 애환을 이 말석 입상으로 위로 받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겁이 나기도 하고...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생각 좀 해 봐야겠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김 성 욱

喪家の 저녁 - 낙인

이튿날, 할아버지는 마당 한 귀퉁이에 시커먼 박달나무를 쓰다듬으며 몰래 하품을 하셨다 아버지는 아궁이를 뒤적뒤적 거리다가 불뚱이 튀었는지 얼굴을 감싸 쥐었다 기우뚱기우뚱, 삼촌은 하늘 높이 천막을 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알음알음 문지방을 넘어온 사람들 명석 위로 우르르 몰려다녔다 어린 나는 분주히 뛰어다녔고 간혹 술상이 화투판 위로 얹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생김새김의 그릇들이 기이한 무늬를 그리며 국진과 단풍처럼 붉었다 할아버지는 골방에 앉아 베어낸 박달나무로 묵묵히 도장을 파셨다 깊게 패인 골마다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妍臀연순, 보랏빛 고운 입술처럼 이름을 새긴 할머니는 아랫목에서 어찌나 곤히 주무시는지 나는 조심스레 박달나무 뚜껑을 열고 고운 입술연지를 찍어주었다

하얀 진눈깨비가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우선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움은 추억에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러하듯 세상 하나뿐인 외조모님을 추억에 안고 글을 쓰게 된 것이 심사위원분들의 共感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작의 기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유문학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뜻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며 자유롭게 글을 쓰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공무원문예대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청대 밭에서

NO. 1

쟁쟁한 하늘빛 외엔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눈 내린 거리
눈 내린 허허 별판에
수천 필 금바람이 달려오면
깨어나는 청대 숲이
섬처럼 떠서 흐른다

외로운 시대의 밤에도
불면을 다스리는 질척이는 빗소리
그 빗소리를 내기 위하여
부서지는 살점들로 불을 밝히며
언 땅에 발 묻고 여기 섰느니

마음도 견잡을 수 없는 적적한 날엔
사랑이여
겨울 청대 밭에 와
귀를 열어 보아라
곰은 뼈 하나 피리 깎아
젓대라도 비벼 물면
소망처럼 품은 금쪽같은 달덩이도 떠오르고
응어리진 저 천년의 한도 곱게 삭아져
눈물로 적서낸 시구(詩句)도 빛나는 것을

내 영혼은 걸코
일시에 시드는 풀포기나
방향(芳香)이 좋은 꽃나무가 아님을



남울산우체국
박 영 식

NO. 2

상쾌함으로 상쾌함으로

우유빛 감도는 일상

도타운 백자(白瓷)의 하얀 살결 속에

푸들대는 몸짓으로 은은하게 숨었다가

때로는

맑은 묵향으로 화선지 위에

뚝뚝 흰 눈발을 털며 푸드득 일어나

굴함이 없는 자의 착한 눈빛 그늘에

살아 있음을

질푸른 청대 잎가지를 비집고

일곱색 빛기둥을 세우는

건강한 아침

나의 노래는



격무에서 벗어나 정년퇴임을 한지 올해 유월이면 만 이년이 된다.

『몰라서 고생을 건디고, 몰라서 사랑을 하고, 몰라서 자식에 연연하고, 몰라서 열심히 살아온 것이 다.』라는 어느 소설가의 명문장이 절절히 가슴에 젖어들게 하는 나날이다. 앞으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 하지만 지치는 데까지 나아가리라. 어차피 한 생은 반환점 없는 마라톤에 불과 하니까.

무화과 (無花果)

저 무화과를 키우는 건
비린 갯바람

잡조름한 해풍을 먹고
통통하게 여물어 간다

어미의 젖꼭지 같은 무화과
누구에게 젖을 먹일까

어린 바람이 젖을 빨고 가면
거뭇거뭇 익어가는 젖꽃판
품안에 꽃잎을 한 가득 품고
젖이 차오르는 젖무덤들

바위에 부딪친 세찬 파도 소리에
초록열매는 자줏빛으로 물들어 가지만,
나무의 마디를 붙잡고도
꽃 한번 피워보지 못했다

계절의 푸른 발꿈치가 저만치 멀어져 간다



서울 마포소방서
변 우 연





짹조름한 바람 먹고 속으로 피어난 꽃 이란 화제를 붙여주고 싶었다.
문인회에서 그림을 완성한 후 통상 한문으로 발문이나, 화찬을 쓴다.
너무 번거로워 시를 배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순수한 우리것이
참 좋은 것이다. 특히 외국 전시에서 .



시 조 부 문

금상

해후 _ 송태준

은상

민들레의 노래 _ 이상윤

오대산 전나무숲 전상서 _ 이우식

동상

시간의 각질 _ 최성희

한라 청미래덩굴 _ 임태진

낙엽 _ 이규준

매화 _ 이성배

해후

한동안 못 본 지기
아침상에서 만난다

뒤란 바람벽을
맨몸으로 떨어 나온

거뭇한
얼굴 밑에서
파릇하니 돋는 유년

돌아서면 배고프던
겨우내 긴긴 한철

아침마다 끓여내어
물릴 만도 했었던

어머니
묵은 손맛이
목젖에 울컥 감긴다

얼었다간 풀리고
되얼어 수척해지는

한 주갑(周甲) 길을 돌아
또 한 맛을 곱삭히는

쟁여둔
세월 걸게 우려난
시래깃국을 넘긴다



통계청
송 태 준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퇴직 후 외로움과 자괴감으로 혼란스럽던 시기, 무작정 길 위에 나서 걷기로 심신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다시 마주한 시조, 사춘기의 가슴앓이를 노트 세권에 쏟아놓은 뒤 손을 놓은 시조를 근 50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남은 생애 붙잡고 갈 지기를 이제사 해후하는 심경이 기쁘고도 착잡합니다.

나이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선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은 고마움을 드리고, "나래 시조아카데미"에서 제 구닥다리 시조논을 새로 닦아 주신 권갑하 선생님 및 동문수학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늦깎이라 갈 길이 바쁩니다. 고향의 어른 백수 정완영 선생님만큼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몇 권의 시집을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희망을 품어 봅니다. 정진하겠습니다.

민들레의 노래

꿈은 늘 흰 손가락의 반지처럼 눈부셔서
때로는 거울도 두 눈을 깜빡이지만
해지면 밀물로 오는 먹장 같은 허상들

이것이 나의 길 나의 삶이라고
때로는 짐승처럼 때로는 벌레처럼
달리며 흠칫 놀라며 부대껴온 날들이여

우리의 고운 꿈은 어디에 있나요?
그날의 노래들은 어디로 흘러갔나요?
찬란히 빛나던 시는 어디 꼭꼭 숨었나요?

아무리 목을 빼도 불빛 하나 없는
이 캄캄한 절망의 땅 마지막 같은 시간들
울 힘도 견딜 눈물도 뿌리조차 말랐지만

그래도 봄은 온다고 봄은 올 것이라고
제 아픔 제가 덮으며 초록 잎 만들어
자꾸만 툭툭 터지는 슬픈 나의 몸, 몸!



대구 선원초등학교

이 상 윤



사람인 내가 생각해도,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다. 무언가 한 가지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좀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기가 어렵다.

시조가 무엇인지 그 묘미도 모르면서 눈길 주던 것이, 어느새 관심이 되어버렸다. 아직은 길이 멀지만, 언젠가는 그곳에 당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대산 전나무숲 前上書

거짓이 옷을 벗고 우두커니 섰습니다
서슬 푸른 회초리에 좋아릴 맛고 싶은
가슴팍 뻥한 모서리, 뭉클 하는 뉘우침

뻗속까지 저리도록 매서운 바람결에
서로 몸 비비다가 깨어난 바늘 잎새
마주한 벽을 딛고서 竿頭에 섰습니다

낮춤으로 일어서서 비움으로 채우며
무거운 침묵 끝에 사자후를 토해내는
목숨도 성큼 내던진 저토록 뜨거운 것

밤새워 길어 올린 한 모금 수액만큼
냉엄하게 솟구친 마지막 話頭 하나가
타오른 불덩이 되어 그 앞에 섰습니다.



강원 평창군
이 우 식





저의 응모작이 은상에 당선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대산 전나무숲을 거닐면 누구라도 시인이 되어 그윽한 시상에 젖게 됩니다. 허공을 전율시키며 내리꽃히는 無言의 말씀들이 죽비처럼 온몸을 서늘하게 할 때면 한 그루 높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자신을 마냥 뉘우치고만 싶어집니다.

시간의 각질

바람이 불 때마다 타래 풀린 햇살이
그대로 내려 앉아 굵어 버린 푸른 곡선
이제는 부를 수 없는 목젖만 붙어 있다

짜 맞춘 숨결들이 열기설기 널브러진
허영계 익어가며 부풀은 기억 거품
힘주어 잡았던 주름 한 줌 살로 내민다

끊기듯 이어오다 베인 통증 서글퍼
한 점 한 점 버터 있는 서리 내린 딱정이
오늘도 부서진 햇빛 그마저 내 줄 자리



별말 초등학교

최 성 희



시간이 주는 기쁨인지 세월을 수놓고 싶었는데 남은 것은 각질뿐인가? 각질. 그마저 소중한
있는 존재이리라 매일 등산하면서 본 소나무 하얀 표피를 보며 생각하며 글을 넣었다.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려본 내 마음이다.

한라 청미래덩굴

다 풀고 산다 해도
매듭은 남아 있다
두 어머니 빗장 걸고 등을 돌린 한 생애
설익은 그리움 품고 얼키설키 살았다

나이 들어 갈수록
자꾸만 얹히던 삶
가지가 많아서 말라버린 뿌리 한쪽
온 몸이 다 타들어오던 연기 한 점 못 피웠다

어릴 적 달빛 타고
그림자로 다녔던
살아생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아버지, 이승의 매듭 다 풀고 가셨는지

미움도 철이 들어
구름을 걷어내는 밤
파제한 제사상에 끼지 못한 촛불 하나
초가을 그리운 이름 빨강게 익어간다.



제주 동부소방서

임 태 진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7년, 어릴 적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름을 맘속으로 불러봅니다. 소방관 남편과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영광을 함께 합니다.

낙엽

땅속 깊이 묻어둔 생명 햇살이 머문 가지
인강 녹고 수액 돌아 새싹 되어 박히더니
어느 듯
회한이 되어
떨고 있는 잎새 하나

알몸으로 대면한 세상 비린내 나는 인간사
아픔의 깊이만큼 퇴색해 버린 가슴아
그래도
한줄 미련은
세상에 남겨두자

바람이 날을 세워 잠든 창을 흔드니
철지난 묵은 사념 파도 되어 다가선다
비워라,
묻어둔 씨앗
오는 봄은 재촉한다



고성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 규 준





사람은 어느 누구나 깊은 사연을 가슴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론 가슴 터질 듯 한 환희가 있는 반면, 때론 온 몸을 태워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형색색의 감정이 겹겹이 쌓여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밖으로 배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수단이 나에게는 글쓰기입니다. 글의 나의 분신이며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배설된 작품을 볼 때마다 사막에 알몸으로 홀로 서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습작에 불과한 미천한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화(梅花)

마르고 굵은 가지 기다림 걸어두고
겨우내 언 마음에 뜨거운 심지 태워
빙점(氷點)의 심장을 태워 피어나는 그리움

상처의 피멍울 색깔은 짙어지고
목마름 깊을수록 향기는 그윽하여
옹두리 묵은 슬픔도 꿀로 익는 꽃부리

삶이란 우듬지에 단 한 번의 꽃 피우기
북풍에 얼어붙고 한설에 꿀아 터진
섬진강 가슴을 밟고 건너야 할 빙판길

희망은 절망 속에 품고 있는 한 톨
만삭의 아픔으로 비늘잎을 찢어 피는
매화는 겨울의 뼈로 녹여 만든 꽃망을



향토예비군 장전1동대

이 성 배





저마다 가슴에 꿈 하나 피우는 것이 삶이라면 그 꿈은 어쩌면 춥고 목마른 겨울에 단단해질 것이다.
얼음의 뼈를 녹여 만든 꽃씨라야 척박한 세상에서 뿌리 깊이 내리고 열매 무성할 것이다. 그 꽃
피길 기다리며 힘들어도 살아가는 것이다.



수 필 부 문

금상

풍금소리와 함께 걷는 길 _ 이해경

은상

합창, 수형자 그리고 교도관 _ 최남득
국가대표, 내 삶의 날개 _ 박민정

동상

과일창수 아줌니 _ 이희태
깨진 유리창 _ 강동규
설산의 풍광 _ 배진철
그들의 아름다운 변신 _ 윤현봉
사형수의 부활 _ 장현덕
오늘만 같아라 _ 박성희



성남 송현초등학교
이혜경

풍금 소리와 함께 걷는 길

또 다시 듣고 싶다.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는 그 소중한 선물. 나의 우상이었던 선생님의 그 풍금소리를.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준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풍금을 치시며, 내게 손짓을 하신다.

-본문 중에서-



풍금 소리와 함께 걷는 길

40여년이 흐른 오래전 그해, 낡은 목조 건물 안에서 은은히 들려오던 풍금소리가 있었다.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한 작은 초등학교, 그 곳에서 들려오던 풍금소리는 시골 마을에 너울너울 퍼져 나갔다.

나는 풍금소리가 좋았다. 사랑의 소리가 되어 나를 감싸는 그 풍금소리가 나는 참으로 좋았다. 그 고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두둥실 춤을 추었고, 아픔도 어둠도 다 잊히는 감동을 맛보곤 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부모님은 새벽부터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일만 하셨고 깜깜한 밤에야 쓰러질듯 휘적휘적 들어오셨다. 그리고는 보리밥 한 술 뜨자마자 금방 쓰러져 잠에 폴아 떨어지곤 했다.

그런 집에서 나는 외로웠고 쓸쓸했고 자꾸만 눈물이 났다.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울어대는 세 동생들을 돌보면서 아홉 살 어린 나는 일찌감치 철이 들어야 했다.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어린 내 하루는 아픔이었기에, 학교만이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주는 곳이었다. 풍금소리가 들리던 그 학교만이.

초등학교 3학년이 반쯤 지나고 가을이 오던 날, 풍금을 유난히

도 잘 치신다는 소문을 안고 김남지 선생님이 우리 학교로 오셨다. 풍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선생님이 새 담임 선생님이 된 첫날, 나는 많은 실망을 했다. 검정 빨테 안경을 끼고 남자처럼 큰 몸집에 투박한 손을 가진 선생님의 모습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선생님의 별명은 남지라는 이름에서 따온 ‘남자’로 불렸다.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나가면

“야, 남자 온다. 아저씨다. 헤~헤…….”

진짜 남자같이 생겼다.”

하면서 선생님의 남성스런 외모와 이름을 가지고 찡고 까불어댔다. 선생님의 웃음소리는 정말 남자처럼 크고 우렁창고 성격 또한 화통하여 무척 재미가 있으셨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선생님의 풍금소리를 듣게 되었다. 선생님은 정말로 풍금을 잘 치셨다. 그 크고 두텁게 생긴 손에 건반이 닿으면 곱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퍼져 나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선생님의 손에 닿으면 풍금은 요술을 부리듯 환상의 세계로 나를 잡아 이끌었다.

“손은 꼭 남자 같은데 풍금은 무지 잘 친다. 그치?”

우리들은 모이면 선생님의 풍금소리를 이야기 했고, 학교에서 가장 풍금을 잘 치는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신이 났다.

시간이 흐르고 선생님과 한 달 두 달 생활하면서, 선생님은 내 여린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풍금소리와 함께 내 우상이 되어갔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고, 특이한 웃음소리를 가진 재미있는 선생님이 나는 참으로 좋았다.

그 해 겨울 국어 수업시간, 눈에 관한 동시를 공부하던 날이었다. 동시는 아름다웠고 그날따라 창밖엔 하얀 눈이 나풀거리고 있었다.

동시를 읽어 나가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눈을 지그시 감고 마냥 빠져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 동시를 읽어 볼 사람?”

하시며 교실 사이사이를 오가셨다. 아무도 손을 못 들고 가만히 눈치만 보면서 가슴을 졸이는데, 선생님은 대뜸

“글 잘 쓰는 혜경아, 이 동시 잘 읽을 수 있겠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미적미적 자리에서 일어났고, 떨리는 음성으로 동시를 읽어 나갔다. 꺾가엔 낮은 목소리가 웅웅거리고 쿵닥거리는 심장소리는 유난히도 크게 들려왔다.

시간이 흐르고 책을 내려놓은 내가 붉어진 얼굴을 들어보니, 선생님은 활짝 웃는 모습으로 힘찬 박수를 치고 계셨다.

“세상에, 너 시낭송 나가도 되겠다. 어쩜 그리 동시를 잘 읽니? 우리 혜경이 대단하구나.”

선생님의 그 칭찬에 내 붉어진 얼굴은 빨간 홍시가 되었고, 친구들은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후로 동시를 너무도 좋아하게 되었다. 일기장엔 긴 글 대신 내 마음을 대신하는 동시 일기가 써 졌고, 시인을 꿈꾸며 먼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틈만 나면 동시를 지어보고 내가 지은 동시를 벗을 부려 읽는 것 또한 내 또 다른 취미가 되었다.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고 4학년이 되던 날, 김남지 선생님은 또 다시 내 담임 선생님이 되셨다. 어찌나 좋던지 집을 향해 뛰어

가다가 난간 없던 좁은 다리위에서 그만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아직은 춥고 쌀쌀하기만 한 3월의 그날, 젖은 옷을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이 이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바라보았다. 김남지 선생님이 다시 내 선생님이 된 것이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도 기쁘기만 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동시 네가 직접 지은거니?”

나는 선생님 앞에 놓인 내 일기장을 보면서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에서 흙과 바람을 맞아 거칠고 다 터버린 손이 부끄러워 자꾸만 숨기는데, 선생님은 내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다.

“좋은 시구나. 정말 예쁜 시야. 선생님도 놀랐어. 우리 혜경이는 예의도 바르고 글도 잘 쓰고 동시도 잘 짓고, 낭송도 잘 하고……. 대견하다. 우리 딸.”

나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웃으시던 선생님의 그 깊고 따스한 눈과, 나를 딸이라 부르던 선생님의 그 다정한 목소리 때문에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알 수 없는 서러움 속에서 오랫동안 껍껍 거려야 했다.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 날 선생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가난했던 우리 집, 만이로 태어나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던 어린 내게 선생님은 위안이었고 기쁨이었다.

선생님 앞에만 서면 가슴이 설레었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수 없이 생각하면서도, 일에 찌든 불쌍한 엄마를 보면 죄스런 눈물이 흘러 나왔다.

검정고무신 신고 어수선했던 머리를 나풀거리며 학교에 뛰어가

면, 선생님은 환한 웃음으로 나를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때로는 고운 색깔 무지개 끈으로 머리를 곱게 땡아 묶어 주시며, 예쁘다고 웃어주셨다.

3,4학년 두 해를 선생님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꼭 선생님 닮은 사람이 되어 나처럼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리라 결심했다.

선생님처럼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리라. 사랑이 넘치면서 품음을 잘 치는 그런 멋쟁이 선생님이 되리라.

그렇게 나는 선생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성장했다. 그리고 학창시절 내내 글 쓰는 것을 참으로 행복해 하다가, 이렇게 아이들 앞에 서게 되었다.

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간들이 소중하고, 내 그림자를 밟으며 따라오는 아이들이 참으로 사랑스럽다.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색들을 채색해가는 나날들이 감격스럽다. 때 묻지 않은 맑은 웃음을 매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새싹들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란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때론 가슴이 벅차오른다.

선생님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아름다운 봄날이다. 연둣빛 색으로 윙윙히 물들어 가는 신비롭고 소중한 생명체들을 가슴에 안아본다.

나는 오늘, 봄 향기 그윽한 창가에 서서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풍금소리를 듣는다. 아련히 들려오는 선생님의 그 풍금소리는 슬프고도 감동스런 그 시절 속으로 달음질치게 한다.

또 다시 듣고 싶다.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는 그 소중한 선물. 나의 우상이었던 선생님의 그 풍금소리를.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준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풍금을 치시며, 내게 손짓을 하신다.

덧없는 세월이 흘러가면 어느 날, 나는 김남지 선생님을 만날 것이다. 선생님을 만나는 날, 그 파스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어리광부리듯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잘했다.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참 잘했다. 내 딸아.’

하시며 그 크고 파스한 손으로 나를 안아주실까.

그 날이 오면 선생님의 파스한 손을 잡고 꽃향기 가득한 들길을, 풍금소리 울려 퍼지는 천상의 거리를 함께 도란도란 걸어가리라.

‘선생님, 선생님의 그 길을 저도 따라 걷고 있어요.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선생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은 시골 아이였던 내게 물으셨다. 꿈이 뭐니? 아득해지는 머릿 속에서 문득 선생님이 칭찬하신 내 일기장이 떠올랐다. 순간적으로 '소설가....요'라고 얼버무렸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어린 시절 막연히 내 밝은 그 말을 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 깊숙이 파고들어 나를 애타게 하곤 했다. 갑자기 찾아오는 열병처럼.

1984년 대학 공모전에서 단편소설 '그림자'가 당선되면서 나는 국어과 교수님의 따스한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고, 문인의 길을 꼭 걸으라는 말을 뇌리 속에 심게 되었다. 그 씨가 싹이 트고 생명을 뿜을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썼지만, 내 길은 막힌 듯 어렵고 힘들기만 했다. 내 꿈은 더 높은 이상을 향해 손을 흔든다. 나를 뒤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본다.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나를 심사위원님들은 어떤 갈망으로 보셨는지도 모르겠다. 아쉽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내 채워지지 않는 글을 선택 뽑아주시고 그 아량이 그저 고맙고 무겁기만 하다. 힘을 내 본다. 항상 시도해 보고 해 낼 수 있을 것 같은 내 열망 속에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는 듯하다.

글을 통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다. 홀로 걷는 길을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다. 내가 걷는 길에 항상 함께 해 주는 내 안의 속삭임들. 이젠 그 것들을 세상 앞에 당당히 내세우고 싶다는 고뇌가 새록이 솟아난다.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멀고 두렵고 까마득하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를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내 디더 본다. 감사하고 고맙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항교도소
최 남 득

합창, 수행자 그리고 교도관 ("음악이 사람을 바꾼다!")

합창단의 창단 과정부터 감동적인 공연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교도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그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닌 오직 교도관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본문 중에서-



합창, 수형자 그리고 교도관 ("음악이 사람을 바꾼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 변화의 계기를 찾기도 한다. 2010년 11월 초 KBS예능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 합창단”이 세간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세상과 동떨어진 이곳 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도 남성수형자들로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 번 추진해 봅시다.”

라는 말에 담장 안은 술렁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교도소에 합창단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신 분이 바로 교정본부에서 근무하다가 포항교도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젊고 패기 넘치는 초임 소장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합창단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은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창단계획도 수립되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 막연한 시작과 수형자로 구성된 합창단을 누가 지휘하려고 할지 등의 고민

과 수형자로 구성된 합창단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다.

하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던가? 포항교도소 인근 마을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는 서울국립음악합창단 출신의 지휘자 선생님을 시작으로 보컬트레이너 선생님 그리고 반주자 선생님의 섭외에 성공하면서 우려의 시선도 긍정의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음악은 시작에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얼마 뒤인 2010년 11월 23일 합창단원이 되겠다고 신청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이 열렸고, 몇 주 뒤인 12월 9일 오디션을 통해 남성수형자 31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비로소, 함께 어울려 보자는 의미의 “어울림합창단”을 창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창단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초보합창단은 조금 틀리거나, 약간 어려우면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보다는 동료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잊혀져가고 있는 사람들, 깊은 마음의 상처로 더욱 더 깊은 구렁텅이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져 보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 겉으로는 강한 척 무서운 척 하지만 사실은 작은 마음의 상처 하나 건드리며 금세 눈물부터 보이는 상처뿐인 사람들을 모아 합창단을 창단했으니 어쩌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代價)인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동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스레 하나가 되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하나가 되는 법을 알게 된 그들은 2011년 5월 30일 창단 6개월을 맞아 첫 정기공연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날 공연에는 당시 대구지방교정청장과 교정위원 등 교정참여인사, 포항 교도소 인근 학천리 마을 주민, 그리고 합창단원의 가족 등 300여명의 외부인사와 KBS, MBC 텔레비전과 라디오 취재팀, 극동 라디오방송, 경북매일신문사 등 언론사의 취재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연 시작 전 리허설 무대에서 합창단원들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눈빛으로 박자를 맞추는 모습에선 예전 불협화음(不協和音)을 내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격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해내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합창단의 공연은 시작되었고 슈베르트의 보리수, 마법의 성, 사냥꾼의 합창, 향수 등 주옥같은 곡을 완벽히 소화 해내며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곡인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곡이 울려 퍼지자 공연

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여기저기서 울먹인 목소리로 “앵콜, 앵콜”을 외치는가 하면 휘파람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다시 한 번 “사랑으로”라는 곡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감동에 복받치는 목소리로 함께 부르며 공연장을 일순간 감동의 눈물바다를 만들기도 했었다.

모든 공연 순서가 마무리 되고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 한 합창단원의 누나는 옆에서 같이 공연을 지켜보던 교도관이 공연이 어땠냐고 묻자 젖은 눈시울로 무대 위의 동생을 바라보며

“그동안 동생이 밋고 창피해서 면회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공연을 한다는 초청장을 받고도 올까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동생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라며 연신 눈물을 흘리며 같이 자리한 교도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다.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 또한 눈물과 감동의 현장을 함께하며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다. ‘가수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며 이들을 거위에 비유했다. 어쩌면 첫 공연이 있기 6개월 전 이들은 꿈을 꾸는 거위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포항교도소 거위들은 더 이상 꿈만 꾸지 않는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날개 짓은 공연 6개월 전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리고 더 큰 무대를 향한 어울림합창단의 노

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세상의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합창이라는 음악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이야기 하고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음악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음악은 사람을 바꾼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수형자들을 노래할 수 있도록 했고 지휘자 선생님과 보컬선생님 그리고 반주자 선생님, 합창단원 모두 하나가 되어 불협화음(不協和音)을 아름다운 선율로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들이 첫 공연을 준비하면서 설레어 할 때 우리 교도관도 함께 설레어 했으며, 그들이 무대에 올라 긴장할 때 우리도 함께 긴장했고, 그들이 아름다운 공연을 마무리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교도관은 애써 눈물을 감추며 그들을 격려했다.

벌써 일 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감동이 잔잔히 물결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십여 년의 시간을 교도관으로 살아오면서 ‘교도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합창단의 창단 과정부터 감동적인 공연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교도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그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닌 오직 교도관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교도소와 교도관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며, 올바르게 평가되고 소개되기 보다는 폄하되고 왜곡된 이미지로 소개되어 왔다. 때문에 교도관은 한순간 범죄로 인해 세상과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고 세상의 끝자락에서 외롭게 서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숭고한 소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평가절하(平價切下)되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언젠가 교도관이 하는 일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그로 인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도관이 더 힘을 낼 수 있다면 그래서 더욱 많은 수형자들의 마음을 변화 시킬 수 있다면 재범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먼저 제15회 공무원문예대전에서 “합창, 수형자 그리고 교도관”이라는 제목으로 수필 부문 은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상 이후 많은 직장 동료 분들의 축하 인사는 물론이고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않던 분들의 축하 인사에 일일이 답하느라 일주일간을 정신없이 보낸 기억이 납니다.

12년 여를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으로 살아오면서 “교도관이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세상 사람들은 교도관에 대해 어떻게 알고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무원문예대전은 교도관에 대해 바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拙作(拙作)을 접수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쓴것이 아니라 미약하지만 교도관으로 살아온 제 자신의 경험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드라마나 영화, 언론에서 왜곡·편파되고 있는 교도관의 이미지를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람을 바꾸는 일, 그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도관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拙작은 합창이라는 음악적 소재를 통해 수형자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합창단원인 수형자 그리고 합창단을 이끌어준 지휘자, 반주자, 보컬트레이너 그리고 교도관입니다. 수형자들이 변화하기까지 그 시간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인내하며 그들이 무대 위에서 갈채를 받을 때 무대 아래서 감동의 눈물을 삼킨 사람 또한 교도관이었습니다. 사회의 끝자락에서 마지막까지 믿어주며 이끌어주었던 사람, 바로 교도관었습니다. 이글을 통해 교도관이 하는 일 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울러, 포항교도소 어울림합창단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지휘자 김예린 선생님, 반주자 황명지 선생님, 보컬트레이너 서상욱 선생님 그리고 어울림합창단을 담당해온 이승진 교위님과 당시 포항 교도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합창단 창단을 제언하신 법무부 교정본부 신용해 서기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포항교도소 모든 직원여러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곽민정

국가대표, 내 삶의 날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금메달리스트’라는 자신감이 스스로를 보듬고 있다. 세상을 향해 차오르고 싶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에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은 내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걸음 내딛으며,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내가 되고 싶을 뿐이다.

-본문 중에서-

국가대표, 내 삶의 날개

세상 밖으로 날고 싶었던 것일까? 저 산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난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께 교실에 울리는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날개만 있다면’이라는 노래라고 제목을 알려 주셨다. 내친김에 가사까지 적어주셨는데 그 가사가 나에게 예사롭지 않았다. 세상은 넓기만 하다는데 나의 자리는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 했다. 나에게 무엇이 날개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런 바람은 어느 날 불현듯 내게 현실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한 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으려 애쓴 날들. 그런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 세상 밖으로 비상하는, 아니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나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언론사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기자의 취재원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던 일이 말이다.

기자는 천천히 입을 열어 물었다. “언제부터 청각장애인이 되었나요?” 아마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던 물음이기에 익숙하게 대답 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3살 때 열병이 생

겨 항생제를 처방 받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는 뭔가 작심한 듯 질문을 던졌다.

“듣지 못하는데 말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분명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저의 배를 누르면 아~ 라는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기자였기에

“제가 하는 말을 수화통역사를 보지 않고 대답하시네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죠?”

라고 다시 물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목에 손을 대고 입술을 보며 말을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입모양을 크고 천천히 말해주신다면 소리를 듣지 못해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 장래 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꿈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나. 이런 나에게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내는 게 가장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실업계 고교 졸업 시절이었다. 친구들은 취업해 학교를 떠나갔지만 내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손길은 없었다. 하늘을 원망하고 인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탓하던 날들을 보내다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찾아가게 되었다. 청각장애인을 원하는 회사를 찾아 박람회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던 중에 웹 디자이너를 원하는 회

사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아쉽게도 회사 관계자는 지체장애인만을 채용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한 달이라도 시범삼아 일을 시켜 달라고 애원을 했다. 그 절박한 마음이 회사 관계자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웹 디자이너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을 보낸 뒤 청각장애인 복지관 청음회관의 컴퓨터 강사로 일했다.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자격증을 따게 하며 각종 컴퓨터 대회에 출전하도록 했다. 다행히도 출전한 수강생들은 많은 메달을 수상해 보람을 느끼게 했다. 물론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최하는 장애인기능대회에 참가한 수강생들이 모두 탈락한 일도 있었다. 다른 대회에서는 1위를 수상한 학생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다. 다른 대회와의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탓이었다.

이때부터 내 안에 숨어 있던 승부욕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지방 장애인 기능대회에서부터 국제 대회까지 어떤 대회든 출전하기만 하면 1위를 휩쓰는 나를 꿈꿨다. 나의 탁월한 실력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혹시라도 떨어지면 창피할거란 고민은 하지도 않았다. 수강생들 가운데 정예 멤버를 모아 교육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했다. 자만의 대가였을까. 다행히 수상은 하였지만 결과는 2등이었다. 거기에서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해가 바뀌어 재도전했다. 또 다시 2등이었다. 지방대회 2위 수상자에게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웹 디자이너 경력에 현직 컴퓨터 강사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충격은 작지 않았다.

당시 내가 두려웠던 것은 1등을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계속 되는 실패로 인해 앞으로의 모든 대회를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도전하는 내가 아니라 소심한 나로 살게 될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안 되면 되게 한다.’는 마음가짐.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것조차 도전하며 희열을 느낀 내가 아니었던가. 세상의 중심에 다다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틴 날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내가 연속되는 몇 번의 좌절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쾌활하고 도전적인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려 보았다.

후~ 파~, 휴지를 불면서 소리를 내고, 배를 누르면서 아~ 소리를 내던 모습이 기억난다. 3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반복했던 행동이다. 정확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잘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던 훈련이었다.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던 것은 말소리 훈련만이 아니었다.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선입견,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반응은 아무리 되풀이 되어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일에 상처를 받아 마음을 닫고 대화를 회피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굴복할 것 같을 때마다 끊임없이 책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 했던 것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되었다.

심기일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일단 지방기능대회 1위라는 하나의 목표를 정했다.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

었다. 무더운 여름날 땀과 사투를 벌이며 매달렸건만 정체된 실력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고진감래. 그런 날들이 결실을 거둔 덕분인지 지방대회에 1위를 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참가한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해서인지 처음부터 실수의 연속이었고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결국 한 페이지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실격으로 경기를 마감하게 되었다. 더 이상 기능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이젠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사실 포기를 했었다.

그런데 전화위복의 계기가 찾아왔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자고 생각했다. 대회의 공지도 뜨기 전부터 준비에 돌입했다. 세상 삶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면, 내가 계속 실패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두 눈을 감고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바람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신과 같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나를 초월한 거대한 지혜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내가 있었을 뿐이다.

때로는 슬픔이 힘이 된다고 했던가. 쓰디쓴 실패의 순간이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회의 날에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맥없이 무너진 내가 있었는데... 내가 거듭된 좌절로 인해 기력을 잃고 있을 때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었다. 대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을 때 홀가분하게 대회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 스스로의 도전

에 대한 의미도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보답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서울지방기능대회 금메달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국가대표라는 한국 대표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내 인생에서 장대한 기간의 도전 끝에 맞본 승리였다.

나에게 해외여행이라는 상을 주자고 생각했다. 마침 남편과 동시에 정리해고된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 남편과 같이 5개월 동안 아시아 여행을 떠난 건 커다란 경험이자 배움이었다.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새로움을 탐닉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배우며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참으로 즐거웠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를 발견해나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특히 세계의 DEAF들을 만나 각국의 청각 장애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스스로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 국가대표(I'm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bilympics in Korea.)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때의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능인으로 우뚝 서야 했다. 귀국 후 세계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를 위한 100일 동안의 국가대표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장애인고용공단은 합숙훈련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람이 없도록 챙겨주었다. 옷옷의 가슴팍에 붙은 태극기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국가대표로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웬지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합숙훈련 동안 내게 요구하는 것은 성실한 훈련이었다. 그것만이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합숙훈련 입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충실히 훈련하였다.

마침내 세계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막되고 나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너무 긴장되어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버렸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지는지, 이게 마지막 도전인데 계속 이러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헤어나지 못했다. 2년 전처럼 결국 기권하는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동안 밤낮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찌자는 것일까. 이제 다 됐다 하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다시 올 수 없는 4년이라는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번쩍 정신이 들었다. 천천히 하지만 아주 깊게 심호흡을 했다. 까딱까딱. 목을 돌리고 손목을 풀며 긴장감을 해소한 후 다시 시작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경기의 과제를 모두 끝낸 상황이었고 경기 시간은 1시간이나 남았다. 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후련함을 느낄 새도 없이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다음날 새벽 축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는데 실감나지 않아 이내 다시 끓아 떨어지고 말았다. 늦은 아침을 먹는데 다른 선수들이 한목소리로 축하해 주었다. 그 순간 감정이 복받쳐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실컷 차오른 눈물을 토해낸 뒤에야 금메달 획득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힘겨웠던 날들과 도와준 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청각장애인인 나는 2011년 9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한국대표팀 웹

마스터 부문 금메달리스트다.

이런 일들을 겹경사라고 해야 할까. 실격과 해고라는 겹 불행
을 뚫고도 남을 경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청와대 경호처 웹마스터’로 채용되었을 때, 합격을 예상하지 못해 무척 놀랐다. 기쁘지만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웠다. 임명장을 받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한다.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웹마스터가 되고
자 합니다. 폭넓은 분야의 책을 읽어나가며 열심히 배우고 연구
하는 웹마스터로 당당히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웹마스터로서 충실히 업무를 해나가고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곽민정 선생님, 선생님 차례입니다.”

다른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연단에 올랐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금메달리스트’라는 자신감이 스스로를 보듬고 있다. 세상을 향해 차오르고 싶었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에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설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은 내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한걸음 내딛으며,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내가 되고 싶을 뿐이다.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다음 생에서는 청각장애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고 제 스스로가 자랑스롭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청각장애인이라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꾸

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저와 모두를 위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질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시련이 있을 테지만,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꿈은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거든요.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내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행복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희열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꿈을 찾고 공부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은 분명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제게 있어 2012년은 운수대통인 한해 인 것 같습니다. 세계장애인기능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후 대통령실 경호처에 입사를 하고 공무원 문예대전에서 은상 수상과 더불어 뱃속에 아기까지 품고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이 희 태

라일장수 아줌마

그날 이후, 나는 선입관이 가져다주는 친숙함과 거리감이 그렇게 하나로 뒤섞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한 삶이란 나 이외의 것들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었다. -본문 중에서-



과일장수 아줌나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쩌면 일상 생활의 무료함과 매일 민원인과 마주보며 생겨났던 선입관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박맞은 여인처럼 가련해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 사나운 영감처럼 심술궂게 보였다. 이런 생각은 늘 그림자 같이 따라다녔다.

대화를 나누며 표정의 변화를 살피는데 더 신경이 쓰였고, 입술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쫓긋 세우고는 했다. 이런 모습은 신중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모질게 보일 수도 있었다.

막 커피한잔을 마시려던 나른한 오후였다. 둥근 얼굴에 허드레 바지를 입은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몹시 화가 나있었는지 아니면 바쁘게 걸어와서 그런지 뺨이 불그스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옷매무새를 보니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늦은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오신 모양이었다. 서두르는 발걸음이 그걸 증명해 주는 듯 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이런 저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엄밀히 말하자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외모만큼이나 풍성한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인사말이 들려왔다. 도시에서 아직 사투리를 쓰는걸 보면 적어도 학창시절만큼은 시골에서 보낸 듯 했다. 일단 고향사람이라는 안도감에 한숨이 놓였다.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적대적인 감정은 쉽게 드러내지 못했기에 나도 가끔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스케치 해나갔다.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중도매인이라는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매월 일정금액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다.

좁은 바닥에 수십 개의 상점이 몰려있다 보니,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물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웠음은 자명했다.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 영업정지 처분

을 받고 말았다.

의견진술을 통해 약간의 손해만 감수하게 되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복 받치는 감정에 의해 사태를 그 지경으로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상담하는 내내 목소리가 너무 컸을 뿐 더러, 위반사실이 명백하니 뭐라 도움을 줄만한 말도 없었다. 이제는 설득의 문제였다. 그런데 설득이란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칫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이럴 때는 녹음기처럼 위원회에 보고서를 잘 써서 올리겠다는 말로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그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불그스레한 얼굴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말투로 보아 감정은 많이 수그러진 듯 했다.

상담을 하고나면, 보통 두어 달 이나 지난 후에야 열리는 위원회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잊혀가는 듯 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인들이 또 오고 갔다. 억박지르는 사람, 눈치부터 보는 사람, 변호사를 대동하여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사람,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을 드러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법 귀에 익숙한 충청도 사투리가 들려왔다. 반쯤 섞인 사투리 억양은 매우 독특해서 달포 전에 상담했

던 시장 상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열 서너 살 남짓 보이는 사내아이가 옆에 서있었다.

요즘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말부터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지난번에는 큰소리를 내어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십여 년 전 혼자된 이후로는 오직 늦둥이 자식 하나만 믿고 모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속삭이듯 울먹였다.

고향을 떠나 안 해본일 없이 억척같이 돈을 모아 이제 겨우 가게 한 칸을 마련했는데, 두어 달 영업을 못하게 되면 살길이 막막하다며 채 말을 잊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도 사내아이는 사무실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다가 훌쩍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고는 했다. 철이 들었을 만한 나이에 보이는 그런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고 장사를 하는 분이라 그런지 그런 분위기를 금세 알아차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우리 머슴애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오늘은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고 보니 눈빛이 조금은 달랐다. 아무 표정 없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우수에 잠겨있는 듯도 보였다. 그 아주머니가 그런 이야기만 안했어도 그저 철이 없는 외동아들의 모습인 줄만 알았을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될수록 그 분의 아픔은 애뜻한 슬픔이 되어 다가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열정이 이분을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문득 나를 돌아보았다. 직장 생활에 안주한 이후로는 나는 어떤 열정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열정을 바꾸는 것은 세월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그런 마음이 부끄러웠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 보고서에 매달렸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겨가며 그렇게 공을 들여 작성해 보기는 손에 헤아릴 정도였다. 이제는 위원회의 결정만 남아 있었다.

늘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것처럼 결과를 기다려 본 적은 없었다. 열정의 힘이란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데에서 샘 솟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았다.

몇 주가 더 흐르고 위원회가 열렸다. 아주머니는 무안하게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 왔다. 그리고 차분한 답변에 좋은 결과가 기대되었지만, 허망하게도 법률적인 해석이 우선 될 수밖에 없다는 위원들의 논리에 그분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주머니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내가 무관심하게 대했

더라면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결과로
 소박한 가정을 꿈꾸는 한 어머니가 삶을 포기하지나 않을까 서
 글썸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적이 없는 서투른 마음의 기도를 올렸
 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문구를
 떠올렸다. 기도문인지는 몰라도 신앙이 없는 내가 기억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었다. 한순간 모든 것이 그 안에 갇
 혀 있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선입관이 가져다주는 친숙함과 거리감이 그
 령게 하나로 뒤섞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한 삶이란
 나 이외의 것들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
 할 수 있었다.

어느덧 사무실 창문 밖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멀리 어
 둠에 휩싸인 가로등은 우수에 잠긴 아이의 눈빛처럼, 불그스레
 한 아주머니의 뺨처럼 그저 윤곽만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제는 희미해졌지만 나는 그 모습을 그 해 늦가을이 다 가도록 잊
 지 못했다.



어느 작가의 표현처럼, 글을 쓴다는 건 타인 앞에 알몸을 드러내는 느낌 그대로인 것 같다. 가슴속 깊이 몰래 숨겨둔 비밀일기장을 들켜버린 느낌이랄까.

괜스레, 비오는 골목길에 수줍게 피어있던 채송화가 떠오른다. 학창시절 토요일 오후의 공허함을 달래주었던 그 많은 꽃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이제 세월의 나이테 옆에 앉아 그 공허함을 함께 나누어온 소중한 친구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



춘천경찰서
강 동 규

깨진 유리창

질서와 안전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창틀처럼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유리창’이기 때문이다. 수족관의 유리창이 깨지면, 물고기는 바닥에서 파닥거리며 죽어간다. 이러하듯, 깨진 금은방 진열창, 깨진 거울, 깨진 맥주 병, 깨진 탁자유리를 보면 빨간 피, 검은 명, 붉은 상처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본문 중에서-



깨진 유리창

거리의 가로등과 빌딩의 전등이 하나 둘 켜지고, 퇴근길 차량들도 미등을 켜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저마다 등지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같이 평화로운 밤을 바란다. 오늘은 야간근무다. 내가 불침번으로 내 구역을 지키는 날이다. 시민이 불평 없이 ‘아름다운 꿈’을 꾸게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은 신고 사건이 가장 많은 토요일 밤이기도 하다. 시민의 ‘토요일의 밤의 열기’ 때문이리라. 나는 그들의 열기도 지켜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장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고지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야광 외근조끼를 입고, 무기고에서 권총을 꺼내고, 경봉을 차는 등.

이제 순찰차를 탄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색 불빛들이 밝힌 도시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순찰차는 우체국 뒤쪽 언덕 재개발지역으로 향했다. 재개발지역은 ‘우선점검’ 구역이다. 10여 채의 가옥 주인들이 보상에 불만을 품고 퇴거하지 않아 빈 집으로 남아 있다. 빈 집들은 대문이 없고, 창문은 열려 있다. 이른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지역’이다. 밤이 되면 누군가가 집에 들어가 술을 먹고 불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빈 집을 철거할 때까지 순찰을 계속 돌아야 한다.

주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는 도난현장으로 갔다. 남자는 부인의 출산 때문에 며칠간 집을 비웠는데, 도둑이

창문으로 들어와 자기 아내의 진주귀걸이를 훔쳤다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위로의 말을 빠뜨릴 수 없다.

“죄송합니다. 순찰을 열심히 돌겠습니다. 집을 비울 때는 창문을 꼭 확인하세요.”

도시의 밤은 자정을 넘어가고, 주택가와 골목은 고요히 잠들어 있다. 그러나 112 상황실은 점점 바빠진다. 오전 2시.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령을 받았다. 싸움판으로 출동할 적에는 검정색 가죽장갑을 착용한다. 난투극을 벌여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인을 제압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생긴다. 각목이나 흥기, 유리파편 등 위험 요소는 많은 법이다. 맥주병을 깨서 휘둘러대는 남자들의 열기를 겨우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얼굴에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병원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환자, 교통사고 환자, 화상을 입은 환자 등.

오전 3시. 숨을 돌리고 느긋한 맘으로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야식집 부부가 순찰차를 불러 세웠다.

“경찰관 아저씨, 따끈따끈한 어묵 먹고 가요.”

참으로 착하고 인사성이 밝은 분들이다. 지난번 사건에 대한 인사이기도 하다.

“술 취한 사람이 먼저처럼 기물을 파손하면 곧바로 지구대로 전화하세요.”

이들 부부는 나이트클럽이 끝나는 새벽 6시에야 문을 닫는다. 부부가 야식집을 운영한지는 5년째. 부지런하고 착한 부부가 올해 재개발지역 아파트를 마련했다니 참으로 가상하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내심 박수를 보낸다.

순찰차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곳으로 간다. 검정색 마스크를 쓴 강도가 느닷없이 칼을 들이대면 아르바이트 여학생은 위협할 수도 있다. 성폭력사범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은 가로등이 없는 공원, 지하철,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로 사용되는 샛길에서 서성거린다. 현대인들은 통금이 없고 24시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우리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밤 시간이 고달픈 게 사실이다. 도시의 밤은 인간에게 아늑함을 주고 꿈을 꾸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몹쓸 짓을 충동질하기도 한다. 도시의 밤은 두 얼굴을 가진 공간이다. 아늑한 공간이 몹쓸 짓 때문에 깨져서는 안 된다.

잠시 생각에 잠긴다. 도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시민을 위협하는 요인도 고도화되고 다양해졌다. 시민은 한결같이 범죄, 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원하고 있다.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당시 범죄학자 ‘제임스 월슨’이 중범죄를 분석 연구하여, 소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다.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행인들이 관리 포기한 건물로 오인하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마저 깨뜨린다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방치가 약탈, 방화, 파괴사건으로 커질 수 있다는 이론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을 일선(一線)에서 받아들여, 1994년 뉴욕시경은 낙서, 신호무시, 빈 깡통을 버리는 사소한 행위까지 단속하여 도시를 보호했다.

새벽 4시. 대학로 앞 내리막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지령이 떨어졌다. 순찰차는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편의점 앞에 있는 가로등과 부딪치고, 차가 튕겨 나가면서 편의점 대형 유리창을 깼다. 다행히 아르바이트 여학

생은 계산대에 있지 않아서 무사했다. 운전자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의 차량열쇠를 몰래 훔쳤다. 이어 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음주측정을 하기위해 청년을 데리고 지구대로 왔다. 측정을 끝내고 청년에게 말했다.

“행인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오. 큰일 날 뻔 했소.”

“어이, 아저씨들! 차 열쇠는 친구가 꺼내 가라고 했으니까 절도죄는 빼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니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해줘!”

청년의 음주 교통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먼저 음주사고로 운전면허는 취소상태였다. 가로등, 편의점 유리창, 친구 차량을 모두 파손했으니, 청년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새벽 5시. 닭이 낮은 주택가를 순찰하면서 생각한다. 도시는 푸른 숲처럼 평안해야 한다고. 나무, 둥지, 꽃, 풀, 곤충이 있는 숲은 송충이, 썩기, 뱀, 산사태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오색 불빛들이 반짝이는 대학로를 지나면서 다짐한다. 졸음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도 이 도시를 지켜야겠다고. 난폭 차량, 무서운 강도, 지갑을 노리는 절도범이 있는 도시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사실 나는 현재 직업과 관련성이 없는 학문을 익혔다. 그리 건장한 체구도 아니면서 치안 업무에 종사한 지 어언 20년. 현재 지구대에서 근무한 지도 2년째가 된다. 비번인 날에도 길을 걷다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우범지대를 지나갈 때도 이리저리 살펴보는 습관도 생겼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한테 가벼운 핀잔을 듣는 게 예사다. 특히, 평온해야 할 도시의 야간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릿하다. 야행성

인간들이 또 어느 곳에서 흥계를 꾸미고 있을지 모른다. 이 도시에 범죄가 사라진다면, 나의 존재감조차 사라져 밥 빌어먹을 처지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질서와 안전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창틀처럼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유리창’이기 때문이다. 수족관의 유리창이 깨지면, 물고기는 바닥에서 파닥거리며 죽어간다. 이러하듯, 깨진 금은방 진열창, 깨진 거울, 깨진 맥주병, 깨진 탁자유리를 보면 빨간 피, 검은 멍, 붉은 상처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아침이 다시 하얗게 밝아 온다. 다행스레, 지난 밤 큰일이 없어, 다음 근무자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무를 넘겨준다. 나는 홀가분하게 비번을 맞는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길로 나갔다. 하천에서 물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투명한 유리창처럼 흐르고 있다. 이어폰을 끼고 달리는 젊은 여성, 라디오를 들으며 걷는 할아버지, 방긋방긋 웃는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가 지나갔다. 공원에 도착했다. 갈대와 코스모스가 바람에 나부끼면서 춤을 추고 있다. 하천에서 백로 한 쌍이 파란 하늘로 높이 올라갔다. 하늘에서 백로는 힘찬 날갯짓을 하며 넓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보금자리를 살피듯이.



아이들에게 TV보는 아빠가 아닌, 책보는 아빠를 보여주려고 수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표현하고자 마음이 넘쳐났고, 저의 '수필읽기'는 '수필쓰기'로 진화했습니다. 한 편, 두 편이 열 편을 넘어갔습니다. 책 읽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의도가 상을 받는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세 아이들이 수상 소식을 듣고 아빠처럼 되어겠다고 합창을 했습니다. 글짓기의 기초를 다져준 윤근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글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김천시 농소면사무소

배진철

설산의 풍광

계절별로 산을 오르면 멋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특히, 겨울 설경은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인 에덴 낙원을 연상케 한다. 혹한기 설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빛은 풍광은 시나리오 작가 없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작품이다. 설산은 기상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며 산사람을 위기로 빠뜨리는 시험을 한다. 시련의 극복과 인내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본문 중에서-

설산의 풍광

설산을 찾아간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 졸업여행 가는 기분이다. 마음이 설레고 잠이 오지 않는다. 몇 권의 책을 뒤적이고 몇 줄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 자정이 훨씬 넘어 잠을 청할 수 있었다. 평소에 산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설산을 탐방하기로 했다. 영하 20도이하의 추위와 겨울의 칼바람, 눈꽃이 겹겹이 포개진 깊이 있는 하얀 눈밭이 펼쳐진 길, 겨울 산을 등산한다는 것은 추위를 견디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설산의 정상은 눈부시도록 눈 시리고, 아름다운 풍광과 눈 맞추는 것은 순백의 처녀 입술에 입 맞추는 기분이다.

계절마다 산은 산을 좋아하는 산사람에게 그만의 뽐냄과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설산의 설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백의의 우리민족의 선인을 만나는 듯하다. 눈밭을 걸으면 아름다운 전설의 속삭임에 매료된다. 설경은 산마루 주변에 백색 모래를 뿌려놓은 눈밭 백사장이다. 부드럽 부드럽 소리를 들으며 온 세상이 눈꽃으로 덮인 눈밭을 걸으면 어릴 적 눈 내린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밟지 않은 눈 위를 걷는 시절이 저 멀리 주름진 산에서 밀려오는 듯하다.

겨울 등산은 준비부터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아이젠, 스패치, 방풍복, 스키장갑, 스틱, 온수 등 겨울에 챙겨야 할 장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빠뜨리지 않아야 정상까지 설산을 등산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준다. 설산의 기상상태는 쉽 없이 변한다. 기상악화를 예견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원래 나는 손과 발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차다. 겨울이면 손발의 시린 현상이 빨리 찾아온다. 그래서 나는 설산을 등산할 땐 보통장갑으로는 견디기 힘들어서 스키장갑을 준비한다.

설산의 눈꽃을 오랜 시간 걸으면 등산화가 젖게 된다. 설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발이 시려오기 시작한다. 손가락 끝부터 찬 겨울의 맛이 감지된다. 처음엔 손발이 시리다. 시림이 아픔으로 바뀐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둔화된다. 뼈 속까지 시려오고 고통의 전율이 전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이 가빠진다. 칼바람이 불을 스치고 몸을 흔들리게 하며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정상 of 눈바람은 외투 옷자락을 찢기라도 하듯 거센 바람이 사정없이 휘몰아친다. 인증샷 한 장으로 만족하고 이 순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상을 벗어나 바람이 숨을 죽일 때 발에서는 열이 감지되며 시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된다.

설산 정상의 풍경은 올라갈 때 큰 시련을 극복한 만큼 산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설산의 풍경은 볼 때마다 새로운 멋과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설산의 정상에서 접하게 된다. 킁킁이 쌓인 눈밭위에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세파에 고통을 이겨낸 주름이요, 우리 부모님의 얼

굴과 거칠어진 피부다.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눈부신 눈꽃을 피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지만 한번 눈꽃을 피면 그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아름다움의 자태를 자랑하듯 멋들어진 포즈로 산사람들을 유혹한다.

바다 가까이 있는 설산은 또 다른 풍광으로 만물을 감동시킨다. 첩첩이 둘러져 눈밭으로 덮여진 풍경은 한 겨울뿐일 것이다.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운해의 모습은 겨울바다와 하늘이 만난 신이 창조한 풍경이다. 계절별로 산을 오르면 멋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특히, 겨울 설경은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속삭인 에덴 낙원을 연상케 한다. 혹한기 설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빚은 풍광은 시나리오 작가 없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작품이다. 설산은 기상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며 산사람을 위기로 빠뜨리는 시험을 한다. 시련의 극복과 인내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백옥으로 갈아입은 세상이다. 우리는 백의민족의 후손이다. 순결이 전통적인 최고의 가치다. 그러기 때문에 설산의 풍경을 동경하고 찾을지도 모른다. 타 민족보다 눈꽃이 내려앉은 눈밭을 감동하게 된다. 향기가 있는 사람은 만날 때 마다 다른 향기가 난다. 설산은 해마다 찾을 때 마다 색다른 눈부신 풍광을 연출하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설산을 오를 때 큰 시련을 견딘 만큼 눈부신 아름다운 자태에 더 큰 감동을 한다. 하나를 가지기 위해 어려움이 큰 만큼 가치는 더욱 크다. 설경을 오래도록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은빛 설상의 풍광이 내 눈앞에 아직도 아른거린다.



자연을 좋아하다 아름다운 사계의 변화무쌍함에 감동되어 취미로 글을 쓰게 된 것이 어느덧 먼 여정 속 풋풋한 미소가 다가온 것에 소욕지족을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완의 글을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끝임 없는 사유와 철학적 자기성찰로 남은 여정에 침묵해 봅니다.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윤 현 봉

그들의 아름다운 변신

나는 ‘반딧불이 봉사단’에서 함께 한 3년 동안, 형님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봉사를 하며 어린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잘못을 조금씩 털어내고 싶은 마음을 보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실망시켜 괴로워했던 아픈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을 보았다. 그들의 변신은 나를 다시 돌아보게 했고, 나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본문 중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변신

가만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던 2009년 여름, 경기도의 한 오래된 임대아파트에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그들을 처음 만났다. 부동산 업자, 전기기술자, 목수, 불법 오락실 사장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10여명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잔뜩 묻어 나왔다. 마치 군 입대를 위해 막 훈련소를 찾은 사람들 같아 보였다.

보호 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업무를 맡고 있던 나는 그들과 함께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반신불수의 중풍환자, 지체장애 남매를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이 사는 집 등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한 집들을 찾아 도배 봉사를 했다.

먼지가 수북한 짐을 일일이 들어내고 벽지와 장판지를 새로 붙이였다. 곰팡이와 쾌쾌한 냄새로 가득했던 낡은 임대 아파트가 새집처럼 말끔하게 단장되자 주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잔뜩 굳어 있었던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가득해졌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봉사 시간을 모두 채운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다.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

하던 그들은 일과를 끝내고 임대아파트 단지 공터에 모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이것도 인연인데 가끔 만나 회포나 풀자”며 말문을 열었고, “만나서 술잔만 기울일 게 아니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집에 도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좋다면서 그 자리에서 ‘반딧불이 봉사단’이란 이름을 가진 봉사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때 나는 그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지리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사회봉사명령을 마친 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은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고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여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여럿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한 듯,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이면 임대아파트 공터에 모였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벌써 세 해째가 되는 올 봄까지 하늘아래 이런 동네가 있을 까 싶은 곳들을 그들과 함께 찾아다녔다. 판자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수리해준 집만 서른 한 군데다.

매달 2만원, 3만원씩 모은 회비로 수백만 원어치의 재료와 도구를 사고,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들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넉넉함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활동이 알려지며 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방송국의 취재 요청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친다.

“우리는 남모르게 하는 것이 좋다”.

“알아주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변신’을 쫓 보아온 나도 반딧불이 봉사활동에 매번 참여하는 열성 회원이 되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저마다 남다른 인생역정을 겪어온 사람들, 각기 다른 직업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하나 같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못 넘기는 정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한 때 불법오락실로 하루 몇 백만 원씩 벌기도 했지만 봉사를 하게 되면서 맘 홀리며 번 깨끗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장판집 형님,

단 한번의 음주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어 이십년 가까이 해 온 도배 일을 접을 수밖에 없어 방황도 했지만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도배하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용기를 낸다는 당구장 사장님,

술에 중독되어 살아 왔지만, 이제는 봉사활동에 중독되어 자신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설비 사장님,

비만 오면 그물이 찢겨나갈까봐 속이 타면서도 어렵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누나, 형이라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우리를 한바탕 웃게 만든 한강 어부 형님,

돌이켜보면, 반딧불이 봉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함께 하던 이들 중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먹고 살만한’ 분들은 모두 떠났

다.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을 감당해온 분들이 지 금껏 남아 묵묵히 땀 흘리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말이라 해도 쉬지 못하는 건축일, 장사를 하면서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하루 일당조차 포기하고 어김없이 모인다.

그들과 함께 해오며, 한 때의 실수로 범죄인의 굴레를 쓰게 된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눈길을 나도 모르게 던지고 있는 달라 지는 모습이 느껴졌다.

법무부 공무원으로 보호 관찰소에서 일해 온 지 13년, 갖가지 죄명으로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며, 말로는 그들을 사랑하 고 보살피자면서도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마음속으로 비난해왔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에는 정상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 사람들로만 생각하던 나의 편견이 부끄러워졌다.

우리 직장의 많은 선배와 동료, 후배들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갈수록 힘들다고들 한다. 이제는 지쳐서 처음 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 가졌던 인간에 대한 믿음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어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면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본다. 그 마음의 벽 때 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긍정과 희망보다는 과오와 좌절을 먼저 쳐다본다.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하였다고 자족한다.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숨겨진 가능성을 살피지 못하니 지난 과오를

저지를 때의 모습을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 변화’의 역동성을 지나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딧불이 봉사단’에서 함께 한 3년 동안, 형님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봉사를 하며 어린 아이들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잘못을 조금씩 털어내고 싶은 마음을 보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실망시켜 괴로워했던 아픈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을 보았다. 그들의 변신은 나를 다시 돌아보게 했고, 나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조금씩 나태와 관성에 빠져 이웃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했다. ‘월급이 적다’, ‘승진이 늦다’ 투덜대며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돌아보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오늘 하루도 사무실에서 난 또 다른 반딧불이 봉사단 형님들을 만난다. 나는 믿는다. 그들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우리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에게 공직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터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진 것이 많은 적든,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자신이 내가 처한 조건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을 돕는 반딧불이 봉사단 형님들! 고맙습니다.

봉사의 진짜 의미를 실천하는 반딧불이 형님들과 함께 봉사하는 나는 오늘도 세상 속에 작은 희망의 반딧불을 밝혀나가겠습니다.

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사단에 함께 하는 것이 행복
하고 뿌듯합니다.



지난 4년여간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반딧불이 봉사단 형님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법무부 포항교도소

장 현 덕

사형수의 부활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제2의 규식 형제를 낳을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본문 중에서-



사형수의 부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규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용자들이 늘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대구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규식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학교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어 성적이 하위권 이였지만, 키가 크고 달리기를 잘하여 고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결과 촉망 받는 고등학교 축구 선수였지만, 축구부 선배들의 잦은 구타와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대구 서문시장 주변에서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을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때려 쓰러지면 소지품을 몽땅 털어 달아나는 속칭 ‘아리랑치기’로 돈을 마련하여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곤 했다. 그러던 중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두 건의 살인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정집에 강도짓 하러 들어갔다가 주인이 놀라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으로 쏘고 회칼로 무참히 찔러 죽였고, 두 번째는 가정집에 단순히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평소 안면 있는 집주인이 타이르듯이 “규식아, 이러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망치로 머리와 온 몸을 무자비하게 때려죽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되어 가슴에 빨간색 수건을 달고 생활하는 사형수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형수나 무기수 등 형기가 긴 장기수들은 처음 징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속칭 문제수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자신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기를 선고받고 쉽게 적응하기는 누구나 어려울 것이다. 규식이기도 다른 장기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거실에서 늘 다른 수용자들을 괴롭히고 직원들과 사소한 것으로 싸움을 걸어 매일 소란을 피우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활하니 동료 수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고 본인이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 수준의 최고 문제수 중의 한 명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규식은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거의 독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생활하였고, 누가 찾는 사람도 없이 늘 혼자 있는 그를 대구교도소 초대 기독교신우회장인 오주임은 늘 소외되고 불우한 수용자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시는 교도관으로 수용생활에 힘들어 하는 규식을 찾아가

“규식아 너 왜 그랬노. 똑바로 살지, 징역살이 힘들지”

“.....”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규식아, 앞으로 너를 만나러 독방에 자주 와 봐도 되겠나?” 규식이기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오주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자신의 행동거지가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몇 번 다시 물으니 그때 마지못해 “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규식아, 많이 힘들제, 내 말 잘 들어라.” 순간 규식이 긴장하

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넌 이제 법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수다. 그러나 너에게 비록 육신은 죽을 지라도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음 뒤에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단다. 예수 믿고 바른 생활과 행동을 하면 천당에 가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는 것 알고 있제.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쁜 행동을 많이 해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천당에 갈 수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규식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제의 규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규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차츰 생활에 안정을 찾아 독거 방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잘 훈련된 기독교 신우회원들이 집중적으로 보살펴 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할 전담목사님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앙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규식이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서 하얀 한복을 입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슴에 꼭 안고 웃으면서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 이었다. 사형수는 항상 하얀 한 복 한 벌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방 입구 천정에 비닐을 덮어 씌워서 걸어둔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면회 오는 날이나 자신이 사형 집행날 입을 수 의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성경책을 안고 들어오는 규식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때부터 규식은 열과 성을 다하여 목사님의 신앙지도를 받았으며, 성경공부 시간에도 목사님

의 말씀을 공책에 깨알같이 받아 적었다. 왜냐하면 자신처럼 예수
수를 모르는 동료 수용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다.

오주임은 이런 규식에게

"너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
하는 화장실 및 방청소 등 다른 사람들이 평소 가장 하기 싫어하
는 일을 자신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라고 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도 더럽고
지저분한 일은 모두 싫어한다. 그 험한 일을 최고수인 사형수가
하는 것은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다. 사형수는 언제 사형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어리거나 해도 늘 어른으로 취
급하고 모든 수용자들이 잘 대접해 준다. 그래도 규식은 다른 사
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목사님의 말
씀을 자신이 체험하고 받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전도방법
은 간단명료했지만 매우 진지했다.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다. 그렇게 규식은 미결수용 사동 안에서 5년 동안 철저히 예수
님의 말씀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따라 그가 가
는 거실의 수용자들을 전도하면서 충실하게 생활하였다. 비록 세
상에서 나쁜 죄를 짓고 무고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죽였지만, 지
금의 규식의 모습은 놀라보게 변화 되어,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해 생활해 오고 있는 것이다.

오주임은 '1997년 12월 연말 퇴근 무렵 직원들이 웅성웅성하여
조용히 들어보니 내일 사형집행이 있다고 하여, 즉시 담당과로
달려가면서 절대로 규식의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그
의 기대와는 반대로 내일 사형집행자의 명단에서 규식의 이름을
확인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규식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사형수가

된 이후로 초창기는 적응하지 못하여 문제수였지만, 그 이후에는 수용생활을 잘 하고 모범적 이었으며 신앙생활도 모범적 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야 한단 말인가?

“주님 힘을 주세요. 규식이의 영혼을 잡아주세요. 내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보내는 뜻 깊은 은혜의 경배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혹시 규식이 교도소에서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착한 일을 행하며 술선수범하였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보통 사형집행자로 돌아간다면 규식이나 그곳에 참석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전담목사님과 신우회원들이 인근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그날 대구교도소의 사형집행 인원은 7명 이었다. 각자 사연들은 참혹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인간들이지만, 사형집행을 당하는 수용자와 집행하는 교도관의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느 누가 사형집행을 하고 싶겠는가? 법적으로 교도관에게 사형집행권을 부여했지만, 정말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혹시 사법살인은 아닌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사형집행일 아침 일찍 규식의 방 앞에는 이미 신우회원들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규식은 함께한 수용자들과 최후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둥켜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순히 밖으로 나와서 추운 엄동설한에 두 손에 차디차고 싸늘한 쇠수갑을 차고 웃으면서 마지막 행진이 시작되었다. 복도에서 그동안 함께 한 형제들과 그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동료 수형자들이 “형님 잘 가십시오. 동생 잘 가게”라고 눈물로 배웅했다.

규식은 우렁차게, "형님, 아우야! 이제 나쁜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당당히 복도를 나왔다.

규식은 오주임의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 오주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시 규식이 "집사님, 저의 팔짱을 끼고 찬송하며 갑시다." 라고 하면서 평소 부르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을 목청이 터져라 부르면서 사형장을 향해, 다시 오지 못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들어오는 규식을 반갑게 볼에 입을 맞추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잠시 후 입회한 검사가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확인할 때, 규식이 갑자기 "검사님 죄송한데요, 검사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고, 또 최규식 맞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님도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검사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규식은 마지막 예배를 목사님과 신우회원들이 간절히 주님께 드렸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밝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최후의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장이

"최규식,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규식은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머리를 깊이 숙이고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그동안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하를 누나라에 갑니다. 모든 분들 예수 믿고 그곳에서 만납시다. 함께 찬양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여 의학도들이 실습용을 사용하게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최후 유언 후 관계 직원들이 재빠르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규식의 목에 굵은 밧줄이 걸리고 흰 두건이 머리에 덮혀졌다. 목사님은 마지막 가는 규식의 손에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를 들려주었다.

그때 오주임은 규식에게 소리쳤습니다.

“규식아! 지금부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린다! 라고 부르짖어라”하니, 규식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몇 회 반복하는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규식은 아래로 떨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떠나갔다.

갑자기 사형장내에는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적막감이 엄습해왔다. 오주임도 깜빡 정신을 잃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사형장 지하실로 뛰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나무십자가를 들고 식어가는 규식을 보았다. 식어가는 규식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제2의 규식 형제를 낳을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늘 자신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실천하며, 낮고 낮은 자를 위해서 늘 봉사하는 그는 진정한 참교정인이에요 청백리다. 우리 모든 교정인은 비록 한 순간 잘못으로 세상에서 버려진 수용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교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럽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기독교신우회원으로, 한 순간의 잘못으로 혼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수용자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선교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수형자 - 사형수 -의 변화과정을 부족한 글로 담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형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운초등학교
박 성 희

오늘만 같아라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체 문자를 보낸다.

‘그래~ 학교를 휴직할 땐 학교에 돌아가고 싶고, 또 이렇게 복직을 하니 휴직하고 싶어진다.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 그래도 우린 돌아와서 일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 자~ 다들 힘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매일 오늘만 같아라.’

-본문 중에서-



오늘만 같아라

“하하하 오늘만 같아라. 룰루랄라”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나는 한 마리의 경주마처럼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5년을 달려왔다. 삼수 끝에 합격한 임용고사에 대한 한이라도 풀듯이...

그런데 2011년 3월 1일. 내 인생에 커다란 쉽표가 시작되었다. 그토록 바라던 아기천사와 함께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이다. 휴직 첫날, 오전 10시까지 아들과 함께 달콤한 늦잠을 잤다. 참새 같은 아이들의 재잘거림도 업무 독촉 전화도 없다. 코끝을 스치는 커피향기,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사로운 햇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소리까지... 나는 그야말로 푸른빛 대서양의 이름 모를 섬에 여행 온 자유인 같았다. ‘그동안 사놓고 읽지 못한 책도 읽고, 영어강의도 듣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못했던 운동도 해야지!!’라며 의지를 다지는 순간...

이런 생각과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리라고는 그때까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응애 응애~”

“앗 뜨거!!”

우아하게 잡고 있던 커피 잔을 제대로 놓지 못하고 손을 데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잠시 번개처럼 달려가 아이를 안

고 달랜다.

“그래 우리 아들, 잠이 깼구나. 배고팠어? 기저귀 볼까? 모유 먹고 얼른 다시 자~”

라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다. 친정엄마가 신생아는 모유 먹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하루 종일 잔다더니... 그 말은 거. 짓. 말. 이었다. 태어 난지 두 달된 아들은 1시간마다 날 찾았다. 그럼 아기가 자는 밤에 하늘의 별을 벗 삼아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지 했지만, 밤도 낮과 마찬가지로 1시간 마다 깨어났다!!

어느새 내가 꿈꾸었던 휴직 중 계획은 휘리릭!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다.

‘그래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야. 6개월쯤 되면 좀 나아지겠지? 좋아. 그때까지는 육아에 전념하자!!’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하루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우리 아들이 빨리 자라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만 갔고,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며 아기를 보는 내 모습이 서글프고 처량하게 느껴졌다. 예쁘게 화장하고 생기발랄하며 총명했던 내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줌마 한 명이 거울 앞에 서 있다.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도 없고, 친한 동료들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디 마음 붙이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친정도 멀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괜스레 나 혼자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 즈음이었다. 우연히 한 포털사이트의 동네카페에 가입을 했다. 낯을 심하게 가리는 편이라 가입인사만 하고 매일 다른 사람들이 써 놓은 글을 읽으며 지내던 중 쪽지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7단지 살고 5개월 된 아들이 있는 엄마에

요. 우리 친구해요. 언제 저희 집에 한번 놀러오세요.”

‘누구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혹시 나에게 이상한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지금 나에겐 남편보다 나의 육아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이 더 필요했다.

4월, 어느 오후 결국 용기를 내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7단지로 향했다. 모임을 주도한 시우네에 이미 사람들이 도착해있었다. 다들 첫 만남이라 약간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휴직하게 된 이유를 서로 이야기하였다. 어찌다보니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고등학교 교사, 사서교사 이렇게 교사들만 모이게 되었다. 우리는 첫 만남이지만 서로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무언가 모를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느끼는 공통된 감정들과 첫 아이를 키운다는 두려움, 설렘. 내가 느꼈던 많은 감정들이 결국 나 혼자 느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뭔가 모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우리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의 집에 돌아가면서 만나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다들 원숭이띠 동갑인데 말 놓을까요?”

“네? 으응! 그러자.”

드디어 나는 남편보다 더 위안이 되는 동네 친구를 사귀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씩 돌아가며 서로의 집에 모여 육아스트레스를 수다로 풀었다. 아이들 개월 수가 비슷해 이 유식을 먹일 때쯤에는 각자 요리 솜씨를 발휘해 나눠 먹이기도 했고, 발달상황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지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우리는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

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영어랑 일본어 공부 같이 해볼래?”

“영어랑 일본어? 할 수 있을까?”

“영어는 은우엄마가 영어전담교사니까 우릴 좀 이끌어 주고, 일본어는 준수엄마가 잘 하니까... 어때?”

“잘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 그럼 월요일은 영어, 목요일은 일본어로!!”

아~ 이 떨림은 무얼까? 갑자기 내가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스터디 모임을 약속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미주알고주알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도 이제껏 힘없이 풀 죽어있던 내가 활기를 되찾으니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 오전 6시에 아이가 깨면 모유수유를 하고 다시 재우고 2시간 정도 영어와 일본어 공부를 했다. 이왕 시작했으니 정말 열심히 해서 유창하게 외국어를 말하고 싶었다. 남편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더니 차라리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며 나의 불타는 의지를 눌러댔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더 마음을 다 잡고, 아이를 보면서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했다.

영어는 EBS라디오 교재로 공부를 했고, 일본어는 NHK라디오 일본어로 공부를 했다. 우리는 매일 라디오 방송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듣던 EBS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연결이 되었다.

“Hello~”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morning special의 '김네모'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은 내 몸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뛰고 있었다. 떨리는 그 순간! 나는 결국 전화기를

다른 친구에게 넘기고 말았다. 너무 떨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야말로 내 머릿속은 정전 상태였다. 다행히 전화기를 받은 친구는 영어전담교사답게 아주 유창하게 여유의 미소까지 날리며 전화통화를 마쳤다.

모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전화연결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이런 행운을 다른 이에게 홀라당 넘겨버린 나의 행동에 화도 나고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한편으로 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아~~ 이 영어울렁증!! 이제껏 열심히 해왔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어휴...

친구들은 나를 위로했다. 자기들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라고...

며칠 뒤 EBS 전화연결 상품으로 비타민 C가 2통 배달되었다. 한 통은 전화 통화하느라 애쓴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 한통은 우리 집에 두고 스테디가 있을 때마다 나눠먹기로 했다. 나는 한통 안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비타민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내 머리를 쥐어박곤 했다.

2011년 12월 마지막 달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학교를 떠나 아이 키우랴, 공부하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공허한 생각마저 들었다. 아이들은 어느 새 돌이 지났고 누워만 있던 녀석들이 아장아장 제법 잘 걸어 다닌다. 유일한 홍일점 은우는 어눌하지만 사물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니 서서히 복직을 준비해야하는 시간이다. 아직 작고 어리기만 한 아이를 두고 복직을 해야 하다니 가슴이 먹먹해져왔다. 나는 복직과 동시에 내신을 내고 타 학교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더 가슴이 시렸다.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나?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아프진 않을까? 나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부적응하면 어쩌지? 학교 업무처리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데 민폐 끼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나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괴롭혔다. 결국 며칠 밤을 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남편은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 올려 함께 고민해주었다.

결국 우리 부부는 큰 결심을 했다.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내기로!!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니 나도, 남편도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요즘 남자들도 육아휴직 많이 한 다며 남편은 나를 안심시켰다.

‘그래 남보다 아빠가 낫겠지... 아빠랑 함께 하면 아이에게도 분명 더 좋을 거야.’

2012년 1월 교사인 남편은 방학동안 아이랑 더 친해져야겠다고 나에게 자유 시간을 주었다. 우리는 아이가 ‘엄마 없는 시간’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연습 아닌 연습을 매일 하기 시작했다.

복직을 한 달 남겨두고 친구들과 송별회 준비를 했다. 다들 학교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복잡한 얼굴이다. 마지막은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한 약 10개월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무더운 여름 날 새로 생긴 키즈 카페에 가보겠다고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갔던 일, 아이들 재워 놓고 맥주 마시러 나왔다가 10분도 제대로 못 앉아있다 집으로 돌아간 일...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추억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이 친구들이 없었으면 길고 험난한 육아라는 터널을 어

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3월 1일자로 각자의 학교에 복직을 했다. 복직 첫 날 SNS로 새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에 바빴다. 다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녹록치 않지만 막상 학교에 나와 보니 껌 딱지처럼 붙어 있던 아이가 없으니 조금은 홀가분해 하는 것 같았다.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체 문자를 보낸다.

‘그래~ 학교를 휴직할 땐 학교에 돌아가고 싶고, 또 이렇게 복직을 하니 휴직하고 싶어진다.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 그래도 우린 돌아와서 일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 자~ 다들 힘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매일 오늘만 같아라.’



우선,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고, 느낀 이야기들을 썼을 뿐인데 제 글을 누군가 읽어주었고, 수상까지 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번 문예대전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면서 힘들고 고단한 하루 중에도 글을 쓰는 나를 보는 것은 촉촉한 단비를 맞는 것 마냥 기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대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편
소
설
부
문

금상

여명 _ 오상근

은상

파리 _ 송영인

동상

낙화 _ 김명자

청춘자화상 _ 노학진

봄 _ 윤정아

그리운 독재자 _ 김형중



전주지방검찰청
오 상 군

여명(黎明)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젊은 친구가 말아준 국수를 입에 넣었다. 국수가 달고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국수다. 국수 그릇을 다 비운 강씨와 남자들이 육수와 국수발을 밖으로 내가기 시작했다. 육수가 담긴 짐통을 젊은 친구가 들었고, 보자기로 덮은 플라스틱 채반을 강씨가 잡았다. 다른 남자는 김치통과 계란지단을 챙겼다.

“그냥 놓아두세요. 우리가 할 것인데.”

내가 엉거주춤 서 있다가 스티로폼 그릇과 나무젓가락이 든 종이 박스를 들고 강씨가 말린다. 내가 종이박스를 단단히 팔로 감싸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강씨가 나를 보며 이빨 빠진 입을 헤벌쭉 벌리고 웃는다. -본문 중에서-

여명(黎明)

“야 이거, 먼지 쏘 봐라. 쓰레기장이 따로 없네. 씨주병은 뭐할러 이렇게 쌓아 놓았으니까.”

강씨가 거실에서 걸레질하면서 들으라는 듯 투덜거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집도 아닌데 저리 불통거리면서까지 청소를 할까. 콧김을 뿜어내며 바닥을 닦는 소리가 멎돼지가 씹씹거리는 것 같다. 강씨가 빈 소주병을 들고 나가는지 유리병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설핏 들었던 잠이 확 달아났다. 설치 대는 강씨가 신경이 쓰여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대로 놓아뒀다가는 강씨가 내 방까지 쳐들어와 걸레질을 해댈 것이다. 몸을 일으키려고 쥔 팔에 어제 먹은 소주병이 툭 부딪쳐 구른다. 마른 멸치 대가리가 검은 비닐봉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 종이컵이 엎어져 있다. 머리가 멍하고 현기증이 난다.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갔다. 회초리 같은 햇볕이 사정없이 눈두덩을 후려친다. 살갗에 닿은 열기가 금방이라도 몸에 흐르는 피를 전부 증발시켜버릴 것 같다. 최대한 고개를 푹 처박고 얼굴을 가린 채 옥상을 살핀다. 강씨의 침범을 막으려면 가릴만한 것이 필요하다. 빗물 내려가는 홈통에 베니어판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저 정도면 될 것 같다. 처마 밑 손수건만한 그늘 아래로 웅

크린 채 베니어판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양손으로 베니어판을 잡았다. 손가락에 힘을 주자 팔목이 떨리고 숨이 가빠진다.

강씨 방과 내 방이 함께 쓰는 베란다 중간에 베니어판 귀퉁이를 비닐 끈으로 묶어 난간에 잡아매다. 베란다라도 확실하게 담을 쳐놓아야 내 구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 놓아야 강씨도 내가 뭘 원하지 알 것이다. 좀스럽게 볼지 모르지만 이 좁아터진 옥탑방에서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 강씨가 밖에 나갔으니 이제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옥탑방은 원룸 건물 위에 있다. 사각형을 삼등분해서 하나는 거실로 둘은 방으로 쓰고 있는데, 거실을 바라보고 방이 나란히 있다. 방 건너편에 거실처럼 두 방을 잇는 베란다가 있다. 강씨가 옆방에 든 것은 십 여일 전이었다.

“잘 부탁드립니다요.”

강씨는 이불이 든 비닐주머니를 거실에 내려놓더니 하마 같은 입을 벌쭉 벌리고 웃었다. 그리고 털이 듽성듬성 난 손을 쑥 내밀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술지게미 냄새 같은 게 풍겼다. 나는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한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강씨는 벌린 입만 큼 이나 등치도 컸는데 앞니 두 개가 쑥 빠져 있었다. 잡은 손이 어찌나 악력이 세던지 더 잡혀 있다간 팔목이 쑥 빠져버릴 것 같아 얼른 손을 뺐다. 저 손바닥으로 마음먹고 한 대 치면 뼈도 못 추릴 것 같다. 거무튀튀한 얼굴에 눈도 입만크이나 컸다. 나를 보는 강씨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내 얼굴 화상 흔적을 봤을 것이다.

“이쪽 방을 쓰면 돼요.”

손으로 강씨가 쓸 방을 가리키면서 얼른 얼굴을 돌렸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는 게 싫다. 강씨의 짐은 비닐주머니에 든 이불과 배낭이 전부였다. 배낭을 멘 어깨가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데 유난히 아래로 축 처졌다가 올라왔다. 거실을 걸어가는데 강씨의 오른쪽 다리가 사선으로 휘청거렸다.

"야, 참말로 조하 뿌린다."

방 하나 빌려 쓰는 것이 그렇게 참말로 좋은 일인가. 강씨는 통방을 눈을 굴리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나는 못들은 체하고 얼른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당신은 당신 방에서 나는 내 방에서 서로 없는 듯 살아가자는 무언의 지침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방을 내줬지만 확실하게 구분하며 살아가자는 표시였다. 냉랭해 보일지 모르지만 초장부터 확실히 해놓아야 했다.

똑똑. 이불 보파리에 배낭 하나가 전부인 사람이 뭐를 하는지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더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대답 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서로 상관하지 말자는 표시였는데, 문이 덜꺼덕 열렸다.

"다시 지대로 인사 올리겠습니다요. 지는 강만수라고 하느만요."

누워있던 몸을 반쯤 일으켜 방바닥에 쓰러진 소주병을 쳐다보는데 박카스 한 병이 눈에 쏙 들어왔다. 고개를 쳐들자 강씨가 입을 헤벌쭉 벌리고 웃었다.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줬다.

"지는 저녁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그만요. 그

러니께 낮에는 방에서 잠만 잘거시그만요. 아, 그리고 거실 주방을 쫘 써도 되지요잉?”

주방을 쓴다는 조건은 없었는데. 안된다고 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첫 대면부터 이걸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단박에 자를 수가 없었다. 강씨가 바닥에 내려놓은 박카스를 쳐다보며, 에에 하고 얼버무렸다.

강씨에게 내준 방은 아들이 5개월 전에 군대를 가면서 비워둔 방이었다. 돈 쓸데라고 해야 하루에 한 병씩 사먹는 소주와 담배 한 갑이 전부지만 돈이 들어갈 일은 많았다.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을 내야 했고 마른 멸치 같은 안주도 필요했다. 몇 개월에 한 포대씩 사는 쌀값도 만만치 않았다. 은행 잔고는 바닥을 박박 긁고 있었다. 가진 것이라곤 이 옥탑방이 전부라 다른 방도가 없었다. 사람 꼴 보는 게 불별 아래에 서 있는 것처럼 소름 돋는 일이다. 하지만 월세라도 챙겨야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근처 중개사에게 내놓았더니 혼자 살겠다는 남자가 잠만 자겠다는데 어떡냐고 했다.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딸린 식구가 없으니 방해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증금 이백에 월세 삼십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개사에게 계약을 맡겼다.

아들이 군에 간 뒤로 아들 방에 들어간 본 일이 없다. 아들 방 뿐 만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을 이동하는 것 말고 나는 이 작은 옥탑방의 어디고 손을 대지 않는다. 옥탑방은 눈 쌓이듯 먼지가 점령했고, 한번 쌓인 먼지에 다른 먼지가 덧쌓였다. 나는 내 방과 화

장실 그리고 가끔 주방만을 왔다 갔다 했다. 내가 다닌 곳으로만 마치 쌓인 눈 사이로 작은 길을 내놓은 것처럼 듬성듬성 발자국이 나 있다. 강씨가 들어온다는 날 나는 아들 방에 들어갔다. 책과 옷 가지가 종이박스에 담겨 귀퉁이에 포개져 있었다. 옷 박스는 내 방으로 옮겼고, 책 박스는 베란다 보일러 실로 옮겼는데, 책 박스를 들 수 없어 질질 끌어가다 놓았다. 겨우 이만한 일에도 한참을 방에 누워 가쁜 숨을 내 뱉어야 했다. 체력은 바닥 나 있었고 삶에 대한 애착 또한 밑바닥을 훑고 있었다. 돈 때문에 강씨를 들이킨 했지만, 마치 손닿지 않는 등쪽에 벌레라도 기어 다니는 것처럼 강씨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강씨가 이사 온 지 이틀 정도 지났을까. 설핏 잠이 들었는데 둔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부산스럽게 신발 벗는 남자들의 발소리가 거실 안을 울렸다.

“야, 행님 방 직인다. 억수로 좋네. 야, 이제 독립하는 기가. 내는 은제나 이런 방 하나 얻노. 행님, 참 부럽대이.”

“나도 사백만원만 있으면 방 얻을랍니다. 우리 형님 드디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네.”

월세방 얻은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방 구경을 다 시킨단 말인가. 새벽까지 설쳤다가 막 잠 들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이 저만큼 달아났다. 담배 한 대를 물고 시계를 봤다. 오전 아홉시가 조금 넘었다. 밤에 나갔던 강씨가 아침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모양이다. 다 태운 담배를 비벼 끈 뒤로도 한참 동안 강씨 방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왁자하게 들렸다. 강씨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이젠 사람들까지 데려오다니.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착잡해졌다.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싱크대 쪽에서 불이 날름날름 거리고 있다. 일어나서 얼른 불을 끄든지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야 하는데 팔이 꼼짝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불은 거실에서 방안으로 몰려 들어온다. 불은 내 몸을 덮석 껴안는다. 아악!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다. 꿈이었다. 땀이 흘렀는지 등짝이 축축하다. 창문 귀퉁이로 새들어온 햇별이 눈을 따갑게 후려친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거실을 봤다. 거실은 고요한 상태에서 늘어져 있다. 길게 숨을 몰아쉬고 다시 한번 천천히 거실을 훑어 봤다. 나뭇결이 듬성듬성 갈라지고 색깔이 바랜 조악한 식탁과 누르스름하게 변해가는 냉장고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전기 밥통이 눈에 들어왔다. 늘 봐왔던 것들이다. 그런데 비어 있던 개수대 옆에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다. 누가 갖다 놓았을까. 옥탑방에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와 강씨 밖에 없다. 강씨가 가져다 놓았을까. 말도 없이 딱하니 갖다 놓다니 짜증이 몰려왔다. 나는 이곳에 이사오면서 불 피우는 기구는 아예 가져오지 않았다. 식사라고 해야 하루에 한끼를 먹는 등 마는 등 했는데, 물에 밥을 말아 단무지 쪄가리로 대충 허기를 채우는 정도였다. 아들은 밥을 대부분 밖에서 해결했었다. 강씨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중국집 주방에서 자장 그릇에 묻은 소스를 수세미로 씻는 일부터 시작했다.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삶았고, 김밥을 말았다. 그러다 시내에서 작은 곰탕집을 열었는데 제법 장사가 되었다. 중국집 주방보조 때 만난 아내와 부지런히 일했다. 돈이 모이고 장사하는 노후가 쌓이자 그럴 듯한 가게를 하나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시내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옛날 쓰던 상호 그대로 근교에 곰탕집을 크게 열었다.

시내로 진입하는 큰 도로 옆 부지를 매입하고 타르를 칠한 목재로 모양새 있게 곰탕집을 지었다. 살림집도 겸했다. 딸은 보험회사 사무직 직원으로 취직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 있었다.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다. 시내에서 운영했던 식당 상호를 기억한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 곰탕집은 그런대로 별이가 되었다. 가끔 점심때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넓은 터를 얻어 곰탕집을 짓는데 꽤 큰돈이 들어가 은행 빚이 있긴 하지만 장사가 그럭저럭 되었고, 머지않아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곰탕집의 생명은 사골국물 맛이다. 나는 직접 육가공 공장에 가서 다리뼈를 사왔다. 한우의 육질을 확인하고 다리뼈의 단면을 살펴 우뚝뿔을 띤 사골만을 가져와 푹 고았다. 장작을 지퍼 굽는 것은 손이 많이 가 가스 불을 이용했다. 사골을 우려내는 작업은 불과의 싸움이다. 제대로 사골 국물을 우려내려면 열 시간 이상

은 고아야했다. 낮에도 국물을 내지만 바쁠 땐 저녁 늦은 시간에도 우려내야했다.

그날 저녁도 종업원들이 퇴근한 주방에서 아내와 내가 낮에 사 온 사골을 씻어 불에 올렸다. 오전에 가게를 지켜야하는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내가 불을 지켰다. 한 달 전에 곰탕집 옆에 중국집이 생겼는데, 전에 중국집 주방보조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사장이었다. 자연스럽게 왕래하면서 지냈다. 그날따라 곰탕집으로 찾아온 중국집 사장이 장사가 안 돼 죽겠다며 한잔 하자고 보냈다. 옆에서 소주병을 기우려주지 않으면 된통 당할 것 같았다. 마지못해 사장 손에 이끌려 중국집으로 갔다. 중국집 사장은 소주 한 잔을 넘길 때 마다 ‘죽겠습니다’를 되씹는 바람에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유, 형님. 그때는 그냥 밀가루 반죽만 주물럭거리면 됐잖여유. 죽겠다는 말이 과거를 추억하는 소리로 바뀌면서 중국집 사장은 취해갔다. 중국집 사장이 따라주는 술에 나도 어느새 폭 젖어갔다. 그때가 대략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것이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는 점점 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바로 옆에서 굉음을 내며 멈춰 섰다. 뭔가 썰한 것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취기에 폭 파묻혀 있던 의식이 순간 유리창이 깨지듯 팍하고 선명해졌다. 중국집 문을 박차고 나갔다. 곰탕집에서 불이 났다. 타르를 뒤집어 쓴 곰탕집 나무 외벽에서 시꺼먼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다.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아내가 생각났다. 먼저 아내를 구해야

했다. 취기 때문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나는 허우적거리며 무작정 곰탕집으로 내달렸다. 소방대원이 내 소매를 잡았지만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기가 가득한 내실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금방이라도 살을 태워버릴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숨을 쉬자 매캐한 연기가 훅하고 내 숨구멍을 눌렀다. 불은 장롱과 이불을 삼키고 있었고, 옷에 불이 붙은 아내가 엎드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아내의 팔을 잡아끌고 비척거리며 거실로 기어 나왔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아내와 함께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 나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아내는 이미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불에 일그러져 있었다고 했다. 나도 등과 얼굴 그리고 한쪽 다리에 중증의 화상을 입었다. 거의 100퍼센트 화상을 입은 아내는 미동도 없었다고 했다. 기계호흡에 의지하던 아내는 거품을 쏘아내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

아들과 딸은 일부러 내게 아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야 알았다. 병원에 들어와 처음 휠체어를 타던 날 아들이 내게 아내의 죽음을 알렸다. 나는 복도 끝 창가까지 휠체어 바퀴를 밀고 갔다. 그리고 무심하게 거리를 걷어가는 사람들과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아내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인 듯했다. 그러나 현실이었다. 치료받는 일은 거의 죽음과도 같았다. 은박지로 감쌌던 피부에 사체피부를 이식했고 죽은 피부를 걷어내는 작업이 반복됐다. 내 피부를 뜯어내 화상으로 뭉개진

자리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다. 치료받는 동안 내 의식은 바람에 육탈된 뿔조각처럼 파삭파삭 말라갔다. 아내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사치스런 감정이었다. 통증은 세포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죽은 피부를 녹이는 약품을 바르고 드레싱을 거치는 과정은 차라리 내 몸뚱이를 병원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극심한 통증의 연속이었다. 패혈증 때문에 가끔 기계호흡에 의지해야 했다. 사체 피부를 걷어내고 내 피부를 이식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치료받는 동안 머릿속은 오직 고통스럽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이만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들과 딸은 번갈아 가며 내 곁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겨워했고 가끔 짜증을 냈다. 내가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 아들과 딸은 은근히 내 잘못을 성토했기도 했다. 나는 그런대로 잘 버텼다. 패혈증 증세는 진전되었다. 욕조드레싱과 피부이식수술 후에 새살이 돌아나 조금씩 피부의 모습을 회복했다. 고통도 반복되면 익숙해지는 것인가. 고통이 익숙해지면서 감정의 여분은 그 동안 한쪽 구석에 처박아두었던 후회와 절망으로 채워졌다.

모든 것이 화재로 인해 증발해버렸다. 아내는 죽었고, 곰탕집은 잿더미로 변했다. 약간의 보험금이 나왔다. 은행 빚을 갚고 곰탕집 화재로 피해를 본 다른 집을 변상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다리와 등의 화상 흔적은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얼굴의 흉터는 가릴 수 없었다. 얼굴은 성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병원비 지출은 무리였다. 결국 어정쩡한 상태에서 퇴원 했고, 갈 데가 없는 나는 남은 돈으로 이 옥탑방을 얻어 스며들었다. 휴학할게요. 아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들은 기숙사를 나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와 함께 이 옥탑방에서 지냈었다.

따따닥 딱!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화들짝 잠에서 깼다. 땀이라도 났을 것처럼 소름이 짹 끼친다. 심장이 들썩거리고 숨이 콕 막힌다. 달려 나가 물 한바가지를 가스레인지 불에 뿌리고 싶다. 병원에서 나온 이후 내손으로 음식을 불에 익혀서 먹어본 적이 없다. 한동안 내손으로 담뱃불을 붙이지 못해 아들 손을 빌려야 했다. 그만큼 불은 내게 공포의 대상이며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악귀와 같은 것이었다. 저녁에 일을 나간다는 강씨가 일어나 가스레인지를 켜 모양이다. 아예 음식까지 해 먹을 작정인가. 문을 열고 나가 이진 계약위반입니다 당장 가스레인지를 치우세요. 말하고 싶지만 자기가 가져온 가스레인지를 자기가 사용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미친 놈 소리를 들을 것 같다. 어찌할지 몰라 담배 갑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푹푹 강씨가 문을 두드린다.

“죄송합니다요.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뭘 해먹딜 못하것더라고요. 그래서 굴러 땡기는 것을 하나 주서다가 났그만요. 쓸만 허더라니까요. 그라고 나가 김치찌개를 끓여 봤는데, 맛이 있을란가 모르것소이. 식탁 위에다가 올려 났으니께 한번 맛이나 보쇼이.”

나가볼랍니다. 강씨가 이빨 빠진 입을 헤벌쭉 벌리고 웃으며

밖으로 나간다. 잠깐만요. 그러나 말은 내 입속에서만 뱅뱅 돌았다. 기우뚱거리는 강씨의 다리가 꺾끗하고 힘 있어 보인다. 식탁에 작은 냄비와 밥 한공기가 놓여 있다. 언제 또 저런 냄비를 주워다 놓았을까. 방에 앉아 있는데도 짹짹한 온기가 느껴진다. 어제 저녁 소주에 마른 멸치를 먹은 것 말고는 오후까지 입에 넣은 게 없다. 냄비의 온기가 나를 식탁으로 이끌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났다. 따뜻하다는 걸 냄새로 표현한다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냄비를 보자 내 몸이 포근해졌다. 손가락을 찻찻 빨아가면서 밥과 김치찌개를 먹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더니 배가 든든해졌다. 커다란 솥단지에서 사골국물을 우려내던 때가 생각났다. 사골을 가져다 한나절을 찬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하고 잡뼈와 함께 삶았다가 그 물은 버린다. 다시 두 차례 이상을 센 불에서 중불로 중불에서 다시 센 불로 옮겨가며 삶아내면 식당 가득 은은하게 곰국냄새가 퍼졌다. 행복한 냄새였다. 배부른 냄새였다. 다시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들과 이 옥탑방에 온 뒤로 나는 점점 더 황폐해져갔다. 병원 치료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드레싱과 수술은 내 영혼에서 풀기를 완전히 빼앗아 갔다. 아무렇게나 짓이겨진 진흙덩어리 같은 얼굴은 흉물스러웠다. 화상후유증은 걷는 것조차 힘들게 했다. 나날이 쇠락해가는 몸과 모든 걸 잃었다는 상실감이 나를 더욱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매일 소주를 들이켜야 잘 수 있었다.

아들은 점점 내 모습에 질려갔다. 딸의 발걸음도 뜸했다. 아빠,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나 희망이 없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할 목표가 없었다. 내게 아직은 남아 있을 거라 믿었던 힘은 사실은 신기루였던 것이다. 목표가 없었다. 아이들도 다 커서 제 밥벌이는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내 삶을 살갑게 해 줄 아내도 없었다. 재기해야 할 필요성도 또 돈을 벌어야할 목적도 없었다. 아들은 내 곁을 지키기에는 아직 젊었다. 내게 힘을 불어넣고 용기를 얻게 하기에는 아들도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아들은 결국 잠시 내 곁을 떠나겠다고 입대했다.

딸이 김치나 밑반찬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아주 뜸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냉정했다. 곰탕집이 곤잘 됐을 때는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도 내 곁을 하나둘씩 떠나갔다. 병원에 와서 한두마디씩 위로의 말을 던졌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내가 치료비와 성형수술비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벌렸을 때, 그들은 탄전을 피우며 고개를 외로 꼬았다. 결국 사람들이 싫어졌고 해가 뜨는 밝은 낮이 싫어졌다. 낮에는 주로 잠을 잤고 밤이 되면 슬며시 고양이처럼 골목길로 나가 소주 한 병과 담배를 샀다. 방에 앉아 창밖 오피스텔 불빛과 달리는 차들을 보며 한잔씩 한잔씩 소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이러다 끝이 나는 건 아닐까 더러 겁이 나기도 했다. 언젠가는 다시 희망

의 불씨를 살려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올까?

강씨는 점점 대답해졌다. 욕실에 옷가지를 가져다 식씩 소리를 내며 빨아댔다. 소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함박에 담긴 강씨가 벗어놓은 팬티를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잠만 잔다는 사람이 아예 빨래까지 해대고 있으니, 정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책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겠는가. 월세를 내는 강씨로서는 당연한 일 것이다. 방을 쓴다면 욕실도 써야할 것이고 팬티나 양말도 빨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공간이라고 해봐야 벼룩 낫짝만한 욕실에 금을 그을 수도 없다. 빨래 금지령을 내릴 수도 없지 않는가. 막막하다.

아침녘에 오줌을 싸고 막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강씨가 들어왔다. 이빨 두 개가 빠진 입을 해벌쭉 벌리고 웃는다.

“땡겨왔그만요.”

“아 참, 냉장고에 김치 좀 넣었그만요. 어제 담은 것인 게 맛날 것이그만요. 잡사보श्य이요.”

얼굴 본 김에 욕실 빨래 얘기 좀 하려는데 김치얘기를 꺼낸다. 나는 아, 예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매번 강씨가 먼저 선수를 친다. 아, 그런데 냉장고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냉장고까지 차고 앉았던 말인가. 냉장고까지. 신경이 거슬렸지만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탓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잠에서 깨었을 때 티슈만한 크기의 햇벌이 방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다. 강씨가 언제 또 쓸어 냈는지 거실 바닥이 말끔하다. 쓰레기통도 비워져 있고, 빈병들도 다 치워져 있다. 제 집도 아닌데 참 무던한 사람이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늘 생수병 하나만 있었는데 아래 칸에 플라스틱 김치통이 보인다. 위 칸에 김치 한포기가 담긴 냉면 그릇이 있다. 오랜만에 보는 생김치이다. 생수 뚜껑을 열고 물을 들이켰더니 뭇 먹고 싶어진다. 밥을 한 그릇 퍼서 냉면 그릇에 담긴 김치를 쭉쭉 찢어서 먹었다. 염치없게도 속이 든든해진다.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담배 한 대를 물고 옥상으로 나갔다.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시월로 접어들면서 해는 더 짧아졌고 공기도 선선해졌다. 낮과 밤이 뒤바뀌다보니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낸다. 깨어있는 밤에는 근처 편의점에 갔다 오는 것 말고는 거의 외출 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지만 머릿속은 늘 비어 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조금씩 마시다보면 어느새 희미하게 해가 뜬다. 색이 바랜 의자가 옥상 귀퉁이에 있다. 천천히 걸어가 앉는다. 어두워지면서 헤드라이트를 밝힌 차들이 쉼없이 왔다 갔다 한다. 젊은 남자 여자가 무슨 재미난 말들을 주고받는지 서로 손바닥을 마주쳐가며 웃는다. 오피스텔 창문에도 불빛이 환하게 켜진다. 다들 분주하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는 구경꾼처럼 저들을 바라본다. 구경꾼처럼.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싸늘하다. 방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을 켜놓고 무릎을 세워 팔로 감싸 안았다. 찬바람이 불면 무릎은 더 쭈서울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할 텐데 치료받는 것조차 의욕이 없

다. 텔레비전에서는 마감뉴스를 하고 있다. 아나운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이 안 된다. 조용한 게 싫어 텔레비전을 습관처럼 틀어놓기는 하지만 제대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냥 사람들 말소리라도 듣고 있어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소주와 담배를 사러 갈 시간이다.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어둠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 계단을 천천히 걸어 아래로 내려왔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무릎이 아린다.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늦은 시간이다. 도로로 나오자 술 취한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와 택시를 잡느라 휘청거리고 있다. 늘 들렸던 편의점을 지나 더 걸어본다. 어쩌다 가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질 때쯤이면 밤길을 더 걸어본다. 아주 천천히 어두운 길을 걷는다. 얼굴에 와 닿은 바람이 선선하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욕신거린다. 걷는 것마저 이렇게 힘들어진다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하 가요주점 앞에 취한 남자들이 담배를 물고 서 있다. 건물 사이로 걸어 들어가 오줌을 싸는 남자가 보인다.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 다달았다. 떡볶이집과 왕만두 가게는 불이 꺼져 있다. 골목 안쪽으로 막창집 앞에 사내와 여자들이 서 있다.

먹자골목을 지나자 문 닫힌 과일가게 앞에 리어카 세 대가 있고 종이박스와 전단지 같은 파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파지를 분리하고 있다. 남자 하나가 다리를 절며 빈

라면박스를 들어다 리어카에 싣는다. 남자의 걸음걸이와 몸체가 어디선가 본 사람이다. 강씨와 많이 닮았다. 얼른 고개를 돌려 뒤 돌아섰다. 아무래도 강씨 같다. 강씨가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강씨는 늘 작업복 차림이었고 후줄근한 냄새가 났다. 옥탑방 하나를 얻어 사는 사람이라 무슨 특별한 일이야 하겠느냐 싶었는데 막상 일하는 걸 보니 마음이 찢해진다. 왔던 길을 되돌아오다가 24시 편의점에 들어갔다. 소주 한 병과 담배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늘 보던 종업원이 아니다. 오늘 처음 일을 하는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나를 힐끗힐끗 쳐다본다. 약물에 중독된 창백한 환자처럼 보일까. 아니면 편의점을 털려고 온 사람. 얼른 돈을 건네고 소주와 담배를 들고 편의점을 나왔다. 내 얼굴의 흉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편안하게 받아 넘길 때가 올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바람을 쐬어야 살아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원룸 건물 앞에 파지와 빈병이 놓여 있다. 빈병은 내 방에서 나온 것들이다. 파지는 강씨가 모아다 놓은 것인 모양이다.

강씨는 처음 김치찌개를 끓여놓은 후부터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강씨는 그것들을 따로 어디에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다. 물론 강씨 것과 내 것을 분리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지도 않다. 나는 이런 강씨의 음식들을 강씨와 자연스럽게 공유했다. 강씨는 매번 음식을 새로 만들면 내 방문을 두드려 먹기를 권했다.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환심을 사서 이것저것 내 물건을 쓰겠다는 속내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이빨 빠진 입을 벌리고 웃으며 내게 먹을 것을 권했는데, 그 표

정에는 먹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마력 같은 게 있었다. 내가 그동안 정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일까. 받은 게 있으면 줘야 할 것이 있는 법. 결국 내 살림살이가 강씨 것과 뒤섞이게 되었다. 내가 사용할 만한 강씨 살림살이는 거의 없다. 강씨는 처음 옥탑방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배낭과 이불보따리 이외에는 살림살이가 없었으니까. 내가 쓸 강씨 살림은 없었지만, 강씨가 쓸 수 있는 내 살림살이는 많았다. 강씨는 내 것을 마치 제 것처럼 썼다. 강씨는 냉장고에 이것저것 먹을 것과 찬거리를 채워 넣었고 설거지대에 밥그릇이나 냄비들을 올려놓았다. 밥그릇이나 냄비들은 대개 낡아서 재활용 수거통에서 수거해온 듯한 인상을 줬다. 물론 욕실에 있는 플라스틱 바가지나 비누 곱을 사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용인했다. 사실 용인했다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강씨가 사용했으므로 나는 그 값을 셈하느라 강씨 음식을 먹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강씨와 자연스럽게 얼크러졌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강씨가 내 방까지 쳐들어왔다. 밖이 어두워지고 강씨가 나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문을 두드리더니 강씨가 얼굴을 내 방으로 들이밀었다.

“오늘 우리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가 있는디…. 텔레비 좀 보면 어찌까요이? 축구를 보고 나가야 것는다…. 일본하고 허는 것은 중요허잖여요이.”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마땅한 핑계거리를 댈 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는데, 강씨가 어느새 내 방으로 들어와 텔레비전을 켜다. 나는 누워 있기가 그래서 엉거주춤 일어나 앉았다. 경기

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른 거 다 제쳐 두고라도 한일전은 꼭 봐야 안 허 것습니까 요이.”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어 어색하게 앉아 축구경기를 봤다. 강씨는 가만히 앉아서 경기를 보는 게 아니었다. 우리 선수가 공을 잡아 상대방으로 넘어가면 올타 잘 한다, 그러 그러 그렇게 막 뛰어가 번져, 라고 했다.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공이라도 빼앗기면 저런 저런 죽일 놈, 발목가지를 어찌 저리 놀리냐, 하며 탄식했다. 옆에서 듣기에 민망했지만 강씨를 제지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강씨 목소리에 동화되어 어처구니 없게 나도 축구경기에 몰입했다. 강씨 말대로 한일 간의 축구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묘미가 있었다. 우리 선수가 찬 공이 아쉽게 골대를 살짝 스쳐 넘어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하고 탄식을 내뿜었다. 옆에 앉은 강씨는 더 했다. 자기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퍽 치며, 아이구 아이구 저런 저런 발모가지를 살짝 틀지 그랬냐, 하며 아쉬워 했다. 그렇게 엇치락뒤치락하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강씨는 아이구미, 정말 속이 터져 뿔리고 허네, 짜식들 찌개만 힘을 좀 쓰재 하며 아쉬워했다. 나도 모르게 강씨와 내가 같은 편이 되어 그라운드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공이라도 찬 것처럼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다. 잘 봤그만이라우. 강씨가 일어서 나갔다.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하마터면 나는 들뜬 기분에 이런 말을 할 뻔 했다. 속에도 없는 말을. 나는 강씨와 친해질 생각은 전혀 없다. 당신은 방이 필요해서 내 집에 들었을 뿐이고 나는 돈이 필요해서 당신을 들였을 뿐이니까.

며칠 뒤였다. 옥상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데 강씨 방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났다. 이 시간쯤이면 강씨는 밖에 나갔을 텐데 무슨 소릴까. 강씨 방은 평소에도 잠그지 않는다. 방문을 열었다. 털이 아직 여물지 않은 강아지 한 마리가 줄에 매여서 킁킁거리고 있다. 이제는 강아지까지 갖다 놓았던 말인가. 마음이 심란해진다. 저것을 풀어놓으면 아무 곳이나 똥을 지를 것이고 아무 때나 짖어댈 텐데 이걸 어찌나. 정말 이대로 놓아둬야 하나. 요 며칠 강씨 때문에 밥을 몇 끼 먹기는 했지만 이건 아니다. 사람 꼴도 싫은 판국에 개새끼까지 등장시켜 나를 귀찮게 할 셈인가. 당장 강씨와 담판을 지어야겠다. 뒤돌아서 나오려는데 녀석이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자꾸 킁킁거린다. 아무래도 녀석의 목에 줄이 너무 세게 묶여 있는 모양이다. 두 손으로 녀석을 안았다. 작지만 살아 있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감촉이 손으로 전해온다. 녀석의 목에 줄이 단단히 매어있다. 줄을 성글게 풀어주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녀석이 나를 따라오려고 작은 발을 앞으로 자꾸 내딛는다. 모른 채하고 밖으로 나왔다.

단단히 버르고 강씨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강씨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짝게 좋아지신 모양이네요이.”

강씨가 거실에 나와 있는 나를 보자 이빨 빠진 입을 헤벌쭉 벌리고 웃는다.

“아, 예. 근데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안그려도 오늘은 이사 온 지도 꽤 됐고 허서 한잔 했으면
싶어서 쇠주 한 병 사왔습니다요.”

강씨가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다. 창하고 봉지 안에서 소주병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갱아지 새끼는 잘 있겠지...”

강씨가 자기 방 문을 열어본다.

“쭈쭈쭈. 잘 있그만요. 한잔 합시다요. 아자씨도 꽤 술을 좋아
허시는 모양이드만요. 쇠주병이 둥글어 땡기는 걸 보니까요.”

강씨가 식탁 맞은편에 턱 앉는다. 단단히 마음먹고 그동안 밀
린 불만을 토로할까 했다가 주춤해진다.

“안주가 있어야지요잉.”

강씨가 냉장고를 열더니 냄비를 꺼낸다.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탁 불을 켜다. 뒷덜미에서 뭔가 훅 올라오면서 가슴이 뻐
다. 나는 강씨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심호흡을 한다.

“돼야지 고기를 좀 삶아 놔는디, 먹을 만 헐꺼그만요. 자, 한
잔 받으시요잉.”

비닐봉지에서 이 흡 들이 소주를 꺼내 병마개를 까더니 내게
종이컵을 내민다.

“근데, 뭘 헐 말씀이요잉.”

받아먹는 게 죄인가. 단단히 베틀어 있었는데 소주잔을 받으면
서 마음이 약해진다.

“저..., 강아지가 줌...”

“아하, 갱아지요. 왜요. 귀엽잖어요. 돼야지 괴기가 다 데워졌
는 갑다.”

강씨가 가스레인지에서 끓은 냄비를 식탁에 던지듯 올리고 손가락을 컧볼에 갖다 댄다.

“아이구 뜨겁다. 어, 어제 집에 오다가 보니께 골목 귀퉁이에 서 울고 있잖어요. 불쌍해서 텔고 왔어요. 불쌍하잖아요. 어미는 어디로 가불고 혼자 울고 있는 것이 안돼 보여서요. 인연인가보다 하고 텔고 왔지요이.”

나는 소주가 든 종이컵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아자씨,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시요잉.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만큼은 지대로 살아야지요이.”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궁색하게 종이컵만 이리저리 돌렸다.

“아자씨도 얼굴을 봉께 뭐 험한 일을 당하신 모양인디, 그라도 일어서야지요. 지도 10년이나 노숙자로 지내다가 이제야 방 한 칸 마련했당께요.”

강씨가 종이컵에 든 소주를 벌컥 들이켰다.

“지도 하던 일이 망해서, 10년 전에 집에서 나와부렀당께요. 결혼도 못했지라이. 노숙하면서 지내는 동안 부모님도 돌아가버리셨지라우. 그동안 안 자본 디가 없당께요. 역전, 공원, 쪽방, 주차장 또…”

젓가락으로 비계가 붙은 고기 덩어리를 집어 입에 넣더니 강씨가 술을 재촉한다.

“아, 한잔 쭉 두쇼이.”

그렇지 않아도 한잔 넘기고 싶었는데, 강아지 얘기를 꺼낸 게 멋쩍어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강씨가 재촉하는 바람에 모르는 척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다.

“자자, 이 괴기도 한점 해보쇼이.”

강씨가 젓가락을 내게 준다. 얼떨결에 젓가락을 받아들였다.

“그라고 또 만화방, 피시방, 사우나에서도 잤지요이.”

며칠 전 밤에 빈 라면박스를 던지고 있던 강씨 모습이 생각났다. 강씨 형편이 어떨 거라는 걸 짐작은 했지만, 막상 강씨 입으로 직접 들으니 바짝 조이려던 마음이 누그러진다.

“다리랑 이빨은 왜?”

“아, 예. 다리는 애릴 때부터 소아마비였지라우. 놀림도 많이 받았씨라우. 노숙 생활하면서 이빨은 빠져 뿔고요. 역전에서 자고 아침에 교회행사 참석하고 식권을 받아 아침 밥을 해결했고요이. 점심은 궁꼬 저녁에는 무료급식소를 찾아댕기면서 배를 채웠지요이. 몸뎡이도 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지요이. 같이 노숙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병이 걸려 죽은 사람도 많아씨라우. 그 중에서도 그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요이.”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났던지 강씨의 통방울눈에 이슬 같은 게 슬쩍 비쳤다.

“군밤장사를 시작하거나, 노점상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일용노동자, 파지수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라우.”

이 흡 들이 소주 한 병이 바닥나고 두 병째 소주를 깬다. 이제 는 내가 소주병을 들고 강씨 잔을 채웠다.

“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것다는 생각을 했지요이. 나이 오십 넘어 더 몸이 망가지기 전에 자립해야겠다는 맘을 먹었당께

요. 자활프로그램에 참가했지요이. 새벽 3시부터 4시간을 일했지요. 추울 적에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차와 커피, 생수를 나눠주고, 때론 침낭도 나눠줬지라우. 하루에 4시간씩 한달에 15일간 일을 하면 40만원 정도를 받지라우.”

나는 몇 잔 먹지 않았는데도 취기가 올라왔다. 강씨 이야기에 젖어서 었을까.

“자활센타에서 만난 사람덜끼리 저녁 8시부터 각자 구역을 정해서 파지를 줍지요이. 지난 번에 방 구경 왔던 사람들 있지라우. 바로 그 사람들이그만요. 주서온 파지를 모다들 모아서 분류 작업을 해서 이걸 팔아붙여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쪼그마한 방이라도 얻어서 노숙생활을 청산하는 거지요이. 지도 이렇게 해서 이 방에 들어온 거그만요.”

나는 취해 가는데 강씨 얼굴은 뽕뽕해 보였다.

“열심히 살아볼랍니다요이. 앞으로 인생 얼마 남도 안 했는디 열심히 살아야지요이. 안 그렇 것 습니까요이. 걱정마시쇼이. 갱아지는 밖에다 내놓겠습니다.”

소주 두 병이 다 비워졌다. 강씨는 이제 가서 잘납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식탁 위에 있는 냄비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빈병을 현관 앞에 갖다 놓고 방으로 들어왔다. 취기가 물려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강씨의 과거를 들어서 일까. 뭔가에 꽂여맞은 것 같다.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다. 강씨가 또 누군가를 데려온

걸까.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가야겠는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멀치를 우리는 지 멀치국물 냄새가 진동한다. 방안까지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꽤 많이 끓이는 모양인데 뭘 하려고 그럴까. 강씨 말고도 두어 사람의 목소리가 더 들린다. 지난번에 들었던 그 사람들 목소리다.

“행님, 이정도면 됐지요.”

“아녀. 더 푹 끓여야 혀. 그러야 육수가 진하게 우려 나오지. 이 참에 맛있게 해야 요담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거란 말여.”

“일단 우리부터 배를 좀 채우더라고, 하루종일 먹덜 안 했더니 배가 고파서 배가 허리하고 키스를 하겠네. 어이, 자네 먼저 국수부터 좀 삶소.”

국수. 국수를 삶는단다. 오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슬며시 열었다. 거실은 완전히 국수집 주방이 되었다. 큰 찜통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고, 옆에서는 국수를 삶고 있다. 나는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그들 옆을 지나갔다. 강씨와 남자 둘이 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후루룩 국수를 입에 밀어 넣고 있다.

“저기 저, 우리 지금 국수 삶고 있는데, 국수 한 그릇 잡수세요.”

“아, 아 예. 저는 괜찮아요.”

내가 손사래를 치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는데, 강씨가 나를 잡는다.

“방금 삶았으니까 맛이 있을 거이그만요. 한 그릇 잡사 보시쇼.”

젊은 친구가 플라스틱 채반에서 국수 한 다발을 그릇에 담고

육수를 부어 건네준다.

“여기 앉아서 같이 드세요.”

나는 열결에 젊은 친구가 내민 국수를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수를 많이….”

서너 사람이 먹기에는 국수가 너무 많았다.

“아, 이거요. 우리가 그동안 노숙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신세를 갚아보려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렇게 국수라도 한 그릇씩 대접하려고 준비한 거그만요.”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젊은 친구가 말아준 국수를 입에 넣었다. 국수가 달고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국수다. 국수 그릇을 다 비운 강씨와 남자들이 육수와 국수발을 밖으로 내가기 시작했다. 육수가 담긴 찜통을 젊은 친구가 들었고, 보자기로 덮은 플라스틱 채반을 강씨가 잡았다. 다른 남자는 김치통과 계란지단을 챙겼다.

“그냥 놓아두셔요. 우리가 할 것인데.”

내가 엉거주춤 서 있다가 스티로폼 그릇과 나무젓가락이 든 종이 박스를 들자 강씨가 말린다. 내가 종이박스를 단단히 팔로 감싸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강씨가 나를 보며 이빨 빠진 입을 헤벌쭉 벌리고 웃는다.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어줬다. 젊은 친구가 리어카를 끌고 강씨와 다른 남자가 뒤를 바치고 따라간다. 땀겨웁니다요이. 기우뚱거리는 강씨의 다리가 꺾끗하고 힘 있어 보인다. 계단을 올라

오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나온다. 계단을 다 올라와 보니, 내려갈 때는 못 봤던 박스가 보인다. 앞쪽이 터진 종이박스가 옥탑방 현관문 옆에 놓여 있다. 못 보던 것인데. 고개를 숙여 안을 보니 강씨 방에 있던 강아지가 있다. 녀석은 종이박스 안에 얇전히 엎드려 있다. 녀석의 밥그릇 인지 빈 플라스틱 그릇이 종이박스 앞에 놓여 있다. 방으로 들어가 마른 멸치를 몇 개 가져다 그릇에 담아줬다. 녀석이 몸을 일으키더니 느린 걸음으로 나와 멸치를 먹기 시작한다. 혀를 잹싸게 놀리며 먹는 모습이 귀엽고 야무지다. 해가 서쪽으로 점점 기울러간다. 얇은 햇살을 받으며 난간 쪽으로 걸어가 봤다. 베란다 중간에 매놓았던 베니어판이 끈이 떨어진 채 헐렁하게 옆으로 누워 있다.



모든 것에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삶은 살아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을 가끔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서툴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흥 능곡초등학교

송 영 인

따리

과거를 모두 녹화시킨 영상이 있어 그것을 정밀히 분석하면 내 내부에 가만히 따리를 틀고 있다가 고희의 자화상을 보는 순간 나를 물어뜯었던 것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을까? 나는 상진에게 나를 알코올홀릭으로 만든 것은 고희의 자화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지만 그것은 서대열의 경우처럼 핑계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었다.

-본문 중에서-



파리

이틀 동안 거의 잠만 잤다. 늪 속으로 빨려드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가만 잠 속에 나를 맡겨버렸다. 금단현상일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알코올의 힘을 빌어야만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로 살았다. 산사에 올라오기 전, 오랜만의 장거리 운전이라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 정비소를 찾았다. 두 개의 바퀴와 엔진오일, 미션오일을 갈고 계산을 하려는데 정비사가 같이 시운전을 해보자고 했다. 정비사는 거칠게 차를 몰았다.

“주행거리가 이만오천이네요. 차, 별로 사용 안하시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앞만 주시하자 정비사는 나를 흘깃 보더니 말을 이었다.

“차가 굉장히 무겁네요. 차도 한 번씩 달려줘야 가볍게 잘 나갑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과속할 필요는 없지만요.”

마치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았다. 과도한 연료를 섭취하고도 달리지 않는 자동차, 이제 너무 무거워져 움직이기조차 힘든 자동차, 아내가 암자로 가라고 한사코 등을 떠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누구에겐가 적의를 드러내고 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계곡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바위무더기를 지나 계곡

쪽으로 다가가 손을 물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다. 빌어먹을,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지만 이 떨리는 손에게는 욕지거리가 밀려들 수밖에 없었다.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까? 물속에 손을 담그자 정수리까지 찬 기운이 뻘뻘했다. 손은 세세하게 떨리지 않고 힘을 약하게 하면 뒤로 밀렸다가 물살의 세기와 맞추면 손이 정지한 듯 보였다. 하지만 손을 물에서 빼내자 다시 손이 떨렸다.

아침 공양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청아하게 들렸다. 큰 소리로 울렸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여운을 남기고 사그라졌다. 마치 축제가 끝난 뒤, 쓸쓸함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인생의 정점을 지나 죽음이라는 소실점을 향해 떠나가는 노인처럼 목탁 소리는 그렇게 소멸되었다. 높게 뿜 만큼 바닥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잔잔하다가 갑자기 뛰어오르기도 하며 작은 파동을 그리다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에도 위로 치솟는 시기가 다시 올 수 있을까? 목탁소리의 마지막 여운처럼 나는 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러자고 이 산속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던가?

콩나물, 숙주나물, 깻잎, 풋고추, 가지절임, 열무김치, 무말랭이가 상위에 놓여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앞에 있는 열무김치와 밥만 먹었다. 공양주가 다른 반찬도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내 앞으로 반찬들을 밀며 말했다. 그 옆에 있는 풋고추를 집어서 된장에 찍어먹었다. 아삭아삭 씹히는 질감과 얼얼하게 매운 느낌이 향수를 자극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유독 청양고추를 좋아했던 까닭에 항상

밥상 가운데에는 그것이 놓여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당신의 권위를 확인시켜줄 것이라는 표정으로 그 매운 고추를 절반씩 나누어 먹곤 했다. 아삭거리는 소리가 맛있게 들려 아버지처럼 한 입 가득 베어 물었던 적이 있었다. 너무 매워 혀바닥을 길게 내밀며 물을 찾다가 아버지에게 호통을 들었다.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를 말아. 이눔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때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항상 의문이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표독스런 눈빛만은 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 스님이 손님방에 묵을 사람 한 명 더 온다고 하던데…….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든가?”

공양주의 말을 귓가에 흘려들으며 나는 풋고추를 연신 입으로 가져갔다. 입안이 화끈거렸다.

산사는 문경팔경 중의 하나인 운달계곡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1500여 년 전에 지어진 김룡사에 딸린 대성암이란 비구니들만 사는 암자였다. 암자 입구에 어른 키의 열 배가 넘는 은행나무 암수그루가 서 있었다. 암자의 큰문을 들어서면 하얀 자갈돌이 마당에 깔려 있었고 절구통 두 개 정도 크기의 바위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위에 구멍을 뚫었는지 아니면 구멍 뚫린 바위를 구해다 놓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바위 안쪽이 깊게 패여 있고 바닥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 바위 바깥으로 물이 계속 흘러넘쳤다. 그 옆에는 땅딸막한 목련이 서 있었는데 한여름인데도 하얀 꽃잎이 지지 않고 짙 벌어져 있었다. 주지스님은 진목련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고 이와 반대로 산목련은 잎이 먼저 나고 꽃이 피며

여름에도 꽃봉오리가 맺힌다고 했다.

내가 태어났던 집, 뒷마당에도 목련 한 그루가 있었다. 그늘진 곳에 서 있었던 터라 다른 집 목련 보다 훨씬 늦게 꽃이 피고 늦게 꽃이 졌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말문이 터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오줌을 가리지 못한 나를 보고 외삼촌들은 기대하지 말라고, 바보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곤 했었다. 반면 세 살 터울인 형은 나와는 확연하게 달랐다. 글짓기를 잘해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상을 타기도 했고 공부도 항상 일 등이었다. 특히 형이 웅변으로 도 대회에서 최우수를 탔을 때는 전교생이 모여 있는 운동장 앞, 조희대에서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빛낸 훌륭한 학생이라고 수업시간이 다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수업시간 종이 울리고 형이 웅변을 시작하자 운동장 스피커에서는 형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라고 두 팔을 힘차게 뻗으며 말했을 때 모든 전교생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형은 이야기책에 나오는 거인처럼 커 보였다. 형은 학교와 마을의 자랑거리였다. 사람들은 형과 나를 비교하며 혀를 찼지만 나는 그래도 그런 멋진 형을 둔 것이 자랑스러웠다. 형은 세뱃돈을 받거나 상금을 탈 때면 내가 좋아하는 퍼즐을 사주었다. 형이 사준 퍼즐에는 쇠라의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든가 고희의 ‘별이 빛나는 밤에’,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같은 유명화가들의 작품들도 있었고 ‘플란 더즈의 개’, ‘빨강머리 앤’과 같은 동화들의 표지를 인쇄한 퍼즐도 있었다. 어쩌면 형의 선물 덕분에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퍼즐 맞추는 것을 그리 마뜩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방에 딸린 다락방에 올라가

퍼즐 조각들을 바닥에 흩어놓고 퍼즐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다락방에서 쥐새끼처럼 뒹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즈음의 나는 밤마다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꾸었고 그런 꿈을 꾸 다음날은 으레 이불에 오줌을 싼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이불에 가득 그림을 그려놓은 나에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고, 밤에 오줌을 누지 않겠다는 다짐을 열 번 이상 하지 않았다고 매질을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날, 뒷마당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목련을 바라보았다. 모든 사물은 정지한 듯 보였고 하얀 꽃잎이 하늘하늘 불규칙적으로 반원을 그리며 떨어졌다. 나도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떨어져 땅속으로 스며들고 싶었다.

오후 늦게 바위 옆의 목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누렇게 시들어서 쪼그라든 꽃잎이 눈에 거슬렸다. 하지만 갓 피어오른 꽃송이는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하얀 고무신들처럼 정겨웠다. 계곡 물소리 위에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걸려있었다. 갑자기 승용차 엔진 소리가 그 소리들을 뭉개며 가까이 다가왔다. 차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한 사내가 암자 입구로 들어섰다. 그는 직선을 그리며 당당하게 물이 흐르는 바위로 가서 바가지 가득 물을 떠서 별걱별걱 들이마셨다. 180센티미터가 넘는 키에 긴장한 체구, 네모난 얼굴을 가진 그는 나에게 대뜸 큰소리로 물었다.

“주지스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안쪽을 가리키며 저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내가 가리킨 곳을 향해 걸어갔다. 사내의 얼굴에는 칼자국인지 모를 상처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로 움푹 파여 있었다.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흙으로 만든, 200

년이 넘은 토굴 같은 방은 수면제라도 뿌려놓은 듯 머리를 바닥에 붙이면 바로 잠에 폴아떨어지곤 했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잔 탓인지 누워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을 청할수록 정신이 말뚱말뚱했다. 문에 걸린 왕골로 만든 발 톱 사이로 꽃들이 보였다. 그 위엔 커다란 잣나무 숲과 수채물감을 찍어 바른 듯 투명하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있었다. 백일동안만 꽃이 핀다는 백일홍, 잎이 진 다음에야 꽃이 핀다는 상사화, 소담스레 피어있는 노란색 들국화가 바람에 제 몸을 떨어대었다. 발을 걷고 한들거리는 그 모습을 넋 놓고 쳐다보았다. 갑자기 하늘이 회색으로 변하더니 사각 프레임 안에 투명한 빗금이 그려졌다. 아무리 빗금을 그려도 꽃들은 제 빗칼을 빗냈다. 스님들의 거처에서 사내가 내 방 앞으로 걸어왔다. 발을 내리고는 다시 잠을 청했다.

“주무시는 갑지예?”

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모른 척했다. 저런 사내와 같이 말을 섞으면 피곤해지는 법이니까.

“저 앞방에서 한 달 지낼 건데예. 잘 부탁드립니다이.”

자갈 밟는 소리가 들리고 방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있으니 비 듣는 소리도 멈추고 사위가 고즈넉해졌다. 산사의 여름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비가 그친 뒤 물기 묻은 자갈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며 까무룩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스님, 제 이름이 뭐라 했십니까?”

내 방문 앞마루에서 들리는 우렁찬 사내의 목소리에 잠을 깬다.

“아이, 땃번을 말해조야 아시겠십니까? 서대열이, 서,대,열. 한 번 따라해보이소.”

“안다. 알어. 서대여리. 알고말고.”

“노스님 얼굴 본께네 소시 적에는 미인 소리 마이 들었을 것 같네예.”

“소학교 시절에는 따라다니는 놈들이 많았제. 사내애들이 우리 집 앞에서 밤마다 휘파람을 불곤 했어. 그럼 나는 새치름하게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며 방문을 닫아 버리곤 했지.”

치매가 걸린 노스님은 얼핏 스쳐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였다. 하얀 석고가루를 들이부은 것 같은 뽀얀 얼굴에 항상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었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볼 때는 배경에 속해있는 하나의 정물처럼 보였다.

“근데 어찌다 절에 들어오게 된겁니까?”

“.....”

“말하기 싫은 사연이 있는 겁지예? 어릴 때 들어오셨다던데, 부모님들이 절에 맡겼습니까?”

“아니야, 아니라니깐. 우리 아버지, 사람 안 죽였어. 안 죽였다니까. 아입니더, 아니라예. 죽였어예 죽인 거 맞십니더.”

밖으로 나가 서대열의 떡살을 잡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런 사내와 말다툼을 벌이긴 싫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마그마가 열은 지각을 뚫고 나오듯 뼈아픈 아픔들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열은 의식 위로 뚫쳐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법이다. 그것은 경험해본 자만이 안다. 노스님에게 부모님이란 단추가 그렇듯이 나에게도 고희의 자화상이 그런 것이다.

콩쿠르에 당선된 이후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상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오로지 그 콩쿠르에만 목매여 보냈던 이 년 간의 피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림의 모티프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자 콩쿠르의 부상으로 받은 유럽여행 티켓이 떠올랐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이었다. 나는 머리로 식힐 겸, 새로운 작품에 대한 착상도 할 겸해서 파리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드골 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이었다. 이국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신선했다. 가장 보고 싶은 것은 고흐의 그림이었다. 먼저 보고 온 상진에 따르면 고흐의 그림에는 화보와는 다른 진품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했다. 그 무엇이 궁금했다. 나는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예술적 광기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이 있는 오르세 미술관을 첫 번째 관람지로 정하고 지하철이 다니는 시간까지 기다려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만약 오르세에 가지 않았다면, 고흐의 그림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았을 테고 여전히 촉망받는 작가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때 파리의 하늘은 푸르렀고 사람들은 평화로운 듯 지나갔으며 오르세 미술관 안은 한산했다. 내 인생을 뒤바뀌게 만들 전조는 전혀 없었다. 화보에서 보았던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화보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고흐의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잠깐 긴장했다. 다른 방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관람객이 있었다. 특히 팸플릿에 나와 있어서인지 다소 많은 사람들이 고흐의 자화상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는 그림이 뿜어내는 강력한 자장에 이끌린 듯 그 그림 앞에 섰다.

흡사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뒤로 거칠게 빗어넘긴 그의 머리카락, 강렬하면서도 슬프게 어딘가를 주시하는 그

의 옆모습과 여러 마리의 뱀들이 파리를 틀었다가 꾸불꾸불 움직이는 것 같은 푸른빛이 도는 배경. 이글거리는 붓 터치로부터 발산된 고흐의 감정이 고스란히 나의 망막을 통해 가슴 속으로 밀려들었다. 고통스런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어렴풋이 들으며 고흐가 유화 물감을 덕지덕지 붓에 바른 뒤, 내 감정의 백지 위에 둔탁하게 강렬한 색을 쳐 바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메두사의 눈을 쳐다본 사람처럼 돌덩어리가 되어 서 있었다. 머리에 불이 붙은 것 같이 활활 타오르는 상상력을 내 이성이 제어하지 못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테두리 한쪽이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몇 마리의 뱀들은 파리를 틀고 나머지 몇 마리의 뱀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굴 위를 지나다녔다. 그것들이 기어 다니는 느낌에 소스라치게 놀라 뱀들을 집어던졌을 때 고흐의 광기에 뒤덮인 눈과 마치 산사 안의 물이 고여 있는 바위 속처럼 움푹 들어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집념 어린 눈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얼굴 위의 뱀들을 집어던지며 나는 조금 느릴 뿐이야, 단지 조금 느릴 뿐이야, 하고 외쳤다. 내가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등은 온통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온 몸이 뱀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스멀거렸다.

“초저녁부터 웬 꿈을 그렇게 요란하게 꾸십니까?”

서대열이 먼산바라기를 하며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오늘 밤에 술 한 잔 안 하십니까? 사업 구상도 하고 머리 식히려고 왔다가 이거 뭐 심심해서 송장 되겠습니더. 오늘 나가서 회 한 사라 떠올 낚게 술 한 잔 합시더……. 아이고 덩다, 더워.”

서대열이 못마땅했으나 술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다. 그 전까지 산사에서 술을 마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가만 생각해보면 비구니 스님들은 안채에만 있었으므로 그녀들 모르게 혼자 내려가 술을 사다가 계곡 쪽에서 마시고 올라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말자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던가?

“저는 됐습니다. 혼자 드세요.”

“그래예. 알겠습디. 이거 뭐 빨리 내려가든가 해야지. 폭 쉬러 왔는데 당채 잠도 안 오고 심심해서. 원.”

산사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아름드리 은행나무들, 잣나무들의 밑동부터 어스름이 짙어지다가 산사 주위가 컴컴해지면 그 때서야 희뿌옇던 하늘은 진한 파랑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 듯 점점 쪽빛으로 변해갔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며 차 소리를 기다렸다. 술을 마시고자 한 것은 아닌데 서대열이 언제 올지 신경이 쓰여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산사에서 백 미터 가량 떨어진 다리 쪽에서 차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벌떡 일어났다가 천천히 다시 누었다.

“주무시는 겁니까? 송어회 좀 떠왔습디. 드시고 주무시지예. 술은 저 혼자 마시도 됩니더.”

못이기는 척 일어나 서대열의 뒤를 따라 바위 무더기를 지나쳐 계곡 쪽으로 걸어갔다. 서대열이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어둠 속에서 흰 이를 드러냈을 때 다시 방으로 들어갈지 망설였다.

“이리 오이소. 마 죽입니더. 이래야 사람이 사는 기지. 계곡이

지척인데 술도 한잔 몬 하고 이기 멍니꺼? 오늘 달빛도 좋고 죽이네.”

이렇게 천박한 사내와 술잔을 나누다니 내가 알코올중독인 게 분명했다. 나무젓가락을 건네며 ‘회 좀 드시지예’라고 권하는 서대열에게 나는 잔부터 내밀었다. 서대열은 아무 말 없이 잔에 술을 따랐다. 서대열의 말을 계곡 물소리에 흘러보내며 계속 소주를 마셨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뭘 하시는 분입니꺼?”

“그냥 그림 그려요.”

“와파 마. 화가신교? 그람 이것도 인연인데 지한테 그림 한 장 그려주이소. 제가 널 저녁에 롬싸롱 한 번 쏘겠심더. 대구 나가면 예쁜 아가씨, 화가 선생님 앞에 나래비를 세워줄 낀게 그림 한 장 부탁합니더.”

그 말에 소주병을 들고 나발을 붙였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소주가 식도로 흘러들어가자 불끈 열기로 변해 입으로 다시 올라왔다. 이런 천박한 새끼. 상종할만한 놈이 아닌데……. 터져 나오는 소리를 손으로 가로막았다.

“술 더 가져오까예? 저 바위 밑에 히야시 된 거 많십니더.”

간절하게 술이 더 마시고 싶었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비굴하게 말했다.

“제가 화구를 가져오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기야 내가 내일 퍼뜩 사 오께예. 걱정 마이소.”

서대열이 술을 더 꺼내러 바위 밑으로 갔을 때 다시 술에 젖다는 패배감이 솟구쳐 올랐다. 이런 나약한 정신력으로 그린 내 그림은 저런 놈한테 어울릴지도 몰랐다. 그림을 한동안 못 그리며

술만 마시고 작업실에 처박혀 있을 때 상진이 한 말이 떠올랐다.

“왜 유독 너만 그 그림에 집착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 그림을 보고 간단 말이야. 나만 해도 몇 번을 봤지만 그림에 귀기가 서려 있다는 느낌 말고는 별다른 느낌을 못 받았어.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그림 좀 그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녀석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왜 유독 나만 그 그림에 충격을 받은 걸까?

“자화상 따위가 뭐야. 다른 그림을 그려. 안 되겠으면 고흐 그림에 낙서라도 해봐. 머리에 뿔을 그리고 눈탱이가 뺨탱이가 되도록 그려 넣어. 고흐의 자화상을 흉내 내는 따윈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해.”

녀석의 말을 들은 뒤 술에 취해 고흐의 그림을 모사하고 그 위에 뿔도 그리고 눈을 빨갛게 색칠하기도 했다. 신경질적으로 가위표를 치기도 했다. 통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꾸불꾸불한 배경에 뱀 대가리를 그려 넣었을 때 새로운 발견한 양 ‘바로 이거야’를 외치며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다. 완전히 그를 극복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술이 깨어 그 그림을 보면 낙서를 해대며 발광하던 그 놈을 죽이고 싶었다. 다시 술을 마시는 수밖에 없었다.

“한 잔 더 하이소. 근데 노스님 이야기 압니까? 근심 하나 없는 천진한 아이 같은 얼굴을 하구선 어째 그 기억은 안 없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더. 이제 벌써 60년은 지난 일이긴데예.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믄서 말입니더. 왜정 때 아버지가 순사 앞잡이 노릇을 했다지예.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네예. 어무

이와 둘이 살다가 절에 행자로 들어오게 됐다더만예. 참말로 어
린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시모 저리 몬 잇는 길까예?”

서대열은 나보다 늦게 왔으면서도 암자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잘 알고 있는 눈치였다. 술잔을 비우는 동안 보름달이 구름에 가
려 사위는 더욱 어두워졌고 내 정신도 점점 꺼물거렸다.

아침 공양도 못하고 계속 꿈속을 헤매다가 방문 두드리는 소
리에 잠을 깼다.

“주무시는 갑지에. 저 교회 좀 다녀오께예. 점심은 묵고 올깁
니다. 공양주 보살님께 적당히 둘러대 주이소.”

밖을 내다보니 서대열이 흰 셔츠에 까만 세로줄이 쳐진 양복바
지를 입고 말쑥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는 손을 들며 인사를 했
다. 절에 와서 왜 교회를 가는지 의문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가 산사 밖으로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제나 활기찬 그의 모습에 다소 질투심을 느끼면서
다시 열패감에 빠져들었다.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술도 끊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일
까? 작열하는 태양빛은 자갈에 반사되어 내 방 안까지 비추고 나
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에 축 늘어진 고깃덩어리처럼 방안에
놓여있었다. 고흐의 자화상을 뛰어넘고자 그렸던 그 많은 자화상
들은 한갓 쓰레기가 되어 나의 정신을 짓밟고 떨리는 손, 떨리는
정신만이 힘겹게 내 삶을 구성하고 있었다. 정말 천박한 것은 내
가 아닐까? 상진은 나에게 고상함을 버리라고 충고했었다.

“숭고의 시대는 끝났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 단지 취
미 판단만이 득실대는 시대야. 네 앞에 있는 소주병 하나가 전시

실에 가면 예술이 되는 시대란 말이야. 너의 그림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내가 쓰레기라고 믿는 그게 진짜 예술일 수도 있단 말이야. 수많은 화가들이 너만 못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줄 알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못하고 알코올에 힘을 빌려 사람들을 욕하는 네가 진짜 가짜야. 가짜. 나도 이젠 지친다. 정신 좀 차려!”

상진의 말이 옳은지도 몰랐다. 아니 옳을 것이다. 알코올의 중독성도 이겨내지 못하는 유약한 정신을 가진 내가 가짜 화가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려고 한 것은 상진이 말한 숭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콩쿠르에 입상하기 전엔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구상하기도 하고 그것에 상당한 재미를 느꼈다. 그런데 고흐의 마지막 자화상을 본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하찮게 느껴졌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할만한 여력이 내겐 없었다. 계속해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내 명치끝을 짓누르고 있었고 때론 그것이 분출되어 하나의 이미지로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붓을 들면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었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란 고흐의 자화상을 모사하거나 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뿐이었다. 자화상을 그릴 때면 항상 눈을 마지막에 그려 넣었다. 눈을 그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가 눈을 그릴라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쩔면 나는 눈을 그리기 위해 자화상을 그리는 건지도 몰랐다. 그 전까지의 작업은 내게 별 의미가 없었다. 그냥 눈을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이었다. 눈을 그려놓고 나면 그림 속의 눈은 아버지의 눈을 닮아있었다. 아무리 다르게 그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까만 눈동자를 박아 넣는 순간, 나는 그 그림들을 찢어버리고 싶

었다. 눈동자를 파랗게, 분홍색으로, 코발트빛으로도 그려 보았지만 내 마음 속, 핏발선 아버지의 눈을 지우지는 못했다. 그려진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눈을 의식하는 내가 문제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고희의 자화상을 본 순간부터 이상스레 내가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아버지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나는 자화상에 매달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화상 속의 눈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눈을 그림으로서 그것을 실체화시켜, 그림 안에 고정해 두고 그것을 찢어버림으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려진 많은 눈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려도 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돌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방법을 달리하여 아버지의 눈을 다른 눈으로 대체해보고자 했으나 내가 그린 모든 눈들은 아버지의 눈의 요소를 부분이나마 가지고 있었다.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내 주위를 맴도는 아버지의 눈은 ‘네깃 놈이 뭘 일을 끝까지 하거나 할 수 있어? 넌 내 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비웃는 것 같았다.

서대열은 오후가 되어서야 암자로 돌아왔다. 우려했던 대로 캔버스며 유화용 물감, 붓, 나이프 등을 잔뜩 짊어지고 와서는 나를 불렀다. 난처했지만 어제 약속한 것이 있어서 핑계를 대지 못했다.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선 캔버스와 이젤을 들고 앞장서서 은행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서대열은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며 따라 나왔다. 그에게 은행나무 옆에 있는 평상 위에 앉으라고 말하고 구도를 잡았다. 서대열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만

약 화구를 사 온다면 그를 분해시켜 그림으로 올려줄 작정이었다. 방에서 가져온 의자에 앉아 연필로 그를 어떻게 잘라낼지 고민했다. 먼저 그가 자신의 부분 모습들을 꿰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가지들을 먼저 쪼개어 캔버스의 가운데와 가장자리에 분산시켰다.

“지가 와 절에 와가꼬 교회를 찾았는지 궁금하시지예? 아버지가 목사라 주일이면 교회에는 꼭 나랍니더. 술도 묵고 담배도 피고 술장사도 하믄서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믄 죽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예.”

그의 몸통을 해체시켜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에 오른쪽 가슴 부분이 조금 잘리도록 위치시켰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꼭 에어컨을 켜놓은 것 같이 서늘했다. 손은 떨렸지만 이건 장난이니까 상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말썽 많이 지켰지예.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가꼬 가출하고예. 나가서 가스 배달 했다아입니께. 요 얼굴에 상처 보이지예. 이기 가스 배달하다가 다쳤다아입니께. 그 때는 딱 죽는지 알았십니더. 이리 다치가꼬 집에 들어강께 아버지가 내쫓데예. 어릴 때는 아버지 말이라모 하나님 말씀맹기로 다 들었는데 아버지도 성질이 마이 낫것지예. 그 때는 어째 땡깡 한번 지겨보고 싶더라꼬예. 그래서 그 질로 바로 다시 가스집으로 갔지예. 진짜로 열심히 일했십니더이. 아버지한테 인정받을라모 어린 맘에 돈 벌어가꼬 성공한 모습 보여야 되겠다 싶더라꼬예”

서대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은행나무 가지들 옆에다가 손과 팔과 다리를 적당히 토막 쳐서 그려 넣었다. 약간 기괴한 모습이 나 서대열은 이것이 추상화라고 생각할 테고 자기의 신체가 잘려

나가는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할 것이었다.

“그래 돈을 모아 가꼬 그 가스 집을 인수했십니더. 그 때는 가스 안 쓰는 집이 없었거든예. 진짜 호시절이었지예. 동네 할망구들 새벽 두 시고 네 시고 없어예. 가스 떨어졌다고 전화하는데 잠은 하루에 네 시간도 못 잤십니더. 그래도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지예. 동네 아줌씨들이고 할배, 할매들이고 부품 값이 얼마지 모르게네 단가 오백 원에 쪼그만 나사 같은 거 납품 받아 가꼬 오천 원도 부르고 만원도 부르고 그랬지예. 진짜 억수로 돈 마이 벌었십니더. 진짜 호시절이었던기라. 호시절.”

숨은그림찾기 마냥, 구두 신은 그의 셔츠와 양복바지를 입은 다리를 십 센티미터 정도씩 잘라서 화면의 배경으로 삼았다. 어린 시절 낙서하듯 그리는 그림이라 이 작업도 상당히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면 이불에 그림 그리는 것도 모자라 공부도 안하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다고 타박을 줬다. 국어 선생이었던 아버지는 책상에 나를 앉혀두고 회초리를 들며 책을 따라 읽으라고도 하고 써보라고도 했지만 내가 쓴 글씨는 낙서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공부가 끝나면 경멸스런 눈초리로 저게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끌끌 차댔다.

“돈이 좀 벌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데예. 나 이만큼 성공했다, 진짜 아버지 말 안 듣고도 이마만큼 성공했다, 하고 집에 연락했는데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 베리뻘었다고 어무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딱 죽어빠졌데예.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버지 죽었다는 소리보다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은기 더 억울했어예. 지가 못 된 놈이지예.”

서대열의 얼굴을 해체하는 것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다. 까

무잡잡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은테 안경의 알 부분과 다리 모양을 떼어내 다리는 나뭇가지와 열십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알은 잘려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서 서대열의 안경 안 낀 모습을 상상했다. 네모 모양으로 각진 얼굴 형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소 위협적으로 보이거나 자세히 뜯어보면 낮은 코를 이루는 뭉툭한 곡선이 선해 보이고 목탄만큼이나 짙은 눈썹이 단호하게 보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에서는 소시민적인 평범함이 묻어났다.

다른 모든 이야기는 흘러들으면서도 서대열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죽었다는 말은 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내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는 군대에 있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상스레 슬프지가 않았다. 다소 낯선 느낌이 들뿐이었다. 늦은 시간이라 인사과장이 직접 지프를 몰아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다. 인사과장은 버스 출발하기 전에 위로의 말을 던지며 부대로 돌아갔다. 나는 버스가 떠나기 바로 직전인데도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어 가게로 뛰어가 초코바를 샀다. 버스는 문을 닫고 출발하기 위해 뒤로 움직이고 있었다. 달려가서 문을 두드려 버스를 세웠다. 버스에 올라 모자를 벗고 초코바를 베어 물었다. 실내는 환했고 바깥은 어두웠기 때문에 차창으로 초코바를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까까머리 군인이 보였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 버스는 서울행 마지막 버스였다.

“그라고 선배 말 듣고 차린 피시방이 대박이 났지예. 그 때는 월수 이천은 장난이었습니더. 초창기라 피시방이 뽕로 없었신께 돈을 뭐 퍼 담다시피 했지예. 돈이 자꾸 벌리니까 그것도 재밌게 예. 그래 가요주점이 잘 된다 해가꼬 그것도 해본께 돈이 되고.

이래저래 돈 좀 만졌어예. 돈 좀 만지게네 품이 좀 재고 싶데예. 그래 치과도 하나 채렸다아입니꺼. 고용 의사 부치났는데 이기 돈 제일 마이 들어갔는데 재미가 뵈 없네예.”

얼굴 부위를 다 배치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오른쪽 계곡 쪽으로 하얀 연기가 날아갔다. 하늘에는 새털 같은 하얀 구름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서대열이 호들갑을 떨며 캔버스를 들러다 보았다.

“이기 추상환갑지예. 대단하네. 우리 같은 사람은 통 몬 알아 묵것네. 이기 냅니꺼? 우와 바로 내 내면을 그린 거 맞지예. 비슷 허네. 이 사나이 서대여리 내면이 이리 멋집니꺼. 내가 탁 보니까 형씨가 보통은 넘겠더라꼬예.”

쓴웃음이 나왔으나 억지로 참고 담배를 비벼 켰다.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그림을 끝내고 이 사내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경상도 사투리도 듣기 싫었거니와 끊임 없이 내뿜는 그의 가정사 따윈 내 관심 밖이었다. 빨리 그림을 끝내고 싶어 린시드유와 테레핀유를 1대9로 섞었다. 유화 물감의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푸른 색 물감과 연두색 물감을 나이프로 떼서 파레트에 옮기고 적당한 비율로 섞고는 배경을 칠했다. 낙서하는 것 같은 느긋한 기분으로 배경을 색칠하고 물감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서대열의 몸통과 팔다리, 얼굴 순으로 칠했다. 붓놀림이 점점 빨라졌다. 마지막 서대열의 상처 부분만을 남기고 담배를 피워 물었을 때 노스님이 그림 쪽으로 다가왔다.

“참 예쁘네. 그림이 참 예뻐. 색깔이 참 곱네.”

노스님은 어린아이 같은 눈빛을 빚내며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의자에 앉아 노스님의 곱게 주름진 얼굴을 올려다보니 둥근 산

봉오리 같은 민머리와 스님 뒤에 있는 우거진 숲과 능선의 곡선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그 완벽한 일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눈매는 하늘과 비슷한 인상을 자아냈고 살짝 올라간 아미는 낮은 능선과 닮았다. 노스님의 어느 구석에 그 큰 상처를 담고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그라모예. 이 분이 서울서 유명한 화가아닙니까. 이기 원래 추상화라는 건데 아무나 몬 그림니더. 멋지시예?”

“그래, 그래. 진짜 예쁘다이. 소시 적 생각이 절로 나네.”

내 그림 어디에 그런 부분이 숨겨져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건 가짜 그림이라고, 가짜 그림. 노스님에 대한 죄책감이 꾸물꾸물 구더기처럼 살갗위로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빨리 그림을 끝내고 싶었다. 서대열의 상처를 똑같이 그리면 눈치챌 염려가 있었으므로 처음 다쳤을 때의 형상을 상상하여 그렸다. 벌어진 틈 사이에 선홍빛 물감을 이겨 넣었다. 떨리는 손으로 후벼놓은 상처를 들여다보니 가학적이랄까? 피학적이랄까? 그 사이를 관통하는 쾌감이 밀려들었다.

“여긴 너무 아파! 쥘봐.”

노스님은 인상을 찡그리며 내게서 붓을 빼앗으려 들었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붓을 건네주었다.

“아이, 스님, 와 그림 망칠라꼬 들킵니까. 주이소. 이거 함 보이소. 이기 바로 화룡점정 아입니까. 화룡점정. 이야. 진짜 멋지네. 뭐든지 이런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기라. 너무 밋밋하모 재미가 없제. 안 그렇십니까? 화가 선생님?”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손을 씻고 담배를 하나 피울 요량으로 계곡 쪽으로 걸어갔다.

“저거 뱀인데, 뱀인데…….”

노스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와서 노스님 쪽으로 뒤돌아보았다. 그 때 장판지를 뭔가가 짹 물었다. 발목 쪽에 뱀이 이빨을 박고 있었다. 삼각형 대가리에 있는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바로 고흐의 눈이다. 아니 아버지의 눈이다.

나는 꿈쩍을 하지 못한 채 풀숲을 향해 기어가는 독사를 지켜보고만 있었다. 진갈색, 격자무늬의 독사, 유연하게 헤엄치듯 기어가는 그 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독사가 풀숲에 다다르기 전, 서대열은 고함을 지르며 사각형의 돌을 독사의 대가리를 향해 던졌다. 정확하게 독사의 대가리가 파열되어 몸통만 꾸물거렸다. 마치 고흐의 자화상에 나오는 배경의 이글거리는 선들 같았다. 산산조각이 난 독사의 대가리 속에 있던 그 눈도 짓뭇개졌으리라. 손이 떨리지 않았다. 독에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켜보던 그 눈들이 파괴되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서대열이 허리띠로 나의 다리 쪽을 톡톡 동여매는 광경이 어슴푸레 내 눈 속으로 들어왔다.

“찜만 참으소. 이거 뭐 뱀 일 아인 기라예. 요즘은 뭐 약이 워낙 좋아 놔서.”

정신이 가물가물했다. 자물쇠로 짹 잠겨져있던 서랍 속에 손을 밀어 넣자 그 안에 있는 독사가 나를 무는 것처럼 킁킁한 기억 속에 있던 영상이 갑자기 아가리를 벌리며 나를 삼켰다.

도로 맞은편으로 아주 큰 붉은 달이 지고 있다. 형과 나는 핏빛 실루엣으로만 보인다.

“형, 엄청나게 큰 달이야. 시뻘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내가 말한다.

“우와. 저렇게 큰 붉은 달은 처음 봐.”

나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팔을 벌리며 말한다.

“꼭 탄 세상에 온 것 같아. 미치도록 기분이 좋아.”

“야, 조심해.”

핸들이 차도 쪽으로 방향이 틀자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며 차도로 향한다. 뒤따라오던 형이 속력을 내어 나를 추월하며 내 자전거의 앞바퀴를 찬다. 그 반발로 형의 자전거가 차도 쪽으로 튕겨져 나간다. 나는 인도의 턱 부분에 부딪쳐 넘어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느끼는 찰라, 세상이 부셔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 울부짖는 내 모습이 보인다. 헐떡이는 형의 입으로 울컥울컥 피가 뿜어진다. 시커먼 트럭 한 대가 형 바로 뒤에 서있다.

어디선가 홀연히 아버지가 내게 눈을 희번덕거리며 울부짖는다.

“왜 네가 죽었어. 왜 네가 죽었냐고?”

독이 내 몸에 퍼진 이후에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서대열은 자기가 매달 80만원씩 부쳐주던, 부모 없는 남매에게 나이키 신발과 옷을 사준다고 산사를 떠났다. 그건 아마도 핑계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정 부분 진실일 것이다. 그의 응급조치 덕분에 입원 이틀 만에 산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 그는 독사의 독에 좋다고 하는 많은 음식과 약초들을 구해와서 병실을 지켰다. 마치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별들이 총총 떴다. 어슴푸레 은하수도 보였다. 별들 중에는 몇

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반짝이는 것도 있다고 들었다. 그 별에서 발산된 빛이 도달하기까지는 몇 억 년이 걸릴 것이다. 하여 나는 몇 억 년 전의 별도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그 중에 이미 소멸된 별이 있다면 그건 가짜별일까? 서대열을 해체해서 그린 내 그림은 노스님이나 서대열에게 가짜 그림이었을까?

고흐의 형이 죽고 나서 정확히 일 년 뒤, 바로 그 날짜에 고흐가 태어난 것은 운명이었을까? 그의 부모가 그의 죽은 형과 똑같은 빈센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고흐는 자기의 이름이 적힌 묘비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주관적으로 색을 사용해. 나 자신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어서야.’

고흐가 자신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과거를 모두 녹화시킨 영상이 있어 그것을 정밀히 분석하면 내 내부에 가만히 파리를 틀고 있다가 고흐의 자화상을 보는 순간 나를 물어뜯었던 것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있을까? 나는 상진에게 나를 알코올홀릭으로 만든 것은 고흐의 자화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서대열의 경우처럼 핑계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었다.

그림을 그리다 말고 발목에 있는 뱀의 이빨 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거의 아물어 불그스름한 빛깔만 감돌뿐이다. 그 안에 무언가 파리를 틀고 있을 리는 없다. 독들도 중화되어 어느 정도는 배설되었겠지만 조금은 내 피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들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을 것

이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서대열이 생각한다. 듣기 싫었던 경상도 사투리도,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이젠 진지하게 들어줄 자신이 있다.

캔버스에 그려진 노스님의 얼굴은 어두운 구석 하나 없이 해맑다.



황사가 없어서인지 학교에서 공원을 바라다보면 녹음이 더욱 짙다. 나무와 꽃들은 저마다의 빛깔로 봄의 향연을 즐긴다. 저번 겨울의 추위만큼이나 나는 어린 시절에 우울한 날들을 보냈다. 그 때 시와 소설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문학으로 내 빛깔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이루어져서 기쁘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김 명 자

낙화

“왜 고속도로를 놔두고 그 좁은 국도로 왔을까.”

지원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졌다. 다른 차와 추돌사고도 아니고, 중앙선을 넘어 달린 것도 아니고, 차는 완전 폐차 지경이라고 했다. 무엇인가에 찌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잔설이 남아 있는 국도로 무모하게 올 리가 없다고, 산허리를 구불구불 돌아서 가야 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길이라고 했다. 산 쪽으로 심하게 핸들을 꺾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지원은 혈육으로서 부채의식을 느끼는 것 같았다. -본문 중에서-

낙화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진 액자 옆에 나는 서 있다. 조금 전까지 나는 전시장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맞은편 쪽으로 시선이 옮겨졌고, 그때 회원에게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돌아서던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내게로 걸어온 회장은 나를 옆으로 서라 한다. 나는 회장의 손짓에 따라 액자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슬쩍슬쩍 전시장 입구 쪽을 봤다. 회장의 주문에 따라 나는 카메라를 보고 웃는다. 플래시가 터졌다. 동우회 회장은 카메라를 내려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뷰파인더 안의 나를 보라 한다. 난 환하게 웃고 있다.

누구지, 하고 J가 혼잣말을 한다. 돌아서 사진을 보는 J는 액자 속 기도하는 남자를 유심히 보고 있다. 사진 속의 남자는 그림자처럼 보인다.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검게 보여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문살 틈으로 비추던 빛줄기는 남자를 빨아들일 것 같이 강하다.

빛은 아침에 힘차고 정오에 가장 강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진다. 산에 도착한 빛은 마침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힘을 빼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홍빛이 산 중턱에 누워 있는 돌부처를 물들이고 있었다. 노을빛을 받은 와불은 경외감마저 깃들었다.

산에서 내려가던 마지막 발걸음 소리가 오래전에 끊어졌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무엇인가 홀린 사람처럼 와불을 찍고 있었다. 어떤 기원을 가슴에 품고 아득한 길을 걸어왔을까. 생각은 수많은 발걸음이 오갔을 먼 시간 속에 있었다. 운주사 산 중턱에 누워 있는 와불에 와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들길을 지나 산길을 따라 몇 백 리 길을 걸어왔을 사람들의 발소리가 노을빛 속으로 점점 멀어지자. 산을 붉게 적시던 빛도 사라졌다. 빛과 어둠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빛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해가 산으로 넘어가고도 붉은 기운이 산 능선에 남아 있었지만, 내려가야 한다고 어둠이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왔지만, 빛의 농도로 내게 그만 산에서 내려가라고 조금씩 암시를 주었지만, 어떤 한 생각이 발걸음을 붙잡고 있어 돌아서지 못했다.

고요. 혼자 남겨졌다. 어둠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숨소리를 죽이고 팔을 엑스자로 만들어 몸을 감쌌다. 산사의 문이 닫히려는 시간에 나는 산문 밖에 있어야 했다.

그때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팀장이 숨을 몰아쉬면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래도 자꾸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했다. 가방을 그가 챙겨 땀다.

팀장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돌아서 걸었다. 다행히 길을 나서니, 나처럼 났을 놓다가 해를 넘긴 사람들이 많았는지,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는 내 허리쯤 위치에 진주알 같은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발을 뗄 때는 다음에 디딜 곳을 먼저 생각하라, 고 말한 뒤 앞

서 걸어가고 있는 그의 뒤를 나는 조심스럽게 따랐다. 그의 모습은 어둠에 지워졌다가 다시 돌아났다가를 반복하였다. 어둠에 지워져 그가 보이지 않을 때, 내 눈은 그를 찾으면서 머리로는 낮에 대웅전 안에서 그가 두 손을 모으고 무엇을 빌었을까? 생각했다.

누구나눈 눈빛으로 J가 턱으로 사진을 가리킨다. 나는 정말 J가 사진 속의 남자를 못 알아보는 것인가 싶어 진짜 몰라, 하는 눈으로 봤다. 정말 모르는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나는 예측하지 않은 음모가 생겨, 속으로 웃었다. 팀장이 사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설마 자신을 못 알아보겠나 싶다가도 그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팀장은 내가 그를 찍은 것도 모른다.

운주사로 가는 동안 나도 궁금했다. 산 중턱에 누워 있는 부처님이라니. 일행은 운주사 경내를 대충 둘러보고 와불이 있다는 산 쪽으로 서둘러 갔다. 나는 그때 대웅전 앞에 있는 노송을 찍고, 이리저리 카메라로 구도를 잡고 있었다. 뷰파인더 안의 피사체는 풍경에서 대웅전으로 또 문살로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에서 멈추었다. 남자를 유심히 봤다. 팀장이었다. 내가 서 있는 맞은 편 끝에 합장하고 고개를 숙인 팀장. 구도와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마치 연출한 것 같았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가 고개를 숙일 때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처럼 가슴이 뛰었다. 나는 그가 고개를 돌릴까 봐 서둘러 대웅전을 내려와 와불이 있는 산길로 바쁘게 걸어갔었다.

J는 사진을 보다가 손목시계를 본다. 입사 동기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상사들도 입사 동기 중에 최고라고 J를 칭찬했다. 오늘도 자신은 회원도 아니면서 상사인 회장의 일에 전시회 내내 뒷정리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총무과장인 회장이 가끔 동기고 나이도 같은데 J가 마음에 있으면 다리를 놓겠다고 했었다. 서로 마음을 알아볼 기회는 칠 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J의 표정은 흥미가 사라진 것 같다. 대신 전시장 입구 쪽으로 자주 눈길을 준다. 그때 사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시장 입구 쪽으로 몰려간다. 이제 오시네요, 하는 J의 말에 회장이 앞섰고 그 뒤를 J가 따라간다.

임원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직원들과 악수를 한다. 나는 그들을 비켜 밖으로 나왔다. 전시장 양옆으로 화환이 길게 놓여있다. 나는 결눈으로 어디서 온 것인지 누구에게 온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걸어갔다. 혹시, 하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보았지만, 전시장 안이나, 밖에는 내가 찾는 이름은 없다. 임원은 회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회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회장 일행과 반대편으로 갔다.

실상사 보광전 앞 연못가에 서 있는 왕벚나무를 찍은 사진이다. 나는 무심한 듯 사진 속의 나무를 봤다. 무심한 마음도 오래 시간이 머물면 무엇인가 일어나는지. 바람이 순간 일었고 사진 속의 나무가 흔들렸다. 바람에 떨어진 꽃잎은 연못 속에 있다. 연못 속에 비친 하늘에도 하얀 벚꽃이 눈처럼 쌓였다. 꽃은 죽어서

도 아름답다.

밖은,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팀장이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면서 읊은 시처럼 낙화 중이었다. 팀장은 식사 후에는 언제나 약을 먹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비타민에서부터 철분제 등 병만 보고는 무슨 약인지 알 수 없는 약병들이 있었다. 나도 팀장이 추천한 비타민제와 철분제를 책상 위에 놓고는 몇 번 먹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가끔 병을 들어 영어로 적혀있는 설명을 읽어보려고 하다가 해석 불가한 단어들 때문에 그만두었다.

나는 거의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았다. 팀장은 약을 먹은 후, 시계를 보더니 아직 시간은 충분하지만, 멀리는 갈 수 없고 차로 교육장 주변을 한번 돌아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로수가 전부 벗어나무였다. 가도 가도 눈 같은 꽃잎이 차창으로 떨어졌다. 시내를 조금 벗어났는데 도로가 한산하다. 가로수 가까이 차를 세워놓고 걷는 연인들이 있었다. 나는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따라 고개가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곤 했다.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꽃은 시처럼 장엄하게 흩날렸다. 차가 가로수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섰다. 차가 멈추자 바닥에 있던 꽃잎이 화르륵 날아올랐다가 흩어졌다. 가로수의 벚꽃이 차 주변으로 눈처럼 계속 떨어졌다. 둘은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떨어지는 꽃을 말없이 보고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느리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듯 느껴졌다.

팀장은 교육 중에 가끔 뒷목으로 손을 살짝살짝 뺀어 어깨 근

육을 만져주었다. 새로 구축한 e-전산시스템의 개발팀장을 맡으면서 과로한 탓도 있을 것이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실무자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이어졌다. 강의는 두 시간 가까이 했다. 대기실 의자에 머리를 붙이고 있는 그에게 잠시라도 눈을 좀 붙이라 하고 나는 강당으로 갔다.

프로그램의 실행경로에 대해서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매뉴얼의 실행방법과 오류 시 처리 방법이 있다 하였지만, 질문이 쏟아졌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질문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과도하게 민감했다. 실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안해 하는 것 같았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열사까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외부업체에 아웃소싱을 주었다. 우리 회사는 의뢰받은 인터넷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지방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아직 팀장은 어깨를 손으로 주물렀다. 내가 심각한 표정을 짓자, 어깨에 얹은 손을 떼었다. 대신 시계를 보더니 얼굴이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다. 교육시간이 한 시간 이상 초과 되었다. 퇴근 시간과 맞물린 도로 사정이 어떨지 몰라 시간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다. 여동생인 것 같았다. 아이를 학원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출발할 때 그는 아이 때문에 체시간에 도착해야 하는데, 한 말이 생각났다. 사모님은요, 하고 내가 물었을 때, 교사인 부인이 연수를 가서 자신이 아이 학원에 데려

다 줘야 한다고 했다. 팀장은 함께 교육을 가는 날은 언제나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아들 생각에 두통과 어깨 근육의 통증은 잊은 듯 그는 운전에만 몰두했다.

전시회 입구 쪽에서 화분을 든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 화분의 주인을 찾는 것 같다. 나는 실상사의 왕벚나무를 뒤로하고 어떤 예감과 기대감으로 남자에게로 갔다.

먼저 눈으로 화분을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다. 순간 늑골 사이로 바람이 지나간다. 이미지협회 회장의 이름으로 온 화분 놓을 자리를 남자에게 손으로 가리켜주고 회장에게 화분이 온 것을 알려주려고 돌아서는 순간 전시장 안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중앙에 간단한 다과를 차려놓은 테이블이다. 임원들이 갈 모양이다. 언제나 그들은 의례적인 시간만 머문다. 회장에게 임원 중 한 사람이 봉투를 건넨다.

임원들 뒤를 따라가는 사람 중에 J도 있다. 나는 J에게 벌써 가니, 라고 말하자. J는 상가에 간다고 한다. 나는 누구 상가, 하고 물었다. J는 좀 긴장한 듯한 얼굴이다. 못 들었는지 대답 대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어준다.

손을 흔들어 주지도, 눈물을 흘리는 뺨을 어루만져주지도 않았다. 이년의 사랑. 그 사랑의 결별을 몇 초 만에 나의 뇌는 인지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인지한다고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욕이라도 실컷 해. 지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말의 덩어리가 뭉쳐져서 심장을 누르고 있어 말의 갈래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별의 의식은 너무도 간편하고 간단하였다.

메일로 온 이별의 통보는 단 한 줄이면 되는 말. 결국, ‘헤어지자’고 하면 되는 말을 구구절절 이어지고 이어졌다. 난 그 글들이 가지고 있는 냉정하고 논리 정연한 이별의 난해함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압축 요약해서 그래, 헤어지자.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답장을 기다렸다.

의식이 없어서 미련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날, 지원이랑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 그날 세상에 태어나서 마셔야 할 술을 다 마셨다.

지원은 입사 동기면서 고등학교 동창이다. 서로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 탓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찾게 되는 친구다. 그때 지원이 우리 회사 총무부에 있다가 본부로 진출 가 서로 소식이 뜸한 상태였다. 전화했을 때 지원은 심상치 않은 내 목소리에 놀라 달려왔었다. 헤어지고도 걱정이 된 지원은 자주 팀장에게 나의 상태를 물어봤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팀장은 지원의 사촌오빠다. 지원과 내가 이 회사에 원서를 넣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팀장이었다.

일주일 휴가를 내고 다시 회사에 복귀한 날 지원은 매일 전화를 했지만, 연락되지 않아 오빠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혹 오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해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 너무 취한 너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사람도 오빠라고 했다. 난 기억이 없었다. 나중에 오빠한테 밥 한번 사드리라고 했다. 나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사실 밥은 가끔 먹는데 했다. 아, 그래요즈음 e-전산통합시스템 지방 교육 개발팀과 같이 가지. 그럼 나중에 술을 사라고 했다. 참고로 오빠는 술을 잘 못하니까 약한 것으로 사라고 하면서 웃었다.

개발팀 팀장인 그와 나는 3차에 경주 상공회의소로 출장을 갔었다. 경주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곳 같아 홀로 고요해지기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들 사소한 행동이 내가 고요해지는 것을 방해했다.

돌아오는 길에도 벚꽃은 장렬하게 남천으로 떨어졌다. 또한 낙화암 궁녀들의 옷자락이, 화랑의 푸른 옷소매가, 그들의 꽃 같은 얼굴이 우리가 탄 차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휴게소에서 나에게 커피를 건네는 그의 손을 보면서 뒷목으로 손을 뻗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흐르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은 가죠. 무엇인가 새로운 기억이 있어야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팀장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진동우회에 가입하라고 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시간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문득 건다가 서곤 했다. 그렇게 있으면 얼마간 팀장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 옆으로 와서 정운 씨, 하고 부르고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일행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갔다.

회장에게 이미지협회에서 화분이 왔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 지원이도 화분이 오래 갈 거야. 꽃바구니는 금방은 보기 좋아도 그렇지, 했다. 지원은 꽃, 그 돈 아깝지 않니. 난 꽃 선물은 별로야, 한 적이 있었다. 또한 지원은 꼭 필요한 자리 외에는 잘 가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온다고 하였다. 그것도 꽃을 사 들고, 아마 팀장이 꽃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원이 들고 오든지 지원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아마 지원은 팀장과 같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원이 연락이 없다. 무슨 일이 생

긴 것일까? 전화하려 하다가 그만둔다. 시간이 지나자 불안의 징후는 끝없이 여러 경우의 수로 일어났지만, 예측은 자주 어긋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만다.

예측한 인사였다. 팀장이 본부로 발령이 났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한다고 하였지만, 팀장은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축하를 건네는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팀장이 표정관리라고 했다. 지원이 오빠한테 술 한번 사라, 고 한 것이 생각났다. 지방에 출장을 가면 회사 카드로 여비와 식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대접할 기회가 없었다. 내가 저녁을 사고 싶다하니, 그는 가는 사람이 사야지, 했다.

삼겹살집이었다. 지원이 말한 것처럼 그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홀 한쪽에 젊은 엄마가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쉽게 엄마에게 가지 않았다. 아이 엄마는 직장을 다니는지 너무 피곤해 보였다. 그는 술잔을 들고 물끄러미 홀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를 봤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또 불렀다. 아이는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에 내려온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줬다. 아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뜨자 엄마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얹어주었다.

“엄마가 직장을 다녔어요.”

라며 눈은 아이에게서 떼지 않고 말했다. 나에게 묻는 말인 줄 알고 팀장의 얼굴을 봤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하나 둘 사라졌지요. 어두운 골목에 나만 남겨졌어요.”

“...”

“대문 앞에 앉아 골목 끝을 보면서 엄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저런 아이들을 보면 가끔 잊고 있었다고 생각한 그때의 기억들이 불쑥 생각나죠.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적이 나타나 충을 겨누는 것처럼 그때의 느낌은 나를 당혹스럽게 해요.”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혹스러웠다. 심각한 일을 겪은 것도 아닌데,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심연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어른이라도 아직 어린아이의 시간을 가진 팀장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음으로 동정은 했었다.

“그때 왜 일어나서 큰길까지 나가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어두운 골목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꽃이 피면 자꾸 어디론가 가고 싶어져요.”

라고 말한 뒤 주머니에서 하얀 알약을 꺼내 목으로 넘겼다. 내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자, 가끔 먹는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가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비타민이나 철분제라면 설명을 할 이유가 없는데 무슨 약인가 하고 불안했다. 그는 내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이유를 금방 알아차렸다.

“참 이상하죠. 다 지난 시간인데 왜,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그러데요. 감기라고 생각하라고. 감기, 일생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감기잖아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주는 것을 먹었더니 한결 견디기가 쉬워져 감기처럼 생각하기로 했죠. 하긴 감기에도 사람이 죽는 일도 있긴 하죠.”

그는 농담처럼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들은 그가 떠나고 가끔

아이들을 보면 가슴에 아릿한 통증을 일으켰다.

이미지협회에서 온 화분은 서양 난이다. 회장은 전시장 안쪽에 놓는다. 화분은 전시장 안에, 화환은 전시장 밖 입구에 놓았다. 서양 난은 꽃이 크고 화려하다. 보는 순간 눈이 쏠린다. 그러나 오래 감상하지는 않는다. 행사용으로 적합하다.

그의 책상 위에 있었던 동양 난이 생각났다. 개발팀에 협조사항이 있어 갔다가 나가는 중이었다.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팀장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그도 고개를 까닥하더니 다시 고개를 안쪽으로 당겼다. 나는 왜 오라는 것이지 하면서 그의 자리로 갔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 난 화분이었다. 새의 부리처럼 잎인지 꽃인지 희미하게 보여 금방 꽃이 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동양 난. 은은한 향기에 문득 무엇이지 주위를 둘러본 뒤 아, 난 꽃이 피었네. 하계 하는 꽃. 언제 피었지, 하면서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오래 보게 하는 꽃. 나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아, 하며 감탄했었다.

처음에 꽃이 배달되었을 때 회원들이 누구한테 왔지, 하면서 관심을 보였지만, 이제는 꽃이 들어와도 회원들은 전시장을 찾아온 동료나 지인들과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거나, 전시장 중앙에 마련한 다과 테이블 앞에서 이야기에 집중한다.

승진은 빠른 편이었다. 기념일이 되면 왜 남자들만 꽃을 줘야 해, 라고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꽃을 준비해서 가려고 했었다. 약속한 식당에는 예측하지 못한 일 때문에 삼십 분이나 늦게 빈손으로 갔었다.

대부분 남자는 꽃의 실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자에게 있어 꽃은 관계의 상징성이다. 내가 꽃을 사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는 정윤이가 꽃이잖아 하고 웃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기분이 들떠 보였다. 그는 꽃은 누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꽃을 보내야 하는 날이 오면 근사한 카라 꽃바구니를 보내준다고 말했다. 나는 팀장이 감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속으로 웃었다. 그는 본부로 들어간 지 일 년 만에 또 승진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팀장은 말을 많이 했다. 본부로 들어간다고 식사를 했을 때 그는 말을 아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만두었다. 그는 신중했었다.

말이 많아진 그는 조금 희극적으로 보였다. 그의 말에 난 얼굴 근육을 위로 밀어 올려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말은 공중에서 줄을 타는 광대의 부채와 같았다. 그는 말끝을 놓지 않았다. 마치 줄을 탄 광대가 부채를 계속 흔드는 것 같이.

식당을 나와 호숫가로 갔었다. 찬 기운 때문이었을까. 호수의 표면이 푸르게 보였다. 호수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걸었다. 앞서 걷던 팀장이 섰다. 호수 쪽으로 바라보는 등걸이가 있는 나무의자 앞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의자 위에 놓고 앉으라고 했다. 내가 앉자 그는 조금 떨어져 앉았다. 그가 만들어 놓은 거리만큼 갑자기 서로 어색해졌다. 아니 어색한 것은 그가 식당 안에서와는 달리 말을 하지 않아 나는 좀 긴장했었다. 긴장감에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렸다. 그 소리가 신경 쓰여 난 조심해서 침을 넘겼다. 난 팀장이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

을 봤다. 팀장은 호수를 보고 있었다. 나도 다시 호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먼저 말할까. 망설였다. 그러나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왜 기쁘지가 않지.”

팀장은 호수에 비친 달을 보면서 말했다. 호수 표면이 달빛으로 빛나자 밤의 색은 푸른빛이 되었고 팀장은 또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팀장의 세계 밖에 있는 나는 그의 말로 짐작하여 그의 세계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승진에 대한 부담감, 꽃밭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살얼음판이라도 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개인의 고통은 개별적이고 폐쇄적이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고요. 마주보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하였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소리가 커져 나는 숨을 잘게 잘라서 내쉬었다. 결국, 내가 견딜 수 없었다.

“음악이 있다면 좋겠죠.”

나는 팀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가능한 한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다. 팀장은 숙이고 있던 상체를 바로 하고 검은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글자를 입력하고 화면 위에 올라온 글자들을 밀어 올렸다. 다시 그는 글자를 입력하였다.

조금 있으니 귀에 익숙한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화려한 선율이 호수 위로 퍼졌다.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 조금씩 몸의 긴장이 풀렸다. 호수와 푸른 밤 바이올린 소리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랬다. 너무도 강렬한 느낌, 아주 오래 지속될 것 같았다. 지난 어느 순간에는 이 음악

만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 E 단조 아름답고 애수에 깃든 순결함이 느껴지는 선율 1악장이 끝날 때까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달빛을 타고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같은 2악장의 선율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팀장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난 팀장도 잊고 있었다.

그가 웃었다. 그럼 전 곡을 다 들을까. 하면서 다시 글자를 입력하고 검색하고를 반복하였다.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낮고 깊게 정연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그는 몸을 굽혀 가슴을 무릎에 묻고 있었다. 그가 나를 불렀는지 아니면 잘못 들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의자 위에 놓았다.

그는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건다가 뛰기 시작했다. 텅치 큰 남자의 검은 그림자가 그의 옆에서 함께 뛰고 있었다. 화장실을 저렇게 뛰어가나.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금방 다시 음악에 마음이 빼앗겼다. 그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편의점 있는 곳이 생각보다 멀리 있어 늦었다고 말하면서 가쁘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에서 흰 연기가 연시 새어나왔다.

그가 음료 캔을 건넸다. 난 목마르지 않다고 했다. 음악 다 들으려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는 가슴에 품어라 했다. 따뜻했다. 그 순간 난 정연아, 하고 그가 불렀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시작이나 끝은 항상 지나고 가야 알 수 있는 것, 무엇의 시작인지 끝인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둘러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죠, 했다. 말해놓고도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팀장은 자기가 말할 차례가 된 사람처럼 아이가 처음 바

이올린을 배우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다시 그는 아이 이야기 아내 이야기를 했고, 나는 조카이야기를 하였다. 차가 목적지에 다 왔을 때 그는 손수건을 놓고 온 것을 기억해냈다. 헤어지는 순간까지 놓고 온 손수건처럼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그는 끝내 하지 않았다.

화분을 놓고 돌아선 회장은 아직 돌아가면서 회원들에게 자신의 액자 앞에 서라 하고는 사진을 찍는다. 아마 잘 된 사진 몇 장은 사보에 실을 것이다. 회장은 화환과 화분의 놓인 순서를 수시로 바꿨다. 이미 다녀간 사람 것이면 뒤쪽으로 놓았다.

나는 지도교수가 전시된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소개한 물 밑으로 내려간 사다리 사진을 보고 있다. 물 밑이 보이길라도 하는 양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그림을 본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순간 공포로 변하게 하는 표현력, 인생을 바라보는 작가의 사유의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했다.

몇몇 사진은 지나치듯 보다가 문득 내 사진 쪽으로 눈이 갔다. 액자 옆에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보였다. 붉은 장미는 흑백의 사진 속 남자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하다. 마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누가 붙여준 것일까. 화장실에 가는 것 외에는 난 전시장을 떠난 시간이 없었는데. 다른 회원들 액자 밑에는 화분이 놓여있었고 액자 옆에 꽃이 있었다. 내 액자는 소품도 장식도 없이 쓸쓸히 남자가 기도하고 있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고마웠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명한 팝가수가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소나무 사진을 고액에 사 간 것도 소나무의 신령한 기운 때문이라

고 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기도’라는 작품은 멀리 운주사까지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회장이 저렇게 뜬을 들이나 싶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온라인망에 접속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고 란을 보는 것이지요. 본인 사망, 아는 이름이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본부로 전화를 넣었지요.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교육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응급실에 있다가 일요일 오후 다섯 시, 그러니까 어제 다섯 시에 사망했다고 하였지요.”

그게 지금 사진에 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회장의 말은 계속되었다.

“어제 전시회 준비를 마치고 다섯 시쯤 나가려고 하는데 유리 깨지는 소리에 뛰어갔더니, ‘기도’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유리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친구에게 초대장을 보냈거든요. 아마 그렇게라도 자신이 왔다 간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도 놀란 얼굴이었지만, 난 황당했다. 본인이 알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회원이 말하는 소리에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 많은 사진 중에서 하필 기도하는 사진이 떨어졌으며, 다섯 시라니, 운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어디 그 일 뿐인가, 했다. 어제 다섯 시, 그 시간에 나는 조카와 승마장에 있었다. 나는 회원들에게 조카를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한다며 세시쯤 전시장을 나왔다.

조카 지민이가 승마장 안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나는 손을 흔들어 주는 대신 팀장에게 문자를 지우고 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일 년 전 나는 오빠 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 후나 주말에 지민이와 놀았다. 육 학년이지만 제법 의젓하다. 강습은 네 시부터 다섯 시까지 한다.

승마장 안에서 까만 승마 모자를 쓰고 검은 승마 재킷을 입은 지민이 유리창 안에서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와 거리가 좁혀지면 손을 흔들다가 나를 지나면 손을 내렸다. 내가 문자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다음 전송을 누르고 승마장 안을 보는 순간 지민이 탄 말이 고개를 들고 앞발을 하늘로 치켜 세웠다. 말 등에서 파도에 휘청거리는 목선같이 지민이 흔들렸다. 교관이 뛰어와 말의 고삐를 쥐고 쓰다듬자, 말은 이내 진정하고 또각또각 앞으로 걸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지민은 고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하는 눈치였다.

장미를 보면서 아직 누가 갖다놓은 것일까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을 본다. 시간으로 봐서 더 올 사람도 꽃 배달도 없을 것이다. 지원은 아직 소식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본부로 간 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워낙 바쁜 부서라서 다음에 오겠지. 일주일 동안 두 사람씩 돌아가면서 전시장을 지키기로 되어 있다. 지원이 늦어서 어떻게, 하고 말하면 당번 되는 날 오라고 할 생각이었다. 회장이 회원들에게 대충 정리하고 가자고 한다.

“정운 씨는 내 차 타고 가서 올 때는 나오는 사람들과 맞춰서 나오면 되겠다.”

회장의 말에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다.

“장소가 멀어요.”

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다.

“새로 생긴 장례식장이라서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할 거야?”

장례식장이라니, 회장의 말에 난 영문을 모르겠다.

“장례식요?”

나는 좀 강한 어조로 말했다. 회장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본다. 나는 회장의 눈빛에 누구인지 모른 채 고인에 대한 애도의 표정을 지어야 했다.

“정운 씨도 e-전자통합시스템 함께 하지 않았나. 그때 이운성 팀장이 총괄이었고…”

아니, 아니, 나는 회장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보다 자꾸 가라앉는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기가 막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잠시 잊었다. 다리가 휘청거린다. 주변이 빙글 돈다.

“당연히 갈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 없으면 안 가도 되요.”

회장의 말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이 열리지가 않는다.

“본인 상이 이운성 팀장이란 말인가요.”

라고 겨우 말하고는 다리에 힘을 주면서 어금니를 힘껏 문다. 수술대에 누워 마취주사를 맞은 것처럼 사람의 형상이 허물어지고 말이 굴절되고 흰빛이 나를 에워싼다.

“회사 전자게시판 못 봤어요. 이 윤성 부장님 부고…….”

회장의 말은 슬픔보다는 아지랑이같이 아득하다. 난 오늘 외부 교육이 있어 회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종일 사내 온라인망에 접속하지 못했다.

그리고 보니 이운성 팀장과 함께했던 개발팀이나 교육팀의 직

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못 봐도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종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시장에서는 아무도 이운성 팀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교육팀의 직원들이 내가 여자라서 말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여자 쪽에서 같이 가요 하지 않으면, 먼저 가자고 하지 않는다. 전시장에 개발팀 직원이, 교육 팀 직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난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녁 내내 꽃이 배달되는 것에만 신경을 쓴 것 같았다. 특히 꽃바구니가 들어오면 그날 호숫가에서 그가 하지 못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꽃이 오면 누구의 이름인지 확인하고 다시 기다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인형극의 인형처럼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 나도 종이 인형이 되어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 같다. 나는 의지를 갖지 못하고 어둠에 흡수되어 나를 조종하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리 황망한 일이 있어도 일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시간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면서 지나간다. 이미 모든 것이 순서가 정해진 것처럼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다.

차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다. 눈부신 가로등 눈부신 조명들 도시는 살아 움직였고, 사람들은 짐승의 배 속 같은 도시 안에 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기 직전, 길게 늘어선 화훼단지가 보인다. 난 차를 세웠다. 회장은 이미 화환을 보냈다고 했지만, 교육 팀의 이름으로 작은 꽃바구니를 하고 싶다고 했다. 꽃바구니 하는 말에 회장은 좀 당황했고,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모양이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난, 고집을 피워 카라로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깨끗하고 대가 길게 곧은 카라가 귀해서 꽃집을 몇 집 거쳐야 했다. 회장은 꽃바구니를 보고는 더 난처한 표정이었다. 흰 국화도 아니고, 어쨌든 정운 씨가 원하는 것이니. 하다가 교육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몇 번 가로 저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얼굴도 모르는 그의 부인과 아들이 창밖의 풍경 속에서 함께 스쳐 지나간다.

조문실로 가는 복도에는 업체의 이름이 붙은 조화부터, 동창회, 골프클럽, 본사 사장, 계열사 사장 등 이름의 조화가 길게 늘어져 있다. 엄숙할 것으로 생각했던 조문실은 많은 사람이 와 있어 다소 번잡한 느낌이었다.

회장이 먼저 향을 피우고 난 꽃바구니를 그의 영정 사진 아래에 놓았다. 상주들과도 절을 할 때 그의 아들이 그와 많이 닮았다고 느꼈다. 쌍꺼풀 없이 알팍한 눈, 날카롭게 높은 코, 가름한 턱선. 나는 그의 아들에게서 그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조문실을 나와 우리 일행은 앉을 자리를 찾아야 했다. 누군가 손을 흔든다. 지원이다. 본부 총무과 사람들과 같이 있던 지원이 우리 쪽으로 왔다. 나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있다. 그리고 보니 그 아내의 눈이 부어 있었던가 생각해본다.

먼저 온 우리 회사 교육팀 직원들이 서로 몸을 붙여 자리를 마련해준다. J도 벌써 술에 취해 있다. 입구 맞은 편 벽면에 기대 앉은 개발팀 식구들이 손을 흔든다. 그들은 상당히 취한 듯 얼굴이 붉었고, 눈이 충혈 되어 있다. 울어서 그런지 술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평소에도 혈압이 좀 높기 해도 꾸준히 운동도 했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인데, 약도 잘 챙겨 먹는 것 같던데...” 라는 회장의 말에 나는 팀장이 수시로 약을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회장의 말 중에 혈압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혈압으로 죽은 사례들을 늘어놓았다.

팀장이 그렇게 약을 챙겨 먹는 이유를 그가 본부를 떠나는 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 팀장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유 없이 일 년을 아파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 뒤로 예방적 차원에서 먹는다고 했다.

“왜 고속도로를 놔두고 그 좁은 국도로 왔을까.”

지원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졌다. 다른 차와 추돌 사고도 아니고, 중앙선을 넘어 달린 것도 아니고, 차는 완전 폐차 지경이라고 했다. 무엇인가에 썩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잔설이 남아 있는 국도로 무모하게 올 리가 없다고, 산허리를 구불구불 돌아서 가야 해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길이라고 했다. 산 쪽으로 심하게 핸들을 꺾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지원은 혈육으로서 부채의식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아내를 멀리서 쳐다봤다. 팀장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웃었던 그의 아내.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갈 때면 손을 여러 번 씻고 옷에 혹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하던 그의 아내가 조문객을 향해 단정히 절을 받고 있다. 그녀는 그가 감기약처럼 먹는 약의 종류를 알까 불현듯 알고 싶어졌다. 밖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손을 씻

듯이 집에서는 어떤 약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전시장에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한 회원들은 모두 배가 고플지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입
안으로 숟가락을 밀어 넣었다.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은 먹는 것
이라고 말하듯이 입안의 밥알을 마치 쇠를 씹는 것처럼 힘을 주
어 천천히 씹었다. 온 힘을 모아서. 그러나 숟가락은 한 번 그 이
상 들지 못했다.

유족들도 아마 밥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앉은 자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팀장의 아내와 아들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
리다. 고개를 들면 보였다. 그의 아내가 소리 내어 울지도 않았
고, 아들이 소맷자락에 눈물을 적시지도 않았다. 그들은 황당하
고 기가 막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표정으로 문상객을 받고 있다.

팀장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보너스로 받은 돈으로 아들이 중학
교를 졸업하는 날 유럽으로 떠날 거라 했다.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다고 생각해봐요. 마치 기차를 타고 유럽을 횡단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였다. 아들은 이제 중학교 삼 학년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영정 사진을 보려고 몸을 일으키다가 그만둔다. 사람들
은 그가 마련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합석하고 심각해지고 다시 먹고 마셨다. 아는 얼굴들이 제법 있
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계속 문상객들이 들어
온다.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일행은 일어섰다. 회장은 남겠
다고 했다.

연락해 술 한잔하자, 주차장에서 사람들은 언제 지킬지도 모르
는 약속들을 했다. 그래 정말 연락하고 지내자. 라며 내일이라도

반갑게 만날 사람같이 인사를 주고받는다. 어쩌면 저들의 만남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오늘과 같은 인사를 또 건넬 지도 모른다.

“감기 걸렸어, 몸을 왜 이렇게 떨어?”

라는 J의 얼굴을 본다. J는 회장 옆에 있다가 회장이 남겠다고 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 일행을 따라 나왔다. 운전은 본부 총무과 과장이 하였고 조수석에는 지원이 탔다. 뒷좌석에는 총무과 직원, J와 내가 탔다. J는 옷옷을 벗어 내게 걸쳐주었다. 몸을 곧 세우려고 해도 J 쪽으로 몸이 기운다. 온기가 전해지자 나른다. 봄날 꽃이 지는 것을 보다가 눈에 졸음이 몰려오는 것처럼 눈이 감긴다.



시작이나 끝은 항상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것. 지나고 난 후에는 무엇의 시작인지 끝인지 알 필요가 없어진다. 인간의 의지는 때로 얼마나 무력한가.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지만, 죽음은 불가항력이 작용한다. 질문이 가득하여 잠들지 못하는 밤, 난 글을 쓴다. 생의 물음에 답을 찾는 방법이다. 또한 자신을 개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열심히 정진하는 길 밖에 무엇이 있을까.



법무부 서울구치소
노 학 진

청춘자화상

진수는 좋은 꿈을 꾸고 있다.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다. 진수는 모닥불 앞에 앉아서 즐겁게 웃고 있다. 이글거리는 모닥불에 진수는 지긋지긋한 과거를 태우고 있었다. 누군가 멀리서 진수를 부른 것 같다. 하지만 진수는 모닥불을 떠나기 싫었다. 진수는 마지막 남은 과거를 모닥불에 던졌다. 활활 모닥불은 타올랐다.

-본문 중에서-



청춘자화상

도시의 참새들이 하나둘씩 전깃줄에 모여 앉았다. 밤사이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재잘거리기 시작한다. 자그마한 새벽 빛 알갱이가 창문에 들러붙고 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늦게 잠 들었던 진수는 이불에 몸을 숨기고,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짧지만 즐거운 꿈속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꿈속에서 진수는 합격자 명단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울고 있었다. 깜짝 놀라 두 눈을 떴다. 1평 남짓의 고시원 방을 비추고 있는 창문에 아침이 그려지고 있었다.

진수를 이불에서 나오게 한 것은 어김없이 찾아온 허기짐이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밥 짓는 향기는 배고픔을 마구 불러내고 있다. 어제 밤 새로운 세계와 격렬한 전쟁을 치룬 머리를 모자로 감추고, 가볍게 눈곱을 제거 하였다.

옆 방 권석이도 일어났나 보다.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식당으로 달려가는 권석이의 발자국 소리를 쫓아가기 위하여 진수도 방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평소 아침보다 많은 편이다. 다들 시험 발표일이라서 그런지 잠을 못 잔 표정이다.

“오늘 발표일이지, 좋은 꿈 꿔어?”

201호 빠징코가 진수의 어깨를 툇 치면서 옆자리에 앉았다. 진수는 꿈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냥 웃었다.

“이따가 소주한잔 하자고 내가 쓸게! 어제 한건 했거든!”

진수는 다시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입술만 오물오물하고 웃었다.

201호는 여러 번 시험에 떨어진 이후부터 빠징코에 빠졌다. 가끔 진수는 201호가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 날에는 술을 얻어먹곤 했다.

머릿속을 돌아다니는 꿈 때문인지, 잠을 못자서 그런지 아침밥을 허기만 몰아내는 것으로 마쳤다.

방의 이불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었다. 진수는 잠시 그 온기에 몸을 펼쳤다.

‘이번에도 떨어진 것일까!’ ‘이번에는 붙었겠지!’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다른 길을 가야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본 일이라고는 책상 앞에 앉아서 책만 보는 일밖에 없는데!’ ‘특별히 가진 기술도 없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일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는데!’ ‘엄마는 뭐하고 계시나!’ ‘이번에도 떨어지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붙어야 하는데!’ ‘붙었을 거야!’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불러내고 있었다. 거미줄처럼 헝클어진 불안감을 멈추고 싶어서 진수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수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이다. 이른 아침에 구름 얼굴이 안 좋더니만, 늦은 아침부터 비를 토해내고 있다.

빛소리 때문인가! 주위가 고요하다. 옆방 권석이도 합격자 명단을 보러 나갔는지 조용하다. 진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을 정리했다. 1평 남짓의 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불을 대충 접어놓았다. 책상에 널브러진 모자로 켤한 얼굴을 가리고, 눈가에 살아 남은 눈곱을 제거했다.

절룩거리는 마음을 방에 놓고 싶었지만, 자꾸만 따라온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재촉해야 하나! 오른발에는 슬픔을, 왼발에는 기쁨을. 오른발에는 좌절을, 왼발에는 희망을. 발이 무겁다. 발이 가볍다. 그렇게 발걸음은 합격자 명단 게시판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진수처럼 걷고 있다.

합격자 명단 앞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명단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수의 가슴은 요동쳤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진수를 사람들이 앞질러 가고 있다. 멀리서 희미한 글씨들이 자신을 보아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다. 발이 떨리고 있다. 몸이 떨리고 있다. 가슴이 마구 뛰다. 머리가 어지럽다. 진수는 두 손을 맞잡고 어루만진다. ‘제발! 제발!’ 진수는 주문을 되뇌고 있다.

자신들의 이름을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무더기의 사람들 끝에서 진수는 발길을 잠시 머뭇거렸다. 아무 많 없이 뒤돌아서서 사람, 명단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 짧은 탄성을 지르며 뛰어가는 사람, 계속해서 명단만 주시하는 사람, 손가락으로 일일이 이름을 지우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찾아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돌아서는 사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사람, 원하던 이름을 찾아 재빨리 전화기를 찾고 있는 사람, 헐레벌떡 명단 앞으로 뛰어와 다시 좁은 골목길로 뛰어가는 사람, 사람들은 각자의 탄성으로 슬픔과 기쁨을 세상과 나누고 있다.

이리저리 훑어지는 탄성을 바라보며, 진수는 사람들의 하나둘씩 양보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발씩, 한발씩.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명단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동자는 낮선 이름 속에서 낯익은 이름만 찾고 있다. 손가락이 닿을 정도까지 명단 앞에 다다랐다. 미칠 것 같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있을까, 없을까. 검지는 명단을 향했다, 입술에 닿았다는 반복, 반복하고 있다. 머리는 흑과 백을 오가면 눈을 재촉하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진수의 눈망울을 스쳐가고 있다.

“아”

진수는 짧은 외마디 탄식을 토해내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어둠 뒤편에 있던 새벽 비는 어느 햇살에 몸을 말리고 있다. 졸린 눈을 비비고 기지개를 펴도 잠은 방문을 넘어가지 않고 있다. 주섬주섬 체육복을 걸치고 이불은 발뒤꿈치에 잠시 접어놓았다. 밤이라는 نوم에 지쳐버린 몸을 일으켜 본다.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배고픔은 육신을 점령했다. 잠에게 빼앗긴 허기를 되찾으려고 눌린 코를 킁킁거렸다. 가느다란 눈망울은 문틈을 비집고 있다.

“진수야! 눈 좀 떠라 넘어진다!”

영거주춤하는 진수의 어깨를 잡아준 것을 싸구려 스킨 냄새였다. 옆방 권석이다. 한쪽 손에는 배부른 가방이 가볍게 들려 있고, 머리카락은 하늘을 향해 웃자라고 있다. 가느다란 눈을 살짝 떠주며, 입가의 씩씩거림으로 권석의 싸구려 스킨에게 인사를 건네 본다.

평범한 시골 농사꾼의 굴레를 벗어보고자 진수는 대학에 진학

했고, 또 다른 신분 변화를 꿈꾸며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을 마친 후 신분상승의 구름마차를 타기 위해 고시촌에 입성했다. 1평도 안 되는 이곳에 들어온 지도 벌써 4년이 되었다. 세월은 노을 뒤에서 밀려오는 어둠보다 빠르다. 어제 졸업한 기억이 어느새 누런 사진이 되어 있다. 줌 먹는 시간 속에 진수가 이룬 것은 본능적으로 먹는 아침밥이다. 아들이 밥 굶지 않도록 없는 돈을 쪼개서 아침밥을 주는 고시원을 얻어 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일까! 오늘도 진수는 아침밥을 찾아 헤맨다. 밥 냄새가 향긋하다.

이미 몇 사람은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얼굴에 주름을 가득 간직한 203호 소크라테스는 생기발랄한 302호 아리스토텔레스를 옆에 앉혀 놓고, 일장 연설을 하고 있다. 에구구! 밥풀이 날아갔다. 눈이 반쯤 감긴 애기 부영이 202호는 느릿느릿 김치를 말아 먹고 있다.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별을 보고 있었나! 늘 시험 문제를 예상하는 303호 노스트라다무스는 한 손으로 책장을 넘긴다. 조금은 쉬면서 하지! 늘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빠징코 201호는 소주에 빠진 삼겹살 냄새를 풍기면서 식당 문지방을 건너오고 있다. 어제도 ‘인생은 한방이야!’ 하며 대박을 꿈꾸었겠지. 부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위해 아침밥 앞에 모여 앉았다.

졸린 눈을 비비고 들어오는 밥알이 웃음을 짓게 한다. 눈동자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 복부 팽만감이 잠을 조금 밀어내 주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두루뭉술한 배를 어루만지며 주인 없는 일명 ‘거리 카페’로 향했다. 권석은 먼저 독서실에 가 있겠다며 뒤 돌아서 허공에 손을 흔들고 있

다. 자판기 커피 한잔을 들고,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져보다. 어제 빌려 놓은 싸구려 88 한 개비가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다. 첫모금은 짧다. 잠은 이제 언덕위로 사라져 갔다. 즐비한 고시원 건물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상쾌한 아침이구나! 도시의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푸르겠지!’ 가느다란 실구름이 힘겹게 이어져 있다. 살며시 이어진 구름을 따라 잠시 발걸음을 이리저리 옮겨본다.

빠죽빠죽 흠어지는 골목들 사이로 생각을 던져본다.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 ‘그래봐야 하루 종일 독서실 책상 앞에서 숨소리만 내며, 깨지지 않은 틀에 앉아만 있겠지!’ ‘오늘은 계획표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공부량은 어느 정도 일까!’ 잡념을 세상에 풀어놓고 있지만, 머리는 가벼워지지 않는다. 하루 중 몇 번 안 되는 자유로운 시간을 진수는 무거운 산책으로 보내고 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기지개를 길게 하늘에 던진 진수는 미소를 입가에 물어본다. 독서실에 가는 길은 멀지 않다. 고시원 생활이 다 그러하듯 일정한 동선으로 시작했다가 끝을 맺는다. 동선이 조금이라도 휘어져 버리면 불안을 느끼는 것이 고시생의 특권이다. 철저하게 자신이 가는 길만 걷는 이들이다. 진수도 그 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진수는 종종 휘어진 동선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어제 산 살구향기 비누로 묶은 잡념들을 하나둘씩 씻어본다. 그렇게 진수는 하루를 시작한다.

얼마나 밀렸지! 계획표대로면 200페이지까지 마무리 해어야 하는데,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관대하게 친절을 베풀어 본다.

계획표에도 게으름과 나태의 여유를 기입해야 하는데, 의욕만 가득하다. 계획은 수정의 바다에 빠져 검게 물들고 있다. 계획은 불안을 던져준다. 계획은 실망을 낳는다. 계획은 좌절을 안겨준다. 하지만, 계획은 또 다른 희망을 꿈꾸게 한다. 그렇게 일정표에는 수없이 많은 낙서가 공생하고 있다. 오늘도 한마디 낙서로 지쳐갈 하루를 시작한다.

조용한 독서실에는 개미의 숨소리만 살아남았다. 훔날리는 책장소리로 생명체의 온기를 감지해 본다. 예고! 자리에 앉은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줄, 한줄 눈동자가 움직이는 시간의 간격은 늘어나고 있다. 쳐들어오는 잡념들을 칼로 찌르고 방패로 막아본다. 흔들리는 두 눈동자 속에 지루함이 새겨졌다. 지루함이 하품을 몰고 온다. 봐야할 분량이 많다고 머리는 자꾸 하품을 밀어낸다. 생각은 생각을 끌어오고, 거미줄처럼 복잡해진 생각은 눈물이 되어 버렸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성과도 없이 헌법책과 씨름했던 과오가 오 늘은 피곤으로 다가오고 있다. 힘없이 머리는 스스로 서서히 아래로 움직인다. 두 눈은 살며시 감겨지고 있다. 중력에 저항하다 머리는 왼쪽으로 흔들린다. 떨어짐을 인식한 머리는 눈꺼풀을 열어 세상의 빛을 안아본다. 눈동자는 다시 숨고, 머리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침이 입안에 고였다. 침은 머리보다 빨리 책상에 안착했다. 감긴 눈을 다시 떠본다. 왼손으로 머리를 긁적인다. 오른쪽 팔뚝으로 입 주위 파편을 제거해 본다.

머리의 향연에 펜은 자유분방한 행위 예술에 빠졌다. 초현실주의 작품이 마무리 될 때 쯤 머리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몽롱하게 춤추는 펜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담배나 한 대 피려고,

진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들 열심히 책만 보고 있다. 담배 한 개 달라고 말하기가 무섭다. 매일 빌려 피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합격자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아 다들 신경이 예민하다. 괜스레 공부하는 맥을 방해했다고 핀잔어린 눈동자를 받을까봐 마음을 접었다.

터벅터벅 졸린 다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 이른 봄 햇살이 눈을 부시게 한다. 눈가에 남아 있던 졸음은 달아나고 있다. 기지개를 펴고 세상에 졸음을 던져본다.

세상의 하늘은 이리저리 엉켜있는 전깃줄이 보호하고 있다. 답답한 도시의 하늘이지만 푸르다. 독서실 입구 옆에 놓여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세상을 구경해 본다. 거리의 사람들은 바쁘다. 진수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위로해 본다.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생각은 불안하다. 언제까지 이 길에 서 있을까! 이번 시험에도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벌써 4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고시촌의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전에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세상의 들러리가 되어 있다. 그만두고 일자리나 알아볼까! 가진 돈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는 지방 삼류대 출신,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도 아니다. 경기도 안 좋아서 무모한 도전이겠지!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 인생을 버는 일이지. 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좋으냐!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도 좋지만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 길을 택한 거잖아! 그냥 이대로 있다 보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늘 같은 결론으로 진수는 마음을 달래본다.

“진수야, 뭐하니! 졸려서 나왔니?”

옆방 권석이다.

“응. 일하러 가니?”

“그래, 나중에 보자!”

권석이는 고시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동갑내기 권석은 진수처럼 지방대를 졸업하고 푸른 꿈을 가지고 고시촌에 입성했다. 날로 늘어나는 고시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고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한 두~세 시간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나온다고 한다. 그렇게 권석이도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면서 버티고 있다.

멀어지는 권석에게 담배하나나 얻을까 했지만, 없는 녀석에게 빼앗는 기분이라 그만 두었다. 구름을 담배연기 삼아 마음을 달래본다.

“진수오빠! 뭐해!”

“깜짝이야!”

고시원 집 딸 민경이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

“기분이 어때, 내일 발표지!”

“응”

“이번에는 붙었을 거야!”

“발표 나뉘야 알지! 어디 가니?”

“그냥 나왔어! 오빠! 나 커피 사줘!”

진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잠시만, 지갑 좀 가져올게!”

뒤돌아서는 진수의 얼굴에는 많은 생각이 찾아왔다.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겠지. 괜찮아! 까짓것 조금 더 쓰지 뭐. 카드 있잖아. 이번 기회에 민경이한테 점수 좀 따지 뭐!’ 진수는 근심을 품

은 웃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민정이를 처음 본 것은 아침밥을 챙겨주는 고시원을 찾아 돌아다닐 때였다.

“저, 계세요? 방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고등학생처럼 앳된 소녀가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이내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학생, 들어와요.”

포근한 아주머니의 음색이 열린 현관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문을 열어 준 소녀는 어느 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방이 있나요?”

“방은 있는데, 언제 들어 올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요!”

“그래요. 민정아! 안방 가서 방배정표 좀 가지고 와라!”

소녀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향했다. 진수는 그렇게 민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고시원 비는 얼마죠?”

“삼십이지. 우리가 다른 집보다 조금 덜 받아! 건물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괜찮아!”

“아, 예”

“빈방이 몇 개 있으니까, 보고 골라요. 그런데 고향은 어디?”

진수는 주인아주머니가 물어보는 시시콜콜한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그렇게 민정리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민정아 너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는 거 알아?”

“오! 접대 멘트 좋은데! 오빠, 나 처음 봤을 때가 언제인지 기

억나?”

“그럼. 나 처음 방 구하러 왔을 때. 넌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지 아마!”

“푹푹!”

민경이도 기억이 났는지 살며시 웃었다.

“그 때 오빠! 정말 촌스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했어!”

“내가 뭘!”

둘은 그 시절의 푹푹함이 생각나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의 과거를 폭로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거꾸로 흘러 보냈다.

“자, 한잔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201호 빠징코는 흔들리는 소주잔을 치켜들었다.

“나처럼 열 번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기죽지 말고!”

201호는 연거푸 소주잔을 흔들고 있다.

“아직 젊잖아, 젊음을 불사르면 언젠가는 될 거야!”

진수는 말없이 손을 들어 소주잔을 목구멍으로 넘겼다.

“자, 오늘도 신나게 마시고, 게임도 하고, 대박도 나고, 놀아 보자고!”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던 알코올은 진수의 머리채를 잡았다. 술은 현실을 어지럽게 한다. 술은 미래를 잠들게 한다. 점점 진수의 젊음은 흔들리는 술 잔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다.

한 잔의 술에 하루의 슬픈 기억을 지우고, 두 잔의 술에 한 달의 시간을 지워버리고, 세 잔의 술에 일 년의 고생을 지우며, 네 잔의 술에 미래를 지우고 있다.

201호의 잡다한 이야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201호가 대박을 터뜨리러 간다고 동행을 요구한다. 진수는 부러진 돛을 바다에 팽개치듯 벌떡 일어났다. 이제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휘몰아치는 바다에 흐느적거리다 가라앉을 것이다.

형광등 불빛은 의미 없다. 줄지어 있는 게임기의 다채로운 색깔이 벽속을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의 다리까지 셀 수 있게 한다. 늦은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게임기를 쳐다보고 있다. 진수도 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쥐어본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의 흐름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호도 흐느적거리며 고시원으로 갔다.

멍하니 게임기를 쳐다보던 진수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생각들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 있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오늘 돈을 얼마나 잃었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게임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 되새김질은 오래 가지 않고, 생각들은 무수한 파편이 되어 사라져 갔다.

처음에는 다음 달 고시원비라도 벌어 볼까 했다. 몇 만원이 지갑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투자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갑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는 본전이라도 찾아 가야 한다고 진수는 마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갑은 벌써 비었다. 카드만이 지갑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수는 자신의 게임기를 잠시 멈추게 해놓고 혈레벌떡 뛰어갔다. 얼마 되지 않아 헉헉거리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두툼한 지폐가 손에 들려 있다. 진수는 떨리는 지폐를 꼭 움켜쥐었다. 희망을 담은 입가의 미소로 떨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다. 줄지어 있던 게임기도 하나 둘씩 주인을 잃어가고 있다. 담배꽂초가 쌓여가고 있는데 진수의 손에 움켜쥔 지폐는 사라져만 가고 있다.

총알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다. 밑천이 다 떨어졌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구겨진 천 원짜리 대 여섯 장이 전부이다. ‘오늘은 공치고 자리를 일어나야 하나’ ‘어떻게 하지!’ 현금서비스를 다 사용해서 총알을 구할 방법도 없다. ‘조금만 더, 기계에 밥 주면 멋진 바다이야기를 선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진수는 고개를 돌려본다.

새벽인지 밤인지 시간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다. 게임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몇 안됐다. 어떤 인간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고 있고 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는 인간, 눈이 빠지도록 게임기를 쳐다보는 불쌍한 인간, 진수의 자리를 힐끗 쳐다보는 현명한 인간만이 바다이야기를 상상하고 있다.

기계는 멈췄다. 하염없이 쳐다보아도 답은 없다. 애꿎은 천 원짜리 지폐만 만지작거린다. 손이 떨리다 진수 자리만 흘끗흘끗 쳐다보던 녀석은 벌써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 손에는 밥주걱이 들려 있다. 진수가 뒤돌아서면 당장이라도 뛰어오려고 한다. 겉눈질을 하고 있다. 속으로 빨리 가라고 외치고 있겠지.

진수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마지막 담배다. 첫 모금은 짧다.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멀리 가지 않았다. 게임기에 담배 한 모금 나눠주고 일어났다. 뒤돌아섰다. 한걸음을 떼었다. 다리가 무겁다. 멈췄다. 뒤돌아보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떨리는 한숨은 연기가 되어 사라져 갔다.

진수의 발자국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게임기는 새로운 주

인을 찾았다. 새 주인의 흔들리는 손놀림에 진수는 잠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총알은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 또 다른 바다이야기는 시작했다.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갔다. 발자국 소리가 질질 끌리고 있다. 담배연기는 뒤돌아서서 유혹하지만, 돈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올라선 계단 입구에 우두커니 서서 마지막 한 모금을 빨았다. 새벽은 이미 찾아와 있었다. 잔잔한 새벽빛이 눈을 부시게 한다.

진수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도 진수를 바라보고 있다. 한숨을 쉬어 본다. 어디로 가야하나! 어디로 가야하나! 몸이 무겁다. 머리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이가 자리를 차지한 것 같다. 무작정 아직 덜 깬 거리를 주섬주섬 걷기 시작했다.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진수는 종종 발걸음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하늘을 어김없이 조금씩, 조금씩 환하게 밝아오고 있다.

미화원 아저씨는 아침을 쓸어 모으고 있다. 밤잠을 설치고 일찍 나온 참새는 도시의 전깃줄에 앉아 새벽에 담아둔 이슬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있다. 지게가방을 등에 업은 학생이 스쳐간다. 풋풋한 향기! 진수는 학생이 떨어뜨리고 간 향기에 이끌려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옛된 비누냄새가 진수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잊고 있었던 그 옛날 진수의 향기다. 그리운 진수의 향기다. 잠시 잃어 버렸던 추억들이 움직인다.

고시촌에 처음 올라왔을 때 진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행복감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리운 기억의 조각들이 발아래에 하나 둘씩 차인다. 1평도 안 되는 방 안에서 날개를 움츠리고 책장 사이사이로 숨을 몰아쉬며, 구슬땀을 흘리며

살며시 잠이 들곤 했다. 행복했었다.

그 옛날 진수는 어디로 사라져 갔을까! ‘되돌아갈 수 없을까!’ ‘이제 어떻게 하지!’ 진수는 허탈하게 찾아온 생각을 거리에, 하늘에 던졌다. 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터벅터벅 주저앉던 발걸음은 어느새 고시원을 돌아왔다. 주인 아주머니의 밥 소리가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 진수는 허기졌지만 부끄럽다는 마음에 아침밥을 먹고 싶지 않았다.

온기가 사라진 방바닥에 우두커니 앉았다. 책상의 책은 벌써 녹슬어 진수의 손길을 피고 있다. 메모지에 빼곡히 적어놓은 계획은 이제 해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책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책장에서 졸고 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진수는 무수히 많은 꿈을 그렸는데 이제는 무엇을 그려야하는지, 아니 그 어떤 것도 그럴 힘이 없다.

몽롱한 머릿속으로 잠이 밀고 들어온다. 창문은 이미 환하게 밝아오고 있다. 주섬주섬 이불을 끌어 모아 가슴으로 안았다. 차가운 슬픔이 따뜻한 꿈속으로 사라지길 바란다.

‘어쩌면 지금이 꿈이 아닐까!’ ‘꿈 일거야!’ ‘꿈 일거야!’ ‘이제 깨면 독서실에 공부하러 가야지!’ 진수는 다시 꿈속을 헤매고 싶었다. 어느 새 진수의 숨소리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얼마나 지나갔을까’ 창문은 아직 빛을 간직하고 있다. 일어나기가 싫다.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없다. 잠시 뜬 눈은 다시 감기고, 많은 생각들은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

‘밤이구나!’ 진수는 살며시 눈을 떴다. 창문은 이제 어둠을 마셔 버렸다. 방 안에 가득 찬 어둠속에 보이는 것을 진수의 현실뿐이다.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엄마

한테 뭐라고 말하지!’ 진수는 일어나기가 싫다. 일어나봐야 할 일이 없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지’만 반복하고 있다.

“하하하”

“호호호”

낮은 벽을 타고 옆방에서 낮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조용히 웃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웃음이다.

권석이는 이번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을 축하해주려 민경이가 왔나보다. 생전 고시생 방에는 오지도 않던 민경이가 옆방에 와서 즐겁게 웃고 있다.

진수는 구부정하게 일어나서 어둠을 더듬거리며 담배를 찾았다. 구겨진 영수증, 형클어진 천 원짜리 지폐 몇 장, 깨진 동전 몇 개만이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있다.

허기진다. 배고픔은 사람을 참 단순하게 만든다. 진수는 주섬 주섬 모자를 눌러 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방에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닫았다. 그리고 비굴하게 살며시 복도를 지나갔다.

얼마 되지 않은 재산으로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다. 소주 두병에 떡볶이 일인분, 삶은 계란도 하나 추가, 까치 담배 다섯 개비. 이정도면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한 마음으로 진수는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왔다. 권석이 방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를 다시 살금살금 걸었다.

불은 켜지 않았다. 한쪽으로 이불을 걷어놓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다. 어둠은 빨간 떡볶이에게 약간의 자리를 양보해주고, 달빛은 소주잔에 가득차고 있다.

지나가는 시간들처럼 술은 너무 쉽게 가슴을 채운다. 어느 새 소주 한 병은 그 생명을 다했다. 주위는 어둠만큼 고요해졌다. 권석이 방도 조용하다. ‘민경이는 갔을까?’

술 한 잔에 방 오른쪽에 있는 수험서의 먼지를 안주 삼고, 술 한 잔에 몇 달째 이불 속에 숨어있는 추억을 삼킨다. 술 한 잔에 방 안에 가득 찬 어둠을 들이 마신다.

진수는 불이 켜고 싶었다. 아니, 켜고 싶지 않았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진수를 부르는 것은 작년에 민경이가 사준 양초다. 민경이가 사준 양초.

양초가 탄다. 귀엽고 양증맞은 양초가 타다. 민경이가 사준 양초가 탄다. 조용히 감겨진 진수의 눈꺼풀 위에서 양초는 불빛을 보내고 있다. 양초의 불빛을 소주잔에 담아 건배를 올려본다.

갑자기 문틈으로 들어온 작은 바람이 양초를 흔든다. 불빛은 심하게 요동을 친다. 불꽃은 검은 심지 끝에 매달려 있다. 불꽃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람은 문틈으로 사라진다. 양초는 바람에게 빼앗긴 빛을 찾으려 한다. 심지를 덮은 불꽃은 힘든 표정으로 흔들린다. 문틈에서 바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바람은 불빛을 여러 번 위협했다. 그때마다 불빛은 힘겨운 사투를 벌인다. 안쓰럽다. 안쓰럽다.

허기는 이미 취기에 생명을 잃었다. 졸린다. 진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너무 많이 마신 것일까!’ ‘내일은 뭐하지!’ 모르겠다. 생각하기도 싫다 이제 그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 ‘이제 그만 하자’

진수의 눈가에서 불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비스듬히 누운 진수를 지키는 것은 다 마신 소주병과 떡볶이 한 조각이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은 꿈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진수는 좋은 꿈을 꾸고 있다.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다. 진수는 모닥불 앞에 앉아서 즐겁게 웃고 있다. 이글거리는 모닥불에 진수는 지긋지긋한 과거를 태우고 있었다. 누군가 멀리서 진수를 부른 것 같다. 하지만 진수는 모닥불을 떠나기 싫었다. 진수는 마지막 남은 과거를 모닥불에 던졌다. 활활 모닥불은 타올랐다.

“진수야!”

“진수야!”

“진수야!”

누군가 자꾸 부른다.

“불이야!”

진수는 이제 현재와 미래를 모닥불에 던지고 있다.



기쁩니다. 이 기쁨을 숨죽여 왔던 모든 단어를 끌어 모아 표현하고 싶지만, '기쁘다' 만큼 기쁨의 순수함을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가 없네요.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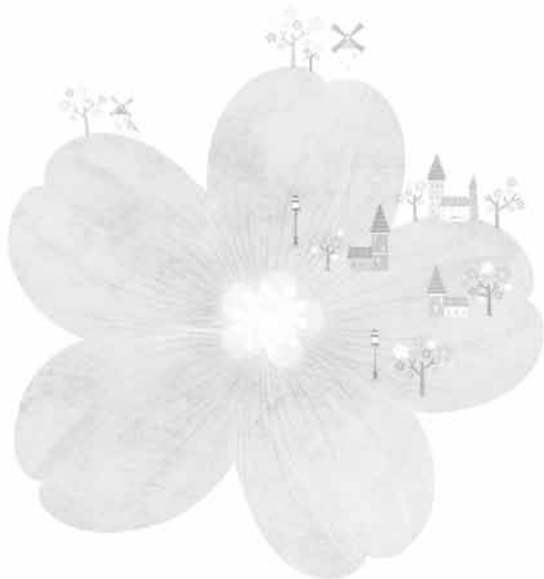


대전용산고등학교
윤 정 아

봄

입을 벌리자 콘크리트 먼지를 가득 담은 훈풍이 밀려들어왔다. 봄바람이었다.
상준이 사라진 골목길에는 햇살이 내리쬘고 있었다. 쏟아지는 햇살에 눈물겹게
눈이 시린 걸 보니 분명 봄이었다. 북촌의 지리멸렬한 봄은 그렇게 통곡을 베어
물고 울컥울컥 쏟아지고 있었다.

-본문 중에서-



봄

1

남촌엔 봄별 뒤집어쓴 경망스러운 꽃망을 천지인데 북촌은 칼바람이 골목마다 진을 치고 있었다. 낮은 기온 때문인지 사방에 깔린 음침한 기운 때문인지 오소소한 소름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개미집처럼 얽힌 좁다란 골목길, 제대로 된 약도도 없이 동주의 집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애초부터 마음에 없는 방문이었으니 짜증이 더해져 발걸음은 더더지기만 했다. 노을이 골목 구석구석을 헤집어 갈 때쯤에야 붉은 페인트로 번지를 휘갈겨 쓴 낡은 집 대문에 닿았다. 무너져 가는 담벼락 그늘에는 반쯤 허물어진 채 함부로 놓인 연탄재가 미처 녹지 못한 검댕 묻은 잔설에 엉켜있었다. 낮고 빼박한 대문 위로 마당 안쪽을 살폈다. 코가 헐어진 검둥개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금이 간 굴뚝에 털이 듬성듬성 빠진 배를 대고는 연신 쿵쿵대고 있었다. 배가 고파 보였으나 사납지는 않을 것 같아 대문을 밀고 들어가 듬성듬성 털이 빠진 늘어진 턱밑을 천천히 쓸었다. 눈곱이 잔뜩 낀 채 흐리멍덩한 눈동자를 굴리던 개는 이내 혀를 내밀어 손등을 핥기 시작했다. 매끄러운 것이라 생각했던 개의 혀는 까끌까끌했다. 미적지근한 헛바닥이 동주와의 주먹다툼으로 생긴 딱지가 앉은 상처에 연이어 닿았고 이내 상처가 벌어지며 피가 흘렀다. 그 때였다.

순한 눈빛으로 기운이 없던 검둥개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맹렬한 기세로 붉은 피를 핥기 시작했다. 뒷다리를 바르르 떨며 꼬리를 치킨 검둥개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이는 순간, 벌떡 일어선 나는 검둥개의 옆구리를 세차게 찬 뒤 대문이 구겨져라 재차 발길질을 하고 좁다란 골목길을 내달았다. 검둥개가 쫓아와 팔 한 짝을 뚫 베어 물기라도 하면 어찌나 싫어 숨이 가빠질 때까지 달렸다. 해가 지기 전, 컴컴한 밤이 되기 전 지저분한 북촌을 빠져나오고 싶었다. 담임에게는 집에 없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덧붙여 서 너 시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면 나에 대한 담임의 신뢰가 좀 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야비한 계산이 앞섰다. 어차피 3학년 진급 후 한 달 남짓, 동주는 등교하지 않았다. 본인이 찾아봐야 하나 아무래도 반장이 낫겠다며 극구 나를 보낸 담임의 의도는 뻔했다. 귀찮고 하찮은 동주를 내보낼 구실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수업일수 부족으로 강제로 자퇴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봄이 지루하게 길었을 터이다. 그러니 동주와 폭력으로 얽힌 과거가 있는 나를 보내 스스로 그만두게 할 속셈이 분명했다. 치졸하고 유치하고 약삭빠른 담임의 계산 때문에 북촌의 골목길을 숨차게 달렸다. 붙어진 노을 사이로 위태롭게 매달린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질 때쯤에야 끊긴 전선이 발치에 함부로 얹혀있는 전봇대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바람이 왔다. 찬바람을 마주 대하고 내리닫기만 한 탓인지 어깨도 흔들렸다. 게다가 손등의 쓰라림이 거슬렸다. 딱지가 사라지고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침에 새어머니가 넣어두었을 손수건을 찾으려 가방 안을 살피는

데 누런 행정봉투가 눈에 띄었다. 빌어먹을. 담임이 전해주라던 자퇴 원서였다. 시답지도 않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생각이 흐트러진 것이 화가 났다. 봉투야 전해주지 않아도 그만이었지만 절차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담임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이 싫어 내려온 길을 서둘러 되짚어 올라갔다. 숨이 턱에 닿을 때 쯤 다시 선 어둠이 뒤덮은 가로등 없는 골목길은 더 좁고 답답하고 우울했다. 겨우겨우 구겨진 양철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피 맛에 흥분했던 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긴 나는 쪽마루라 칭하기에도 창피할 만큼 작은, 반쯤 뜯겨져 나간 방문 앞 널빤지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 아.....아.....

환청이었을까. 신음소리였을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방 안에서 웅거 나온 소리는 내 발목을 묶어두기에 충분했다. 창호지가 너털너털 뜯긴 캄캄한 방문 저 너머에서 분명 인기척이라 할 만한 사근거림이 들렸다. 살며시 다가가 창구멍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여자아이의 비쩍 마른 유난히 허연 허벅지가 제일 먼저 보였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허름한 차림의 누군가가 여자아이 위에서 성마른 신음소리를 내며 버둥거리고 있었다. 어른이 없는 빈 집에 모여 친구들과 후진 농담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리던 낮익은 풍경이었으나 무언가 달랐다. 어른들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들여다보는 일이기에 야릇한 쾌감과 동시에 죄책감과 호기심이 버무려졌던 긴장의 순간과는 달랐다. 열여덟, 어른도 아이도 아

닌 경계선에서 몸만 부쩍 자라있던 내 눈 안에 든 그들의 버둥거림은 고통이었다. 남녀 간의 달뜬 정사라 하기엔 여자아이의 얼굴이 너무나도 창백했다. 작게 주먹 쥔 손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부질없는 저항도 안쓰러웠다.

나는 망설임 없이 뒷걸음질 쳤다. 노랗게 질린 여자 아이의 생기 없는 얼굴이 마음에 얹히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간섭 없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참견 없는 삶을 지향하기로 오래전에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저 담임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내게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도리질 하고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의 신음소리는 내 몫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한 발자국도 채 떼지 못했다. 발뒤꿈치에 무언가 물경한 게 밟혔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어둠속에서 흰 이를 드러내 검둥개가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싱싱한 피 맛을 잊지 못해 손등을 다시 핥으려 다가왔을까. 밟힌 꼬리에 약이 바짝 올랐는지 뒷걸음치는 나를 향해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려는 기세로 덤벼들었다. 낭패였다. 두리번거리다 발치에 걸린 세수 대야를 집어던졌다. 쟁쟁, 설핏 맞은 게 화근이었는지 이번엔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 때였다. 후다닥 방문이 열리고 모자를 쓴 사내는 허리춤도 추키지 못한 채 튀어 나왔다. 난데없는 소란에 놀랐는지 비칠거리며 대문 밖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얼핏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사내의 뒷모습이 낯익었으나 달려드는 개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도망치는 사내를 쫓느라 개의 고개가 돌려지는 순간, 신발을 벗어 들고 대가리를 갈겼다. 목뼈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검둥개는 비실비실 물러났다. 달아오른 숨

을 삭히느라 씹씹거리며 욕설을 내뱉는데 방안에 앉아있던 여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치마는 한껏 치켜져 올라가 있었고 끊임 없이 떨리는 허벅다리 사이에서는 피가 흐르는데도 크고 검은 눈만 껌껌거리고 있었다. 번질거리는 눈물자국이 선명한 볼 위에 얹전히 놓인 두 개의 커다란 눈은 분명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초점은 맞지 않았다. 행하게 빈 눈이었다. 어둠이 바닥까지 내린 방에서 어둠보다 더 깊이 내려앉은 두 눈에 무표정한 내 얼굴만 감정 없이 박혀 있을 뿐이었다.

동주의 여동생 동희, 앞이 보이지 않은 채 빈집에 남겨진 그 아이를 나는 그렇게 만났다. 책임을 회피한 담임이 아니었다면, 피맛들인 개가 덤비지만 앉았다면, 애초에 동주에게 얻어맞은 일이 없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제기랄.

- 누.....누.....누.....

햇살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쪼가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판잣집 안에서 동희와 나는 서로를 그렇게 확인했다. 감정 섞인 욕설과 반병어리가 읊어대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이다. 마당 저편에서는 제 상처를 즐기차게 빨아대고 있는 빌어먹을 검둥개 한 마리가 연신 끁끁대고 있었다. 세상사람 모두가 말하는 봄기운은 발바닥 근처에도 닿지 않은 너무나 춥고 캄캄한 북촌의 봄날 저녁이었다.

남촌의 꽃망울이란 꽃망울이 죄다 색기를 뿜으며 화려하게 벌 어지던 토요일 오후, 아버지의 성화에 새어머니는 움직일 때 마 다 욕지기나는 살덩이가 출렁거리는 스모선수 덩치만한 영산홍 화분을 교실로 보내왔다. 요전 날 농협 지서장 생일을 핑계로 모 였던 술자리에서 거하게 취해 돌아온 아버지가 지서장 아들 상준 의 성적 이야기를 꺼낸 것 때문이었다. 술자리에서 자식 자랑이 이어졌는데 어찌다 보니 동석했던 교장이 도에서 주최한 수학경 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상준의 수학성적을 제 자식 성적 모양 으로 기뻐한 모양이었다. 잔치에서 빠져나온 몇몇이 험담을 나 누기 위해 모였는데 대부분이 제 자식 성적에 목을 매는 어른들 이었나 보다. 2차로 호프집에서 뒷공론이 이어졌고 여기저기 추 렴한 이야기를 그러모아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랬다. 지서장의 그 절름발이 아들 상준이 실력이 아닌 돈으로 도대회에 참여했으 며 그 증거가 교장실에 새로 걸린 연둣빛 비단커튼과 바닥에 깔 린 초록색 카펫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도대회 역시 교육청 앞 ‘미당’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거하게 한 톱 낸 결 과라고 치부되었다. 비리비리하게 비린내 날듯 마른 상준의 모친 이 뿡뿡 돌아가는 고급스러운 한복차림으로 김이 모락모락 오르 는 요리를 손수 나르더라는 목격자도 있었다했다. 차마 금상이나 대상이 아닌 은상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는 그럴싸한 부연설명까 지 곁들여졌다. 나름 물증도 잡았으니 날이 밝으면 학교에 찾아 와 결과를 뒤집지는 못해도 따져는 봐야겠다는 신빙성 없는 술주 정도 이어졌을 터이다.

- 영규야. 그렇지 않냐? 너도 수학 깨나 푸는 녀석인데 대회란 대회를 그 모자란 놈이 맡아 놓고 나간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냐? 게다가 그 놈은 문과라면서……. 교육자란 놈이 뇌물이나 쳐먹고 말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가는 건지…….

흰자위까지 별장계 달아 오른 아버지는 푸념이 지나쳐 거짓말까지 주절대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새초롬한 얼굴로 들이미는 얼음이 띄워진 꿀물을 몇 사발이나 들이붓는 동안 아버지가 내뱉은 말들은 죄다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어울렸던 못난 인사들이 여기 저기 께매어 끼워 제작한 음모론을 누군가 들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상준이를 아는 이였다면 코웃음을 쳤을 일이었다. 평소 에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소리 높여 외치는 아버지가 진정 부끄러웠다. 아버지의 술주정은 제 자식 못난 걸 들키지 않으려는 용렬한 자의 무지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맥주거품을 윗입술에 허영게 묻혀가며 튀김 닭의 번질번질한 기름기를 지우려 하던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면 불쌍한 상준이 죄인이 되고 불구 자식을 낳아 평생 고개 한번 바로 세우지 못하는 상준의 모친은 죽일 년으로 치부된 셈이었다.

사실 대회의 과정을 아는 나와 친구들은 은상을 받은 상준이에 게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다. 실력대로라면 녀석은 은상도 금상이 아닌 대상이었을 것이었다. 녀석이 은상을 받은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걸 상상하는 건 사건의 과정을 아는 우리들만의 소름끼치는 비밀이었다.

녀석은 우리들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였다. 학창 시절 내내 같은 반을 다섯 번이나 배정 받은 동안, 상준이 1등을 놓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단 한문제도 틀린 적이 없는 100점짜리 학생이었다. 체육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독보적이었다. 녀석이 1학년 기말고사에서 수학문제 한 개를 놓친 이유로 법관이 될 수 있는 문과를 선택했을 때, 의학박사 제자를 기대했던 수학선생의 안타까움은 노여움에 가까웠었다. 틀리게 가르친 문제 풀이에 대한 녀석의 지적에 망신을 당한 후, 고학년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낸 것이 화근이었다. 외모도 마음도 커다랗게 품기 좋은 곰 인형 같았던 수학선생은 망신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 아닌, 그저 좋은 마음으로 딱딱하기만 한 상준이를 꿰뚫어 보고자 범위를 넘어선 문제를 출제 했던 것뿐이었는데, 그 일로 녀석은 일생일대의 진로를 단박에 결정해 버린 것이었다. 다들 혼자서 끙끙대며 진로를 고민할 즈음, 상준이는 교무실에 엄청나게 불려 다녔다. 수학선생은 물론 과학선생에 담임까지 녀석이 결정한 진로를 바꾸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반장이었기에 교무실 출입이 잦았던 내 눈에 교사들의 간곡한 외침에 입술을 굳게 닫은 채 침묵하는 녀석이 위대해 보이기가까지 했다. 우리들과는 다른 무언가 옹골진 그 무언가가 그 가슴팍 어딘가에 잠재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법관은 파스한 마음이 필요한데 너는 그게 없다’는 담임의 노골적인 멸시도 흔들림 없는 눈매로 견뎌내는 상준은 대단해 보였다. 이과에 지원서를 낸 그 어떤 녀석들 보다 상준이의 실력이 뛰어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수학뿐만이 아니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한 상준이의 지대

한 관심은 수많은 과학 선생들에게 훌륭한 제자를 얻어 가르치는 쏠쏠한 재미를 느끼게 했다. 한 시간 동안 원고지 10장을 말끔하게 채우는 논술 실력은 더했다. 글이라면 꽤나 쓴다고 칭찬 받았던 나도 녀석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장문 앞에서는 연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 이상한 건 모든 시험에서 늘 언제나 당연하듯 1등을 고수하고 있었던 녀석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억 속의 상준은 언제나 작은 키로 교실 맨 앞자리 중앙을 지키며, 항상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연습장에 단어를 채워나가거나 숫자를 나열하고 있었다. 빼곡하다 못해 언뜻 보면 검게 채색된 것 같은 연습장은 녀석 자체였다. 아무도 누구도 상준이의 성적에 이의를 달 수 없게 만드는 뻗속까지 모범생이었던 것이다. 무릎 아래로는 자라지 않는 쓸모없는 오른쪽 다리를 거추장스럽게 달고 태어난 신체적 약점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아버지의 모함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아는 한, 우리 읍에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진 유일한 녀석은 강. 상. 준. 그 녀석 한 명뿐이었다. 상준은 단 한 번도 또래 아이들이 저지를 만한 부정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어설피게 어른 흉내를 내는 치기가 또래들 사이에서 유치한 행동으로 번져갈 때도 녀석은 늘 멀찌감치 한 발 물러서 특유의 미소만 지었을 뿐이다. 매사가 바른 생활이었고 매번이 모범적인 교과서 같았다. 그러니 각종 경시대회 차출은 당연한 일이었다. 끝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아 문과에 배치된 후, 도대회에 나가서 성과가 좋지 않다면 녀석의 선택을 공식적으로 존중해 주겠다는 수학선생과의 암묵적 계약이 성립되

었다. 그런데 상준이는 보기 좋게 대상도 금상도 아닌 어정쩡한 은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다. 감히 누가 내놓고 어른을 놀려먹는 일을 칭찬받으면서 해내겠는가. 아버지의 술주정이 다하도록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내내 시상식에서 상준이가 지었을 표정을 생각하니 등골을 타고 오오소한 소름이 돋았다. 시상대 위에서 세상을 조롱하던 상준의 미소는 아버지의 푸념에 이어진 새어머니의 냉기어린 미소를 띤 낮고 조용한 말보다 무서웠을 것이다.

- 그만 주무셔요. 제가 토요일에 화분이라도 사들고 영규 담임 선생님 찾아 뵈 테니까요. 영규도 그만 올라가 자거라. 실력이 안 된다고 꿈수라도 부려야 한다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쫓쫓쫓…….

영산홍은 화사한 봄 햇살이 닿은 부분마다 홍조를 띤 누군가의 얼굴로 떠올랐다. 간혹 창문 너머로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일어 꽃잎이 떨어지고 누군가의 무심한 발에 밟혔다. 그렇게 일그러진 꽃잎도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지루한 수업 중 잠깐 꿈을 꾸었다. 동희네 마당에서 기운 없이 비척덜 점쟁개가 누군가의 발길질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치도곤을 당하는 꿈이었다. 아가리에서 피를 쏟아내는 개의 희번덕거리는 눈동자에 온 몸에 잇자국이 선명한 동희의 아픈 모양이 선명히 박힌 아주 더러운 꿈이었다. 이후로도 물을 주고, 시든 꽃을 따주고 화분을 닦는 내내 동희의 하얀 허벅지와 텅 빈 눈동자가 생각났다. 이상

한 건 동희의 고운 살결을 떠올릴수록 상준이의 감정 없는 검은 눈동자가 겹쳐지며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듯 거칠게 흔들렸다는 점이다. 수도권 진학 특별 심화반 수업의 맨 앞줄에서 허리를 꼴끗하게 편 채 수업내용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상준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바르고 정직한 얼굴인데도 영산홍이 바람에 뚝뚝 떨어질 때마다 기분이 더러워졌다. ‘지긋지긋한 영산홍, 봄이 가기 전 꽃이란 꽃은 죄다 쏟아져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그 소박한 바람뿐이었다.

3

아버지의 재혼 후, 새어머니는 전처의 아들인 ‘나’를 철저히 무시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못된 계모처럼 굴었다는 말은 아니다. 갓 서른 넘어 손이 다 된 아버지의 후처로 들어온 새어머니였다. 수염이 거뭇하고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한 다 큰 전처의 자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본인이 새어머니로서 나름 최선을 다 할 테니 쓸데없는 반항으로, 어리석은 언행으로 자신을 못된 계모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모든 행동을 통해 전해졌다. 하교 후에는 물기 마른 나무 쟁반에 먹기 좋게 잘라진 제철과일이나 생크림 빵이 우유 한 잔과 함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교복은 늘 반듯하게 다려져 침대 위에 압전히 개켜져 있었다. 방금 사 입은 옷처럼 날이 선 교복이 고마움이었기 보다는 질식 직전의 옥죄임처럼 느껴진 건 순전히 내 탓이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민규를 돌보느라 녹초가 되었을 텐

데도 전처의 아들을 남편보다 끔찍하게 챙겨내는 걸 감사하지 못하는 건 지질히도 못한 내 탓이었다. 불만의 원인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성을 다해 주는 것에 있다하면 세상사람 모두가 ‘미친놈’이라 손가락질 할 일이었다. 아버지도 데면데면하게만 구는 나를 가끔 나무라곤 했다. 그러면 나는 잠자코 ‘사내답지 못하다’는 아버지의 폼하된 발언을 묵묵히 참아내었다. 차마 지난 삼년간 새어머니가 나와 단 둘이 눈 맞추며 단 한 번도 편하게 웃어준 적이 없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버지와 동석한 자리에서는 민규를 알려주라고 건네주기도 하고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조용히 내 어리석은 발언에 고개를 끄덕여 주곤 했다. 아주 가끔 이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절제시켜 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늙는 날에는 나날이 재롱이 늘어 가는 민규를 안아주려던 내 손길은 차갑게 내뻗는 새어머니의 몇 마디 말에 움츠러질 뿐이었다.

— 올라가 공부하렴. 사과가 좋더구나. 올려 보내마.

병원에 실려 가던 날, 엄마는 내 베개에 넣어줄 바짝 말린 사과 껍질을 약재용 작두로 잘게 부수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다 내 탓이었다. 엄마에게 쓴 편지를 전해 주고 싶어 학교에서부터 내내 뽕박질을 해 현관문을 부서질 듯 열지 않았다면, 엄마가 깜짝 놀라 손가락을 베지만 않았다면, 하얀 사과 꽃 닮은 웃음이 만면에 그득한 엄마는 아직도 살아있을 지도 몰랐다. 정말 작은 상처였을 뿐이었다. 앞치마로 살짝 닦아낸 피는 그저 얇고 가느다

랑고 진한 붉은 선 한 줄에 불과했다. 아버지가 퇴근할 때 째, 엄마는 온 몸이 불덩이가 되었다. 놀란 아버지가 들쳐 메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얼굴은 이미 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파상풍이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주검을 붙들고 통곡했다. 아직 어렸던 나는 침상에서 툭 떨어진 엄마의 통통 부은 시퍼런 손을 잡았다. 엄마에게는 여전히 향긋한 사과향이 났다. 화장된 엄마는 먼 친척의 사과나무 과수원에 뿌려졌다. 자식이 있으니 봉분을 세우자는 외가족 의견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묵살되었다.

- 사과 꽃을, 사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과 나무 양분되고 사과 향으로 퍼진다면 다 좋은 일이겠지요. 혹시 압니까? 가을이면 바람에 물어날는지요.

도대체 어디서 그토록 기막힌 문구를 표절한 것일까.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잃은 표정으로 멍진 시인처럼 입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탄복했다. 산 도적 임꺽정이 환생한 것처럼 무뚝뚝하게만 생긴, 평소에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저리 간절한 순정의 소유자였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의 아버지는 엄마 이외의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볼 듯 엄청 울었고 서러워했다. 그러나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고독함을 빌미로 엄마의 침상으로 다른 여자를 끌어 들였다. 새어머니를 정식 후처로 앉히기 전 오년간, 안방에서 길게는 일 년에서 짧게는 한 달 정도 아버지의 살을 비비던 여자가 죽히 다섯이 넘었다. 아버지의 오랜 방황은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새어머니를 호적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재작년 봄, 아버지가 북촌 어디쯤 작은택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새어머니의 가출을 예상하며 했던 나는 당황했었다. 씨가 말라붙었으리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기름진 밭에 뿌려진 아버지의 메마른 씨앗은 3.7킬로의 통통한 볼을 가진 우량아 민규로 태어났다. 민규가 백일 쯤 되었을 때 작은택이 정리되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새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돌아오던 날, 나는 종일 풍선을 불어대느라 입술이 퉁퉁 부어있었다. 동생이 생긴 것에 들떠 오십 개 넘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고 거실 가득 붙여놓았기 때문이었다.

— 풍선이 터지면 아이가 놀라잖니. 좀 치워라.

몸조리를 위해 새로 들여놓은 가격만큼이나 뜨겁게 데워진 돌침대에 오르며 새어머니가 던진 말은 돌침대의 몇 갑절 되는 무게로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 때 부터였을 것이다. 어처구니없이 엄마를 잃은 후 땅이 꺼질까봐 하늘이 무너질까봐 가만가만 조심스레 살아냈고 새어머니를 만난 뒤 엄마의 따스함을 기대했던 나는 변해갔다. 보이는 나와 실제의 나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른들의 요구에는 목숨을 내어 놓을 듯 조아렸지만 혼자만의 생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다. 손가락에 담배 냄새가 나는 걸 방지하려고 나무젓가락에 걸어두고 피는 방법도 터득했고 토요일이면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을 기웃거리면서 어른 흥내를 내었다. 조숙한 것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교무실에 불러 가면 지나가는 모든 교사들이 등을 두들겨주는 착실한 순둥이가 되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적당히 비속어를 섞어가며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인격적 모욕까지 감수해야 하나면서 어른들을 씹어댔다.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나쁜 어른들의 경이로운 삶도 하나씩 섭렵해 갔다.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범죄를 엄청나게 저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나는 말수가 적어 진중한 아이였고 어른들의 칭찬은 이어졌다. 그 때마다 타락에 대한 쾌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간혹 새어머니가 내 탈선을 눈치 채고 있음에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담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옷장 속에 찢려 두었던 소주병이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정확히 아침 여섯시 삼십분이면 소화되기 좋은 죽이나 빈속에 먹기 편하도록 순하게 끓여낸 담백한 국이 동반된 정갈한 밥상을 준비하였다.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일어서면 늘 네 가지 이상의 과일이 절대로 섞이지 않게 포장된 간식이 현관에 놓여있었다. 시험기간이 되면 뇌가 맑아진다는 진하게 우려진 약사발이 열흘 쯤 놓아졌고 그 옆에는 박하사탕이 딱 두개씩 포개어져 놓여있었다. 빈틈이 없었다. 결국 들켰다는 두려움은 처음 몇 번에 불과했다. 조마조마하며 담배와 술을 배우는 일들이 무난히 지나갔다. 나중에는 나 편한 대로 ‘내가 피워 없앤 걸 착각했다’고 생각하기로 정해버렸다. ‘누가 가져간 걸까’ 하며 머리를 쥐어뜯어보았자 내 속만 어지러울 뿐이니 생각을 접기로 했다. 이후로도 몇 번, 교복의 넥타이 뒤나 철지난 겨울양말 안에 잘 숨겨둔 담배가 감쪽같이 사

라졌지만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에 죄짓는 일에 대해 더 대답해줬다. 방임으로 초래된 방종이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4

동주는 이른바 ‘쌈짱’이었다. 부모가 없다고 했다. 둘 다 어른 흉내를 내곤 있었지만 동주와 나는 활동 범위가 달랐다. 교재를 사야한다고 얻어낸 돈으로 여기저기 훔꿈거리던 나와는 달리 동주를 생활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어야했다. 소문에 밤마다 택배회사에서 짐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했다. 일당 칠만 원. 한 달에 보름은 집하된 화물을 나누는 일을 했고 남은 보름은 편의점에서 밤새 토사물을 치우고 라면 국물을 치우고 김밥 포장지를 분리수거하며 보낸다 했다.

딱 한 번이었다. 담배의 양이 하루에 한 갑을 넘길 무렵, 편의점에서 마주친 동주는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피식 웃었다.

- 너 웃었냐? 나 보고 웃었냐? 이 자식이.

- 너 보고 웃은 거 아니다. 그냥 네가 가진 것들이 어이없어서 웃었다.

- 내가 가진 것들?

- 네가 짐이라 생각하는 그 것들 말이다. 참 더러운 세상이다.

그걸로 끝이었다. 동주는 담배 값을 계산하고는 다시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무시당하는 느낌은 아니

었다. 그저 담담하게 ‘우리는 다르다’는 말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담백한 상황이었다. 동주의 주먹 한 번이면 갈비가 두어 대는 부러지고 발차기 한 번이면 서너 개 이가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설 때문에 동경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무시당했다면 무시당했다 할 수 있었으나 나는 뒤로 순순히 물러섰다. 그저 참다른, 친구가 될 수 없던 동주. 아버지가 종종 말하던 사람도 레벨이 있고 비슷한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적 사고가 뇌리 속에서는 깊이 박혀 있었던 걸까? ‘다르다’로 정의된 계급나누기. 동주가 저 밑바닥이었다면 상준은 저 위층이었고 나는 딱 중간에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 허섭스레기에 불과했다. 편의점을 나선 나는 어두운 골목으로 기어 들어가 담배를 혈어 입에 물었다.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다. 검은 하늘에서 흰 눈이 쏟아졌다.

나는 울고 있었다. 통곡하고 있었다. 한 모금도 빨아내지 못한 담배는 호흡이 실리지 못했기에 시뻘정게 달구어져 산화하지 못했다. 그저 메케하게 스며드는 그윽음만 남기고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눈이 내리는데 킁킁하기만 한 그 오줌냄새 얼룩진 뒷골목에서 꺼진 담배를 입에 문 채 얼마나 울었을까.

— 일어나라. 감기 들겠다.

모자란 자는 모자란 짓을 한다. 나는 동주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아니, 동주가 아니어도 좋았다. 내 분노를 받아내 줄 그 자리

에 마침 동주가 있었을 뿐이다. 한참 동안 기억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욕설이란 욕설은 몽땅 주절거리며 말 그대로 동주를 두들겨 팼다. 손 등허리가 찢기고 동주가 입고 있는 편의점 제복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야 헉헉거림을 멈출 수 있었다. 울음도 썩은 속을 드러내던 폭언도 그쳤다. 동주는 터진 입술을 소맷자락으로 스윽 닦아내었을 뿐. 그게 동주가 보인 내 까닭 없는 폭력에 대한 반응 전부였다. 말없이 돌아서던 동주가 앞서 그랬던 것처럼 담담하게 한 마디 툭 던졌다.

- 가끔은 좀 울어도 된다. 그래야 사람이다.

울어도 된다는 허락의 말. 찡고 허기지고 상처나 있던 나에게 동주의 그 말은 따스함이었다. 더러운 뒷골목의 쓰레기들을 하얗게 덮기 시작한 흰 눈 같았던 동주의 말. 그 말이 그 날 이후로 마음에 얹혀 있었기 때문일까?

자퇴 원서를 주고 오라는 담임의 심부름이 허사로 돌아간 뒤, 나는 거의 매일 북촌에 기어 올라갔다. 담배를 사 피우려고 모아 두었던 용돈을 털어 찌뽕이나 만두를 사가기도 하고 김밥과 라면을 상에 올리기도 했다. 동희를 보살폈다.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그저 얼룩이 묻은 얼굴이 마음아파 물을 데워 닦아 주거나 더 큰 양은솥을 빌려다가 머리를 감겨주고 남은 물로 발을 씻기기도 했다. 햇살 바른 곳을 찾아 앉혀두고 젖은 머리가 마를 때까지 머리빗을 끊임없이 움직였다. 마음 같아서는 한쪽이 찢어진 채 양철지붕에 얹혀 있는 고무 대야에 물을 받아 온몸을 씻겨 주고 싶

었지만 웬지 그것까지는 해서는 안 될 일 같았다. 그저 햇살과 바람에 머리가 다 마르면 늘 어딘가에 부딪쳐 여기 저기 생긴 상처를 찾아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곤 했다. 소독약을 들이붓다시피 하는 내 서툰 솜씨에 쓰라린 동희는 얼굴을 찌푸리곤 했다.

황사가 지나간 뒤 지독한 독감에 걸린 동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열을 이기지 못해 맥없이 누워만 있었다. 입술은 건조하다 못해 터진 지 오래였다. 단내 나는 동희의 호흡은 지켜보기에 괴로웠다. 약을 손가락에 개어 먹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안달이 난 나는 입안에 찬물을 담아 동희의 입술을 벌리고 억지로 흘려 넣었다. 삼키지 않으려 되돌아오는 저항을 이와 잇몸으로 눌러버렸다. 약을 먹이는 것도 고개를 트는 동희의 머리를 꼭 부여잡고 혀를 밀어 넣고 눌러 버렸다. 그렇게 몇 번, 물과 약이 넘겨지는 동안 동희의 숨소리는 낮아져갔다. 마지막 남은 물약을 먹일 때쯤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숨소리가 알아졌고 얼굴의 열기도 사라졌다. 나는 간신히 곰팡이가 번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약을 먹이는 동안 옮겨온 열기에 내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져만 갔다. 입술이 닿은 흔적에서 시작된 불꽃이 온몸으로 타들어가는 듯 했다. 배꼽 아래에서 정수리까지 회오리치는 불기둥이 번져가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생각이 필요했다. 멍청한 일이었다고 자책하며 한숨을 쉬는데 숨이 달큰했다. 동희의 갈라진 입술이 안타까워 몇 번이고 발라두었던 꿀이 옮겨왔는지 내 아랫입술에서 단내가 묻어난 것이었다. 아랫입술을 힘껏 빨았다. 그러나 모세혈관이 쏠려 입술이 툭 불거져 나올 때까지 빨아도 단 것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바닥으로 꺼질 것 같은 현

기증이 몰려왔다. 언제 옮겨왔는지 작은 창문 틈으로 든 햇살 한 줄기가 동희의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 먼지가 보양게 날리는 햇살 아래 놓인 푸르게 뛰는 흰 목덜미의 정맥에서 금방이라도 박하향이 묻어날 것 같았다. 그 정맥을 입에 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주먹을 쥔 나는 무릎을 꿇고 구겨진 이불 쪽으로 옮겨갔다. 땀과 물기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의 절반을 장막처럼 가리고 있었다. 장막을 걷어내면 살 내음이, 참을 수 없는 살아있음의 향기가 후각을 자극할 것임이 자명했다. 미간을 찡그린 동희의 입에서 사과향기가 났다. 마지막으로 먹인 물약이 사과 맛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가만히 동희 옆에 누웠다. 배꼽 아래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나쁜 기운을 잠재우고 싶었다. 함부로 보이는 정맥이 도드라진 눈부시게 하얀 목덜미에서도 눈을 거두었다. 동주가 올 때까지만, 동주가 돌아올 때까지만 동희를 지켜주고 싶었다. 담배도 술도 필요 없었다. 동희를 만나러 가기 위해 도서관에 간다는 거짓말이 들통 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보여지는 나도 현실의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처럼 순해지고 싶었다. 열이 내린 후, 고른 숨을 쉬는 동희를 두고 내려오는 북촌의 골목 어디에도 파스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속절없이 지는 영산홍 꽃잎 따라 봄은 가고 있는데 남촌엔 이제 이른 여름이 온다고 난리인데 동희를 두고 내려오는 북촌은 아직도 가슴 떨리게 춥기만 했고 언제부터인가 나는 끼이끼이 울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끝나던 날, 새어머니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인절미를 보내왔다. 반 아이들을 먹이고 교무실에 돌리고 나서도 한 상자가 고스란히 남았다.

- 선생님, 제가 댁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그럼, 그럴까?

눈치를 보는 담임의 마음에 쏙 드는 발언이었을 것이다. 화색이 도는 얼굴에 탐욕이 가득한 담임은 책상정리를 마치고 나올 테니 기다리라 했다. 금방 나온다는 담임은 십 분이 넘어도 나올 기미가 없었다. 교무실 문을 한 뼘 남짓 열었다. 담임은 몸매가 호리호리한 양호선생과 잡담 중이었다.

- 교실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 엉? 그래. 금방 가마.

상자를 신발장에 넣고 돌아서는데 교실 안에 누군가 있었다. 마루가 삐걱거렸다. 함부로 밟아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조심 조심 최선을 다하나 그 얇은 움직임이 더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교실에서 사물함을 뒤지고 있었다. 자물쇠가 걸린 걸쇠가 억지로 틀어지는 소리가 났다. 뒷문 유리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동주였다. 운동장 쪽으로 넘어 들어왔는지 창문이 열려있었다. 바람에 흩날린 영산홍 꽃잎이 녀석의 어깨며 교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서너 개의 사물함 문짝이 이미 뜯

겨져 있었다. 바닥에 입구를 벌리고 있는 녀석의 낡은 가방에는 반쯤 사용한 치약과 비누, 누군가가 막 사다놓은 뜯지 않은 칫솔 그리고 그제 단체로 구입한 영어 문제집 몇 권이 쏟아질 듯 담겨 있었다. 돈이 될 만한 것들과 생필품을 건져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켜보는 눈을 알아채지 못한 동주는 이내 다른 사물함을 뜯기 시작했다. 엇그제 서울에서 전학 온 정수의 사물함이었다. 동주가 놀라지만 않는다면 그 사물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대단한 성적의 소유자로 상준과 더불어 서울대에 직행할 수 있는 천재라 했다. 비록 녀석의 사물함에는 예쁘장한 누나들이 가슴을 내놓고 만져달라고 아우성쳐대는 보기에라도 향긋한 사진 몇 장을 붙여 두긴 했지만 말이다. 나보다 더한 이중적 성격의 정수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다. 그 소리를 들었을까. 쇠 지렛대를 자물쇠 사이에 넣고 힘을 주어 비틀던 동주가 나를 뚫어 보았다. 동주의 눈빛은 그 기세 하나로 내 심장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웃음의 의도가 도둑질을 하는 동주에 대한 비웃음으로 보였을 것이다. 숨까지 멈춘 동주는 달아오르는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동주만 징계를 받았던 지난번의 일방적이었던 싸움이 떠올라 주먹을 그러쥐었다. 그러나 봄 꽃 앞의 영롱함이 맺힌 동주의 눈매가 동희를 닮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패배자였다.

- 너희 집 말이야. 곧 헐릴 텐데 어디로 옮길 거니?
- 너 이 새끼.
- 동희 혼자 두고 돌아다니지 마라.

- 무슨 말이냐?
- 춥다. 동희……. 너무 추워하고 있어.
- 너냐? 쌀 가져다 놓은 거?

멈칫했다. 쌀이라니. 동희는 햇살 따스한 공간에서 오롯이 앉아있는 것 밖에 못했다. 사정이 그런데 빵이나 떡은 몰라도 쌀이라니 대체 누가 가져다 두었던 소리인가 궁금해졌다. 부엌 쌀통은 언제나 텅텅 비어있었다. 가슴 한 쪽으로 북촌 골목을 오래 걸은 것처럼 냉기가 돌았다. 동주도 나도 아닌 누군가가 동희를 찾는다는 이야기였다. 지난 번 동희에게 몹쓸 짓을 한 비칠거리던 녀석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다시 주먹이 쥐어지고 이가 악물렸다. 별 말 없이 서있는 것이 방관으로 보였는지 동주는 계속해서 사물함을 뒤졌다.

- 하지 마라.
- 닥치고 있어. 네 말대로 집이 헐리고 나면 갈 데가 없다.
- 나……. 이제 울 수 있다. 너도 울어야 한다면 울어라. 참지 마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집 아래 칸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

계획에 없는 발언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처참하게 두들겼던 동주를 한 지붕아래 둘 리가 없었다. 동주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웃었다.

- 반장이 되더니 후해진거냐? 너답게 살아라.
- 나답게?
- 제일 잘 하는 거 있잖나. 선생들, 어른들 앞에서 비굴하게 버
터내는 거. 어리석은 친구들만 곁에 두고 잘난 척 하는 거. 넌
그게 장기다.
- …… . 동희, 겁탈당한 거 알고는 있냐?

조롱에 대한 답변치고는 치졸했다. 상대가 내 상처를 보란 듯
이 드러냈으니 녀석의 약점을 결정적 한방삼아 날려야 했다. 담
임이 들이닥치기 전에 챙길 것 챙겨서 담을 넘으라고 말해주었어
야 옳았다. 허나 어리고 용렬한데다가 지리멸렬하기까지 나는 참
못난 놈에 불과했다. 그 때, 복도 저 편에서 담임이 체신 머리 없
는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담임을 확인하지 못한 동주는 무
작정 달려들었다. 첫 공격에 바닥에 널브러진 나는 터진 입술을
주먹으로 쓱 닦고는 벌떡 일어나 녀석의 복부에 머리를 밀어 넣
고는 무작정 주먹을 휘둘러대었다. 동주의 싸움 실력으로 미루어
볼 때 무릎을 들어 내 얼굴을 찍으면 그만이었을 싸움이였다. 그
런데 녀석은 허리만 잡고 뱅뱅 돌리기만 했다. 버둥거리던 손에
옆구리의 살 없는 갈비뼈가 만져졌다. ‘얼마나 굵었던 것일까’하
며 멈칫했다. 녀석의 숨소리가 쉼쉼거렸다. 고작 팔 몇 번 휘둘
렀을 뿐인데 가쁜 숨을 내 쉬다니. 도저히 북촌은 물론 남촌까지
평정한다면 싸움꾼의 체력은 아니었다. 의아해 하는 사이 녀석
은 나를 다시 한 번 바닥에 내동댕이쳤으나 나는 버텨내었다. 어
딘가에 쓸렸는지 검둥개가 씹어 버렸던 상처가 벌어졌다. 통증이

몰려왔다. 잠시 숨을 고르려 하는데 동주 녀석이 위력 없는 주먹을 내 왼쪽 볼에 억지로 구겨 넣었다. 다가오는 주먹을 보고 아픔을 각오하며 이를 악 물었던 나는 실눈을 떴다. 전혀 아프지 않았다. 무게도 힘도 실리지 않은 주먹도 전설로 들었던 주먹과 완전히 달랐다. 하얗게 질리기만 한 그 주먹은 날카롭게 드러난 혈관만 푸를 뿐 위력도 위엄도 없었다.

담임이 교실로 들어오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동주는 가방만 둘러메고는 다시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달려온 담임은 피가 흐르는 내 주먹을 쥐고는 안달복달했으나 내 눈은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동주를 쫓고 있었다. 비실거리며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듯 위태위태한 녀석의 땀박질은 겁탈 후, 사정없이 흔들리던 동희의 허벅지와 똑 닮아있었다.

동주는 무단결석과 무단침입, 그리고 학교기물파손 및 도난사고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퇴학을 당했다. 몇몇 동주를 아끼던 교사들 사이에서 부당하다는 항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담임의 냉랭한 소견 발표 후 모두 입을 닫았다 했다. 동주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읍내 불량배 패거리 싸움꾼이 되었다는 풍문도 있었고 ‘수 다방’의 작은 키에 긴 머리를 한 비쩍 마른 아가씨와 동거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심지어는 일찍 개가한 엄마를 찾아갔다가 그쪽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는 험한 말도 떠돌았다.

동희는 매일 동주를 기다렸다. 하교 후 북촌으로 기어 올라가 품고 올라간 먹을 것들을 펴 놓을 때마다 동희는 그 중에서 한 사람 몫만큼 따로 치워두었다.

- 오.....빠.....빠.....

일주일엔 한 번쯤 동희에게 동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더러움이 탄 옷이 갈아입혀졌거나 아무렇게나 비죽비죽 해야 할 머리가 곱게 묶여져 있거나 하는 날에는 동주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가끔씩 어떻게 지내느냐는 쪽지를 써 두곤 했다. 답장은 한 번도 없었지만 쪽지는 사라졌다. 한 번은 동사무소에 들러 장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기도 했다. 그러나 애써 수집한 자료는 잘게 찢어진 채 함부로 버려져 있었다. 도대체 어찌자는 속셈인지 양지쪽에 앉아 김동개의 등을 쓸어주고 있는 동희 옆에서 나는 심술 난 어린아이모양 투덜대고 있었다. 햇살이 환히 비추고 있는데도 동주도, 동희와 나의 추위도 사그라질 기미가 없었다.

6

북촌의 철거가 시작된 날, 동희가 유달리 좋아하는 모락모락 오르는 찜빵을 가슴에 품은 나는 온기가 사라질까 숨이 가쁘게 뛰고 있었다. 어서 빨리 동희가 찜빵을 맛있게 먹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따스한 눈길을 마주 대하고 싶었다. 체력이 좋아졌는지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을 오르는 일도 손쉬웠다. 숨도 차지 않았다. 그저 동희가 먹을 것을 담은 입술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꺾어진 골목 저편에서 숨넘어가는 비

명 소리가 들렸다. 늘 다니던 골목의 그 꼬트머리에서는 포크레인 지붕이 낮은 집을 부수고 있었다. 악을 쓰는 큰 울음소리가 이미 반쯤 함몰된, 십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콘크리트 더미로 남을 것이 분명한 집에 거주하던 철거민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그 울음이 다였다. 잠시 후 일을 진행하는 흰 모자에 ‘철거’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신체 긴장한 청년들이 아우성치는 주민들을 번쩍 번쩍 들어 집에서 멀찌감치 떼어 놓았다. 막말이 오가는 위협도, 폭력이 오가는 위협도 없었지만 웬지 무섭고 슬펐다. 무너져 가는 보금자리를 쳐다보며 원망어린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과 감정 없이 냉랭한 눈빛으로 차근차근 집을 부수나가는 사람들, 나는 어느 편도 될 수 없었다. ‘철거’라고 쓰여 있는 모자의 뒤편에 선명히 박힌 건설회사 ‘꿈꾸는 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였다. 아득한 정신으로 멍청히 서 있다가 할머니 한 분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 본 다음에야 동희를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철거로 막힌 지름길을 뒤로 하고 먼 길을 돌고 돌아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매일 먹을 것을 준 뒤로는 꼬리는 철지언정 사납게 짖는 법이 없었는데 미친 듯 짖어대고 있었다. 어설프나마 수리를 해 둔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달궂진 심장은 금방이라도 뼈를 부수고 살을 찢고 튀어나올 듯한데도 북촌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날처럼 추위가 몰려왔다. 이미 가슴은 식은 찜빵에서 나온 물기로 흥건히 젖은 후였다. 수돗가 근처에 매인 검둥개는 줄이 목에 감긴 채 핏발 서린 눈을 뒤집고 껴껴거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이 시간이면 양

지쪽에 나와 앉아서 사과 꽃처럼 어여쁘게 웃고 있어야 하는 동희가 보이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눈알이 튀어날 올 것 같은 개 줄부터 풀어주어야 했다. 성난 개를 다독이며 목줄을 걷어내는데 닫힌 방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동희였다.

방문을 긁는 소리가 이어지고 동희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툭 떨어진 손이 사시나무 떨어듯 떨어졌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서글픈 마음에 봄빛이 만연한 남촌으로 내닫고 싶었다. 방문을 열고 그 너머에서 간절하게 나를 찾고 있을 동희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식어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서 있을 때처럼 눈만 껌벅였을 뿐. 줄이 풀린 개가 사납게 날뛰며 뒷마루로 뛰어올랐다. 날카로운 이빨로 문을 열려 아가리를 벌리고 깡깡거렸다. 상처 입은 검둥개의 입가에 피가 배어나왔다. 방문이 열린 게 먼저인지 검둥개의 뒷다리가 뒷마루 아래로 미끄러져 뒹군게 먼저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린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물함을 털어간 얼마 후, 동주가 입혀 두고 갔던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동희는 문지방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햇살 바른 마당 빛에 길들여져 킁킁하게 보이는 방 안 저편에서 누군가 동희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깨진 팔꿈치를 문지방에 걸친 채 신음하던 동희는 보이지 않을 텐데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다가가 손을 잡아 주어야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동희를 잡아당기던 모자를 눌러쓴 녀석의 벗은 하체가 보이는 순간, 이상하게 꺾이고 말라붙은 오른쪽 다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상준이었다.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모범생 강상준, 준비되

거나 당연히 되는 수동적 인생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미래가 가능한 유일한 녀석이 팔다리의 여린 살갗이 벗겨진 채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움츠리고 있는 동희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몰골로 말이다. 시선이 얹혔다. 얼핏 상준의 비웃음이 스쳤다.

멀리서 집 무너지는 소리가 포크레인의 엄청난 굉음에 이어졌다. 녀석은 동희를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을 내밀어야 했지만 땅이 꺼졌는지 어지러웠다. 세상이 온통 흔들리는데도 비칠거리며 간신히 뛰어가는 상준은 끝내 넘어지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려 했는지 욕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입을 벌리자 콘크리트 먼지를 가득 담은 훈풍이 밀려들어왔다. 봄바람이었다. 상준이 사라진 골목길에는 햇살이 내리쬘고 있었다. 쏟아지는 햇살에 눈물겹게 눈이 시린 걸 보니 분명 봄이었다. 북촌의 지리멸렬한 봄은 그렇게 통곡을 베어 물고 울컥울컥 쏟아지고 있었다.



추구(芻狗) - '짚'으로 만든 개

추구(芻狗)라 하는 것이 있다. 액막이로 사용되는 물건이다. 추수 때 잘 골라두었던 정갈한 지푸라기로 강아지 형상의 인형을 만들어 고이 모셔두었다가 지방(紙榜)을 태우듯 태워 없애는 사물이다. 불꽃이 소멸되듯 모든 부정한 기운이 사그라들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이다.

추구(芻狗)를 태워내는 일, 글쓰기와 닮았다. 생각을 고르고 단어를 골라 곱게 곱게 단장하여 마음의 부정한 것들을 밀어내는 일이 '창작'이기 때문이다. 좋은 글쓰기는 마음결을 다스리는 꽤 관찮은 방법인데다가 가끔은 '당선(當選)'이라는 뜻하지 않는 선물까지 부여해 주니 해볼 만한 작업이다.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다 태워져 나의 흔적이 소멸되는 순간까지 글쓰기의 이유를 안겨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 드린다.



옴촌초등학교
김형종

그리운 독재자

찬 하늘의 창공에 점처럼 떠있던 매가 갑자기 수직강화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매는 날카로운 발톱에 산토끼나 들쥐를 꿰차고 비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솟아오르지 않는다. 하늘을 지배하며 세상의 모든 새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매가 작은 동물의 포획을 실패하면서 땅바닥에 처박혔을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호령했던 권위도 한날 허상에 불과했던 말인가.

-본문 중에서-



그리운 독재자

독재자가 죽었다.

그가 세상과 결별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사망자의 아들이면서 나의 친구인 명환이었다. 독재자는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과시했지만 그가 아흔을 훌쩍 넘긴 노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다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다만 흐트러짐이 없었던 맑은 정신과 건장한 육체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조차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경스럽고 축복받은 죽음으로 생각될 따름이다. 명환은 노인이 유언장에 나의 이름을 언급하며 무언가를 남겼다고 장례를 지내고 따로 만나자는 말을 전했다. 아버지를 여윈 명환에게 자세한 것을 물을 수는 없었다.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유언에 대하여 궁금증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을 뿐이다.

내가 노인의 죽음을 들은 것은 사무실 앞에 병풍처럼 펼쳐진 산의 정상위에 매 한 마리가, 하늘에 박힌 표창처럼 꼼짝없이 제 자리에 떠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침이었다.

사흘 전 오후부터 쏟아지던 눈이 그치면서 사무실 귀퉁이에 설치된 텔레비전의 일기예보는 십 몇 년 만의 폭설이라고 떠들었고, 전국의 거의 모든 도로가 마비되었다는 내용을 속보로 쏟아내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많은 눈

이 쏟아졌지만 도로가 막힐 정도는 아니어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댐의 준공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높은 허공의 매는 손바닥보다 작게 보였지만 세상이 흰색으로 덮인 상태라 유난히 눈에 띄었다. 매는 날개를 활짝 펼친 채 기류를 타고 강한 바람에도 의연하게 떠있는 매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매는 밝은 눈으로 지상을 훑으며 사냥감을 찾고 있었을 테지만 금방이라도 큰 바람을 맞고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마 주로 밤에만 활동한다는 매가 폭설로 땅 속 깊이 숨어버린 들쥐나 산토끼를 사냥하지 못하여 아침까지 사냥감을 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명환이가 노인의 죽음 아니, 독재자의 사망소식을 전해왔다.

내가 노인을 다시 만난 것은 4년 전이었다. 승진과 더불어 T 댐 건설단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서울에서 승용차로 무려 일곱 시간을 달려 J읍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J읍은 내 고향이다. 고향이었지만 일가친척 한 명 살지 않은 곳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길이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오로지 시내를 관통하는 강(江)만이 고향땅임을 증명해 주었다. 차츰 하숙집을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우선 여관방을 잡아놓고 저녁을 해결할 요량으로 식당으로 들어섰다. 아무리 인연이 끊어졌지만 고향은 지나간 기억들과 희미한 얼굴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혹시 우몽(愚夢) 선생이라고 아시는지요?” 나이가 지긋한 식당주인은 대답 대신에 카운터의 서랍을 뒤적거렸다.

“아따, 이 지역에서 우몽선생 모르면 간첩이지요. 우몽 선생도

유명하지만 그 아들이 우리 군(郡)에서는 제일 갑부라고.”

“그래요, 우몽 선생은 진즉 돌아가셨겠지요?”

“뭘 소리다요? 아직 이팔청춘인데……. 그런데, 뭇 때문에 묻는대요?” “우몽선생의 아들 명환이라고 친합니다.”

“내가 우몽선생을 물을 때부터 명환이라고 친구란 것을 짐작했지요.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까요?”

식당주인은 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벌써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와 내밀었다. 나는 메모지를 받으며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겨움과 포근함을 만끽하는 즐거운 사건이겠지만, 나에게 고향은 피똥어린 가난과 뼈에 문신으로 각인된 분노만을 안겨준 곳이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을 근무할 곳이어서 원활한 댐의 건설을 위해서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뿐이었다. 또한 내가 T댐 건설단장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은 바람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지역의 유지가 되었다는 명환이와 동창들을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될 것이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거나 고향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변명 혹은 해명이 필요했다. 그렇게 명환이가 데려온 네댓 명의 동창들과 소주를 마시며 고향에서의 첫 날밤을 보냈다.

나는 다음 날 취임식을 갖고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퇴근하여 직원들이 마련한 환영회를 참석하였다. 직원이 알아봐 준 하숙집에 묵기로 결정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을 상기하고 다음날 바로 우몽선생을 찾아뵈었다. 이 역시 우몽선생을 존경하거나 고향의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지역에서 명망이 높아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노인이라는 점에서 댐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내 마음 속의 오래된 채무의식을 털어버리겠다는 개인적인 애증(愛憎)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골목의 끝이면서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노인의 집 담장 옆 고목나무, 노인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심었다는 팽나무는 여전했다. 부챗살로 뺀 가지의 무성한 이파리 사이로 콩알 크기의 열매가 무성했다. 다만 그 팽나무의 가지에 걸려있던 작은 칠판은 보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끈이 삭아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떼어낸 것인지 칠판이 매달렸던 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개가 짖는 소리에 사랑방 문이 열리고 노인이 돋보기를 벗으며 대청으로 나왔다. 노인의 모습은 허리는 꼳꼳했지만 어깨가 조금 굽어졌고 귀밑머리부터 시작되었던 흰머리는 백발이 성성하여 세월의 흐름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노인은 단박에 나를 알아보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청으로 올라가 큰 절을 올렸다.

“어서 오시게. 자네가 단장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은 들었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 힘이 넘쳤다. 벽면의 서가에 가득 꽂힌 책들과 방바닥에 무질서하게 널브러진 책들은 변함없는 우몽 선생의 생활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책상 위에는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고문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어르신은 여전해 보이십니다. 건강도 좋아 보이고요.”

“나이를 먹어 할 일이 없으니 옛 선인들의 지혜를 좀 배울까 하는 데 아둔한 사람이라 쉽지가 않구먼.”

고향을 떠난 까까머리 소년이 30여년 만에 돌아와 증오의 대

상이었던 노인을 만나고 있다는 자체가 스스로 놀라움이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여겨졌다. 황소가 분명 자신의 다리로 걷지만 그 소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것은 고삐를 쥐는 손처럼. 그렇다면 그 고삐는 세월인지, 고향이라는 공간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자꾸만 파리를 푸는 기억들 때문에 머릿속은 실타래가 되어갔다. 파리가 풀리며 나타난 대가리는 내 몸뚱이의 곳곳을 물어뜯으며 아물었던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다. 이상한 것은 덧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기억은 어제처럼 또렷한 상태고, 그 명징한 기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 된 모습을 상상했으나 노인의 앞에는 어린 소년이 제법 두꺼운 책을 놓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년의 아버지도 무릎을 꿇고 다소곳한 모습이었다.

“이 책에서 이것과 똑같이 생긴 글자를 모두 찾아놓고 집에 가져라. 가라는 글자이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소년은 조막손에 연필을 움켜쥐고 노인이 손가락으로 짚고 있던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다.

“지금 찾고 있는 글자가 뭐라고 했느냐?”

“가요.”

노인은 한 뼘이 넘는 두꺼운 책을 읽다가 가끔 소년에게 물었고 그때마다 대답하였다. 소년은 한 시간이 지나서 동그라미 그리기를 끝내고 토끼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어제 배운 글자가 뭐라 했느냐?”

“가요.”

“쓸 수도 있겠느냐?”

소년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거침없이 글씨를 썼다.

“잘했다. 이것은 나라는 글자다. 오늘도 동그라미를 다 치면 집에 가거라.”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소년은 날마다 노인이 거쳐하는 문지방을 넘나들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소년의 책의 모든 글씨는 동그라미로 채워졌고, 노인 앞에서 한 권의 책을 당당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그 소년이 그 사랑방에 앉아 노인을 만난 것이다.

조심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사랑방 문이 살며시 열렸다. 노인정에 나갔다는 우몽선생의 부인이 어느새 돌아와 술상을 들여왔다. 작은 소반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통닭 한 마리와 술잔, 그리고 배추김치가 놓여 있었다. 나를 알아본 부인은 반갑다며 내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였기에 내 기분이 잠시 숙연해졌다. 부인이 닭다리 하나를 떼어 나에게 내밀고는 칼로 닭의 가슴살을 발라 노인을 주었다.

“어르신, 하필 맛없고 딱딱한 가슴살을 드십니까?”

노인은 그냥 설핏 웃고 말았지만 부인의 말은 달랐다. 여러 사람이 닭고기를 먹다보면 대부분이 부드럽고 쫄깃한 부위만 먹는 지라 결국은 남는 것이 가슴살이어서 버리기도 아깝고, 우몽선생이 가슴살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부위를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었다. 운동선수들이 근육은 키우면서 몸무게 조절을 위해서 가슴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노인의 의중을 듣고 역시 우몽선생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품성을 지닌 우몽선생이지만 유독 나의 아버지에게는 혹독하게 군림했다.

아버지는 우몽선생 집의 머슴이었다. 평생을 머슴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던 아버지는 소처럼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겨우 이슬을 막아주는 방 칸에서 생활하며 목구멍을 풀칠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부당한 노인의 대우에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맞으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고 우몽선생의 이중성에 분노했다. 동네 사람들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나에게 학교를 보내주는 우몽선생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입을 모았다. 내가 아무리 어렸지만 명절날에도 쉼 없이 노동력을 제공한 아버지의 품삯이 겨우 목구멍 풀칠과 중학교 납부금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위장에 들어간 술이 흡수되어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는 속담을 떠올렸다.

“어르신, 어르신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몽선생의 미간이 약간 흔들렸다.

“결국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네.”

“아직 미루고 계신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끝을 맺어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버티는 사람들도, 혹은 조상이 묻혀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끝내는 일괄 정리로 끝내는데 부동산을 보상받으면서 노인처럼 일부를 남기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다. 보상을 받지 않고 남겨둔 곳은 가격이 변변치 않은 곳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한 번 연락을 취하려 했었는데 잘 되었네. 남겨둔 임야에는 자네 부친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진 곳일세.”

내가 노인과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은 공부뿐이었다. 장학생으로 대학을 합격하고 K대학교의 기숙사로 떠나던 새벽, 나는 노인의 집 앞 팽나무에 걸린 철판에 ‘우몽선생은 독재자다. 마을의 대소사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독재자다’라고 휘갈겨 쓰고 마을을 떠났다. 그 글을 노인이 읽었는지, 누가 지워서 읽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노인이 그 글을 읽었다면 내가 썼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그렇게 떠난 고향이었고, 노인과 나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다. 남겨둔 임야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언이 묻혀있는 곳이고, 이제껏 연락 없이 지내다가 내가 고향에 발을 딛게 되자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다는 노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수 없었다. 오히려 남겨놓은 임야의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다고 가정하면 노인은 나의 직장생활을 꿰뚫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최소한 나의 주소지 정도는 언제든 파악이 가능한 위치가 노인이었다. 법적으로 나는 노인의 아들이다. 노인의 다섯 자식 중에 셋째에 해당한다.

그믐달이 막 떠오른 시간에 아이를 등에 업은 사내가 피곤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로 들어섰다. 사내는 등에 업은 아이를 한 손으로 받치고 나머지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그 새벽, 사내는 마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집의 대문을 두드렸고 한 끼의 식사와 잠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사내는 노인의 집으로 안

내되었고 문간방에 묵게 되었다. 사내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와 고향이 어디냐는 물음에 묵묵부답이었고 노인도 더 이상 채근하지 않았다. 동네사람들이 신분을 모르는 뜨내기 사내를 마을에 머물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노인에게 전했다.

“날짐승도 집으로 날아들면 내쫓지 않는 법이거늘. 사람의 세상살이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만약 우리들 중에 저 상황이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어 찾아가는 마을마다 문전박대를 한다면 어찌되겠느냐 말이오? 결국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 데, 그렇다면 손에 칼을 들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는 셈이 아닌가?”

노인의 일장훈시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서 뜨내기를 책임져야 하느냐고, 어딘가에서 도둑질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는지 모른다면 묵청을 높였으나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핀잔만이 돌아갔다. 노인의 말이 다분히 합리적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내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에 불과했다. 노인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도 틀린 의견은 아니었다. 마을과 주민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노인의 결정에 따랐다.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때였다. 노인이 살고 있는 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초가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진입로를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겨우 손수레가 오갈 수 있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논이나 밭이 도로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논밭을

희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잘살기 운동을 독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희생이 따라야했다. 관공서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도로를 건설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시멘트가 취소될 상황이었지만 누구 한 사람 흔쾌히 땅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통신시설이 열악한 시절이라, 노인은 동네 사람들을 땡나무 밑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아버지에게 취하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노인의 뜻을 전달했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 현안문제가 해결된 듯 반기는 기색이 영력했다.

“나를 따라 오시오.”

단 한 마디를 남기고 노인이 앞장 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어미를 쫓는 강아지들처럼 뒤를 따랐다. 뒷짐을 진 노인의 손에는 막대가 하나 들려있고 그 막대의 끝은 땅바닥을 긋고 있었다.

“이 금(線)대로 도로를 내야 할 것이요.”

금 굵기를 끝낸 노인의 입에서 역시 단 한 마디가 떨어졌고 마을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 탄성은 자신의 땅이 도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도와 그 반대의 아쉬움이 섞여있었으나 대부분은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감탄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자신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보았던 지름길과 다르지 않다는 놀라움의 반영이었다. 동네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도로건설에 허용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과 노인이 앞장서 마을길의 확장문제를 마무리할 것을 예상한 상태였다.

노인이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부당한 처사를 알리라는 취지로 자신의 집 앞 땡나무에 걸었다는 첩판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지만 도로의 부지가 결

정되면서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걸린 논밭을 무상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끝내 칠판은 깨끗한 상태였다.

마을길의 조성이 시작되면서 각 집에서 한 사람씩의 인력을 동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중장비가 빈약하던 시절이라 작업의 대부분은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책임감이 결여되는 공동작업의 특성상 능률은 매우 저조했다.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고 돌맹이를 인력거와 지게로 옮겨와 길을 넓혀갔지만 굼벵이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자 노인이 나섰다. 이번에도 절름발이 아버지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을 땡나무 아래로 모이라고 조치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이른 아침에 영문을 모른 채 공동 작업에 나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시방처럼 일이 더디게 진행되는 않을 것인데……. 꼭 그렇게 밖에 일을 할 수 없단 말ियो?”

다음날 작업현장에는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 인부의 절반을 차지했던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어른들이 채웠다. 정작 어른들은 자신의 논밭에서 일하거나, 샅일을 나가고 각 집에서 한 사람씩 동원한다는 방침만을 지키고자 노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학교조차 보내지 않고 건설현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애지중지하던 황소를 이끌고 작업장에 나타난 사람까지 생겨났다. 나의 아비도 작업장에서 곡괭이질과 삽질로 땀을 흘렸다. 말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작업이 노인집의 인부인지, 독립적인 참여인지 궁금하다는 말을 꺼냈을 때 인부들은 우몽선생의 집이 작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다쟁이에게 편잔을 주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초봄에 마을길은
 완성되었고 나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가 되어 있었지만 호적
 이 없는 상태였다. 자신의 출생지와 나이는 물론이고 이전에 살
 았던 고장까지 합구하는 아버지는 나의 입학문제로 고민하자 노
 인은 흔쾌히 나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했고 무사히 초등학교에 입
 학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 호적법으로
 는 노인의 아들이었다. 노인의 아들인 명환이와 쌍둥이가 된 것
 이었다. 내가 노인의 아들이 되었지만 독단적인 행동과 아버지
 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고등학교 2
 학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화장한 아버지의 뺏가루를 지금
 내가 단장으로 댐을 건설하고 있는 T강에 뿌렸다. 다리를 절었던
 아버지,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했던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의 노
 동력을 철저히 착취하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치루지 않았던 노인,
 다른 사람에게는 하염없이 인자하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이면
 에 감추어진 이중성을 가진 노인, 나는 위선이 가득한 노인을 도
 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마을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
 고 나를 호적에 올려 학교를 다니게 배려한 것도 아버지를 영원
 히 자신의 집의 머슴으로 만들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여겼
 다. 나는 대학을 입학하면서 팽나무에 걸려있던 칠판에 독재자라
 는 글을 남기고 북마전 같은 노인의 집을 떠난 이후로 우몽선생
 을 마음속에서 지우며 살았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노인을 만나 댐건설에 따른 보상에서 일부
 분 남겨놓은 임야가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남긴 땅이라는 뜬금
 없는 소리를 들었다. 더구나 나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었다니

혹여 내가 단장으로 부임하지 않았다면 정말 나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연락을 했을까? 결국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노인의 말처럼 아버지의 유언이 담겨있다는 그 토지의 보상 문제를 마무리를 위해서 정말 연락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내 마음은 깊은 바다 속처럼 답답해졌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언제 한 번 들리시게, 그곳에 한 번 같이 갔으면 좋겠네.”

“내일 퇴근하고 들리겠습니다.”

나는 하루라도 빨리 궁금증을 풀고 싶었고, 노인과의 관계를 마무리 짓고 싶었다. 노인은 외출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그 의문의 땅은 집에서 이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대도시에서 J읍으로 진입하는 고갯길에 위치하고 있었다. 급경사의 야산에는 대부분 잡목이 우거졌고 곳곳에 소나무가 군락을 만들고 있었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 사용하지 않아 숲 속에 묻혀버렸지만 옛날에는 이 산이 한양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마재(馬峙)라는 고갯길이었네. 말도 굴러 떨어질 만큼 비탈져서 마재라고 불렀다는 이 고개를 넘어 자네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정착한 것이고.”

“아버지는 자식인 저에게도 과거를 철저히 함구했던지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 아셨는지요?”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어 도피생활 중에 우연히 자살을 저지르려던 여인을 구하게 되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세상을 등지려 했었는데 목숨을 구해준 아버지와의 인연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나를 낳고도 미역국 한 그릇 먹지 못한 어머니는 큰 병을 얻었고 자신

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고향인 남쪽 바다가 보고 싶어 길을 떠났다. 그 당시에는 범죄자와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곳곳에 설치한 검문소에 근무하던 전투경찰이 버스에 올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던지라 쫓기던 몸이었던 아버지는 핏덩이 아들과 병든 어머니를 데리고 걸어서 남쪽 바다를 찾아가던 중이었다. 결국 마재에 이르러, 어둠이 깔려가던 시간에 숨은 거둔 어머니를 그 산속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핏덩이를 풀숲에 누이고 주변을 살폈다. 용트림으로 자란 소나무를 눈에 그려 넣으며 다음에 꼭 좋은 땅 골라 오동나무 관에 넣어 성대히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어금니를 깨물었다. 삼 한 자루 없이 주위에서 주운 나뭇가지와 손가락으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손톱 밑을 황토가 파고 들고 나중엔 닳은 손톱에서 핏물이 흘렀다. 배고픔에 지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었지만 아버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를 묻은 아버지는 핏덩이를 등에 업고 어둠 속에서 용트림 소나무를 몇 번이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산을 내려왔다.

“자네 아버지는 그 용트림 소나무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소나무가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다, 그때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밤이어서 결국 자네 어머니를 묻은 곳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네.”

그토록 어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마재를 오르내렸으면서 지금 생각하면, 물 한 그릇 떠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너무나 어렸기에 제삿날을 알지 못한다. 사실 자식의 도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제사를 모셔야했지만 아버지의 제삿날에 밥 한 그릇을 더 올리는 것으로 어머니의 제사를 대신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얘기도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무슨 사연으로 세상을 떠돌게 되었을까요?”

술에 잔뜩 취한 어느 날 아버지는 우몽 선생에게 자신의 속을 내비쳤지만 끝내 그 이유만큼은 빗장을 풀지 않았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나의 미래를 걱정했다. 새벽, 찾아든 집에서 밀가루 죽만을 얻어먹은 아이가 처음 동네 사람에게 이끌려 우몽 선생의 집의 문턱을 넘어 들어왔을 때 아이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우몽 선생은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의 젖꼭지를 물렸다. 마침 또래아이가 있어서 젖을 나뉘줄 수 있었다. 나는 우몽 선생 부인의 동냥젖을 얻어먹고 자랐다. 자신의 젖을 먹여 키웠기에 우몽 선생의 부인은 나를 만나 눈물까지 글썽였던 모양이다. 아이가 자라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망자의 처지였던지라 주민등록은 이미 말소되었지만 그것을 부활할 입장도 못되었다. 내가 법적으로 우몽선생의 아들이 된 이유이다. 내가 우몽 선생 부인의 젖을 얻어먹고 자랐고 아들이 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우몽 선생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부당한 대우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었다. 더구나 아버지의 처지와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면 더욱 용서되지 않았다. 노인의 독재는 마을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가혹했다. 노인은 단지 어머니가 묻힌 곳을 알려주려고 나와 함께 마재를 찾은 것이었을까. 아버지가 찾지 못한 시신을 내가 찾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임야에 남긴 아버지의 소망이란 것이 무엇인지요?”

아버지는 우몽 선생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오로지 내가 온전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살피 주고,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면 그 일을 대신해주기를 아버지가 먼저 제안했고 우몽 선생은 그것을 수용했다.

J읍에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우몽 선생은 마음이 바빠졌다. 인부를 동원하여 여러 번 비탈진 마재 부근의 소나무 숲을 파헤쳤지만 항상 허탕이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나무를 벌목하면 어머니의 시신을 찾을 길은 더욱 요원할 것이고, 댐이 완공되면 아버지의 소망은 영원히 물속에 잠기게 되는 위기감을 느꼈다. 노인은 소나무를 벌목할 때 땅을 파헤쳐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기를 부탁했다. 얼굴조차 모르는 어머니의 시신을, 제삿날도 모르는 어머니의 시신을 찾는 일이 달갑지 않았다. 더구나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너무나 희박했다. 매장과 동시에 산짐승이 파헤쳤을 가능성도 높았고, 혹여 시신을 발견해도 세월이 흘러 뿔조각 몇 개에 불과할진대 그것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자식의 도리와 현실 속에서 갈등은 태풍에 밀려오는 파도와 같았다. 다만 노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아버지와 의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늘 아래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있던 시기에 그토록 혹독했던 것처럼 죽어서도 마음속에 담장 하나 쌓아 아버지를 가둬버리면 그만이었다.

“자네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었네. 물론 약속도 중요하고 스승에 대한 예우를 지키려는 것일세.”

스승이라니, 아버지가 노인의 스승이라는 말은 또다시 나를 혼

란스럽게 만들었다. 진짜 스승이라면 살아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것일까.

노인은 단 한 번도 집안의 대소사를 맡기지 않았다. 당신이 스스로 삼질했고 곡괭이를 잡았다. 힘든 노동으로 마음의 번뇌를 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심지어 명절에도 일을 찾았고 마을길을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온전히 가정을 이룬 상태가 아니라 우몽 선생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입장이라 공동 작업을 참여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우몽 선생이 작업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당시 노인은 마을길을 조성할 땅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어느 날 노인의 사랑방을 찾아온 아버지는 마을길을 넓히기 시작하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쳤다.

“뜻대로 하시게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재산의 손실이 따르는 상황이라 결정이 난항인데,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일의 방법을 찾지 못하여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음이 아닌가?”

아버지는 너무도 간단하게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해결해 버렸다. 조상들이 물려준 마을 전답(田畵)을 순번에 따라 일 년 단위로 마을 사람들이 경작하고 그 수확의 절반을 경작비용으로 마을에 내놓았다. 그 관습을 폐지하고 자신들의 땅의 손실 여부를 떠나 마을길은 모든 마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 모든 주민이 마을 전답을 공동 경작하고 그 수확을 손실의 비

울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묘안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로에 편입될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희사하는 형식을 취했다. 아버지는 시간을 달리하여 도로와 관련된 주민들을 우몽 선생의 집으로 불렀다. 주민들에게 설명이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설득한 것은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동네 사람들이 희생하였음을 부각시켜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방법은 결국 마을 전답을 공동으로 경작하면 모든 주민이 알게 될 간단한 술수라고 폄하해도 노인의 의견이고 결정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수긍할 것이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비록 노인의 마을과 무관한, 뜨내기애 불과했지만 자신과 아들이 살아가는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었다. 노인은 마을길을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과 무조건, 무보상의 희생만을 생각하던 중에 아버지의 제안은 너무나 신선했고 합리적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자신이 먼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야 다른 사람도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을,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다. 욕심이 우몽 선생의 혜안을 가려버렸다. 노인은 자신의 전답 일부를 마을에 내놓았다. 그 수확으로 희생이 따른 주민들을 보상하도록 조치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의 관습은 계속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우몽 선생이라는 칭찬에 입술에 침이 말랐지만 노인의 깨달음에 결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아버지는 마을길을 조성하는 일에서 삼질과 곡괭이질로 비지땀을 흘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마을길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에 아버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때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희생을 먼저 앞세웠고 아주 사소한 욕심까지 완벽하게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조차 챙기지 못하는 팔 불출로 생각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지만 노인의 생각은 달랐다.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고, 도망자의 처지라는 것 이외는 자세한 사연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췄음이 은연중에 드러났다. 아들이 사람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는 바람을 나타냈을 뿐 자신의 몫을 챙기는 법이 없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샅을 받아 저축으로 남겨주는 방법을 택하고 그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었다. 노인이 마음만 달리하면 아버지와의 약속은 백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달리 생각하면 부탁으로만 갈무리하는 것이 노인에게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음의 빚으로 남아 노인을 괴롭힐 것이 틀림없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버리면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반면에 노인의 품성을 파악한 아버지는 통장과 도장, 금전적으로 자식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깊은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노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함을 언행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버지가 위대하게 여겨졌다. 책을 펼친 선생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공부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스승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 마음으로 모신 스승을 존경했다.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노인의 마음이 작은 파문을 안은 채 마재에서 돌아왔다.

노인은 다음 날 토지보상 문제를 말끔하게 마무리하였다. 직원들은 완강하게 버티던 노인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며 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 휘몰아치는 허망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직원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얼마 뒤에 댐건설의 공정 때문에 더 이상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원에 일정액을 공탁(供託)하고 산림별목을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일주일 뒤에 별목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노인을 만나고 싶었다.

약속된 횃집으로 들어섰다. 먼저 도착한 노인이 수족관을 한 참동안 살피다가 코끝에 피멍이 들어있고 혈어있는 농어 한 마리를 지목했다. 힘차게 유평하는 몸매가 매끄러운 생선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자연산 생선은 넓은 바다를 마음껏 돌아다니던 본능 때문에 자꾸만 수족관의 벽면에 부딪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또한 상처를 입은 생선은 병균에 감염되므로 상처 난 생선의 선택은 자연산 회를 먹는 장점과 병들어 죽으면 횃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횃집주인도 손해고 혹여 양심이 없는 주인이어서 그 죽은 고기를 회를 먹게 된다면 손님들도 손해이니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설명이었다.

아버지의 숙원이 담겨있는 땅, 나에게 독재자로 낙인찍힌 노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땅, 어머니의 유골이 묻혀있는 땅을 내가 별목하고 파헤쳐야하는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조금은 급한 듯 술을 마셨다. 노인도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별로 말이 없었다. 어느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복받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노인이 다가와 안아주며 등을 다독여 주었다. 노인의 품에 안겨 창피함도 모르고 마음껏 울어버렸다.

“힘겨워 말게나. 자네 마음이 기우는 데로 결정하게. 자네 아버지가 평생을 찾지 못한 시신을 자네가 땅을 파헤친다고 쉽게 찾아지겠나. 춘부장께서 나에게 부탁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야. 다만 자네에게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이곳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나 싶네.”

노인은 갑자기 힘차고 쾌활한 목소리로 그동안 미국을 다녀왔으며 소감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노인의 배려였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둘째 아들의 초청으로 노인은 워싱턴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아들과 함께 지하철에 올랐다. 좌석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 경박스런 표정으로 떠들면서 가끔 동양의 노인을 흘금거렸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양보하지는 않았다.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을 안고 서울에 도착하여 딸집을 찾아갈 때 지하철을 이용했다. 아침시간이라 지하철은 만원이었고 치렁하게 머리를 기르고 갓가지 색깔로 머리를 염색한 대학생들이 책 몇 권을 무릎에 얹은 채 좌석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좌석을 양보 받지 못했지만 노인은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경로우대의 예의가 존재하는 나라임을 확인하고 마음이 홀가분했다. 미국의 청년들은 노인을 뵈면 쳐다보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그 미안한 마음을 감추고자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대어 잠

에 빠진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졌다. 그동안 젊은이들의 무례함과 무책임에 실망하던 노인은 미국에서 몇 곳의 관광지를 구경한 느낌보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내가 우리나라와 정서가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망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고민하는 그 자체가 공사의 진행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위로했다.

하숙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전에 학생들과 나누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나는 건설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어떤 대학의 토목학과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수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지만 노인이 새마을 운동, 마을길 넓히기를 펼칠 때 자신의 전답을 희사해야 하는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관계로 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였다. 결국 노인이 독단적으로 부지를 확정했고 그 노인의 결정은 지극히 지름이고 합리적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처사였는가? 노인의 독재적인 행위인가를 물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결정이 비록 현명했고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없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았다는 결론이었다. 더구나 지름길로 확정될 것이 예견되었다면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처리였다고 마을 사람들을 무시한 독재자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었다. 지금, 당시의 학생들에게 비록 일방적인 결론이었지만 재산의 손실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적당한 보상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들려

쥐도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독단적인 결정이 문제라며 여전히 독재자로 단정할지, 노인이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자신의 전답을 희사했기에 마을 발전의 공로자로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찬 하늘의 창공에 점처럼 떠있던 매가 갑자기 수직강화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매는 날카로운 발톱에 산토끼나 들쥐를 꿰차고 비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솟아오르지 않는다. 하늘을 지배하며 세상의 모든 새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매가 작은 동물의 포획을 실패하면서 땅바닥에 처박혔을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호령했던 권위도 한낱 허상에 불과했던 말인가.

나는 창가에서 돌아와 댐 준공식 때 초청할 안내장에서 우몽 선생의 것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역의 어른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우몽 선생의 초대장을 빼라는 말에 의아해했지만 우몽 선생의 사망소식을 말하지 않았다. 준공식이 끝나면 나는 이곳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본사로 인사발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서, 노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인간의 도리와 예의를 다했던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방문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고향이고 부모님의 흔적과 기억이 남아있었지만 그동안 발걸음 한 번 없다가 인사발령으로 찾게 된 고향을 이제는 애증의 우몽 선생조차 없는 곳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준공식이 끝나면 가장 가까운 남쪽의 바닷가를 가보고 싶어진다. 내가 댐을 건설하고, 건설한 댐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 흐르는 강, 아버지의 유골을 흘려보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을 바라보고 싶다. 어쩌면 내가 찾게 될 바다가 그토록 돌아가

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고향일지도 모른다.

화원에 조화를 주문하고 전화를 막 끊었을 때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급하게 창문을 열었지만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다. 아무래도 이틀 밤은 상가에서 지새워야 할 모양이다. 나는 독재자 우몽 선생, 아니 아버지와 함께 했으나 지금은 물에 잠긴 마재가 자리했던 곳을 바라보고 싶어 눈이 쌓여있는 댐의 전망대로 걸음을 옮긴다.



운동회가 끝났을 때 상 준다는 소식 접했다.

어설픈 몸짓 속에 넘어진 아이.

넘어졌으나 아이의 얼굴은 꽃을 닮아 있었고 바로 일어나 다시 달렸다.

나는 십수 년 전에 숨이 차 스스로 넘어졌건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냐던 너의 핀잔도,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낸 명분으로는 부족하다.

행여, 나에게 시나브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붙은 것이냐?

혹여, 상 받음으로 스스로 일어날 기력이 용오름으로 솟아날 것이냐?



동 시 부 문

금상

시험 보는 누에 _ 김종훈

은상

연 날리기 _ 최호열

택배 아저씨 _ 김계석

동상

괜찮아 _ 김수연

짜꿍 _ 오윤정

우체국 연주회 _ 장효정

민들레 흙씨의 비밀 _ 이우식

시험 보는 누에

한잠을 자고 난 누에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지는 넓적한 초록빛 뽕잎
연필은 뽕족 내민 주둥이

엄마가 시험지를 나눠주자
일제히 주둥이를 내밀고
사그락 사그락
답을 적어나갑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늘어지게 잠만 자더니
사그락 사그락
답을 잘도 적어나갑니다



울산 반천초등학교
김 중 훈



나는 누에 번데기를 먹지 못합니다. 어릴 때 집에서 누에를 길러, 알에서 고치를 거쳐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방으로 변할 때까지의 과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누에의 우윳빛 살갗으로 들여다보이는 초록빛 내장들이 떠올라 도저히 젓가락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험 시간에 감독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구령에 따라 일제히 답을 써내려갈 때 연필들이 시험지를 긁어대는 소리와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어찌나 그렇게 닮았던지.

우리 식구들의 밥줄이 되고 월사금도 되었던 누에가 이런 큰 상까지 받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번데기는 영원히 입에 대지도 못하겠지요.

연날리기

아빠, 연을 왜 날려?
응,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야.
아! 아빠는 우체부구나.

아빠, 왜 연줄을 당겼다 늦췄다 그래?
응, 하늘의 희망을 낚고 있는 거란다.
아! 아빠는 어부구나.

아빠, 왜 연줄이 이렇게 팽팽해?
응, 바람아저씨가 연을 탐내는 거야.
아! 바람아저씨는 놀부네.



서울 양천경찰서
최 호 열





아직도 동심(童心)이 저의 가슴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삶-단순하게, 평범하게, 내 느낌과 의지대로 사는 것-을 향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귀하고 건강하소서!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는
우리 집 산타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절인 김치
도시를 헤엄쳐 온 굴비
호기심 인쇄된 동화책까지
딩동딩동
배달되는 종합선물세트

선물의 양만큼
우리 집 계단만큼
송골송골 땀방울이
아저씨 이마에 피면
내 마음도 잠시 기쁨이 진다.

오늘 택배아저씨에게
날개 하나 달아드리고 싶다



대전해양대학교
김 계 석





계단을 오르다 택배 배달원과 부딪힐 뻔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항상 뛰어다니시는 그 분들을 만날 때면 택배를 받는 즐거움, 설렘과 더불어 그 분들의 땀방울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칭찬에는 정말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있고, 좀 더 잘하기를 기대하며 하는 격려의 칭찬이 있습니다. 부족한 글에 은상이라는 이름표의 칭찬을 달아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뜻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괜찮아

말썽꾸러기 준이가
선생님 옷에 물감을 묻혔다
불호령이 떨어질까
가슴이 콩닥콩닥

괜찮아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구나

사고뭉치 철수가
선생님 화분을 깨뜨렸다
불호령이 떨어질까
가슴이 조마조마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개구쟁이 짝꿍이
내 책상에 우유를 쏟았다
내 눈치를 보면서
두 눈만 껌뻑껌뻑

괜찮아
길레로 함께 닦자



원정 초등학교
김수연





동시 '괜찮아'는 내가 바라는 교실의 모습을 그려본 작품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 맘에 들지 않아도 참지 못하고 쉽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선생님이 먼저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용서하고 밝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친구들을 대하게 될거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사랑하는 우리반 아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짜꿍

"너랑 이제 짜꿍 안 해."

"나도 너랑 짜꿍 안 해."

한참 동안 연필 소리만 쓱쓱쓱
틀린 글씨를 지우려고 보니 없어진 지우개
지우개를 찾아 두리번두리번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거 써."

내 손에 쥐어진 건
친구의 지우개 반 쪽

우리는 이제 다시 짜꿍.



대전 자양주민센터

오 윤 정





가을이 시와 어울리는 계절이라면 봄은 동시와 어울리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동시를 쓰고 싶어집니다.

수줍게 내민 습작 수준의 글들이 2년 연속 좋은 상을 받고 보니
뭔가 내 글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좀 더 진지해져야겠습니다.

더 예쁜 말들로 더 좋은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우체국 연주회

썩르르르
동전 쏟아지는 소리

드르르르
통장에 돈 찍히는 소리

찰찰찰찰
돈 세는 소리

찌익찌익 찌지직
테이프 뜯는 소리

응차응차
소포 나르는 소리

탁탁탁탁
자판 두들기는 소리

신나는 우체국 연주회



인천 만석동우체국
장 효 정





우체국에 들어온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다보니 언제부터인가 참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제는 정겹고 흥겨워서 연주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동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 작품을 높게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친절하게 일하시는 모든 우체국 직원들과 우리 고객님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 홀씨의 비밀

외진 골목길
담장 밑 칼날 틈새

바람 파도에 일렁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

눈 깜짝할 새
고사리손 꼭 맞잡고
낮보름달 빼닮은 하얀 홀씨들로 태어나

밤하늘
몰래 숨은
별의별 별자리들 다 품에 안았다

게자리
큰곰자리
거문고자리
카시오페아자리

툭 따서 후욱 불면
아득히 먼 은하수 향해
홀쩍 날아오르는 아기별들

깜짝 놀랐다
나만 모른 걸까?



강원도 평창군
이 우 식





저의 응모작이 동상에 당선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진 겨울을 다 견디고서 歩道の 칼날 같은 틈바구니를 비집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워낸 민들레 앞에 서면 문득 부끄러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앞새를 다 떨군 채 작은 우주를 이루었다가 제 몸을 화들짝 산화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걸 깨닫습니다.



동화부문

금상

이사가기 싫어요 _ 안안미

은상

미술이와 큰술이 _ 전병호

동상

배불뚝이 가방 _ 백금태

우물안 개구리 _ 심진경

덕고개의 여름 _ 이용옥

아빠가 웃었다 _ 김진우



전남 함평초등학교
안 안 미

이사가기 싫어요

“칠게야, 넌 멋진 눈을 가지고 있지? 맑고 푸른 하늘과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 하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눈 말이다. 그 멋진 눈으로 세상을 마음껏 담으려무나. 이 할아버지도 볼 수 있을 만큼 가득가득. 칠게 네가 보는 건 나도 볼 수 있단다.”
-본문 중에서-



이사하기 싫어요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바다발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갯벌 할아버지, 오늘 모래발 마을로 소풍을 다녀왔어요.”

어린 칠게가 긴 눈자루를 세우고는 갯벌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친구들을 봤어요. 한 친구는 달랑달랑 뛰는데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던 걸요? 그렇게 빠른 게는 처음 봤어요.”

“음, 달랑게 말이구나. 달랑게는 운동회가 열리면 항상 일등을 놓치지 않는단다.”

갯벌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달랑게로군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진짜 이상했어요. 세상에 글썽 앞으로 걷는 거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게라면 옆으로 걸어야 정상이잖아요. 앞으로 걷다니……. 참 이상했어요.”

어린 칠게는 수수씨 같은 눈을 치켜뜨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히히히. 그 게는 밤게란다. 밤게는 앞으로 걷는 재주를 가졌지.”

하늘로 치솟아 있던 어린 칠게의 눈자루가 힘없이 쳐졌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멋진 친구들이네요. 부러워요……. 난 달랑게처럼 달리기에서 일등을 하지도 못하고 밤게처럼 앞으로 걷는

재주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걸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어린 칠게의 얼굴에 먹구름이 한가득 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톡’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말이 지요.

“칠게야, 넌 누구보다 긴 눈자루를 가지고 있잖니? 하늘을 올려다보렴. 저 푸른 하늘을 다른 친구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니?”

어린 칠게는 긴 눈자루를 가만히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눈 속으로 풍당 빠져들 것 같습니다. 수수씨 같은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달랑게보다, 앞으로 걷는 밤게보다 자신이 훨씬 멋진 것 같습니다. 저 크고 파란 하늘을 그 친구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우쭐한 기분까지 듭니다.

갯벌 할아버지는 어린 칠게의 얼굴에 넘실대는 웃음을 보고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나도 모르는 걸 알았어요? 역시, 할아버지는 최고예요. 난 할아버지가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만큼이요. 아니, 그보다 훨씬 좋아요!”

“요 녀석! 아무렴 이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을라고. 허허.”

어린 칠게는 정말로 갯벌 할아버지가 좋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좋다고 한 말은 두둥실 떠오른 마음 탓이지만 엄마, 아빠만큼 좋다는 것은 정말입니다. 갯벌 할아버지는 어린 칠게에게 항상 날개를 달아주거든요. 그것도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빛 날

개 말이에요.

바다밭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갯벌 할아버지가 팔천 번째 생일을 맞았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축하드려요! 팔천 번째 생신이라니. 입이 다 물어지지가 않네요. 호호호.”

“우리 바다밭 마을 식구들에게 집 지을 자리도 내어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바다밭 마을 식구들 모두 갯벌 할아버지에게 연신 허리를 굽혀 축하 인사를 합니다.

딱딱딱 딱딱.

조개들이 입을 벌리며 연주를 시작합니다. 꼬막은 작지만 무거운 딱딱딱. 비단가리비는 가볍고 부드러운 딱딱딱. 가무락 조개는 맑고 야무진 딱딱딱. 키조개는 연주가 고조에 이를 때 큰 입을 ‘꽉’하고 닫으며 연주에 멋을 더합니다.

조개들의 연주가 흥에 겨운 나머지, 게들이 춤을 춥니다. 서로의 집게발을 잡고는 둥글게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돕니다. 원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폴짝폴짝 뛰기도 합니다. 한 줄로 서서는 앞에 게가 폴짝 뛰면 그 다음 게가 폴짝, 또 그 다음 게가 폴짝……. 보기만 해도 어깨가 덩실거릴 정도입니다.

고둥들은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움직임이 느리긴 해도 땡가리, 갯고둥, 비틀이고둥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린 칠게는 춤을 추다 말고 고둥들이 그리는 그림을 봅니다.

긴 눈자루를 가웃거리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통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지? 별밭 같기도 한데……. 아니야. 별밭이라고 하기엔 너무 화려한 걸. 아휴. 답답해. 도대체 뭐지……? 옳지! 갯벌 할아버지는 아실 거야! 여쭙봐야겠다.’

어린 칠게가 갯벌 할아버지를 막 부르려고 하는데, 갯가 쪽에서 말뚝망둥어가 큰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 큰 일이, 헉헉……. 났어요. 아이고, 헉헉!”

연주를 하던 조개들도, 춤을 추던 게들도, 그림을 그리던 고둥들도 모두 말뚝망둥어의 소란에 어안이 병병해졌습니다. 오늘같이 즐거운 잔칫날, 무슨 큰일이 났다고 저리 야단법석일까요?

“아니, 말뚝망둥어 자네는 왜 그리 시끄러운가? 오늘은 갯벌 어르신의 팔천 번째 생신날이라고! 아무리 눈치가 없기로서니, 쫓쫓!”

키조개가 입을 딱딱거리며 말뚝망둥어를 썰러봅니다. 말뚝망둥어는 아직도 숨이 찬 지 헉헉거리며 불룩 튀어 나온 눈을 끔벅거립니다.

“말뚝망둥어야, 무슨 큰일이 났기에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왔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호흡 좀 고른 다음에 말해보려무나.”

갯벌 할아버지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뚝망둥어는 갯벌 할아버지의 말대로 ‘쓰읍’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후우’하고 내뿔었습니다. 어느 정도 호흡이 차분해졌는지, 말뚝망둥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저 갯가에 있는 나무 말뚝에서 어르신께 보여줄 뛰어내리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사람들 두세 명이 뭐가 그리 좋은지 배꼽이 빠져라 웃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말뚝망둥어가 폴짝폴짝 뛰며 뜰을 들였습니다.

“듣는 내가 다 답답하네. 얼른 좀 말해봐.”

조용한 땡가리도 궁금한 듯 말뚝망둥어를 재촉했습니다.

“글쎄, 아이고 내 심장아……! 여기를, 우리 바다밭 마을을, 메운대요!”

“…….”

모두 얼이 빠진 표정입니다. 말뚝망둥어는 가슴지느러미로 바닥을 두세 번 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를 메워서 큰 건물을 여러 채 짓는대요. 아, 우리가 사는 곳인데 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려고 하죠?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다밭 마을이 없어진다는 건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눈이 멀면 별짓을 다한다고 들었어. 그렇다고 해도 우리 바다밭 마을을 없애려고 하다니…….”

낙지가 여덟 개의 긴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밭 마을이 없었으면 오늘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정말 이가 갈리는군. 그리고 갯벌 어르신이 한 일을 생각해보라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흘려보내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서, 바다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은 분이 바로 갯벌 어르신이야.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건

데…….”

갯지렁이가 흰 이빨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합니다.

“어디 그 뿐이야!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빨아들였다가 조금씩 흘려보내서 홍수를 막아주고, 태풍이 오면 어르신들의 넓은 몸으로 그 사나운 태풍과 맞서 싸웠어.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건데,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경우야!”

딱충새우가 ‘딱딱’ 소리를 내며 고개를 내두릅니다.

바다밭 마을 식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둡니다. 모두들 갯벌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움직일 수 있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면 되겠지만 갯벌 할아버지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너그럽고 따뜻한 갯벌 할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살기도 싫습니다.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갯벌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바다밭 마을 식구들을 보드랍게 감싸 안을 뿐입니다.

“여보, 내일 건넌마을로 이사한대요. 어휴. 그나저나 갯벌 어르신은 어떡하나.”

“그러게 말이오. 우리야 이사한다지만 어르신은 이제는 영영……. 이사를 가긴 가야하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구려.”

잠든 어린 칠게를 두고 엄마 칠게와 아빠 칠게가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긴 한숨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자는 줄 알았던 어린 칠게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렇그렇한 눈으로 말합니다.

“왜 이사를 해요! 우리가 못 메우게 하면 되잖아요! 봐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튼튼한 집게발이 있잖아요. 이걸로 사람들을 혼

내줘요! 네?”

어린 칠게가 작고 튼튼한 집게발을 내세우며 울먹입니다.

“애야, 사람들은 우리 집게발에 물린다고 겁먹거나 도망치지 않는단다. 우리는 너무 작고 약해. 바다발 마을 식구들 모두 어쩔 수 없이 이사하기로 결정한 거란다. 갯벌 어르신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한테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말이다…….”

아빠 칠게가 어린 칠게를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겁쟁이야. 엄마도, 아빠도, 모두 다 겁쟁이! 갯벌 할아버지를 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난 바다발 마을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칠게는 작은 집게발을 야물게 다룹니다.

다음날, 바다발 마을 식구들은 이사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어린 칠게는 괜히 바다발 마을 식구들이 알밉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살기 위해 떠나는 마을 식구들이 알밉기만 합니다.

뿔로통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저만치에서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린 칠게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긴 눈자루를 빼꼼히 내밀어 그 사람을 봅니다. 낮이 익은 아이입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자주 바다발 마을에 왔습니다.

‘내가 뭐가 무서워서 숨어있지? 우리 바다발 마을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가서 혼내주겠어!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보여줘야지.’

어린 칠게는 살금살금 아이 곁으로 다가갑니다. 아이는 어린 칠게가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아얏!”

어린 칠게가 아이의 발가락을 짹 물었습니다.

“새끼 칠게잖아! 조그만 게 되게 아프네.”

아이는 어린 칠게를 내려다보더니, 열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게한테 물려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 갯벌에 오면 하루가 금방 갔는데……. 이제 어디에서 놀지?”

어린 칠게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아이의 발가락을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허허허. 칠게야, 아이한테 미안한 모양이구나.”

갯벌 할아버지가 어린 칠게에게 쫄쫄 눈짓을 보냅니다.

갯벌 할아버지는 아이의 작은 발을 한없이 어루만져줍니다. 아이의 엄마처럼 보드랍고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어린 칠게는 보았습니다. 갯벌 할아버지의 눈가에 축축한 별빛이 반짝, 하고 빛나는 것어요.

저녁 해가 바다발 마을을 붉게 비추며 지고 있습니다.

바다발 마을 식구들이 이사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이사할 짐은 챙겼어도 마음은 미처 정리하지 못했나 봅니다.

갯벌 할아버지는 바다발 마을 식구들 한명 한명을 눈에 담고 가슴에 담으며 애써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그동안 참 행복했다네. 그대들과 함께여서 이 늙은이, 황송할 정도로 행복했어.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도, 미련도 없다네. 그러니, 어

서 길을 떠나. 곧 밤이 되겠어.”

갯벌 할아버지는 바다발 마을 식구들의 등을 떠밉니다. 그런데 바다발 마을 식구들은 훌쩍훌쩍 눈물을 훔칠 뿐 차마 발을 떼지 못합니다.

“어허! 이러면 이 늙은이 가슴만 더 아프다는 걸 모르나? 어서 가게, 어서!”

바다발 마을 식구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눈물이 떨어져 마치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싫어요! 난 안 갈 거예요. 갯벌 할아버지랑 여기 있을 거라고요!”

어린 칠게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칠게와 아빠 칠게가 옆에서 잡아끄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수수씨 같은 눈을 더욱 가늘게 뜨고는 씹씹거리며 숨을 내쉽니다.

갯벌 할아버지는 알싸하게 아려오는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칠게야,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착한 어린이지! 그렇게 고집 부리면 못썰요. 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가거라.”

“할아버지, 난 이사하기 싫어요. 할아버지만 혼자 두고 이사하기 싫단 말이에요.”

갯벌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 칠게의 눈빛이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칠게야, 넌 멋진 눈을 가지고 있지? 맑고 푸른 하늘과 별이 총총히 떠있는 밤하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눈 말이다. 그 멋진 눈으로 세상을 마음껏 담으려무나. 이 할아버지도 볼 수 있을 만큼 가득가득. 칠게 네가 보는 건 나도 볼 수 있단다.”

“흑흑. 정말이에요? 내가 보는 건, 흑, 할아버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고말고. 네가 여기 남으면 할아버지는 슬플 거야. 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겠니? 어서 엄마, 아빠 따라 가려무나. 가서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보다 더 가까이에서 본 하늘을 내게 보여주렴.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구나.”

어린 칠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갯벌 할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갯벌 할아버지의 얼굴 위로 어린 칠계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꼭 멋진 하늘 보여줄게요.”

어린 칠계는 엄마 칠계와 아빠 칠계를 따라 길을 떠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어린 칠계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끼룩끼루룩-

불그스름히 물든 바다밭 마을 위를 바닷새 몇 마리가 맴돌며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있어 동화는 설렘이고 즐거움이자 버팀목입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려 애쓰면서 소재를 찾고 틀을 세우고 살을 붙여가며 동화를 썼습니다. 얽히고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것마저도 좋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맑은 봄날의 푸른 나뭇
잎처럼 멋지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마냥 좋았습니다.

제 동화에 따스한 햇살을 한 줌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읽고 써서 좋은 동화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전 병 호

미술이와 큰술이

신도시가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미술이는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큰술이와 살았던 언덕이 그리웠습니다. 살며시 언덕을 올라다보았습니다. 큰술이가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푸르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반가웠습니다. 큰술이를 흔들든 바람이 미술이에게로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미술이의 가지가 썩긋썩긋 흔들렸습니다.

-본문 중에서-



미술이와 큰술이

“야! 저리 가란 말이야. 내 몸이 지저분해지면 어떡하니?”

미술이는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올라오는 담쟁이넝쿨을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담쟁이넝쿨이 너무 놀라 그만 땅으로 떨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키가 작은 소나무인 미술이는 평소 자기 몸을 치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몇 내기를 좋아하는 미술이의 몸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담쟁이넝쿨이 자기 몸에 올라오거나 새들이 앉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의 몸은 언제나 윤기가 흐르고 색깔이 고왔습니다.

“얘야 이리 올라오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큰술이가 담쟁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바로 옆에 있던 키가 큰 소나무인 큰술이였습니다.

“고마워 큰술아.”

담쟁이는 얼른 인사를 하고는 큰술이를 돌돌돌 말고 올라가 든든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날 밤 담쟁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포근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큰술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음 지난밤 바람에 흔들려 한숨도 자지 못 했을 거야.”

“고맙긴, 친구끼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지내야지.”

큰술이는 담쟁이를 도와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몸을 감고 하룻밤을 지내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습니다.

“룰루 랄라 룰루 랄라.”

흥얼흥얼 콧노래가 자신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큰술이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자 그 모습을 본 미술이가 토라졌습니다.

“흥…….”

큰술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술이는 친구들이 찾아오면 자기 몸에 앉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싫어했습니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소나무 두 그루가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도시는 날로 번창하여 건물들이 우뚝우뚝 들어서더니 언덕 쪽으로 넓어만 갔습니다. 논밭은 줄어들고 메뚜기와 잠자리는 겨우 몇 마리만 보일뿐이었습니다. 도시가 생긴 뒤로는 나무들도 하나둘씩 뽑혀나갔습니다.

언덕에서 신도시를 내려다보자 형형색색 네온 불빛과 차량들이 질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산뜻한 건물들,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 옷을 곱게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

고 좋게만 보였습니다. 길거리에 잘 가꾸어진 가로수와 꽃들이 한들한들 손짓을 하였습니다.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미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큰솔아, 저 아래 신도시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니?”

“뭘, 나는 여기가 좋은걸. 친구들도 많고 멀리 바라다 볼 수도 있고…….”

“야, 바라만 보면 뭐하니 직접 가봐야지.”

“미술아 우린 저런 곳에 갈 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뭐하겠니? 난 안 갈 테야. 너나 가.”

“큰솔아! 너 정말 여기가 좋아?”

“그럼 이만한 곳이 어디 있겠니?”

언덕은 도시가 내려다보이고 밤이면 새들도 찾아오고 시끄럽지 않아 좋았습니다.

“응, 정말이야. 아마도 저기는 무서운 것도 많을 거야. 그래서 난 가고 싶지 않거든.”

“야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러니? 저렇게 깨끗한 건물들도 많고 경쾌한 음악도 흘러나오는데.”

미술이는 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볼 거야. 그래서 음악도 듣고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서 밤새도록 놀아도 볼 거야'

갑자기 뱀새 한 마리가 미술에게로 날아왔습니다. 밤도 꽤 깊었는데 잘 곳이 없었나 봅니다.

“미술아 오늘밤 네 품속에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되겠니? 부탁할게”

뱀새가 사정을 하자 미술이는 놀란 듯 기겁을 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뭐, 내 품속에서 하룻밤을 잔다고?”

“응, 하룻밤만…….”

미술이가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흥, 어림도 없는 소리. 그건 절대로 안 돼.”

“미술아, 오늘 하룻밤만 부탁할게. 응…….”

몸치장하기를 좋아하는 미술이는 친구들을 좋아했지만 자기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몸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는, 너를 재워주면 내 몸이 지저분해지는 걸.”

“지저분하면 날이 밝은 데로 내가 씻어줄게.”

“그래도 안 돼.”

“왜 안 돼? 우린 친구잖니,”

“친구라도 내 몸이 지저분해지면 나는 예쁜 나무가 될 수 없어. 내 품속에서 자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잘 곳이 없는 뱀새를 인정사정없이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큰술이에게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 몇 마디 말을 나누는가 싶더니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뱀새는 아침이 되자 큰술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디론지 날아갔습니다.

“미술아 어젯밤에 뱀새를 왜 내쫓았니? 하룻밤 재워주지 않고?”

미술이는 큰술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꾸를 하였습니다.

“새들이 내 몸에 앉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니? 털도 빠지고 다

리에서 더러운 흙도 묻고 할 텐데.”

“좀 묻으면 어때, 닦으면 되지. 우리에게는 새와 다람쥐 그리고 잠자리 친구들이 많이 와야 좋은 거야.”

“왜 그런데?”

“그래야 새들이 물어 오는 좋은 소식이랑 곱디고운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도 들을 수 있지. 밤에는 더군다나 심심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지.”

미술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럴 듯도 싶었습니다.

“어,.....그래도.”

더 이상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했습니다. 큰솔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미술이가 조금은 얄밟고 서운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는 낮이었습니다. 미술이는 그 햇살을 받아 온몸을 다듬고 치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뽀족한 앞에서 윤기가 파르르 흘렸습니다. 미술이는 항상 몸을 단정히 하고 매무새가 흠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때문에 언덕에서 제일 멋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마다 예쁜 잎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언덕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무야.’

미술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가지를 흔들며 웃고 있는데 별안간 애벌레 한 마리가 밑동에서 꾸물꾸물 기어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미술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에이 징그러워.”

애벌레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애벌레가 기어 올라왔던 곳을 닦아냈습니다.

“쓱쓱”

“쓱쓱”

“아침 일찍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 났는데 애벌레가 내 몸을 다 버려놔네.”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 둘이 배낭을 메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미술이를 보고는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하! 전 사장 저 소나무 좀 보게나. 그놈 멋지게 생겼는걸!”

배가 불룩하게 나온 아저씨가 미술이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전 사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게 말야. 화분에 옮겨 심으면 더 멋지게 보이겠는걸.”

함께 걸어가던 전 사장이란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보게 전 사장. 자네가 짓고 있는 건물 앞 화단에 이 나무를 옮겨 심으면 멋지게 어울리겠는걸.”

“정말 그렇겠군. 저렇게 잘 생긴 나무를 보는 게 처음 일세 그려.”

“전 사장 그러지 말고 저 나무를 캐다가 새로 짓고 있는 건물 앞에 조경수로 심게나. 그러면 건물이 한층 더 멋이 살아날 걸세.”

전 사장이란 사람의 눈빛이 미술이를 향하여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술이는 그렇게도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언덕 아래에 있는 신도시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앞뒤로 깨끗한 건물이 보이고 주변

에는 차량들이 썩썩 내달렸습니다. 미술이는 건물 앞 화단에 조경수로 심어졌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며칠 전에 산에서 보았던 전 사장의 건물이었습니다. 언덕에서 들었던 경쾌한 음악을 곁에서 들을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네온 불빛은 미술이의 마음을 더욱 부풀게 하여 신이 났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내가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흐뭇해했습니다.

한편, 건물 앞에 심어진 미술이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마디씩 했습니다.

“저 소나무 한 그루가 건물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군.”

“그러게 말야.”

“어디서 저런 귀한 나무를 구했을까? 아무튼 전 사장은 복 받은 사람일세 그러.”

“두말하면 잔소릴세. 안 그런가?”

미술이는 그 소리를 듣자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건물 값보다도 저 소나무 값이 더 비싸겠는걸.”

“에이, 이 사람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모두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 사장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술이를 보고는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미술이는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언덕에 있을 때 몸매를 다듬고 치장을 잘한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항상 몸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해. 모두가 노력하면 나같이 다 될 수 있잖아.’

미술이의 아름다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신도시 전체로 퍼

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미술이를 구경하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장 건물은 소나무 한 그루로 인하여 이름 있는 장소가 되어 누구나 한번쯤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미술이는 원하던 꿈을 이루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오래도록 이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건물들도 깨끗하고 밤낮으로 경쾌한 음악도 들려왔습니다. 썩썩 내달리는 차량들도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신도시 생활이 너무나 좋아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큰술이가 없으니 심심하고 따분했습니다.

밤이 깊어 갑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넘어갈 듯 넘어갈 듯하면서 미술이 앞에 겨우 섰습니다. 그러더니 바지 지퍼를 열고는 소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러운 오물을 한 번도 묻힌 적이 없는 미술이는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음……. 켉켉…….’

속에서 토할 듯이 뭔가가 넘어오려 하였습니다.

‘아저씨 이러시면 안돼요.’

소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로 온 후로 자주 오물과 매연을 몸에 묻혔습니다. 몸을 자주 닦아도 밤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미술이를 향해 오줌을 누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나온 시꺼먼 매연이 날아와 달라붙어 몸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했던 몸은 새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차

량들이 내는 소음에 잠을 자려고 해도 시끄러워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미술이는 서서히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속으로 후회를 하였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다시 언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영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미술이는 자기도 모르게 큰솔이가 살고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솔아~”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큰솔이를 불러 보았지만 차량 소음에 묻히어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파릇파릇했던 뽕족한 잎들은 하나둘 누렇게 말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자 신도시는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은 한번 켜지면 새벽녘까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밝아야 겨우 꺼졌습니다. 미술이는 밤에도 낮처럼 밝은 불빛 때문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둠속에 이상한 검은 물체가 물통 같은 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두리 번 두리번거리더니 미술이의 뿌리에 뭔가를 쏟아 부었습니다.

“전 사장 자네가 나에게 그럴 순 없어.”

그 사내는 혼잣말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번개처럼 어둠 속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밤마다 이상한 오물을 쏟아 붓고는 사라졌습니다. 서서히 뿌리가 아파 왔습니다. 차량들이 씹씹 내달리고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먼지와 매연이 그대로 미술이에게 날아와 쌓였습니다.

니다. 이제는 몸을 치장하거나 잎 매무새를 다듬을 만한 힘이 없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쌓이는 먼지와 찢어질 듯 한 소음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하루는 전 사장이 건물 주변을 둘러보다가 색깔이 누렇게 변한 미술이를 보고는 걱정을 합니다.

‘아니, 저 나무가 왜 저렇게 불품없이 말라가지?’

그러면서 자기 신세타령을 하였습니다.

‘요즘 사업도 실통치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런 전 사장을 보고는 미술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 사장이 가고난 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나타나던 그 남자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미술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무 살려. 소나무 살려주세요!’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오늘도 미술이의 뿌리에다 무언가를 쏟아 부었습니다.

“쿵쿵”

냄새를 맡아보니 오물냄새였습니다. 미술이는 뿌리가 서서히 썩어가고 이었습니다. 왜 자꾸만 나에게 오물을 뿌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들릴 듯 말 듯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사장 당신이 나에게 이 건물을 팔지 않고는 안 될 걸.’

조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되고 전 사장 당신이 꽤나 힘들지? 이 나무만 죽이면 이 건물은 톡값이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이 건물은 내 차

지가.....’

그 남자는 전 사장의 멋진 건물을 탐내고 있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명물로 소문난 소나무인 미술이를 죽이고 건물 값을 내리게 한 다음 싸게 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술이는 겁이 더러웠습니다. 말대로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매일같이 오물을 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간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 밤이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뿌리가 옥싯 옥싯 아파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비틀비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얼 흥얼 노래를 부르지만 술 취한 남자의 노랫소리는 박자도 음정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순간 뒤에서 그 남자를 스치며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어, 어, 내 지갑. 저 놈들이

그 사람들은 호주머니에서 돈을 슬쩍 훔치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매치기다. 소매치기 잡아라.”

술 취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는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쁜 것도 많았습니다. 미술이는 도시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앞 교차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서로가 서로 잘못이 없다고 탓대질을 하

며 소리 높여 싸웠습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고 어둠이 내리자 사거리에는 차량들이 불을 밝히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여기저기 크고 작은 빌딩으로 내렸습니다. 깨끗한 빌딩에 햇살이 내리자 유리창들이 신이 났는지 햇살을 요리조리 튕기며 놀기 시작하였습니다. 건너편 건물이 미술이게도 푸른 햇살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눈이 부셨습니다. 미술이는 잃었던 미소를 처음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건물 주인인 전 사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도 네가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고맙다.”

미술이에게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입을 살랑살랑 어루만지며 쓰다듬어주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아팠겠니?”

미술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인님 무슨 일 있었어요?’

전 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술이는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아 클쎬 그런 일도 다 있었더구나.”

전 사장은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미술이에게 친구나 되는 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건물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서로 잘했다고 말다

틈을 했던 일이 있잖니”

미술이는 점점 흥미가 느껴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네 있었어요.’

주인은 미술이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들었다는 듯이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경찰관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누가 잘못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단다.”

‘어떤 방법?’

“교차로 카메라에 사고 순간이 찍혀있더라.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다 밝혀졌단다. 그리고 보면 보는 사람이 없다고 음흉한 짓을 하면 안 되겠더라.”

‘정말 다행이네요.’

미술이는 주인아저씨의 말을 듣다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잘못이 밝혀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 좋은 것은 말야.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아니 제 이야기라니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더구나.”

‘무슨 큰 일요?’

더 궁금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라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었더구나. 하마터면 네가 죽을 뻔했지 뭐니. 진작 밝혀져 다행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더욱 궁금했습니다.

‘아휴 답답해. 주인님 빨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경찰관이 그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카메라에 찍힌 비디오를 자세히 봤단다. 내 건물도 찍혀 있고 너도 찍혀있었단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밤마다 나타나 너에게 뭔가를 뿌리고 가더라.”

‘맞아요. 그 사람 나쁜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내 건물이 욕심이 나서 싸게 사려고 그럼 음흉한 일을 저질렀단다. 네가 워낙 명물로 소문이 나 너만 죽이면 되겠구나 싶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지 뭐니.”

미술이는 듣다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밤마다 나타나지 않았구나.’

“더 다행인 것은…….”

‘아저씨 또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또 뭔가가 있다니 궁금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도 잡았다지 뭐니.”

미술이는 저번 날에 술 취한 남자가 소매치기 잡아라하고 소리쳤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윗동네 사는 불량배들이 그런 몸쓸 짓을 하고 다녔단다. 카메라에 얼굴이 찍혀 일찍 잡을 수가 있었다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미술이는 생각했습니다.

“도시에 나쁜 일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일도 있구나.”

신도시가 나쁘다고만 생각했던 미술이는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큰솔이와 살았던 언덕이 그리웠습니다. 살면서 언덕을 올라다보았습니다. 큰솔이가 바람에 가지를 흔들며 푸르

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반가웠습니다. 큰솔이를 흔들든 바람이 미술이에게로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미술이의 가지가 썩긋썩긋 흔들렸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죽을 뻔했는데 미안하구나.”

전 사장이란 사람은 후회를 했습니다. 잎이 누렇게 마르고 죽을 뻔했던 것이 다 자기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술이가 건물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미술이가 있던 화단에는 꽃사슴들이 한가로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엄마사슴 뒤로 새끼 꽃사슴 두 마리가 뒤따르며 뛰어 놀고 있습니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항상 아름다웠으면.....,’

하늘에 별들도 크고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언덕에 노란 산수유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덕 여기저기에서 꽃송이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들도 날아와 고운 노래를 하였습니다. 미술이의 가지에도 날아와 고운 봄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술이는 날아온 새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언덕 위로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미술이와 큰솔이의 나뭇가지가 마주하며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봄꽃들이 예쁜 것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봄꽃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오던 날 기다림은 행복한 웃음으로 피어났습니다. 시 부문 대상에 이어 동화에서도 기쁜 소식을 받고 보니, 지고 있는 봄꽃들의 흔적들조차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동화 속 큰술이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미술이 처럼 원하는 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봄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북 경산 봉황초등학교

백 금 태

배불뚝이 가방

할머니께 드릴 폐휴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시형이는 신이 났습니다. 시형이의 가방이 배불뚝이가 되어 갈수록 할머니 덕의 방바닥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요.

-본문 중에서-



배불뚝이 가방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창문 밖은 세찬 바람까지 불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방충망이 바람에 떠밀려 이리 드르륵, 저리 드르륵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형아, 두부 좀 사오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뽕뽕 울어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시형이는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어머니와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바른 생활 시간에 심부름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적은 후 어머니의 확인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춥다고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겠죠.

시형이는 할 수 없이 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바닥은 며칠 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은 채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러운 얼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울타리를 둘러싼 벚나무의 앙상한 가지에는 칼바람이 뽕뽕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며칠 전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실 바깥에서 나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속에 있는 병원에 계십니다. 그곳은 아버지 차를 타고 두 시간이나 가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코에 줄을 달고 있는 할아버지, 반듯이 누워서 멀뚱멀뚱 천장만 쳐다보

는 할머니, 하루 종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시형이 할머니는 잘 건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종 엉뚱한 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손자 왔구나.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반가운 듯 시형이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꼭 껴안아 주시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집에 계실 때도 시형이를 우리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형이가 강아지처럼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아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자리 밑에 숨겨 둔 지갑을 꺼내 용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 누구고?”

하십니다. 시형이를 못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정신이 바르지 못하다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버지, 집 가까운 병원에 할머니 모시고 오면 안돼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공기가 깨끗한 곳에 계셔야 할머니 병환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하는구나.”

시형이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자꾸 떼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간 그날도 창밖에는 오늘처럼 바람이 심술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뺨을 부딪치며 오늘 오늘 떨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울타리의 벚나무 가지를 후려치는 바람을 보며 할머니 병실 밖의 나무들이 스쳐갔습니다. 할머니가

줍지 않을까 시형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옷을 여러 겹 껴입었지만 찬바람이 자꾸만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을 잠바 주머니에 꼭 찔러 넣었습니다. 얼굴을 할퀴는 바람을 피해 고개를 자라처럼 한껏 웅크린 채 걸었습니다.

그 때 갑자기 앞을 턱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빈 상자, 신문지, 못 쓰는 종이 등을 가득 실은 리어카가 서 있듯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기억자로 구부러진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은 빛바랜 누비바지와 늘어진 털 스웨터, 그리고 때 묻은 조끼는 칼처럼 매서운 바람을 막기에는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수건을 눌러 쓴 얼굴은 추운 날씨 때문인지 푸르죽죽한 색깔이었습니다. 시형이가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그러자 리어카가 조금 전보다 빨리 나아갔습니다.

얼마 후, 리어카가 섰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 보셨습니다.

“너 때문에 가버렸구나. 고맙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웃음은 병원에 계신 할머니의 웃음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굵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도 할머니와 똑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고물상에 간다.”

“제가 밀어 드릴게요.”

“추운데, 고맙구나.”

할머니는 앞에서 끌고 시형이는 뒤에서 밀며 한참을 갔습니다. 고물상 마당에 이르자 주인아저씨가 리어카를 살펴보았습니다.

“돈도 안 되는 것들을 가져왔네.”

“그래도 계산 좀 잘 해 주소”

통명스럽게 말하는 아저씨에게 할머니는 두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리어카에 가득 싣고 왔는데 왜 돈이 안 된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밍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시형이는 두부를 사기 위해 주머니에 넣어 둔 천 원짜리 세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을 할머니께 드릴까.’ ‘두부를 사가지 않으면 어머니한테 혼날 텐데.’ ‘돈을 잃어버렸다고 할까.’ ‘……’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형이가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고맙다. 잘 가거라.”

할머니의 주름 진 얼굴이 슬프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시형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도 시형이와 헤어질 때면 그렇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형이는 걸어오는 내내 주머니 속의 돈을 꺼냈다 넣었다 하였습니다. 아저씨에게 애원하던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두부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화난 얼굴이 시형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좀 하느라고요.”

시형이는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꾸중하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으니까요.

그 날 이 후, 불쌍한 할머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실까? 가족은 있을까? 왜 힘들게 종이를 주을까?’ 꿈속에서 리어카를 끄끄거리며 끌고 가시는 할머니를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종이를 줍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병원에 계시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형이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리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앞에 짐을 가득 실은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끄는 리어카였습니다. 시형이는 얼른 달려가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짐이 가벼워 진 듯 수월하게 밀려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리어카가 섰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헉헉 몰아쉬며 길가에 앉았습니다. 시형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고맙구나. 저번에도 밀어 주었제. 몇 살이고?”

“아홉 살입니다.”

“우리 손자와 같네.”

“손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응, 있지.”

할머니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괜히 여쭙어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 열두 살 손녀, 아홉 살 손자가 있어.”

“어디에 있어요?”

“캐나리에 있어.”

할머니는 캐나다란 말이 어려웠나봅니다. 할머니의 아들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갔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가 전화도 해주고, 손자, 손녀들이 편지도 보내 주었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전화도 편지도 없어.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네.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내 걱정 하지 말고 저희들이나 잘 살면 되는데.”

할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또 눈물을 짖어 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가족 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빈자리가 할머니에게는 큰 호수만큼이나 넓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호수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먼 나라에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의 얼굴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형이도 다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오늘은 고물상 마당이 아닌 할머니 댁 앞에 리어카가 섰습니다. 대문 옆에는 상자, 종이 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많이 모이면 고물상에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출다. 몸 녹이고 가거라.”

손자가 그리운 듯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눈길에 시형이는 바로 뒤돌아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땅 속으로 몇 개의 계단을 내려가니 뼈저덕거리는 나무문이 나타났습니다. 방안은 어두컴컴하고, 곰팡이 냄새와 같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천정 가까이에 조그마하게 달려 있는 창문으로는 앞집의 담벼락만 보일 뿐 할머니가 가족을 그리워하며 쳐다보았던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라. 금방 따뜻해질 거야.”

할머니는 얼른 전기장판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마 보일러도 켜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이거 먹어 볼래?”

할머니가 딱딱한 껏감 한 개를 시형이 손에 얹어 주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받긴 했지만 시형이는 껏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할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날부터 시형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빈 상자, 신문지, 광고지 등 종이로 된 것은 무엇이든지 모았습니다. 집에 서나 밖에서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쓰다 버리는 종이 등을 몰래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형이가 휴지를 주워 가방에 넣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종이나 상자를 주워 가는 것을 보았어.”

“시형이 집이 아주 가난한가 봐.”

아이들은 시형이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겠지.”

시샘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작인 서연이가 보다 못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얼굴도 예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씨도 참 곱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이 모두 서연이를 좋아합니다. 특히 서연이는 옆 짝인 시형이를 많이 챙겨줍니다. 시형이는 서연이가 짝인 것이 언제나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시형아, 왜 휴지를 줘니?”

시형이는 서연이에게 까지 그 일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모아서 어떤 할머니 드리려고.”

“누구?”

“불쌍한 할머니.”

시형이는 종이 줍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왜 말하지 않았니. 친구들이 오해하잖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너도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형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학교에서 재활용할 종이를 모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신문지와 버리는 종이를 상자에 담아 할머니 댁 대문 앞에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면서 서연이도 시형이를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도 집에서 이것저것 들고 왔습니다. 시형이의 가방은 점점 더 배를 불룩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마칠 때면 시형이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학원에 늦지 않으려면 급히 서둘러야 합니다. 가방 안에 가득 든 종이들을 할머니 댁 대문 앞에 가져다놓고 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시형이의 하루하루는 바빴지만 마음은 날아갈듯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칭찬 이어가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친구가 칭찬을 해 주면 칭찬을 받은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칭찬하는

놀이입니다. 칭찬을 받은 서연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시형이가 하고 있는 일을 칭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눈이 왕방울처럼 둥그레졌습니다. 시형이를 오해하고 시샘했던 친구들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교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형이가 장한 일을 하는구나. 많이 칭찬 해 주고 싶네.”

“시형아, 오해해서 미안해.”

“야, 너 정말 착하네.”

“시형아, 나도 도울게.”

선생님도, 아이들도 시형이를 칭찬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한참이나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날 이후, 시형이의 가방은 점점 더 불룩해졌습니다. 배불뚝이 가방이 된 것입니다.

“시형아,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신문 가져 왔어.”

아빠가 아직 읽지도 않은 신문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 기저귀가 들어 있던 상자야.”

“다 읽은 책이야.”

할머니께 드릴 폐휴지를 가져오는 아이들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시형이는 신이 났습니다. 시형이의 가방이 배불뚝이가 되어 갈수록 할머니 댁의 방바닥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요.

시형이는 오늘도 종종걸음을칩니다. 시형이의 등에 매달린 배불뚝이 가방도 덩달아 종종걸음을칩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종이를 줍고 계실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병원에 계신 할머니의 얼굴도 보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병환이 나아서 집에 오시는 날, 불쌍한 할머니도 보고 싶은 손자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시형이는 배불뚝이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할머니 댁으로 향합니다.



배려와 베품에 인색한 요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밖에 모르는 아이들, 옆을 둘러 볼 여유조차 없는 아이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 아파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따스한 정을 아이들의 가슴에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는 동화 속 아이들처럼…….



강원 정선읍사무소

심 진 경

우물 안 개구리

살랑살랑 봄바람이 참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가는 방법도 알면서 왜 여기 있니?”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여기 있는 것들을 사랑해. 그리고 또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본문 중에서-



우물 안 개구리

봄바람이 제법 사납게 불던 날이었어요.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 참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누군가 올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처럼 청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 안으로 똑 떨어졌어요.

참,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물은 땅에서 어른 엉덩이 높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네모반듯하게 돌로 쌓아 올렸지요. 하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면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 깊이는 아주 깊어서 돌을 떨어트리면 한참 후에 ‘퐁당’ 소리가 들리지요.

우물이 네모에서 동그라미로 바뀌는 부분에는 모서리에 이끼도 있고, 작은 풀들과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참이가 살고 있어요.

청개구리는 참이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요.

“아얏!”

참이도 깜짝 놀랐어요.

“청개구리야, 괜찮니?”

“아이고, 허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청개구리는 정신이 없었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 우물 옆 버드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는데, 획~ 하는 소리와 함께 우물로 떨어진 것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떨어졌구나. 걱정하지 마. 폭신한 이끼 위로 떨어졌으니 곧 괜찮아질 거야.”

참이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참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큰일 났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서워…….”

청개구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두컴컴하고 좁고 낯선 곳, 그리고 낯선 개구리 한 마리가 보였어요. 청개구리는 그만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참이는 청개구리가 걱정되었어요. 몸도 아플 텐데,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 보였거든요.

“울지 마. 그래도 우물 깊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단다.”

청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다고? 이제 나는 어쩌면 좋아. 엉엉”

청개구리는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참이는 청개구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을 슬피 울던 청개구리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디든 잘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무도, 사람들이 사는 집 벽에도. 그런데 이렇게 낯선 곳으로 떨어지다니.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 너희 청개구리는 재주가 많지. 목소리도 예쁘고, 색도 예쁘고, 또 잘 붙어있기도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참이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청개구리가 울음을 멈추고 참이를 쳐다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나는 참이야. 여기 살고 있지.”

“여기 살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지? 여긴 개구리가 살 곳이 못돼.”

청개구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개구리들은 보통 냇가 옆에 살면서 나뭇잎 위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논밭두렁에서 헤엄을 치기도 하면서, 여럿이 어울려 살거든요. 청개구리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멀리 뛸 수 있고, 우렁차고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할 수도 있었어요. 또 누구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오늘도 버드나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자랑스럽게 친구들을 내려다보았지요.

“하하하, 나 좀 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개구리는 나 밖에 없을 거야.”

청개구리는 정말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남들이 위험하다고 걱정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지금껏 살아왔던 곳과는 너무 틀려서 청개구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청개구리는 참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는 왜 여기서 사니? 너도 떨어졌니? 그런데 너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얼굴이구나?”

“나는 그냥 원래 여기서 살았어.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집이라고? 정말? 여기서 뭘 하면서 사니? 땀박질도, 노래도, 벽 타기도 할 수 없는데?”

“하하, 여기서도 다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청개구리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 있는 모양이라, 우물 벽 안쪽으로 좁은 길이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여긴 아름답지 않아. 내가 살던 곳은 얼마나 넓은지 끝을 알 수 없어. 아름다운 냇가, 나무, 풀,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어.”

참이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아니? 너는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 볼 수도 없을 텐데?”

“바람이, 새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해준단다.”

청개구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튼, 여기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

“맞아, 뱀도 없지.”

청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겠구나, 그건 좋네.”

둘은 마주보며 킬킬킬 웃었어요.

청개구리는 참이가 신기했어요.

“너는 여기 사는 것이 슬프지 않니?”

“아니, 나는 행복하기만 한걸.”

“이 좁은 곳에서 사는데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다른 개구리들과 시합을 할 수도 없어. 우리 동네에서는 시합에서 이기면 상도 주고 존경을 받는데, 너는 혼자잖아. 그리고 멋진 집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다고. 연못에서 살다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한데”

“도대체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야?”

청개구리는 이제 참이가 답답하게 생각되었어요.

“나는 시합하지 않아. 여기 같이 있는 이끼와 작은 풀들은 나와 시합할 수 없으니까. 시합하지 않아도 이끼와 작은 풀들은 나

를 아껴줘. 이끼는 나를 폭신하게 감싸주고, 풀들은 아침에 이슬을 주지.”

“하지만, 너는 밖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없잖아!”

청개구리는 이제 참이에게 화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그래. 하지만 밖의 아름다운 것들을 너는 모두 가질 수 있니? 그 중에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나도 매일 연습했다고.”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여기로 떨어졌지.”

청개구리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지금 그 말을 왜 해?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실패했다고?”

참이는 청개구리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늘은 벌써 어두워져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보름달이 떴군요. 덕분에 우물 안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았어요.

“미안해. 너를 화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다만, 너무 위만 보고 뛰다가 아래쪽에 있는 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 못했던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고 보니 청개구리를 올려다보던 엄마의 걱정스런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늘 조심하라는 소리를 했지요.

“청개구리야, 어제는 나무에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갔더구나. 제발 부탁인데 그 위로는 올라가지 말거라. 위험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올라갈 자

신이 있다고요.”

청개구리는 참이를 쳐다보았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무 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는 생각해보지 않았어. 엄마는 늘 나보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너는 나에 대해 어떻게 아니?”

“지나가던 나비가 말해주더군. 매일 높이 올라가는 청개구리가 있다고.”

“이 좁은 곳에 있으면서, 네가 직접 보지 않아도 너는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참, 신기하다.”

“자세히 보면 너도 많은 것을 알게 된단다. 하늘을 봐. 저기 별의 움직임과 달이 변하는 것을 보고도 많은 걸 알게 되지. 내 옆에 작은 풀이 꽃을 피우면 곧 더운 여름이 온다는 뜻이지.”

참이는 청개구리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그것들은 정말 소중한 것이야. 나에게 행복과 지식을 주지.”

이제 청개구리는 참이가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좁은 곳에 있지만 청개구리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해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너 같은 개구리는 본 적이 없어.”

청개구리도 참이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보름달과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아무리 봐도 다 똑

같은 별 같은데 청개구리는 그 별도 구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 정말 대단하지요. 구분할 수 없다고 해도 청개구리도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알 수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매일 지나쳤던 집 앞에 작은 꽃들과, 작은 연못, 그리고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 알게 되었어요.

“너도 대단한 개구리야”

참이의 말에 청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누가 뭐래도 너는 남들이 가지 못한 곳까지 갔었잖아. 한 번 떨어져봤으니 앞으로는 더 조심할거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너는 참 좋은 친구야.”

“일찍 자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참이의 말에 청개구리는 의아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할 건데?”

“집에 가야지.”

“집에 간다고? 누가?”

“너 집에 안 갈 거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청개구리는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수 있어.”

참이는 청개구리가 좋아하는 모습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어요.

“네가 용기를 내면 이 우물 벽도 올라갈 수 있단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 하지만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보니 청개구리는 우물 벽을 타고 올라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낯선 곳이지만 도전 할 수 있는 높이였거든요.

“안전한 방법은 뭔데?”

“네가 할 수 있을까? 용기가 필요한데.”

청개구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만만하던 나무타기에 실패했는데 새로운 것에 성공할 자신이 없었어요.

“뭔지 몰라도, 걱정은 돼.”

“어렵지는 않아. 다만 너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야. 집에 가야 하잖아.”

청개구리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잔소리만 한다고 피해 다녔던 엄마도 보고 싶고, 같이 시합하던 친구들도 보고 싶었어요. 매일 마시던 연못물도 다시 맛보고 싶었고……. 정말 모든 것이 소중한게 느껴졌어요. 꼭 다시 찾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도전해볼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잘 생각했어.”

참이는 청개구리의 등을 토닥여주었어요.

“내일 새벽 첫답이 올면, 연못으로 두레박이 내려올 거야. 풀이네 할머니가 물을 길러 오시거든. 기운이 없으셔서 물을 많이

답지 못해. 너는 그 두레박에 올라타서 밖으로 나가면 돼. 두레박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두레박을 향해 힘차게 뛰면 된단다.”

청개구리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요.

“두레박은 천천히 움직일 거야. 두레박이 우물 밖으로 완전히 올라가면 땅으로 뛰어내려서 집을 찾아가면 되지. 할 수 있겠지?”

청개구리는 정말 기뻐서 참이를 톱석 껴안았어요.

“고마워, 친구야.”

그리고 새벽에 첫닭이 울었고, 참이의 말대로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한숨도 자지 못한 청개구리는 두레박에 정확하게 올라탔어요. 참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었고, 참이도 두레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었어요. 물을 길러 오셨던 뜰이 할머니의 발자국도 안 들릴 즈음, 어디선가 청개구리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참이에게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였어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참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가는 방법도 알면서 왜 여기 있니?”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여기 있는 것들을 사랑해. 그리고 또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참이는 이끼 위에 누웠어요. 청개구리와 함께 있느라 잠을 못
샀거든요.

오늘은 늦잠을 자려고 해요. 바람이 잔잔해서 아무도 안 올 것
같네요.



나의 아이들에게 행복하라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남과 경쟁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나의 능력으로 타인을 돕기에 인색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의도는 거창했으나 수련이 부족한 제 글에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 문원초등학교

이 용 옥

덕고개의 여름

무르팍 위에서 꼬무락거리는 소년의 손가락들. 그 손가락들 끝에 원추리 꽃빛으로 물든 손톱 열 개. 간간히 돌아보는 소년의 애달프고도 먼 시선…….

이상했다. 덕고개의 평상 바위에 앉은 병어리 아저씨 눈엔 먼 곳의 풍경이 눈앞의 일처럼 훤히 보였다. 그리고 귓속말처럼 또렷이 들렸다.

“아저씨, 저는 안 가요. 아저씨랑 있어요. 언제까지나 아저씨랑 이 덕고개에서 살 거예요.”

-본문 중에서-

덕고개의 여름

손바닥 위의 가재는 집게발을 들어 자꾸만 가위질을 했다. 물
봉숭아 여린 줄기를 끼워줬더니 단번에 꺾어 버린다.

“아저씨!”

먼저 불러놓고 경호는 아저씨 쪽으로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러
나 아저씨는 돌아선 채 빨래만 비볐다.

아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경호가 비명을 질렀다.

“아야!”

가재가 경호의 손가락을 물어버린 것이다. 손바닥을 뒤집어도
가재는 대롱대롱 손가락에 매달려 있다. 몇 번을 흔들었더니 그
제야 바닥으로 떨어졌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물까지 찔끔 나
왔다.

그래도 아저씨 모르는 채 낚은 바지만 빨고 있었다.

그렇그런 눈으로 아저씨의 등짝을 바라보던 경호가 장난스
럽게 씩 웃었다. 그리곤 돌맹이를 집어 아저씨 앞쪽 냇물에 퐁
덩 던졌다.

물을 맞은 뒤에야 돌아보던 아저씨도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장난스런 표정으로 경호를 향해 물을 끼얹었다.

잠시 물싸움이 계속 됐다. 험령한 등거리만 걸친 소년과 낚은
잠방이만 입은 아저씨. 구릿빛 옷통을 드러낸 아저씨와 달랑달랑

고추를 내놓은 발가숭이 소년이 장마로 물이 불어난 산골 냇가에 서 한바탕 물보라를 일으켰다. 까르륵대는 소년의 웃음소리만이 산골의 정적을 깼다.

그 날도 그랬다.

“도와줘요!. 소가 도망가요! 잡아 줘요!”

고삐를 풀고 달아나는 소를 찾아 울부짖을 때도 아저씨 뒤통수는 채 벼 심은 논고랑 고랑을 훑치고만 다녔다.

소는 자꾸만 멀어지는데, 도와줄 만도 한 어른이 시치미 뚝 따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이다. 야속한 맘에 경호는 아저씨를 향해 돌팔매를 했다.

눈앞에 돌멩이가 떨어져서야 아저씨 벌떡 일어나 사방을 살폈고, 소처럼 커다란 눈이 경호를 훑었다.

“소 좀 잡아줘요!”

눈물범벅이 된 경호는 소가 달아나는 방향을 가리키며 애원했다.

경호의 손길을 따라 고개를 돌리던 아저씨는 망설임 틈도 없이 소를 향해 내달렸다. 경호 역시 아저씨 뒤를 따라 숲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비탈진 돌 덩굴 사이에 발이 빠져 실랑이 하는 사이에 소도 아저씨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언덕배기 아래로 가끔 출렁거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소가 저쯤 달아나고 있나보다 하는 안타까운 맘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소를 잡아오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아저씨와 소가 똑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씨근덕거리는 모습은 둘 사이의 숨바꼭질이 꽤나 고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자유의 맛을 본 소는 고삐를

잡히고도 버르적거리며 양탈을 부렸다. 때론 엉덩짝을 철썩 두드리며, 때론 살살 달래고 어르며 소를 몰고 와, 경호 손에 고삐를 쥐어주고도 아저씨 아무 말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감격어린 인사말과 함께 꾸벅 허리를 접는 경호의 눈에 피에 젖은 아저씨의 정강이가 보였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혀 별견 속살을 반 뺨 가량이나 드러낸 다리는 흉측스러웠다.

“다리에 피나요!”

놀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러나 경호의 말과는 상관없이 아저씨 경호의 등허리를 토닥이더니 어서 가라는 듯 길을 가리켰다.

“다리에 피 난다니까요!”

경호는 아저씨의 정강이를 가리키며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다. 그제야 아저씨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더니 핏줄기를 손으로 쓱쓱 문질렀다.

그러던 아저씨가 눈을 희번덕이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쉼 목소리로 킁킁거리는 듯한, 어찌면 소 같은 동물이 소리 죽여 우는 듯한. 경호 다리의 굵은 자국을 보는 눈이 자기의 찢어진 다리를 발견했을 때보다 더 놀란 모습이었다.

그제야 경호는 알아차렸다.

‘병어리구나. 사람들이 얘기하던 바로 그 덕고개 병어리구나.’

병어리 아저씨는 경호의 손에서 고삐를 가져다 다시 나무에 댔다. 그리곤 경호 손을 이끌고 덕고개의 위쪽을 향했다. 왜 끌려가는지 영문을 모르면서도 아저씨의 더운 손이 무섭지 않았다.

아저씨는 경호를 옷쌈으로 데리고 갔다. 한여름에도 얼음을 띄

운 듯이 차가운 물. 옷이 올라 진물이 흘러도 이 샘에서 몇 번 목욕을 하고 나면, 사나흘 후 꾸덕꾸덕 진물이 멎는다는 그 옷샘.

아저씨 그 물을 한 흠, 한 흠 떠서 경호의 상처 난 다리를 씻어 주었다. 물이 닿은 상처는 아리고도 따끔 거렸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픔 때문에 나는 눈물이 아니었다. 자기의 검정 고무신에 흥건히 고인 핏물을 씻어낼 생각도 않고 경호의 굵은 다리에만 물을 끼얹는 아저씨 땀에 나는 눈물이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렸던 날, 아버지의 손 느낌처럼 꺾끄러운 듯 정겨운 손길—

경호의 눈물방울이 아저씨 정수리로 또르르 굴러 내렸다.

아저씨 말을 듣지도 하지 못하는 병어리였다. 동네와는 오리 가랑 떨어진 덕고개 마루에 오막살이를 짓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장가도 못간 노총각이라고 했다.

그 날 이후, 덕고개를 오르는 경호의 발걸음이 경쾌해졌다. 사실 이전엔 덕고개로 소풀 뜯기러 가기는 정말 싫은 일이었다. 우선 덕고개 까지 소를 몰고 가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논두렁, 밭두렁마다 심겨진 콩이며 곡식들을 보고 늘름거리는 소의 입질을 막는 일은 어린 경호에게 힘에 부쳤다. 더욱이 흠뻑도 아니고 지게까지 진 채.

그러나 경호의 이런 사정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다. 큰아버지는 동네 주변의 풀은 소독약에 오염되어 새끼 뺨 암소에게 좋지 않으니 덕고개의 산 풀을 먹여야 한다고 했다. 내년엔 대학 갈 사촌형의 학비가 될 송아지이니 특별히 잘 보살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이제 경호의 고달픔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덕고개에 다다르면 우선 아저씨를 찾았다. 하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며칠 동안은 아저씨를 생각하며 덕고개에 와서도 정작 다가가진 못하고 먼발치에서 바라만 봤었다. 그러다 억수같은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어느 날, 산밭을 일구던 아저씨는 경호가 피한 떡갈나무 아래로 들어왔고, 경호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때까지도 다친 정강이엔 형겅을 동여맨 채.

비가 그친 다음 아저씨 밭모퉁이 풀숲의 산딸기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산딸기나무 가지 사이에 뱀의 침이 허영게 매달려 있는데, 산딸기나무 밑엔 울무기나 독사도 많다는데 아저씨 무섭지도 않나보다. 빨갛게 부풀어 오른 산딸기를 밀짚모자에 그득하게 찼다. 그리곤 모자 채 경호에게 건네주면서 먹으라는 시늉을 했다. 명기적거리며 경호 손에 밀짚모자를 쥐어주고 아저씨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머뭇거리던 경호가 산딸기를 한 움큼 집어 아저씨께 내밀었다. 그러자 산딸기의 원래 주인이 경호이기라도 했다는 듯 아저씨 도리어 황송한 표정으로 산딸기를 받았다. 그리고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는 입에 산딸기를 털어 넣었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경호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저씨도 그런 경호를 보며 끼익끼익 기이한 소리를 냈다. 아저씨의 웃는 모습이 꼭 하회탈 같았다.

언제부턴가 덕고개의 향기가 달라졌다. 어질어질 현기증이 날 것만 같은 냄새. 아저씨네 오막살이집 화단에 핀 백합꽃 향기였다. 향기가 진해질수록 아저씨 집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었고, 그

럴수록 경호의 마음은 설레었다.

달큰한 백합 향에 구수한 듯, 매캐한 듯한 냄새. 그것은 보리 꺼력을 태우는 모닥불 냄새였다. 며칠 째 아저씨 금빛 보리를 베고, 널고, 털고, 말리고. 아저씨네 작은 마당은 보릿짚, 보리나락, 보리 꺼력으로 온통 금빛이었다.

텔레파시라도 통한 걸까. 아저씨가 돌아서 웃으며 어서 오란 손짓을 했다.

모닥불 가엔 방금 불에서 나온 둥글둥글 시커먼 덩어리가 조랑조랑 흩어져 있었다. 아저씨 그 중 한 개를 집어 껍질을 벗겼다. 푸근푸근 뿌영게 속살을 드러낸 햇감자. 아저씨 먹음직스런 그 감자를 경호에게 건넸다.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 경호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저씨는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갔다. 그 사이 경호도 호호 불며 아저씨 드릴 감자를 깎았다.

감나무 아래 평상으로 물을 떠다놓고 아저씨 다시 불가로 왔다. 그리곤 삼태기에 구운 감자를 담고 싸리비로 재를 쓸어 모았다. 그 사이 경호는 손발 잘 맞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삼태기의 감자를 익숙하게 평상으로 옮겼다. 싸리비를 헛간에 세우고 아저씨도 평상으로 와 앉았다.

아저씨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한 손은 얼굴의 땀 닦는 시늉을 했다. 그러자 경호는

“덥지요? 텔레비에서 내일 비 온대요.”

라고 말하며 커다란 네모를 그리고 제 귀를 가리켰다가, 비오는 시늉을 했다. 그러자 아저씨가 멍석 위의 보리, 널어 놓, 보리 짚을 가리키며 쓸어 담는 시늉을 하고 헛간을 가리켰다. 그러자 경호가

“저녁 때 치우면 돼요. 비는 낼 온대요.”

라고 말하며 서쪽 하늘을 가리키고 모아 옮기는 시늉을 했다. 아저씨 고개를 끄덕이곤 감자 한 알을 집었다가 얼른 놓고 물그릇을 들어 경호에게 주었다. 어느새 뜨거운 감자 한 입을 베어 문 경호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아저씨 천천히 먹으라는 시늉을 하며 경호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의 마주보는 미소가 백합꽃 향기와 보리짚불 냄새에 얹혀 다정스레 덕고개를 감싸고 있었다.

꿀지계를 지고 소를 몰기는 쉽지 않았다. 저녁 어스름이 다 되어 덕고개를 출발한 경호의 발길은 조급하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었고, 성황당 근처를 지날 땐 뒷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무섭기도 했다. 그러나 아저씨 곁을 떠날 땐 늘 머뭇거리게 된다.

큰집 식구들은 경호의 늦은 귀가를 미심쩍어 하면서도, 넉넉히 부른 소의 배와 꼬마 지계에 가득 얹힌 소꼴을 보면서 못마땅한 마음을 누르는 눈치였다.

사실 지계 위의 소꼴도 아저씨가 베어 준 것이었다. 아저씨 대충 낫을 휘두르는 듯해도 경호가 한두 시간 용을 써야 하는 양의 풀을 금세 경호 지계에 얹어주었다.

식구들은 평상에서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 애호박과 감자를 넣고 끓인 듯한 수제비 냄새가 구수했다.

지계를 받치고, 외양간에 소를 매고, 어정쩡하게 마당에 서있는 경호에게 사춘 형이 소리쳤다.

“야, 물 가져와.”

경호는 얼른 부엌으로 가 물 한 사발을 떠서 형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상머리에 끼어 앉으려는 순간

“야, 모깃불 좀 꺼라. 오늘은 왜 이렇게 모기가 많냐?”

큰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모기향 켜는데요.”

경호는 잣아드는 소리로 간신히 중얼 거렸다.

“뭘 잔말이 그리 많어? 모깃불 피랬잖아!”

큰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졌다. 금세 주눅이 든 경호는 잔솔가지를 꺾어 불을 피우고, 지게 위의 풀 중 다복쑥만을 골라 불을 덮었다. 쑥 앞에 깔려 제대로 타지 못하는 불이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다.

그 사이 저녁상은 모두 치워지고 반 사발 남짓한 수제비와 오이지만 평상 위에 놓여 있었다. 경호는 말없이 그 것을 먹고 수돗가에서 그릇을 씻어 부엌으로 가져갔다.

아니나 다를까. 큰어머니는 잔소리 한 마디를 덧붙였다.

“니기, 어떤 사람들은 형제 복 있어 가만히 있어도 옷이며 먹매며 보내온다는 데, 지지리 복도 없는 난 맥여줘 재워줘. 으이그, 무슨 덕을 보자고 저걸 데리고 이 고생을 하는 지 원. 찢찢!”

보지 않고도 큰어머니의 가재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섯 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경호가 큰댁에 맡겨진 지 또 다섯 해가 넘어간다. 두어 달에 한 번 씩이라도 아버지가 찾아오실 땐 큰 집 식구들의 홀대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버지 얼굴을 못 본 지 이태가 넘었고, 그 사이 경호는 꼴머슴에 동네 천덕꾸러기가 다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이젠 큰어머니의 가시 돋친 푸념에도 경호는 옛날

처럼 쉼지 않았다. 서글플 때마다 생각나던 아버지의 흐릿한 얼굴 대신 아저씨의 소리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는 골방의 땀 내 나는 이불을 덮고도 아저씨의 포근한 미소와 함께 잠들 수 있었다.

칠월이었다.

저녁이 되자 큰어머니는 가마솥 뚜껑을 벽돌 사이에 걸어 불을 피우고 들기름을 둘러 밀전병을 부쳤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자 목욕재계하고 돛자리와 술, 북어와 밀전병 등을 챙겨들고 텃밭으로 향했다. 참외 줄기가 삭아 없어진 빈터에 돛자리를 펴고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다. 그리곤 절하고, 중얼거리며 빌고 또 절하고 빌기를 반복했다. 노릇하게 익은 참외를 첫물 따낼 때 잘 팔려 수입이 많기를 바라며 지내는 천신제였다.

제사 후엔 사촌형을 불러 몇 개의 참외를 따도록 했고, 음식과 함께 참외 맛보기를 하였다. 큰어머니는 경호에게도 밀전병과 참외 한 쪽을 나누어 주었다. 제대로 익은 첫물 참외는 꿀같이 달았다.

‘아저씨한테도 참외 맛을 보여 드리면 좋을텐데……’

참외 한 쪽을 아이스크림 빨 듯 아껴 먹으며 경호는 마음속으로 아저씨 생각을 했다. 하지만 경호가 맛볼 수 있는 참외는 단 한 쪽 뿐이었다.

경호는 슬그머니 밀전병을 들고 골방으로 갔다. 그리고 다 쓴 공책 한 장을 찢어 밀전병을 싸고 강낭콩 소쿠리 뒤에 감춰두었다. 내일 학교 끝나고 소 풀 뜯기러 가서 아저씨께 드릴 요량이었다.

다음 날 경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를 끌고 덕고개로 향했다. 편편한 둔덕에 소고삐를 매곤 아저씨네 논다랑이를 향해 내달렸다. 돌아서서 일을 하는 아저씨께 언제나처럼 장난스레 돌맹이 한 개를 던졌다. 솟아오르는 물방울을 맞고서야 돌아보는 아저씨 눈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 눈독으로 나온 아저씨께 자랑스레 밀전병을 내밀었다.

아저씨 경호를 뻔히 쳐다보다가 빙그레 웃고는 밀전병을 받았다. 밀전병을 입에 대려던 아저씨가 쿵쿵 냄새를 맡았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아저씨가 다시 밀전병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곤 경호를 한 번 쳐다보고 씨익 웃더니 밀전병을 맛있게 먹었다. 한 조각 떼어줄 만도 한데……. 아저씨가 참 이상했다. 다른 때 같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경호에게 양보하던 아저씨가 오늘은 혼자만 먹는 욕심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마도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아저씨를 욕심쟁이로 만들었나보다. 좀 서운한 생각도 들었지만 맛있게 드시는 아저씨를 보면서 경호 배도 불러지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경호가 덕고개에 갔을 때, 논에서도 밭에서도 아저씨를 찾을 수 없었다. 아저씨 오두막의 어두컴컴한 방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잠깐 사이에도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간간이 토악질도 해대고, 무쇠같이 단단하던 아저씨가 금방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모습에 무서운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경호는 물도 떠다 드리고, 수건에 찬물을 적서 아저씨 이마에 얹어드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아저씨가 욕심쟁이라서 벌을 내렸다면 나는 괜찮으니 용

서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밀전병이 쉰 것을 알면서도 경호의 마음을 헤아려 억지로 드신
아저씨 맘을 어린 경호가 알 턱이 없었다.

덕고개를 향하는 경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신이나지 않는
지 모를 일이다.

어제 큰아버지가 얘기하셨다.

“넌 네 애비가 너 데리러 온댄다. 학교 가서 선생님께 얘기해
라. 이제 애비 따라 서울 가 산다고.”

“진짜예요?”

커다래진 눈으로 경호가 물었다.

“느이 아버지가 새엄마 얻어 네 동생 낳았댄다. 소보개 보단 애
보개가 낫겠다. 흥! 인제 일 할 만하게 키워 뵈더니 톱 따가졌다
이거지? 얹심맞은 인사 같으니…….”

큰어머니의 콧방귀와 가시 돋친 말투엔 심술이 잔뜩 서려있
었다.

그러나 큰어머니의 말이 경호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 밑
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새도록 아저씨 얼
굴만 떠오르고 잠도 오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온종일 공중에 떠
있는 심정으로 건성 하루를 보냈다.

경호에게 아버지는 희망이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리 밑
고아’ ‘거지새끼’라고 놀리며, 때리고 괴롭혀도 마음속에 아버지
란 희망을 지니고 있었기에 참아낼 수 있었다.

장마가 한창이던 여름 날, 아이들에게 끌려가 상엿집에 갇힌 적이 있었다. 녀석들은 경호를 상엿집에 밀어 넣은 다음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달아나버렸다. 아무리 흔들어도, 울부짖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학교 오가는 길목 저만큼의 상엿집은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웠는데, 그 곳에 혼자 갇혔다는 것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갑자기 날씨마저 캄캄해지더니 급기야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꾸루룩 거렸다.

경호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문을 박차고 울부짖었다. 그러기를 얼마 후 상여 집 문이 열렸고, 경호는 그 길로 혼절해버리고 말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것 같기도 하다. 경호가 깨어났을 때, 경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는 이웃 마을의 아저씨였지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아버지였고, 설령 아버지가 아니었대도 그는 아버지가 보내서 온 사람이었을 거라고 굳게 믿는 경호였다. 그런 아버지가 드디어 데리러 오신다는데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이 경호에겐 큰 혼란이었고,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었다.

출랑거리는 아이들처럼 배때기를 드러내고 깔깔거리던 콩잎들도 오늘은 경호 마음을 아는지 그저 고즈넉하게 서 있었다. 저 만치 산밭에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경호는 멈칫거리며 다가가지 못했다.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소리 없이 손짓 발짓만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어려움보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뜻을 아저씨가 이해하게 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다.

머뭇거리던 경호는 발길을 돌려 평상 바위를 향했다. 아저씨를 알기 이전엔 경호의 보금자리였던 그 바위- 바위 주변은 초록의 융단에 던져진 주홍 구슬처럼 점점이 원추리 꽃이 만발해

있었다.

이전에 경호는 밤하늘의 별을 헤듯 원추리 꽃을 세어보곤 했었다. 밀대명석에 누워 별을 세며 먼 나라에 계실 엄마를 그리워했듯, 덕고개에선 원추리꽃을 세며 아버지를 그리곤 했었다. 이젠 다른 곳에서 별을 세면서 원추리꽃을 생각하고, 그 원추리꽃과 함께 아저씨를 그리워하겠지. 경호의 눈에선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경호의 눈물은 바위이기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다.

한지에 먹물이 번지듯 눈물은 바위이기 위로 번져갔다. 눈물 너머로 한 참을 바라보던 경호는 작은 돌을 주워 젖은 바위이끼를 긁었다. 무심코 긁던 경호는 손길을 멈추고 자기 손을 내려다 봤다. 봉숭아 꽃물처럼 발그레한 손톱이 초승달만큼 남아 있었다.

또 다시 눈물이 팡 돌았다. 바위이끼로 손톱에 물을 들여 준 사람도 아저씨였다. 물들인 손톱 때문에 계집아이라고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뽀났다.’고 큰어머니께 된통 야단을 맞은 일도 있었다. 그래서 손톱이 빨리 길어나길 바랬었는데…….

잠시 생각에 잠겼던 경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갈잎 몇 장을 뜯었다. 끈 같이 길쭉한 지랑 풀줄기도 몇 개를 잘랐다. 그리고 손톱에 눈물로 간 바위 이끼를 엮었다. 갈잎으로 덮고, 지랑 풀로 묶고……. 무슨 경건한 의식을 치루 듯 경호는 아저씨가 해줬던 그대로를 재연해냈다.

바위에 누워 물들기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었나보다. 눈을 떴을 땐 어느새 어둠이 내려 있었다.

“으악!”

일어나던 경호는 비명 같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희끄무레한 물체가 어둠이 내린 평상바위 한편에 웅숭그리고 있는 것이었다. 경호는 자기도 모르게 반대쪽으로 물러나며 황급히 외쳤다.

“누구요?”

물체는 움직임도 소리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달아나라다 말고 경호는 혹시나 하는 맘으로 조심스럽게 돌아다보았다. 웅크린 모습이 낯설지 않은 까닭이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다가섰다. 경호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섰던 것일까? 그는 다름 아닌 아저씨였다.

경호는 와락 아저씨의 등허리로 몸을 던졌다. 움찔하던 아저씨 역시 반갑게 경호를 받아주었다. 경호는 아저씨의 목을 옥죄며 아저씨의 넓은 등에 얼굴을 파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엔 소리 없던 눈물이 온 몸을 뒤흔드는 흐느낌으로 변했고, 급기야는 끼이끼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아저씨의 등거리를 적시고, 흐느낌이 아저씨를 흔들었다. 아저씨 경호를 업고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얼렀다. 느껴지는 체온만으로도 경호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겠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아저씨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소리는 벽에 갇혔고, 표정과 손짓과 몸짓은 어둠에 묶여 버렸다. 경호는 시간도 그냥 이대로 멈춰 버리면 좋겠단 생각을 했다. 지금 쯤 큰집엔 아버지가 와 계실 지도 모르는데…….

울음이 진정되자 아저씨 경호를 등에 업고 마을 쪽으로 길을 잡았다. 험한 산길을 지나고, 밭둑길, 논둑길을 지나도 아저씨 경호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했다. 경호 역시 그 긴 시간을 업혀 있으

면서도 내려야하겠단 생각이 들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저씨의 등판은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듯이.

마을의 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에 와서야 아저씨 경호를 내려 놓았다. 그리고 몇 달 전, 달아났던 소를 잡아다 주고, 어서 가라고 손짓하던 그 때처럼 그렇게 손짓만 했다. 쭈뼛거리며, 돌아다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는 경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저씨 그렇게 거기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미루나무 앞에 반사되어 유리알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성냥갑만한 버스는 잠시 멈춰 개미만한 물체 둘을 싣고 떠났다.

무심한 듯, 무료한 듯 창밖을 내다보는 낯선 어른 뒤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있는 소년.

무르팍 위에서 꼬무락거리는 소년의 손가락들. 그 손가락들 끝에 원추리 꽃빛으로 물든 손톱 열 개. 간간히 돌아보는 소년의 애달프고도 먼 시선…….

이상했다. 덕고개의 평상 바위에 앉은 병어리 아저씨 눈엔 먼 곳의 풍경이 눈앞의 일처럼 훤히 보였다. 그리고 귓속말처럼 또렷이 들렸다.

“아저씨, 저는 안 가요. 아저씨랑 있어요. 언제까지나 아저씨랑 이 덕고개에서 살 거예요.”

검고 주름진 아저씨 얼굴에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자리를 떠날 줄 모르는 그 기이한 얼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몇 번이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이슬 걷힌 덕고개에서는 고추잠자리 떼가 그 고운 날개를 비비며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내 마음의 터 고향 마을을 배경으로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이야기 한 도막을 엮었습니다.
 혼자만 읽고 또 읽던 그 글을 옹기 내어 세상 속으로 보냈더니 메아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격려로 알고 좋은 글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교도소

김진우

아빠가 웃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뚝뚝해진 입에 획이가 작은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잠시 동안 멈춰버립니다. 아빠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 화상병동 1002호실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화상병동에 울려 퍼집니다.

“하하하! 그랬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야. 하하하”

-본문 중에서-



아빠가 웃었다

“딸랑! 딸랑! 딸랑!!!”

거칠게 가게 문을 열어 한 남자아이가 들어옵니다. 작은 키에 단단하게 생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땅이 꺼져라 거친 숨을 쉰썩거리며 가게 문 앞에 우두커니 서있습니다. 손님을 받고 있던 엄마가 혁이를 한번 쳐다보고 소파로 가 앉아 있으라고 눈치를 줍니다. 평소 같으면 밝은 얼굴로 “엄마!” 라며 큰 목소리로 엄마에게 안겼을 혁이의 낯선 행동에 엄마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음을 느끼며 짐짓 걱정이 됩니다.

“거 녀석 야무지게도 생겼네. 이름이 뭐야? 몇 살이니?”

하지만, 혁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소파로 가더니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가방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줌마 여기 얼마예요?”

들은 채도 않는 아이의 태도에 손님은 껌연쩍은 지 얼른 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손님이 가게 문을 나서자 엄마는 혁이 옆으로 다가가 혁이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우리 아들, 아무리 기분이 좋지 않아도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로 엄마랑 약속하지 않았었나?”

엄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혁이의 눈망울은 금세 울기라도 할 듯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혁이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걸까?”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 무섭게 혁이가 느닷없는 말을 합니다.

“엄마! 내 별명 싫어!”

어젯밤 혁이는 신나서 숙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내일 이야기 발표 주제가 ‘자기 별명 소개하기’라면서 자신의 별명을 친구들이 들으면 다들 부러워할 거라고 신나했었습니다. 스케치북 한가득 도깨비 마을을 그리고는 형형색색 멋진 도깨비들도 그렸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도깨비들 중에 누가 혁이게?”

엄마는 망설임도 없이 가장 크고 알록달록한 도깨비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이 도깨비가 제일 멋있는데? 우리 아들처럼!”

“우와!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한 번에 나를 찾을 수 있었지 역시 우리 엄마야. 헤헤.”

“근데 엄마, 혹시 도깨비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나 말고 또 있을까?”

“음…….아마도 없을걸.”

엄마가 방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혁이는 깜짝 놀랄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말이지 기대와 설렘에 가득 차 보였었습니다.

그랬던 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별명이 싫다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혁이 도깨비라는 별명 좋아하잖아.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혁이를 바라보며 재차 물어봅니다.

“몰라! 나 오늘부터 도깨비 싫어. 나도 멋진 별명 다시 만들어 줘! 으앙~”

터질 듯 터질 듯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혁이를 가슴에 안고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고 다독여줍니다.

“우리 혁이 어제 친구들에게 별명소개하기 준비한다고 멋있게 도깨비도 그려 갔었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에게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

얼마 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울먹거리기만 하던 혁이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혁이 발표 잘했어. 선생님도 잘했다고 칭찬 했고……. 그런데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막 웃었어. 내가 도깨비 나라에서 와서 별명이 도깨비라고 하니까. 진짜 도깨비가 어디 있냐? 면서 진짜면 요술부려 보라고……. 나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말이야!”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혁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구나. 친구들이 정말 우리 혁이에게 나쁜 말을 했구나.”

엄마는 혁이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고는 혁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하여진 듯 혁이가 고개를 들어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도깨비나라에서 왔지? 근데 왜 친구들은 도깨비 같은 거 없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글쎄……. 하지만, 그래도 도깨비는 아빠가 혁이에게 지어준

별명이잖아. 도깨비라는 별명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마 혁이 한 명 뿐일걸. 친구들이 뭐라고 하여도 혁이가 조금만 더 당당하였으면 엄마는 좋겠구나.”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하자 혁이가 입을 삐죽거립니다.

“혁이는 아빠 무서워…….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리고……. 혁이도 안 보려 하고, 화난 얼굴로 웃지도 않아. 아빠는 혁이를 싫어해…….”

“……”

혁이의 말에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엄마가 혁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가 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무서운 얼굴을 하는 건 혁이가 싫어서가 아니란다…….”

엄마는 언젠가는 아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아직은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끔직한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지금의 엄마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마치 화난 사람처럼 항상 무표정한 남편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그런 아이를 이해 해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이번 주에도 아빠 보러 병원 갈 거야?”

“어?! 어 그럼 가야지. 이번엔 혁이도 같이 갈까?”

엄마가 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합니다.

조심스럽게 엄마의 눈치를 살피던 혁이가 들릴 듯 말 듯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혁이는……. 그냥 이모네 집에 갈래.”

혁이는 엄마가 함께 아빠 병원에 가는 것을 항상 원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이에게 아빠를 만나는 것은 정말 무섭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기분이 좀 풀린 거 같은데 손 씻고 오렴. 엄마가 간식 줄께”

손을 씻기 위해 엄마의 품에서 떨어진 혁이가 화장실에 가다, 서다하며 엄마의 얼굴을 살핍니다. 아빠 무섭다고 한 말이 혁이 마음에 자꾸만 걸립니다. 지난번처럼 혁이가 잠들면 혁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혼자 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 아빠 무섭다고 한 말 미안해. 그리고 아빠가 지어준 별명 그냥 할께. 다음에 친구들이 놀리면 도깨비 방망이로 때려 줄 거야!”

엄마는 그런 혁이의 손을 끌어당겨 사랑스럽게 안아줍니다.

“고마워 아들, 우리 도깨비.”

그날 밤.

“혁아! 우리 자러가자”

잠들기 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혁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흑부리영감과 도깨비’를 들고 엄마에게 옵니다.

“혁이야 오늘은 이 책 말고 엄마가 다른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어때?”

엄마가 ‘흑부리영감과 도깨비’를 너무 많이 읽어서 지겨우신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혁이는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싫어, 오늘도 욕심쟁이 흑부리영감 읽을 거야. 혁이는 욕심

쟁이 혼내주는 도깨비가 제일 좋아. 나도 이다음에 아빠처럼 크면 욕심 부리고,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 모두 혼내 줄 거야. 혹 부리 영감보다 더 큰 혹을 열 개나 얼굴에 붙여 줄 거야. 도깨비라고 놀린 친구들 얼굴에도 혹 붙여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읽어줘 제발~!”

잠시 고민을 하던 엄마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혁이에게 다른 제안을 해봅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다른 도깨비 이야기 말고, 우리 혁이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줄까 싶은데 어때?”

“혁이 도깨비!?”

혁이가 신이 난 듯 엄마에게 되묻습니다.

“그래, 우리 혁이 도깨비, 혁이 도깨비의 이야기!”

“와 신난다. 엄마 나 너무 궁금해. 얼른 빨리 들려줘.”

신이 난 혁이가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 이야기 듣기를 재촉합니다. 몸을 이리 저리 들썩거리며 만면에 기대에 가득 찬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입니다.

“도깨비 아저씨. 그전에 방 불은 어떻게 하지요?”

“네! 엄마”

씩씩하게 대답한 혁이가 벌떡 일어나 방의 불을 끄고는 잼싸게 엄마 품에 파고듭니다. 따뜻한 엄마의 팔베개를 베며 품에 파고들자 엄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혁이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에게 아직 아기가 없었을 때 아빠는 오래된 책을 공부하는 일을 하셨었어. 전국 방방곳곳을 여행하면서 오래된 책이며 물건을 찾아다니는 일도 했지.

“맞아. 나도 봤어. 아빠 옛날 사진에 박물관에서 일한 거 혁이도 봐서 알아. 아빠 정말 잘생기고 멋지셨는데…….그래서 엄마?”

“아빠가 수집하는 책과 물건들은 아주 진귀한 보물들이었다.”

“와~ 보물…….아빠는 보물선도 타고 다녔겠다. ㅋㅋ.”

“신기하고 희귀한 보물이 있다는 곳이라면 아빠는 어느 곳이든 찾아 다니셨지. 그중에 어떤 곳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했지만, 아빠는 언제나 그랬듯 용기 있고 두려움이 없는 분이셨단다. 우리 혁이처럼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오래된 책을 한 권 구했는데 아빠는 한동안 그 책을 연구하는 일에 빠져 있었지. 그러더니 어느 날 먼 남쪽 지방에 여행을 다녀오시겠다고 집을 나서셨단다. 한 달 아니면 한 달반쯤 지났을까? 아빠가 돌아오셨지.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아빠가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그러더구나. 도깨비들의 마을을 다녀왔다고 말이지.”

“엥!?정말!?와 대단해!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도깨비 마을을 어떻게 찾은 거야?”

“처음엔 책에 쓰여 있는 대로 위치를 찾았지만 한동안은 도깨비 마을을 찾을 수가 없었데. 겨우 찾아낸 도깨비 마을이 있다는 곳은 큰 호수만 덩그러니 놓인 곳이었다고 하더구나. 혹시 물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맨 몸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도 했다고 했어. 책을 보고 또 보고 한 끝에 아빠는 이상한 글귀 하나를 발견했단다. ‘달님에게 감추어진 곳에는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는 곳이 있다’ 무슨 말일까? 아빠는 밤마다 그 호수 근처를 맴돌며 그 글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보름달이 한 가

득 하늘을 채우던 날 분명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는데도 작은 호수에는 달님이 반쪽만 있었는데. 남은 반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남은 반쪽이 드리워진 수평선 너머 숲 너머로 무언가 희미하게 보이더라. 아빠의 심장은 쿵쿵 쿵쿵 요동치기 시작했고, 아빠는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곳을 향해 미칠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자신이 호수 위를 달린 사실을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야 알았다고 했어. 마을 입구에 하늘에 닿을 듯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두 개의 정승이 시퍼런 두 눈을 부릅뜨고 아빠를 쳐다보았단다. 마을에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져 있었어. 도깨비들은 마치 폭죽이 터지듯 온갖形形色색의 불빛이 되어 하늘을 수놓으며 춤과 노래를 하고 있었지. 으리으리한 집들과 생전 처음 보는 온갖 과일나무, 금과 은으로 지어진 길과 곳곳에 놓인 술과 고기…….”

“우와! 나도 가보고 싶다”

엄마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빠는 가방에서 금비단으로 정성껏 둘러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 작은 목각 인형이었는데 어린 아이처럼 보이는 도깨비 모양을 하고 있었지. 양손으로 작은 상자를 잡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도토리처럼 생긴 작은 열매가 들어 있더라. 사내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신비한 열매라나?”

“근데 도깨비나라에 보물이 많았을 텐데 아빠는 왜 그런 시시한 것만 가져오셨데?”

“그러게 엄마도 아빠의 말을 처음부터 믿을 수 가 없었단다.

이 사람이 혹시 이상하게 된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 하지만, 아빠의 진진한 말과 행동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기도 했단다. 아빠의 말에 의하면 마을입구 커다란 돌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이곳의 보물은 절대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만약 보물을 마을 밖으로 가져가면 도깨비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라고 말이야.”

저주라는 말이 나오자 혁이가 무서운 듯 엄마의 품에 더욱 바싹 달라붙어 귀를 기울이며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청소를 하다 말고, 목각인형이 들고 있는 상자안의 열매를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먹었단다. 우습지?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그해 엄마 뱃속에 아가가 생긴 거지. 실은 엄마가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아가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셨거든. 엄마와 아빠는 한동안 너무 행복했단다. 그 이듬해 혁이를 낳았고……. 아빠는 혁이가 그 열매 덕분에 생겼다고 굳게 믿으며 엄마 뱃속에서부터 도깨비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혁이가 2살 되던 해에 도깨비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혁이와 엄마에게는 요술을 부려 깊은 잠에 빠뜨린 후 아빠에게 ‘혁이는 자신들의 열매로 만들어진 아이니 데려가겠다.’라고 했단다. 아빠는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지. 그리고 ‘혁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마을의 규칙을 어긴 것은 나의 잘못이니 나에게만 벌을 주세요.’라고 말하였지. 아빠의 진심이 전달되어서였을까? 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도깨비들 중 하나가 빨간 약과 파란 약들 중의 하나를 골라 먹으라고 하였대. 잠시 머뭇거리던 아빠는 빨간약을 골라 마셨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단다. 정신이 혼미해

지는 가운데 도깨비들의 말이 아련히 들리더라.

‘우리 스스로 규칙을 어긴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아이에 대한 너의 간절함이 너와 네 가족을 살렸다. 네가 선택한 약은 ‘슬프다’라는 약이다. 사람들은 너를 보며 슬픔을 느낄 것이고 너를 피할 것이다. 너 스스로도 항상 슬플 것이며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약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 위에 놓고 가마. 너는 그 사람의 입술을 달라고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온전히 너를 선택해야 너의 저주가 풀릴 것이…….’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얼굴과 몸이 지금의 아빠처럼 되고 말았고…….

“그러면 아빠는 우리를 지켜주려고 도깨비의 저주를 받은 거야? 아빠……. 너무 불쌍해.”

혁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가 불쌍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지 모르게 가슴이 아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엄마. 도깨비들이 입술에 놓고 간다는 게 뭐야?”

“응. ‘기쁘다’라는 약이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입맞춤을 받아야만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관다.”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뽀뽀하면 되잖아. 엄마 안했어?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아니야?”

“아빠는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같더구나…….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이젠 정말 자야겠지? 오늘밤도 도깨비들이 우리 아들 데려가지 못하도록 엄마가 꼭 끌어안고 자야겠다. 사랑해 아들…….”

“응, 나도 사랑해.”

혁이는 쉽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저주를 풀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분명히 엄마 같은데 왜 엄마는 아빠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뽀뽀를 하지 않은 걸까?

“엄마! 지난번에 산 옷 어디 있어?”

“서랍 안에 잘 살펴봐.”

오늘은 혁이가 엄마와 함께 아빠 병원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엄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바지런을 떨니다.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멋진 옷을 꺼내 입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 손질도 스스로 합니다. 양손을 높이 올려 기지개도 펴보고 까치발도 크게 띄어봅니다. 거울을 보며 없는 알통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큰 모습을 오래 만에 보시는 거니까 정말 좋아하시겠지. 내가 엄마 잘 지켜주고 있다고 자랑도 할 거야. 엄마도 혁이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해 줘야 해!”

1002호 병실 문 앞.

혁이는 용기를 내어 아빠의 병실 앞까지 왔지만 선뜻 문을 열지 못합니다. 병실까지 오는 동안 입이 없거나, 코가 없거나 온몸이 비틀어진 사람들을 여럿 보았기 때문입니다. 잊었던 아빠의 무서운 얼굴이 자꾸 생각납니다. 잠시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잡고는 놓지 못합니다. 간밤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여전히 혁이의 마음에 아빠는 무서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랫입술을 질끈 문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혁이를 보며 엄마가 걱정스

레 말을 건넵니다.

“혁아, 힘들면 엄마 혼자 병실에 들어갔다 올까?”

“.....”

“혁아?”

“아니야, 엄마.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혁이의 눈동자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아래로 내려갑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창문 바로 옆 침대 위에 앉은 채 창밖을 보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이 이른 봄의 햇살에 가려 희미하게 보입니다. 혁이가 엄마의 손을 꼭 부여잡은 채 아빠를 향해 천천히 한걸음씩 다가갑니다. 봄햇살이 너무나도 눈부십니다.

“여보 저 왔어요. 놀라지 마요. 혁이도 왔어요.”

아빠가 서서히 고개를 돌립니다. 햇살 너머로 아빠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빠가 오해 할까봐 인상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햇살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순간 당황한 얼굴의 아빠가 얼른 고개를 돌리며 말을 합니다.

“혁.....이.....는 뭐하러 데려와. 아이 놀래면 어찌려고 그래?”

혁이는 깊게 심호흡을 해봅니다. 그 사이 엄마가 혁이를 잡았던 손을 살며시 놓더니 아빠에게 먼저 다가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와! 이제 됐구나! 아빠가 도깨비 저주에서 풀려날 거야.....’
혁이는 고개는 숙인 채로 힐끗 아빠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얼굴은 여전히 ‘슬프다’병에 걸린 듯 슬픈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다. 혁이가 엄마를 슬프게 바라보는 아빠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다가갑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배꼽 손을 하고 허리 굽혀 인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애써 혁이의 눈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여보, 우리 혁이 많이 컸지요. 우리 혁이 덕분에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혁이가 얼마나 엄마를 잘 지켜주는지…….”

그때였습니다. 쭈뼛, 쭈뼛거리기만 하던 혁이가 갑자기 아빠를 향해 달려갑니다. 당황해하는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아이가 아빠를 향해 말합니다.

“아빠 저 안아 주세요”

아빠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격려여린 표정을 보고는 양팔을 뻗어 조심스럽게 혁이를 들어 올려 봅니다. 아빠가 고개를 돌린 채 슬그머니 아들의 두 눈을 바라봅니다.

혁이는 지금까지 아빠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섭던 아빠의 얼굴이, 가까이서 보니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빠의 일그러진 두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느껴집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뻗어버린 입에 혁이가 작은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잠시 동안 멈춰버립니다. 아빠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 화상병동 1002호실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빠의 호

탕한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화상병동에 울려 퍼집니다.

“하하하! 그랬구나. 역시 우리 아들이야. 하하하”

여전히 혁이는 자기가 2살 되던 해에 아빠가 자신을 구하려다 큰 화상을 입은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도깨비의 저주가 풀린 것은 압니다. 내일 이야기 발표시간의 주제는 아빠입니다. 스케치북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아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을 적어봅니다. ‘아빠가 웃었다’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 아련히 멀어져 가고 있는 기억 속 동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있다면 누더기 옷을 입고, 낱아빠진 강통하나 들어도 품바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구걸할지언정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어렸을 적 그때를 지키고 싶다.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점차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만 가는 자신을 느끼는 것만큼 괴로운 순간이 어땠을까?

가끔씩 동화 같은 상상을 하고 글을 써보려 노력하는 것은 지키고 싶은 기억의 작은 몸부림과 같은 것일게다. 마치 삶의 고단함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생채기 같은 것처럼...

글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 없으니 이번에도 급하게 흥내만 내다 체기만 걸린 한심한 꼴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상을 허락해 준 것은 아마도 영성하게 품바타령 흥내 한 번 내보려는 노력을 가상히 여겨준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내 길은주와 이제는 내게 그리운 동심으로 매일 위로와 사랑을 건네주는 두 아이 혁, 은우와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희곡부문

금상

용서 _ 이종수

은상

장마 _ 이용옥

동상

모래성과 홀로서기 _ 현근우



법무부 서울소년원

이 종 수

통 서

김팀장 :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선생님! 그럼 두 제자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는 말은 뭔가요?

담임 : 다시 모두를 교실로 모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이게 해서 정말로 용서가 뭔지 가슴으로 느끼고 온 영혼을 다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본문 중에서-

용 서

등장인물

천동희 (학교폭력 가해자)

기태, 철희, 건이, 형석, 동수 (학교폭력 피해자들)

서준석 (천동희의 급우)

김팀장, 이형사, 박형사, 남형사

(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 형사들)

담임 (천동희의 중학교 시절 반 담임)

신부 (천동희의 소년원 천주교 담당 신부)

소년교도소/소년원 직원

소년원 아이들 1,2,3

때 현대

곳 편의점, 학교, 경찰서,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무대 매 막마다 장면이 바뀌고 현실과 과거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무대는 고정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모
든 장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처리해
도 무방하다.

제 1 장 어느 편의점

늦은 밤 어느 편의점. 밖에서는 폭주족들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고 안에서는 몇몇 폭주족들이 라면 등 야식을 먹고 있다. 잠시 후 폭주족들이 빠져나가고 마지막 손님이 카운터에 다가왔다가 돈을 내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문을 닫지 않고 와서 닫으라는 몸짓을 하며 나가버린다.

동희 : (열린 출입문 쪽으로 뛰어가며) 아, 정말 왕짜증나네. (한 대 때릴 듯 주먹을 치켜들며) 저 걸 그냥 한 방에 확! (문을 닫으며) 미친 새끼들! 아직도 저런 폭주족이 길거리를 지배하고 있다니 대체 이 나라 법은 어디로 실종된 거야?

잠시 후 경찰차가 폭주족을 뒤 쫓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라지면 사위가 다시 조용하다.

동희 : (돌아오며) 심야의 추격전이 시작되었군. 나도 한 때는 저랬지만, (고개를 흔들며) 아니지. 이제는 아니야! 쳇! 이러고 보니 동희가 사람 되긴 됐나봐! 아! 그나저나 오늘도 결국 알바비 까이는 건가? (카운터에 앉으며) 이놈의 편의점 알바도 원 웬만해서 해먹겠나. (어깨를 으쓱하며) 그래도 나라도 되니까 이 밤을 사수하는 거지 아무나 하겠어. (스마트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아, 그나저나 신부님께서 만나보라고 하셨으니 만나 봐야지. 하느님이 인도해주실 테니까 믿고 해봐야지.

그때 손님 한 명이 들어온다. 모자를 꼭 눌러쓴 채 라면 코너 쪽을 기웃거리던 손님, 카운터 쪽을 바라본다. 동희는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

동희 : 신부님 말씀이 맞아. 어떻게든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기다린다고 되겠어? (사이) 문제는 건이. 건이가 문제야. 건이만 해결되면 일은 깔끔하게 끝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데 말이야.

동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손님이 라면 하나를 집어 카운터로 향한다. 여전히 모자를 눌러쓴 채로 잠긴 점퍼의 지퍼를 아래로 내리면서 뭔가를 확인한다.

동희 : (손님을 알아보고 일어서며) 죄송합니다. 손님. 들어오시는 것도 몰랐네요.

손님, 라면과 함께 돈을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동희 : (손님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 고개를 숙여 손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 이게 누구—?

손님 : (여전히 모자를 눌러 쓴 채 전혀 모르는 사람인양) 왜 그러시죠? 잘 아시나요?

동희가 상대의 반응은 아랑곳없이 카운터 막이를 열고나서며 뒤로 물러서는 손님에게 다가선다.

동희 :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다 화색이 도는 얼굴로) 저, 혹시!

손님 : (손을 안쪽 주머니 속으로 넣으며) 왜 그러세요? 계산이
나 하시죠?

동희 :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닌가? (돌아서 카운터로 돌아간다)

동희가 돌아서는 순간 손님이 주머니에 집어넣은 손으로 지갑대신 얇은 종이에 싸인 칼을 꺼내 무방비 상태인 동희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다.

동희 : (옆구리를 움켜잡고 쓰러지며 한 손으로는 카운터를 잡고 고개를 돌려 손님을 향해) 왜, 왜 하필이면 지금—? 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있는데! 용, 용서를 받아야 할 사, 람, 이!

고통에 신음하는 동희의 머리를 잡아 누르며 칼을 치켜들어 동희의 목을 향해 거세게 내리 쏘는 손님. 동희는 목에 칼이 꼽힌 채 앞으로 거꾸러진다. 손님, 붉은 피를 뿜어내며 쓰러진 동희를 미동도 없이 내려다보다 칼을 뽑아 들고 편의점을 나선다. 멀리서 오토바이 굉음이 아득하게 들려오고 편의점 안에는 동희가 홀로 바닥에 쓰러져 꿈틀거리고 있다.

제 2 장 경찰서

책상을 가운데 두고 김팀장 주재로 강력팀이 수사회의를 하고 있다. 천장에는 프로젝터가 켜진 채 매달려 있고 김팀장 뒤로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이형사 앞에는 작은 노트북 컴퓨터가 놓여 있다.

김팀장 : (침통한 어조로) 살인 사건이야. 우리 관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말이다. 폭주족만 몰아내면 다시 범죄 없는 마을로 표창도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런 엉뚱한 일이 터지다니. (책상을 내리치며) 이거야 원.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범인을 잡아야 해. 이형사! 피해자 신원과 사인은 나왔나?

이형사 : 네. 팀장님. 피해자 이름은 천동희. 1988년 8월생. 고아입니다. 부모님은 천동희가 10살 전후해서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피살자 사인은 옆구리에 입은 자상도 상처가 컸지만 목부위 자상과 그에 따른 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습니다. 24시 편의점이라 야간근무 교대를 하러 나왔던 알바생이 신고를 했습니다.

김팀장 : (오른 손으로 턱을 만지작거리며) 음. 이십대 초반의 한 청년이 예리한 칼로 옆구리와 목을 찔린 채로 살해되었어. 칼도 보란 듯이 그냥 두고 갔단 말이야. 이걸,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원한에 의한 살인이 틀림없어. 돈도 그대로 있고 진열된 물건도 하나 없어진 게 없잖아? 이형사! 피해자 주변은 조사해 봤지?

이형사 : 사회적으로 무척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월세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찾아오거나 만

나는 친구가 거의 없는 듯 했습니다.

김팀장 : 단 한 명도? 그거 이상하군.

이형사 : 근데, 더 이상한 건— 주인의 말에 따르면 찾아오는 친구는 하나도 없는데 천동희가 자주 폰을 만지작거리며 친구들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친구는 꽤 있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박형사 : 그래서 제가 천동희가 살해되던 날 밤부터 6개월 전까지 통화내역을 살펴봤는데, 천동희는 같은 전화번호 5개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팀장 : 전화번호 5개에 집중적으로?

박형사 : 네. 팀장님.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김팀장 : 뭐가 또 이상해?

박형사 : 이 다섯 명의 통화자들은 모두 천동희의 중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이형사 : 중학교 동창들?

박형사 : 네. 왜 전국적으로 아주 꼴통 학교로 소문이 자자했던 그 학교 말입니다. 학교 폭력에 일진에. 천동희는 소년원도 몇 번 들락거렸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팀장 : 학교폭력에 소년원까지? 음. 그럼 뭔가 있겠는데.

박형사 : 근데 팀장님! 천동희의 문자내역을 확인해 보니 '용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요.

김팀장 : 용서?

이형사 : 용서? 가만 (남형사를 쳐다보며) 그건 남형사 이름 아니야? 아까부터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있었군?

평소에 ‘용서를 남용하지 말라’를 신조로 삼고 있는 남형사잖아! 하! 하!

남형사 : (불쾌한 표정으로) 이형사님! 자기 이름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느낌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김팀장 : 남형사! 피해자 폰에서 나온 문자 한 개 가지고 뭘 그래? 하루 이틀 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형사 : 그래, 남형사. (능청스럽게) 용서해 줄 거지?

남형사 (얼굴을 붉히며) 이형사님! 용서를 남용하지 말라면서요?

김팀장 : 그만, 그만! 지금이 농담할 때야? 문자 분석과 피해자 친구들 찾는 일은 남형사가 맡아서 하고, 이형사! 그 용의자는 어떻게 됐어? 뭐 나온 거 없나?

이형사 : 오리무중입니다. 잠깐 보시죠. (남형사에게 고갯짓을 한다)

남형사가 사무실 전등을 끄고 이형사가 노트북 컴퓨터를 클릭하면 프로젝터에서 편의점 CCTV 장면이 스크린으로 투사된다.

이형사 : 편의점 CCTV 영상입니다. 범인이 미리 그 위치를 파악했는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교묘하게 피했더군요.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김팀장 : 뭔데?

이형사 :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편의점에서는 직원이 카운터 안에서 계산을 해주고 매장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물건을 골라준다면 몰라도. 근데 여기 CCTV를 보면 천동희가 손님과 얼굴을 마주치자 반가운 기색을 하며 카운터

막이를 열고 매장으로 나갔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돌아가다 손님의 칼에 찔립니다. 그리고 흔치 않게도 용의자는 왼손을 쓰고 있습니다.

김팀장 : 보니 그러네. 왼손잡이라! 그리고 카운터를 열고 직접 인사를—? 면식범이란 얘기군? 이거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 걸! 이형사는 CCTV를 좀 더 분석해보고, 남형사! 그 '용서'라는 말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 같아. 학교 때 친구들이라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창시절 담임과 연락하고 학적부도 살펴봐. 그리고 박형사는 소년원 쪽에도 알아봐.

형사들 : 네, 알겠습니다.

이형사가 노트북을 클릭하면 프로젝터가 꺼지고 스크린도 꺼진다. 어둠속에서 바빠 움직이는 소리. 문 밖으로 발자국들이 멀어져간다.

제 3 장 소년원 종교집회실 (과거)

소년원의 영세식이 있는 날. 천동희가 세례를 받고 있다. 영세식이 엄숙하게 치러지고 있는 동안 뒤에서 아이들이 쭈군거린다.

아이1 : 야! 저 새끼가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식이 되고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냐?

아이2 : 그러게 말이야. 저 새끼 때문에 학교 그만두고 이사 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애까지 있잖아.

아이3 : 자살을 안 한 게 다행이지.

아이2 : 소년원 와서까지 애들 자기 꼬봉으로 만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한 새끼가 영세를 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으면 다냐? 그럼 그 애들은 뭐냐?

아이1 : 나도 저 새끼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내가 힘만 좀 세면 그냥 당장이라도 밟아버리고 싶지만. 뭐, 할 수 있냐. 약한 놈이 죽어야지.

아이2 : 하여튼 저런 놈은 바로 제주도로 보내버려서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해.

아이3 : (소리죽여 혼잣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비아냥거리며) 너나 잘 하세요!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장난을 치는 사이, 신부가 동희의 머리에 성수를 부으며 이마에 십자성호를 긋는다. 잠시 후 세례식이 끝나고 꽃다발을 받아든 천동희를 직원이 다가와 데려가려 하자 신부가 다가온다.

신부 : 선생님! 꼭 다시 데려가야 하나요?

직원 :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처벌을 연계시키면 저희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징계처리는 영세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신부 : 그래도 오늘은 동희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직원 :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며 신부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천동희의 팔짱을 끼고 문을 나선다.)

신부 : (직원 뒤에서) 정말로 용서는 안 되는 겁니까?

신부의 말을 뒤로 하고 직원과 천동희가 나가면 흔들리는 촛불에 비친 신부의 그림자가 문 위에 출렁인다.

제 4 장 소년원 집중처우실 (과거)

제주소년원 집중처우실에 천동희가 앉아 있고 천장의 희미한 전등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다. 앉아 있던 천동희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한다. 잠시 후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던 천동희가 벌떡 일어나 벽을 머리와 주먹으로 치기 시작한다. 행동은 더욱 격렬해지고 이윽고 집기를 들어 천장에 매달린 전등을 향해 던져버린다. 순식간에 사위가 암흑으로 변한다. 잠시 후 무대 왼쪽이 희미하게 밝아오면 병실 침대에 한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앉아 있다.

아이 : (침대에서 일어나 허공을 구르듯 동희에게 다가간다) 천동희! 히히. 끝 좋군.

동희 : (소스라치게 놀라며) 헉! 누, 누구냐?

아이 : 누구긴? 히히. 니가 그렇게 괴롭히던 건이지.

동희 : 거, 건이? (아이를 바라보며) 정말 건이 맞아? 니가 여길 어떻게?

아이 : 어떻게? 히히. 난 언제든지 여기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동희 :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니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

아이 : 내가 여길 어떻게? 히히. 여기는 바로 네 마음속이야. 네

가 여기 독방에 있던 사회에 나가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다니든 난 언제나 네 마음속에 있을 거야. 히히. 지금처럼 말이야.

동희 : 무, 무슨 말이야? 거, 건아! 미, 미안해. 진심이야. 그땐 나도 몰랐어. 내가 왜 그러는지. 그냥 무언가 날 조종하는 듯 나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닥치는 대로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 (고개를 떨어뜨리며) 그땐 내가 미쳤었나봐. 정 말이야 건아!

아이 : 무언가 날 조종하는 듯? 미쳤었나봐? 나쁜 새끼! 그건 니가 한 짓이야. 널 조종한 건 아무도 없어. 니가 한 짓이니 까 니가 책임을 져!

동희 : 알았어, 책임질게. 근데 그 환자복은 뭐야? 왜 환자복을 입고 그 병실에 있는 거야?

아이 : 왜냐고? 히히. 여긴 정신병원이야. 몰랐어? 난 미쳐서 여기 감금되어 있고 넌 법적 처벌을 받아 그곳에 갇혀 있는 거지.

동희 : 미쳤다고? 정신병원이라고?

아이 : 그래. 다 니 덕분이야. 히히. 넌 하루가 멀다 하고 날 때렸어. 때리고 심부름 시키고 돈 갖다 바치라 협박하고,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말이야. 난 한마디로 병신이었어. 병신같이 너한테 맞기만 하고 한 번도 반항을 못했지. 들리니? 애들이 날 놀리는 소리가! 다들 날 보고 병신이라. 병신새끼래. 병신새끼니까 맞고 다닌대! 병신이니까 말이야! 히히히!

동희 : 아니야. 넌 병신이 아니야. 아니라구! 병신은 나야! 미쳤던

건 나야! 미친 건 나라구!

아이 : (동희에게 다가가며) 그만 해. 이제 와서 무슨 개수작이야. 나쁜 놈이 착한 놈 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더니 맞는 말이네. 니가 잘못했으면 니가 이 정신병원에 들어와 내 대신 살아봐. 아니 살아줘. 난 나가고 싶어. 나가서 널 죽여버리고 싶다구! 니가 정말 나뻤다면 지난 겨울 이 병원 앞 지하도에서 저렇게 얼어 죽은 올 아빠 대신 죽어줄 수 있어야지!

어디선가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며 독방 한쪽이 밝아오면 지하도에서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는 건이의 아버지가 보인다.

아버지 : 건아! (심한 기침을 하며) 내 어린 새끼 건아! 불쌍한 녀석! 미안하구나, 지켜주질 못해서!

꿈틀대던 아버지가 건이를 부르며 미동도 없이 죽어간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희,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는다.

동희 : (바닥으로 무너지며) 아버지! 아버지! 흑! 흑! (찬바람이 멈추고 건이의 아버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손을 뻗으며 아버지를 찾는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 : 자, 어때? 할 수 있겠지? 죽어줄 수 있겠지? 응? 저렇게 얼어 죽은 내 아빠 대신 죽어달란 말이야! 니가, 니가 정말 나뻤다면 이 병신 같은 아들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내 엄마 대신 화병에 걸려 미쳐 죽으라구! 죽으란 말이야! 죽

어! 죽어! 이 나쁜 새끼야!

동희 : (이번엔 어머니를 찾아 흐느낀다) 어머니! 어머니! 흑!
흑!

아이 : 아, 맞아. 너도 고아라며? 나처럼 부모님을 잃었다며? 니
바람대로 나도 고아가 되니 이제 맘이 편하니? 다들 너처
럼 아빠, 엄마 다 죽고 고아로 자라면 좋겠어? 응? 그런 거
야? 대답해 봐! 대답하란 말이야! (동희를 죽일 듯이 두 손
을 치켜들고 달려든다)

동희 : (얕은 채로 뒷걸음치며) 아악! 건아, 건아! 내가 잘못했어.
사, 살, 살려줘! 살려줘!

동희의 비명소리와 함께 손전등을 든 직원들이 호각을 불며 달려오면
아이는 사라지고 방 한 가운데 동희가 양 손을 피로 물들인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다. 사방에 전등 파편과 집기가 흩어져 있다.

동희 : (흐느끼며) 미, 미안—, 잘, 잘못했어. 용, 용서 해줘!

직원들이 동희를 부축해서 나가면 동희의 ‘용서해줘’라는 마지막 말이
방안을 맴돌다 찾아진다.

제 5 장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과 형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다.

김팀장 : 사건발생 사흘째야. 지금쯤이면 뭔가 나와야 하잖아. 이 형사! CCTV는 어떻게 됐어?

이형사 : 용의자가 그 편의점에 과거에도 들렀는지 알아보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김팀장 : 다만, 뭐?

이형사 : 천동희가 최근에 뒤늦게 중학교를 졸업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천동희의 주변인물은 중학교 동기나 선후배로 좁히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형사 : 천동희의 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문자들을 면밀히 조사 해봤습니다. 이형사 말대로 천동희의 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그 다섯 명과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과 신부님 전화번호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자도 이들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없었구요.

김팀장 :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말인데. 그 친구들은 연락이 닿았나?

남형사 : 아뇨. 모두 오래전에 전화번호를 다 바꿨던데요.

김팀장 : 문자는? 그 용서라는 말은 대체 뭐야?

남형사 : 네. 바로 그겁니다. 마침 연락이 된 담임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보았습니다.

김팀장 : 뭐래? 담임은?

남형사 : 학교폭력이었습니다.

김팀장 : 학, 교, 폭, 력? 그럼—! 당한 거군? 피해자들에게 당한 거야!

남형사 : 천동희가 죽기 한 달 전. 담임이 야간 숙직을 하고 있는데 숙직실로 전화가 왔더랍니다. 천동희가 침통한 음성

으로 만나고 싶다고요.

김팀장 : 그래서? 만났대? 나눈 얘기는?

남형사 : 네. 천동희가 그 다섯 명의 친구들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팀장 : (긴장한 음성으로) 목적은?

남형사 : 용서받고 싶어 했습니다.

김팀장 : 용서? 수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웬 용서?

남형사 : 천동희는 학교 폭력으로 수회에 걸쳐 정학과 퇴학 그리고 전학을 거듭하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장기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박형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형사 : 네, 제가 소년원엘 가보았습니다. 수확은 있었습니다. 천동희는 소년원 재원 시절, 다시 그곳에서 폭력을 행사 해서 소년원 내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고 집중처우 대상으로 분류되어 제주소년원에서 약 3개월 동안 특별 훈련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김팀장 : 아주 꼰통이었군. 그럼 이 '용서'라는 문자는 뭐냐 말이야?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폭력으로 협박해서 뭔가 다시 뜯어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다섯 명과 천동희가 학교폭력으로 얹혀 있는 관계라면 범인은 피해자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이형사 :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 그 다섯 명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팀장 : 뭐야? 다섯 명을 모두 다? 무슨 근거로?

이형사 : 우선 그 중 두 명은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영어 연수를 위해 외국에 다녀왔는데 모두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담임선생님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갔다고 합니다.

김팀장 : 그래? 성공한 케이스군. 음. 담임이 무리해서 알리바이를 꾸며낼 리는 없고. 나머지 셋은?

이형사 : 그 중 한 명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팀장 : 정신병원? 왜? 천동희 때문에?

이형사 : 아마도 그럴 겁니다.

김팀장 : 그 아이가 병원을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은?

이형사 : 불가능합니다. 제가 확인도 했구요. 나머지 둘은 지금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박형사 : 그 아이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천동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이 아이들은 천동희가 없어지자 그 뒤를 이어 반 아이들은 물론 다른 반 아이들, 그리고 동네 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한 거지요.

김팀장 : 둘은 대학생, 둘은 소년교도소, 하나는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의 가족은 만나봤나? 그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살해했을 수도 있잖아?

이형사 : 가족은 없었습니다.

김팀장 : 가족이 없다니? 그럼 고아?

이형사 : 원래 고아가 아니라 외아들이었는데 천동희의 괴롭힘으

로 자꾸 자살을 시도하자 그게 부모의 부부싸움으로 발전했고 급기야 이혼한 부모 가운데 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아버지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아들을 정신병원에 맡기고는 행적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 년 후 쯤 한 겨울에 아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앞 지하보도에서 동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들 침통한 표정이다. 잠시 후 적막을 깨며 전화벨이 울린다. 남형사가 전화를 받는다.

남형사 : 네? 뭐라고요? (사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김팀장 : 무슨 일이야?

남형사 :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살인사건입니다.

김팀장 : 피살자는?

남형사 : 김기태라고 합니다.

김팀장 : 김기태?

이형사 : 김기태라면—? 천동희의 학교폭력 피해자 가운데 하나잖아?

남형사 : 맞습니다. 해외 연수중이라는 그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첩 속에 신분증과 현금, 카드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팀장 : (신음을 내며) 천동희의 수첩과 신분증, 현금, 카드 등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

남형사 : 그리고 팀장님! 용의자가 천동희를 살해한 범인과 키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살해방법도 동일하구요. 거기다 칼에 찔린 방향으로 보건대 왼손잡이에게 당한 것 같다고 합니다.

김팀장 : 왼손잡이에다 수법도 비슷하고, 모두다 연관 있는 인물들이라—, 그렇다면—! 연쇄살인?

모두들 놀라는 표정으로 김팀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킨다.

제 6 장 어느 음식점 (과거)

과거의 어느 음식점 안. 구석 쪽 벽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천동희와 담임이 마주 앉아 있다. 천동희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담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담임은 혼자 빈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고 있다.

동희 : (고개를 들지만 여전히 담임을 응시하지 못한 채로) 안 될까요, 선생님?

담임 : (술을 단숨에 들이마시고 내려놓으며) 꼭 (사이) 그래야 하겠니?

동희 :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머리를 쥐어뜯는다)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담임 : 아이들 입장은 생각해 보았니? 다들 잊고 싶을 거야. 잊고 살면 안 되겠니? 그 아이들이 잊었잖아. 잊거나 기억하거

나 둘 다 못하는 아이도 있고.

동희 : 기억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연락처라도 주실 수 없으신
가요? 선생님이 같이 가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도 나올 겁니다.

담임 : (다시 술잔을 들이키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들을 제
대로 교육하지 못한 죄야. 미리 막았어야 하는데. 너만 바
뀌면 모두 잘 되겠거니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너한테만
집중하느라 다른 아이들은 관심을 두지 못한 나의 치명적
인 실수였어.

동희 : (흐느끼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고개를 파묻
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아무도, 아무도 제 곁에 오질 않아
요. 다 절 무서워만 합니다. 이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정
말 잘못했습니다. 누굴 때리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사라
졌어요. 정말입니다. 그때의 제가 이젠 내 안에서 없어졌
단 말입니다. 난 또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그 아이들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담임 : 누구를 위한 용서? (빈 잔에 술을 따른다) 용서라. 영세를
받았다면서? 하느님이 널 용서했는데 이제 또 무슨 용서
가 필요하다는 거냐?

동희 :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이 날 용서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괴
로운 건지. 그저, 그저 만나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을 뿐
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싶단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있다.

담임 : (텔레비전을 한 번 힐끗 쳐다보고는) 그 아이들 입장은 생각해 봤니? 피해자는 씻지 못할 상처로 괴로워하는데 가해자가 나타나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봤니?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너의 용서를 구함이 또 하나의 가해라면?

동희 : (놀라는 표정으로) 또 하나의 가해라구요?

담임 : 그래. 또 하나의 가해! 게다가 (술잔을 들이키며) 그 중 둘은 이미, 널 용서했어.

동희 : 무슨 말씀이세요? 날 용서했다니요?

담임 : 외국에 나가 있는 기태하고 철희가 종교에 귀의했다더라. 그리고 너는 물론 자신까지도 용서했다지. 아마 곧 귀국해서 날 찾아올 거다. 인사차 말이다. 그들에게 너의 고백은 이제 의미가 없다. 넌 그들에게 무의미한 존재야.

동희 : 네? (뺨을 잃은 채) 내가 무의미한 존재라구요? 무의미한, 존재?

담임 : (썩썩한 눈빛으로) 그래. 무의미한 존재. 살아도 죽어도 의미가 없는 존재.

망연히 허공을 응시하는 동희. 그런 동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담임. 다시 빈 잔에 술을 따른다.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담임 : (혼잣말로) 허구한 날 저놈의 학교폭력 얘기뿐이군. 학교폭력, 학교폭력, 과연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의 학교폭력 이슈일까? 오직 수치와 그래프, 그리고 정치적 선언만

가득할 뿐!

고개를 흔들며 가득 채운 잔을 입안으로 털어 넣고 음식점을 나서면 동희가 힘없이 그 뒤를 따라 나선다. 텅 빈 가게에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이 울리고 있다.

앵커 :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멘트) ‘전인교육의 토양이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체육시간 좀 늘린다고 학교폭력이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 학교에 왕따와 폭력이 넘쳐나고 경찰이 교사를 잡아다 조사하는 세상, 과연 이런 전시행정으로 이미 골이 깊어 질대로 깊어진 학교폭력이 근절될까요? 이상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제 7 장 경찰서

김팀장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 서장 등 간부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장 : (팔짱을 낀 채로 눈살을 찌푸리며) 이 사건을 연쇄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김팀장 : 우선—, 용의자가 서로 일치합니다. 같은 왼손잡이, 같은 옷, 같은 모자, 너무나도 유사한 얼굴의 윤곽, 그리고 칼에 의한 동일한 살해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피살자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 피살자는 첫 번째 피살자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살자가 학교 때 저질렀던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서장 :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살해되었다는 말이군요?

김팀장 : 네, 그렇습니다.

서장 : (무언가 생각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자 하니 (남형사를 향해) 첫 번째 피살자가 학창시절 자신이 저지른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찾아다닌 적이 있다고?

남형사 : 네, 그렇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 첫 번째 피살자인 천 동희가 담임을 만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의 알리바이는 확인이 된 상태이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들과 학교 폭력에 연관되거나 이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들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동일한 왼손잡이에게 말입니다.

김팀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묶는 키워드는 학교폭력이라고 설정하고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단서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장 : 범위를 그 다섯 명에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넓혀봐. 그들의 학교폭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제3의 인물을 찾아보란 말이야.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 봐. 뭔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야. 그리고—, 김팀장, 이것이 정말 연쇄살인이라면, 그 다음 표적은 누가 될 것 같은가?

김팀장 : 네? (갑작스런 질문에 말을 못하고 주저한다) 그제—! 그

다음 표적은—! (도움을 구하려는 듯 주위 형사들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본다)

이형사 : 둘은 소년원에 있고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이들 셋은 일단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으니까—!

서장 : (책상을 두드리며) 이형사! 범인이 그걸 가리고 범행을 저지르나? 형사 생활 몇 년이야, 응?

이형사 : 아, 죄송합니다. 셋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해놓겠습니다.

서장 : 그건 김팀장이 해야 할 일이고.

박형사 :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 명인데요.

김팀장 : 그 대학생은 외국 유학중이라면서?

박형사 : 아니요. 두 번째 피살자와 함께 귀국해서 아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비행기를 예약해 놓았다고 합니다.

김팀장 : 오늘 오후? (사이) 예감이 이상해! 이형사! 시간이 없어! 이형사는 그 유학생의 신변을 확보하고, 남형사와 박형사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나머지 두 명에게 가서 서장님의 말씀대로 혹시 제3의 인물이 있을지 알아봐. 난 답임을 한 번 만나봐야겠어. 뭔가 의심나는 점이 발견되면 즉시 나에게 연락해. 자, 어서 움직여! (왼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왼손잡이를 잊지 말고!

형사들 서둘러 사무실을 달려 나간다.

제 8 장 소년교도소 상담실

소년교도소 상담실. 박형사가 직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직원 :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여기는 성인범들과 형사처벌을 받은 대상자들이라 아마 소년원보다는 덜 하겠지만 말입니다.

박형사 :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직원 : 물론이지요. 살인, 그것도 연쇄살인 사건인데 도와드려야지요.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동수와 형식을 불러들인다. 아이들과 마주 앉은 박형사가 먼저 입을 연다.)

박형사 :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 지금 너희들이 과거에 연관되었던 학교 폭력의 관련자들이 차례로 살해당하고 있어. 너희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단 걸 명심하고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답변해 줘, 알았지?. (형식과 동수가 박형사의 말을 듣고 겁을 잔뜩 집어 먹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본다.) 잘 기억해 보거라. 학교 다닐 때 너희들 다섯 명의 피해자들 말고 또 제3의 피해자나 천동희를 특히 싫어했던 누군가가 있었는지?

형식 :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희는 그저 맞기만 했고 맞느라고 정말 정신없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재미있었겠지요. 매일 매일 벌어지는 스킬 만점의 폭력에 아이들도 무척 재미있어 했거든요.

동수 : 맞아요. 학교생활이 그렇잖아요. 시험과 공부와 성적 외

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따분하고 지루하고, 오직 폭력, 맞고 때리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흥밋거리였어요. 히히. 학교 선생님이 아마 우리에게 고마워했을 걸요. 히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요.

박형사 : (뭔가에 얻어맞은 듯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그래? 음. 그건 그렇고—. 그럼, 혹시 너희 가족들 중에는? 가족 중에는 뭔가 원한이나 증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없었니?

형식 : 형사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누가 학교폭력 같은 걸 가지고 복수를 하나요? 제 가족들은 그따위엔 관심도 없어요. 면회도 없고 재판받을 때도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건 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사 :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 복수의 칼을 갈 만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했던 아이는 없었니?

동수 : 음. (형식을 결눈질로 바라보며) 개는 정말 무척 맛있는 데.

박형사 : 개가 누군데?

동수 : 왜, 그 정신병원에 들어간 아이 말이에요.

박형사 : 건이. 김건. 다른 아이들은? 왜 그 유학 갔다는 그 애들 말이야.

동수 : 그 두 애들은 (사이) 정말 나빴어요.

박형사 : 정말 나빴다고? 어떻게?

형식 : 이상하게 그 애들이 맞을 것을 천동희는 건이한테 다 돌렸거든요. 그 아이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대신 이것저것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뭐 바칠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건이

처럼 쥐뿔도 없는 놈은 불가능한 일이죠.

동수 : 맞아요. 침엔 좀 맞는가 싶으면 어느새 천동희의 주먹은 건
이에게 가 있었어요.

박형사 : 그런데 건이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어. 건이
가 그 유학간 아이들 대신 많이 맞았고—. 그럼, 건이 입
장에서 볼 때 유학 간 아이들과 천동희가 죽도록 미웠을
텐데. (잠시 생각한 후에) 누굴까? 건이 입장에서 이 아
이들을 바라보았다고 생각되는 아이 말이야.

형식 : 생각이 안 나는데요.

동수 : (형식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 머리에 생각이 나겠냐?

형식 : (동수를 따라하며)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박형사 : 그럼 뭐랄까! 왜 정의파라든가? 이런 걸 무척 싫어하거
나 증오했던 아이 말이야? (잠시 기다린 후 대답이 없
자) 그렇다면—, 그래! 왼손잡이! 혹시 너희 가운데 왼
손잡이 없었니? (다시 잠시 기다린 후 역시 대답이 없
자) 뭐 이것만해도 큰 수확이지. (일어나며) 협조해줘서
고맙다.

형식 : (일어서서 나가려는 박형사에게) 잠깐요!

박형사 : (고개를 돌리며) 무슨 생각이라도 난거냐?

형식 : 네! 났어요. 그 애가 맞을 거예요!

제 9 장 학교 옥상 (과거)

과거 천동희의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학교 옥상. 동희가 옥상 난간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

동희 : 역시 진정한 교실은 여기밖에 없어. 탁 트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저 멀리 흐르는 강물. 멀리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곳이야 말로 바로 여기거든. (몸을 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이들 앞에 놓인 의자로 가서 앉으며) 자, 슬슬 오늘 수업을 시작해볼까. (기태와 철희를 향해) 오! 귀여운 나의 애완견들! 오늘은 너희들부터 시작해야겠다. (기태와 철이가 움직임이 없자) 뭐 해! 이 새끼들이! 머리를 대란 말이야! 때려주세요 하고 대라고!

기태 : (머리를 감싸며) 어? 왜? 아, 아니. 그래, 맞아야지. 뭐. 아, 알았어. (머리를 들이민다)

동희 : 역시 이 새끼들 똑똑하다니깐. (신발을 벗어 기태를 때리며) 이 새끼들 맞는 것도 일등, 공부도 일등이지? 이 씨발 새끼! (철희를 때리며) 이 새끼도 여간이 아니지. 난 너희들을 보면 하느님이 정말 공평무사하단 걸 새삼 느낀다. 너희에게는 머리를, 나에게는 주먹을 주었으니까 말이야! 하, 하, 하!

동희가 들고 있던 신발을 내려놓고 맨 손으로 때리기 시작한다. 철희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동희의 발치에 둔다. 맞고 있던 기태가 동희에게 눈짓을 한다.

동희 : (동작을 멈추고) 참, 답 주가 시험이지. 니들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야. 반 평균이 떨어지면 나 같은 놈

은 또 담탱이한테 죽어라 혼나는 일만 남을 테니까 말이야.

철희와 기태는 눈을 반짝이며 동희를 바라본다. 건이와 형석 그리고 동수는 고개를 떨어뜨린다.

동희 : 이번에도 날 구원해 줄 새끼는 이 두 놈 밖에 없군. (철희와 기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세 명을 향해) 이 새끼들은 대체 뭐에 쓸모가 있는 거야? 응? 야! 철희하고 기태 뒤편까지 니들이 다 맞아야겠다. 머리 대! (세 명이 머뭇거리자) 대라고 이 병신새끼들아! (한참을 때리다 지친 듯 손을 거두며) 아, 씨발! 이젠 때리는 것도 힘드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건장한 체격을 가진 준석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준석 : (옥상 문 앞에 서서 맞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야! 천동희! 이제 좀 풀렸냐? 좀 웬만큼 해라! 이게 벌써 몇 시간째냐? (옥상 문을 닫고 다가온다)

동희 : 뭘? 뭘 그만하라는 건데? 씨발! 고해바쳐! 담탱이한테 일러바치라고!

준석 : 좀 이상한 말이지만, 때리려면 공평하게 때려! 개네 둘은 뭘데 봐주는데?

둘이 말하는 틈을 타서 기태와 철희가 형석이와 동수에게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건넨다. 형석과 동수는 재빨리 돈을 받아 서로 눈으로 입을 맞추고 마치 왕에게 상납 하듯 머리위로 돈을 들어 올려 동희에게 바친다.

형석 : 헤, 헤. 자, 받아! 이거 구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다는 것만 알아줘.

동수 : 맞아. 정말 힘들었어. 동희야. 이제 우리 좀 그만 때리면 안 될까?

동희 : (돈을 받아들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좋아. 역시 이 새끼들은 매가 답이거든. (건이를 보며) 근데. 이 새끼는 여전히 빈손이네. 빈손이면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건이를 다시 때리며) 용서 말이야. 용서! 이 병신새끼야! 용서해달라고 빌란 말이야! 용서해달라고!

준석 : (동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그만 해 이 새끼야! (건이를 보며) 이 바보야! 맞으면 피하는 흥내라도 내! 병신처럼 맞고 있지만 말고!

동희 : (준석이 잡은 손을 비틀어 빼며 일어선다) 새끼! 지가 무슨 정의파라고 여기까지 쫓아 와서 지랄이야 지랄은! 너 힘만 믿고 너무 나대는 것 같은데 조심해. 그러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으니까!

순간, 옥상 문이 활짝 열린다. 담임이 일그러진 얼굴로 옥상으로 올라서고 있다. 담임과 눈이 마주치는 동희. 그런 동희와 담임을 바라보는 준석.

동희 :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야, 전! 오늘은 너희 집에서 잘 테니까 방 깨끗이 치워놓고 기다려! 좋은 거 준비해 놓는 거 알지? (담임을 흘끗 쳐다보며) 이 교도소 수용시설 같은 허연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그래도 건이 집이 낫거든요 (비웃는 듯한 말투로)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동희가 희죽이 웃으며 준석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바라보는 담임을 비웃으며 옥상을 내려간다.

준석 : (담임을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선생님! 저 녀석을 또 용서해주시는 겁니까? 또요? 네?

준석이 동희에 이어 옥상 문을 발로 걷어차며 내려가고 나머지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 내려간다. 담임만이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현장을 바라보며 서 있다.

제 10 장 학교 교실

학교 교실. 담임과 김팀장이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갑자기 김팀장의 핸드폰이 울린다.

김팀장 : 어! 박형사! (사이) 뭐라고? 그래? 있다고? (얼굴에 희색이 돌며) 그래? 알았어! 그래, 있다 봐.

담임 : (무거운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다) 뭐 단서라도 잡으신 것 같네요?

김팀장 : 선생님. 범인은 이 반 학생이 틀림없습니다. 천동희 학교폭력 피해자 가운데 두 명은 소년교도소에, 한 명은 정신병원에, 한 명은 살해되었고 나머지 한 명이 남았습니다. 물론 천동희 본인도 살해되었지요. 그런데 저희 형사가 소년교도소에서 만난 아이들 말로는 유학 갔다는 그 두 명의 아이들은 교묘하게 천동희를 조종해서 천동희로 하여금 그 정신병원에 있는 건이에게 폭력을 집중하도록 했다는군요.

담임 : 그래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 왔던 그 아이들이 그럼 천동희의 폭력을 건이에게 돌렸다는 말인가요? 자신들에게 향했을 폭력을 모두 건이에게요?

김팀장 : 그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담임 : (뜻밖이라는 듯) 그 아이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모두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김팀장 : 용서를 했다고요? (사이)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용서를 했다고 말했다는 건가요?

담임 : 네. 자신들을 용서했고, 천동희도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 지워져 있던 그 아이들의 폭력의 무게가 절반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나마 속이 후련했는데.

다시 김팀장의 전화벨이 울린다.

김팀장 : 어, 이형사! 어, 어. 그래? 알았어. 그럼, 공항과 부모님 집에 경찰들을 배치하고 난 곧 공항으로 갈게. (폴더를 접으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담임 : 범인이 밝혀졌답니까?

김팀장 : 아뇨. 하지만 세 번째 목표가 남은 한 명의 유학생인 것 같아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자, 이제 담임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때 천동희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 그런 행위를 혐오하거나 증오하면서도 나서질 못했던 아이가 혹시 있습니까?

담임 : 팀장님은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깟 학교 폭력에, 그것도 오랜 과거의 일에 지금에 와서 살인을 저지르다니, 그것도 우리 반 아이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팀장 : 선생님! 시간이 없습니다. 집히는 아이 있습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와서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를 입었거나 뭐 그와 비슷한 입장에 처했던 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 중에 왼손잡이인 아이를 생각해 봐주세요.

담임 : 왼손잡이요? (멍하니 교실 벽면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난 듯이) 그런 아이라면, 있습니다. 있어요.

김팀장 : 그게 누구니까?

담임 : (힘없는 목소리로) 서, 준, 석. 아이가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했는데 공부엔 별 욕심이 없었죠. 그 아이가 왼손잡이였습니다. 등치도 천동희 보다 커서 천동희도 이길 정도

는 되었는데 그럴 맘도 별로 없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낮아지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실 문 쪽을 바라보며) 저를 찾아 왔어요.

교복을 입은 과거의 준석이 화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담임선생님에게 다가온다.

준석 : 선생님! (담임 앞에 멈춰서며) 선생님! 선생님은 왜 매번 천동희를 용서하시는 거죠?

담임 : (허공을 응시하며) 제가 천동희를 많이 용서해주었거든요. 전 교육자로서 가르침의 근본은,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동희가 학교폭력으로 교무실로, 경찰서로 불려오고 불려갈 때마다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했지요.

준석 : 선생님! 이번에도 용서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현장을 목격하고도요? 대체 뭘 위해십니까?

김팀장 : (담임을 향해) 방금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 아이의 이 증오는 왜죠?

담임 :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가해자는 항상 용서받는데 피해학생들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었고 특히 건이의 가정은 파괴되고 있었어요. 건이도 우울증에 걸린 후였구요. 폭력에 희생당한 아이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팀장 : 선생님을 천동희, 그러니까 가해자의 편에만 서는 또 하

나의 가해자로 인식했겠군요.

담임 : 네. 전,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피해학생들에게 가해자인 천동희를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해달라고 대신 간청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빠지는 건 자신의 책임이니 천동희의 탓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지요. 그러던 아이가 건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자 학교를 박차고 나갔어요.

준석 : 선생님! 건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신병원이에요! 선생님이 바라신 것이 이거였습니까? 관심과 사랑이요? 사랑과 용서요? 선생님이 바란 건 반 성적이 아니었나요? 그 잘난 선생님의 자존심이 아니었냐 말입니다!

담임 : (대답이 없이 빈자리만을 응시하고 있다)

준석 : 난 당신을 증옅합니다! 증옅한다구요! 학교가 이런 곳이라면 전 떠나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나요? 전 당신의 제자인 제가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말입니다! (돌아서서 책상들을 밀치고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간다.)

담임 : (일어서며 준석을 향해 왼손을 뻗으며 큰소리로) 준, 준석아!

김팀장 : (담임이 왼손을 뻗는 것을 보자 침착하게 수첩을 꺼내며) 저 아이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왼손으로 주머니를 더듬는 담임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진다. 김팀장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급하게 뭔가 지시를 내린다.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서서히 가까워진다. 복도를 통해 급하게 달려오

는 발자국 소리들, 갑자기 문 밖에서 멈추어 선다. 담임은 문 쪽을 향해 허탈한 시선을 던진다.

제 11 장 경찰서

경찰서 형사와 강력1팀 사무실. 박형사와 남형사가 담임과 함께 들어온다. 담임과 김팀장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담임 : 대체 왜 날 이리로 데려온 겁니까? 범인은 잡았습니까? 철희는요? 철희는 안전합니까?

김팀장 : 선생님! (담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천동희가 살해되던 날 밤. 그리고 이번에 죽은 당신의 제자, 김기태가 살해되던 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담임 : 어디 있었냐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님, 지금 제가 범인이란 말씀입니까?

김팀장 : 두 번의 연쇄 살인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먼저 대답하세요.

담임 : (갑자기 말을 잃고 망연히 김팀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린다)

김팀장 : 당신을 연쇄살인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며) 범인은 당신이었어요.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할 제자를 살

해한 거죠.

담임 : (여전히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말이 없다)

김팀장 : 선생님, 왼손잡이죠? 수첩을 꺼낼 때, 준석이를 향해 손을 뻗을 때 알아봤습니다. 이번 연쇄살인범도 왼손잡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사랑과 용서만이 길이라고 믿으셨다면서요?

담임 :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입을 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김팀장 : 그런데 왜 죽였습니까? 끝까지 믿고 인도했어야 하잖아요?

담임 : (말이 없다)

김팀장 : 좋습니다. 저부터 말하죠. 우린 처음에 당신을 용의선상에 올리질 않았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죽어가자 제3의 인물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취했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증오했던 또 다른 제자를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그 제자의 키와 우리가 CCTV를 통해 보았던 범인의 키와는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천동희가 살해되던 날 천동희는 범인의 얼굴을 보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천동희와 당신을 증오했던 그 아이가 범인이라면 천동희는 결코 반가워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목했던 준석이, 당신처럼 왼손잡이인 서준석이의 알리바이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방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더군요.

담임 : (비통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김팀장 : 게다가 천동희가 일하는 곳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두 번째로 살해당한 그 유학생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이었구요.

박형사 : 맞습니다. 당신은 두 번째 피해자가 이태원 술집에 들러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거기서 피해자를 뒤 쫓아 갔더군요. 당신이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물론 명확히 구분은 되지 않았지만 천동희를 살해한 범인과 같은 모자에 같은 키와 얼굴 윤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번째 피해자 역시 당신과 얼굴을 마주치자 반가운 얼굴로 반기더군요.

남형사 : 우리는 당신이 말했던 서준석에 대해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아이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연락을 했어요. 서준석은 자신이 보고 들었던 천동희와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비밀을 학교를 떠나기 전 당신에게 말했고 당신은 엄연한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고 부인했다고 하더군요.

김팀장 : 당신은 교육자로서의 당신의 실패로 괴로워했고 두 제자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배신당하자 인간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고 그 때문에 더 괴로워했어요. 그 정신적 고통은 건이라는 학생의 가정이 파탄되고 건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자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인을 부를 만큼 강한 증오로 발전한 거구요.

담임 :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연다) 네, 맞습니다. 그 녀석들을 증오했습니다. 피해자 건이를 가운데 두고 그 녀석들이 거

래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건 제 자신의 교육철학과 신념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김팀장 : 용서와 사랑, 이것을 너무나 간단히 부정해버리는 행위였겠지요.

담임 : 그런 사실을 알고도 저는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녀석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 용서했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도 용서했고 피해자인 자신들도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건이는 정신병원에 있고 동희는 용서를 받고 싶어 저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김팀장 : 외국으로 그냥 떠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잖아요? 천동희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살도록, 그동안만큼은 그 마음속에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다운 무언가가 살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 천동희는 왜 죽인 겁니까?

담임 : 동희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건 그저 평범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그 아이는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다시 새로운 삶의 싹을 틔울 수 있었는데 그 아이는 더 이상 용서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 어떤 인간적인 고민의 대상도 아닌 게 된 겁니다. 천동희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강탈당한 느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녀석들은 피해자의 탈을 썼을 뿐 자신들이 동희를 조종해서 건이에게 끊임없는 폭력을 사용하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종교에 귀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빌미로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동회처럼 적어도 용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귀국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교는 인간의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가교가 아니던가요?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용서도 미움도 증오도 다 백지화한다면 그건 인간에 대한 배신일 뿐입니다. 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코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내버릴 수가 없었던 말입니다.

김팀장 : 그래서 택한 것이 살인이란 말입니까? 그 아이들로부터 그 모든 가능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면서 말입니까?

담임 : 형사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흑! 흑! 흑!

담임이 머리를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사무실 문을 박차며 이형사가 들어온다. 모자를 눌러쓰고 수갑을 찬 한철희를 옆에 대동하고 있다. 모두의 시선이 이형사와 한철희에게 향한다.

김팀장 : (놀란 표정으로) 이형사! 어떻게 된 일이야?

박형사 : 한철희는 왜? 비행기는 어찌고?

이형사 : (한철희를 의자에 눌러 앉히며) 팀장님!

김팀장 : (한철희를 향해) 아니, 저 모자는—? 그렇다면?

이형사 : 네, 맞습니다. 한철희가 범인이었습니다.

김팀장 : 뭐야? 이형사! 지금 무슨—, 그럼 이 담임선생님은?

담임 : 아닙니다, 팀장님. 철희는 범인이 아니에요.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범인이라구요!

김팀장 : 가만히 계세요! 이형사! 어떻게 된 거야?

이형사 : 공항에 나가서 한철희를 찾아보니 모자를 쓰고 있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모자여서 마침 CCTV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해보니 같은 모자였습니다. 천동희 살해범과 김기태 살해범이 썼던 것과 같은 모자 말입니다. 그때 마침 박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왼손잡이를 확인해보라구요. 그래서 모자를 벗어보라고 하자 자기도 모르게 왼손으로 벗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뭔가 있겠다 싶어 한철희의 몸과 가방을 수색했습니다.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철희의 모자를 벗겨 담임에게 씌우며) 한철희와 담임선생님이 키도 비슷하고 인상착의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팀장 : (둘을 번갈아 보며) 보니까 그러네. 비슷한 게 아니라 딱 이야, 딱! 왜 한철희를 의심하지 못했을까? 이것 참. 완전히 허를 찔렸군.

박형사 : 그런데 한철희에게서 칼이 발견되었다고? 칼은 공항검색대를 통과하지 못 할 텐데?

이형사 : 살인현장이나 기타 국내 어느 곳에도 버릴 만한 곳이 없자 비행기 탑승 전에 화장실 등에 버릴 생각이었다는군요. 그러면 검색에도 발견되지 않고 우리도 찾지 못해 사건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에 빠질 테니 말입니다.

김팀장 : 범죄는 프로지만 뒤처리리는 아마추어군.

담임 : (안타까운 표정으로) 철희야! 어떻게 된 일이나! 응?

한철희 : (담임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형사 : 한철희는 김기태와 함께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김기태와 많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부터 귀국해서 천동희와 김건을 만나 용서를 빌 것인가하는 문제까지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팀장 : 그래서? 왜 그들을 만나지 않고 담임을 만난 거야?

이형사 : 담임을 만나 대신 사죄도 하고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던 거죠. (한철희를 바라본다)

한철희 : (고개를 숙인 채) 침부터 기태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태가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동희가 소년원에 들어간 후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자 건이를 노골적으로 비웃고 병신 취급하는가 하면 형석이와 동수를 돈과 비싼 물건으로 사주해서 건이를 계속 괴롭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하자고 했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지자 이젠 됐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일이니 다 용서하고 기억에서 지우자.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날 종교에 귀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변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국해서 다 만나서 용서를 구하자 그렇게 둘이 의견을 모았지요.

김팀장 : 그래서 담임을 만나서 다 용서했다고 말했다면서? 그리고 나서 돌아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

한철희 : 맞습니다. 그런데 건이를 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이) 기태가 건이를 대하는 태도가 기대 이하였습니

다.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니 자기 때문에 결국 건이가 저렇게 되었고 그 가정도 풍지박산이 되었는데 건이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동정하고 비웃고 (사이) 심지어 정신병원을 나오면서 ‘저런 병신 새끼! 내가 저런 새끼한테 용서를 빌려고 했다니!’ 라면서 건이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 그럴 리가 없어! 기태가 나를 찾았을 땐 진정으로 용서를 받고 싶어했다고!

한철희 : 학교 때도 기태는 담임선생님을 속이고 뒤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을 통쾌해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을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며) 죽기 전까지 기태는 선생님과 우리 모두를 기만한 겁니다. 선생님은 기특하게도 매번 일등을 놓치지 않는 기태가 고마웠을 테구요. 그건 사실 다 사기였습니다. 기태와 우리가 벌인 사기극이었던 말입니다.

김팀장 : 그래서 죽였다? 그렇다고 살인까지?

한철희 : 혼자 떠나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다 지우고 영원히 떠나 버리고 싶었습니다. 기태와 같이 간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놈은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동희가 아니라 기태 그 놈이 말입니다!

담임 : 그럼 동희는 왜? 동희가 너희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했는지 아니?

한철희 :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마저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희 역시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와서 보니 동희는 우리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건이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용서했고, 하! 하! 그러니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 셈이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말입니다. 용서받고 싶어 하는 동희를 보자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자의 고통을 알게 해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통쾌한 복수죠! 아닌가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아마 동희는 자살을 택하고 말았을 겁니다.

박형사 : 결국 죽을 만한 사람을 죽여주었다는 거군. 전형적인 범죄자의 심리네요. 그래도 종교에 귀의했다는 사람이 살인을 택하다니!

한철희 : 그것이 내가 발견하고 선택한 저만의 종교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다 불행하게 되느니 삶이 무의미해졌을 때 삶을 끝냄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은 종교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무의미로부터의 구원 말입니다! 구원! 구원! (고개를 들어 천정을 향해 웃음을 터뜨린다)

담임 : (안타까운 듯) 철희야!

김팀장 : (담임선생님을 보며) 선생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범인인 양 우리를 유도하려 했군요. 철희가 왼손잡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구요.

이형사 : 그런 것 같습니다. 외모도 비슷하고 모자를 쓰면 더 분간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던 거죠. 동기도 충분하고, 어찌면 제자를 외국으로 무사히 보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김팀장 :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선생님! 그럼 두 제자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는 말은 뭔가요?

담임 : 다시 모두를 교실로 모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모이게 해서 정말로 용서가 뭔지 가슴으로 느끼고 온 영혼을 다해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철희 : (담임선생님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선생님! (고개를 떨군다)

김팀장 : (담임선생님에게 허리를 굽히며) 어쨌든 선생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몰라 뵈고 저희가 감히 범인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전히 철희를 바라보고 있는 담임에게 다시 한 번 깎듯이 인사를 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선생님 좀 모셔다 드려. 택시도 잡아 드리고. 어서! 서장님이 아시면 문책감이라고!

박형사, 담임을 일으켜 문 밖으로 안내한다. 박형사가 철희를 돌아보며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담임을 정중히 모시고 나간 뒤 잠시 후 문 밖에서 차들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충격소리가 들려오고 동시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형사들이 달려 나가고 뒤 이어 한철희가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 나간다.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진다. 한철희가 다시 선생님을 부르며 절규하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제 12 장 학교 교실

교단에는 담임의 영정이, 그 옆으로 몇 개의 책상 위에는 동희, 기태의 영정이 놓여있고 형석, 동수, 철희, 건이, 그리고 준석이 조문을 하고 있다. 출입구에는 조문객들과 이형사와 박형사, 소년원 직원들, 그리고 정신병원 관계자들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형석, 동수 : (절을 마치고 일어선다)

철희 : (절을 하고는 일어서질 못한 채 흐느낀다) 선생님! 선생님!

형석, 동수 : (울음을 삼키며 서 있다)

준석 : (절을 마치고 말없이 영정을 바라보고 서 있다)

건이 : (엄숙한 분위기는 아랑곳없이 혼자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철희에게) 철희야. 외국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나 심심해 죽겠거든. (철이를 잡아 끈다)

준석 : 건아! 그만 해! (건이를 떼어 놓는다)

건이 : 왜? 히, 히. (갑자기 영정으로 달려들며) 선생님도 모시고 가야지! 여기 기태하고 동희도! 히, 히.

막무가내로 영정을 내리려는 건이를 준석이 제지한다. 준석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건이가 영정과 조화를 잡으려하자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몰려와 건이를 끌고 나간다. 영정이 깨지고 조화가 난잡하게 흐트러진다.

건이 : (발버둥을 치며) 놔! 노라구! 모두 여기서 나가야 해! 여

기서 나가야 한다구! 니들 여기 있으면 위험해! 다 미쳐버릴 거야! 내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니까 같이 가자! 응! 어서!

건이가 문 밖으로 끌려 나가면 문 밖의 형사들이 들어와 철희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데리고 나가고 나머지 아이들도 관계자들과 함께 나간다. 교실이 텅 비면 멀리서 수업시간을 알리는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담임선생님이 다섯 명의 어린 아이들 출석 부르는 음성이 꿈인 양 아득히 메아리친다. 아이들이 크게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선생님의 호명에 화답한다. 막.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모든 담론들을 보면 오직 사태의 표면인 물리적 '폭력' 만을 다룰 뿐 그 숨겨진 이면,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과 그들의 한 가운데에 있는 교사의 마음은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학교폭력을 다루는 언론과 정책의 한계일 것이기에 매일 매일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그 이면을 다루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언론이라는 권력도 아니요 정책결정자의 권력도 아닌 문학의 힘이라 생각했기에 몸살을 앓아가며 술한 밤 충혈된 눈을 비벼가며 교정에 교정을 거쳐 '용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밖에 좋은 평가를 받아 상까지 타게 되어 기쁩니다.



문원초등학교

이 용 옥

장 마

경호 : 아, 여보! 날 용서해줘! 그런 줄도 모르고……. 용서해줘!(울먹인다.)

부인 : (경호의 손을 잡으며)용서는 필요 없어요. 약속이 필요할 뿐이지요. 생각나요, 당신? 어느 봄날 진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었죠?

경호 : 그 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부인 : 다정하게 공원을 거니는 노부부를 보면서, 그들처럼 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했었죠?

경호 : 그래, 오래오래 그렇게 살자고 했었지.

부인 : 그 약속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경호 : (감격에 겨워 다시 부인의 손을 감싸주며) 여보!

부인 : 그래요, 그 것 뿐이에요, 여보! -본문 중에서-

장 마

등장인물

경호 (43세, 만성 신부전증 환자)

부인 (경호의 이혼한 아내, 39세)

직원 1. 2. 3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 경호의 직장 동료들)

의사 (남)

원룸 주인 (여)

진영 (경호의 딸)

다방 아가씨

일반적인 모습의 종합병원 의사 진료실.

허술한 차림의 경호 환자석에 앉아 있다.

의사 : (검사 결과지를 보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김경호 씨의 신장은 정상 신장에 비해 기능이 15% 이하로 심하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신장이식을 해야 하나 용이하지 않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호 : (애원조로) 그럴 처지가 못 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의사 : (전혀 감정의 동요 없이) 더욱이 김경호씨 지금 혈압이 220을 넘어서고, 식전 혈당치도 460을…….

경호 : (신경질적으로)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의사 : 넘어서고 있어요. 제 소견으로는

경호 : 입원해서 투석을 받으라?

의사 : 우선 입원하여 혈액 투석이라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경호 : (애원조로) 글썄, 그게 제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병가를 내면 전 이제 직장에서 쫓겨…….

의사 : (강하게)현재 상태로 방치한다면 경호씨 단 몇 개월도…….
(하려던 말을 참으며) 그래도 최선을 다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호 : 그러니까 약을 주시라고요. 약을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의사 : 벌써 2년 째 약을 드셨지 않습니까? 이젠 약 자체에도 내성이 생겨 투약 가능한 약품 찾기도 힘들고요, 고혈압과 당뇨의 합병증이 심해져 약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어요. 벌써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경호 : 그렇지만 제 형편도 좀 봐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겐 혈액투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럴 시간도 없고…….

의사 :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군요.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정하게) 간호사, 다음 환자!

머뭇거리는 사이 다음 환자 들어오고 쫓겨나듯 문을 나서는 경호.

암전

2

허름한 원룸. 한 쪽으로 낡은 반쪽짜리 문갑 위에 역시 낡은 17인치 텔레비전 뒤쪽으로 조립식 옷장과 행거에 옷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걸려있고, 그 아래 이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경호, 신문을 펴고 라면을 먹으며 신경질적으로 TV채널을 돌려댄다. 화면이 거칠게 흔들리는 텔레비전.

경호 : (리모콘을 집어 던지며)빌어먹을! 고물딱지이지이긴 너나 나 나 마찬가지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나, 전신이 뼈그럭거리는 너나…….(라면을 먹으려다 바라보며) 삼박자가 척척 맞네. 불어터진 라면까지.(힘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약 한 주먹을 먹는다.) (발에 감긴 붕대를 풀며) 이놈의 발가락은 썩어 버린 거야, 빠져 버린 거야. 아리고 쭈서서 살 수가 없네.

그 때 문 두드리는 소리, 경호 일어난다.

주인 : 김씨, 있수?

경호 : (당황스럽게 주저앉는다.)

주인 : 문 좀 열어봐요.

경호 : (얼른 불 끄고 구석 쪽으로 숨는다.)

주인 : 안에 있는 줄 다 알아. 벌써 몇 번쨌데. 집에 들어온 것 다 알고 왔어. 오늘은 그냥 안돌아 갈 걸. 문 열어! 열라고!

경호 : (이불 속으로 숨어 눈만 내놓고 우스꽝스런 움직임과 표정)

주인 : 흥, 이번엔 안 될걸. 내가 만능키 가지고 왔거든. 날마다 허탕 칠 줄 알고?

열쇠 돌리는 소리, 몇 번의 시도 끝에 문 열리는 소리

경호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잠자는 척

주인 : 어휴, 이 냄새하며, (벽을 더듬어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고 방 둘러보며) 방 꼬라지하며. (이불을 발로 툭 차며) 일어나요! 그리고 있으면 내가 못 찾아낼 줄 알고!

경호 : (방금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깜빡거리며) 누구세요? (그제야 알아본 듯 벌떡 일어나며)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제가 약을 먹고 막 잠이 들어서…….

주인 : 흥, 약 먹고 잠 드셨어? 약 드시고 잠 드셨으면 이 라면은 언제 드신겨? 라면 그릇에 김도 안걸렸구만. 어쨌든 참 알현하기 힘들우.

경호 : 예, 제가 직장엘 나가다 보니…….

주인 : 그래, 직장도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방세를 밀려놨수? 딴 건 몰라도 방세는 쥐야 나도 먹고 살 것 아니야? 벌써 몇 달 쯤지 알고나 있소?

경호 : 아, 예. 알다마다요. 드린다 드린다 하면서도 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

주인 : 형편이고 아우편이고 간에 사람이 말야, 경우가 있어야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증금 월세로 다 까먹고, 벌써 닉 달
째 일원 한 푼 내놓는 것 없이 배 짜라 눌러앉아 있으면 난
대체 어찌란 말야.

경호 : 드려야지요. 병원비며 약값이며 생각지 않은 돈이 …….

주인 : 여러 말 필요 없고 언제 줄 거요? 능력이 안 되면 아예 내
놓고 이사를 가던가.

경호 : 이사는 무슨 이사요. 얼른 만들어 드려야지요.

주인 : 아 그 얼른이 언제난 말이야.

경호 : 월급 타면 우선 어르신 방세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인 : 월급, 월급. 언제나 똑같은 소리. 그래, 그 월급날이 대체
언제야?

경호 : 돌아오는 이십오일입니다.

주인 : 아직도 스무날이나 남았군. 하여간 이번에 약속 어기면 무
조건 방 내놓을 줄 알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믿어 볼
테니.

경호 : 아, 예. 예. 그 날은 꼭 드리겠습니다.

주인 : 그리고 방 좀 깨끗이 써요! 냄새하며……. 청소 좀 하고. 남
의 집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어디 방 놓아 먹겠어요?

경호 : 네, 청소 해야죠. 그럼요.

주인 냄새에 못 견디겠다는 듯 얼굴 찌푸리며 밖으로 나간다.

경호 : (따라 나가며) 차라도 한 잔…….

주인 : (비꼬며) 김씨나 열심히 마셔요.

경호 : 살피 가세요.

주인 : 그나저나 이놈의 장마 언제 끝나나? 또 비 오누만.

배웅 후, 무너지듯 이불 위에 주저앉는다.

그 때 울리는 휴대폰 소리

경호 : 여보세요? (애써 밝은 척)예, 엄니. 저 경호예요. 저녁은
잡셨고? 아, 그럼요, 직장에서 먹고 왔어요. 저야 별일 없
지요. 엄니 다리는 어떻게? 그만 하시다고? 무리 하지 마
시고. 비 피해는 없나요? (갑자기 들떠서)송아지 낳았다
고? 벌써 그렇게 됐나베. 에미 새끼 둘 다 건강하고요? 어,
어, 그럼요. 저야 건강 하지요……. (목이 메인다) 아니, 별
거 아니예요. 목이 좀 잠겨서. (머뭇거리다가) 진수는 어때
요? 잘 있죠? (급히 제지)아니, 바꿀 필욘 없고. (폴죽어)
죄송해요, 맡겨놓고 가 보지도 못하고. 돈 몇 푼 보냈어요.
운동화 낳았다고 사달라고 하던데……. 축구공도 하나 사
주면 좋을 텐데 될까 모르겠네……. 네. 제 걱정은 마시
고……. 엄니 다리 조심하시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만지작거리다 잠전

3

아파트 관리 사무실.

관리원 셋이 담배 피우며 커피를 마시며 잡담하고 있다.

직원1 : 그 동은 좀 어떤가? 우리 동은 보통 문제가 아냐. 온갖 쓰레기를 다 휘말아다 지하주차장에 밀어 놔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직원2 : 말도 많아. 그 동은 그래도 물이라도 다 뺐지. 우리 동 주차장엔 아직도 물이 무릎까지 차. 아이고, 지하 주차장에 물차니 대책 없더구먼. 물은 삼시간에 들어차는데 차들은 줄줄이 빠져나오겠다고 영켜 있고. 끌어다 세울 데가 없으니 부릉거리기만 하지 나가지는 못하고.

직원1 : 아이고, 우리 동 사모님 하나는 죽을 뻔 했어. 다 늦게 물찬 줄 알고 내려와 차에 들어가 시동은 걸었는데, 사정없이 물이 차오르다 보니까 어느새 유리창까지 올라온 거야. 오매불망 산 벤츠 신병이라 꼭 끌고 나와야겠다는데 길이 뚫려야 말이지. 나오라고 방송을 해대도 미련 못 버리고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수장당할 뻔 했지. 어쩔 수 없이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오면서도 내 벤츠! 내 벤츠! 하며 우는데 안 된 생각보다도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그 시커먼 눈물이랑…….

직원2 : 아이고,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사람 명줄만 할까? 그리고 있다 발견 못하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참 보기 어려운 장관이긴 하더라. 응텅이가 (양팔을 최대한로 벌리며) 이만한 꺼명차들이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서는데 비오기 전 개미떼 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직원3 : 그란디 우리 동엔 벤츠랑 아우디 두 대 굴리는 사장님 있

는디 하나토 못 끄냈어라. 우리 같으면 속 창시 문드러져
뒤져빨텐디, 그 낭반 말이 보험 다 들었는디 뭐 걱정 할
일이냐고? 위메, 담 날 봉께 그 영감탱이 더 크고 빠까 빨
쩍한 비엠더블잉가 뭐싱가 타고 퇴근하더라..... 사람도
지각각, 죄도 지각각이더라고 하여간 이 인간들 사는 시
상은 우덜하고는 차원이 다르당께.

직원1 : 그래, 그 사람들이야 뭐 걱정 있겠어? 보험 들었으니 보
상 받을 테고, 없으면 다시 사면되지. 썩고 썩게 돈인데.
우리가 문제야. 엉킨 것, 망가진 것 고쳐야지, 여기 저기
불러 다녀야지.

직원2 : 우리 동은 물 먼저 퍼내야 해. 조명도 망가진 지하에서 빨
같은 진흙에 비벼 눈 쓰레기 치워야지.

직원3 : 하이고! 일이나 지대루 할 수 있간디여? 이 집구석서 물
샌다, 저 집구석서 전기 고쳐도라, 옥상 공구리 쳐야제.
니미럴거 된 동네 똥개새끼 이름 부르디끼 여그서 워리,
저그서 메리 정신없이 불러제껴싼께.....

직원1 : (웃으며) 그럼 자넨 메리여, 워리여? 개새끼 족보에 입적
했으니 축하할 일이네.

함께 웃는다.

직원1 : 그나저나 김썬 오늘도 결근인가? 쥐새끼라도 불러서 부려
먹고 싶은 땀데 허구헌날 결근이다 병가다 해 쌓니 원.

직원3 : 오늘은 새벽가치 와서 관리소장 방으로 들어 가던디요.

직원2 : 나온들 뭐하나. 얼굴은 텅텅 붓고, 눈은 싹빨개 가지고,

비틀거리며 쫓아다니면 곧 쓰러질 것 같아 신경 쓰여 일이 안돼요. 맥아리가 없어 벽돌 한 장 들고도 씹씹거리기만 하고…….

직원3 : 어제 관리과장 말이 짤라 치월뿔라가능 거 같더라고. 뿔썰 판 사람 구해 논 눈치여. 소장 친척이래나 뭐래나. 김씨두 신세 각다분허게 생겨뿌렸어.

직원2 : 그럼 그저께 소장실에 왔다 간 그 젊은인가? 꽤 빠릿빠릿하고 인사성도 밝더라.

직원1 : 내가 볼 땐 그 사람 다 뻘어. 혈색하며 붓기하며. 당뇨로 눈도 제대로 안 뵈는지?

직원2 : 벌써 언제 부터야? 신부전에 당뇨 고혈압 겹치면 여간한 사람도 배겨내질 못하지. 더구나 살뜰히 보살펴주는 마누라가 있나, 걱정해주는 자식이 있나. 허구헌날 라면 부스러기에 그 독한 약만 털어 넣으니…….

직원3 : 언놈이 아니래요. 퇴직되작 생각허면 그 사람도 영 까깝시럽게 생겼소 잉.

직원2 : 췌, 나오네 그려.

경호 절뚝거리며 관리소장 방에서 나온다. 뉘이 나간 듯 멀거니 허공만 바라본다.

직원1 : 좀 어쩐가?

직원2 : 병원은 잘 다녀왔고?

직원3 : 근디 소장이 뭐래 씹디여?

충격을 받은 듯 생각에 빠진 듯 대답 없이 두어발짝 떼던 경호 그 자리에 꼬꾸라진다.

직원1 : 김씨 왜 그러. 이 사람, 정신차려!

직원2 : (부축해 일으키며) 허 이사람, 정신차려요, 119! 119!

직원3 : 위메! 위째 이런디야.

직원1 : (핸드폰으로 급히 전화)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요?
강남. 강남구 대치동 꿈드림 아파트 관리 사무실요! 빨리
요, 빨리!

다급히 잠전.

4

의식 잃은 경호의 무의식적인 꿈 속.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봄의 공원.

젊은 경호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한다.

부인 : 아, 너무 예뻐요. 저 꽃들 좀 보세요. 어제는 봉오리만 맺혔
더니 오늘은 활짝 폈네요. 어쩜 조런 빛깔이 나올까?

경호 : 그러게 말이야. 연분홍 진달래랑 저 노란 개나리. 색깔도
참 다양하기도 하지.

부인 : 꽃만 이쁜 게 아니에요. 이 계절엔 꼭 잎도 꽃 같아. 연둣빛
으로 야들야들 피어나는 새싹들 보면 꼭 우리 진수 그러잖

손 잡아. 양징스러워서 잡고 뽀뽀라도 하고 싶어요.

경호 : 그러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이뻐. 탄생하는 모든 생명들. 햇살과 바람까지도. (두 팔을 벌리며 눈 감고 햇살과 바람을 음미하는 자세)

부인 : 호호, 당신 꼭 시인 같아요. 봄에 취한 음유시인

경호 : 그래? 그 말 듣기 좋군. 봄의 음유 시인이라……. 그리고 보니 당신의 생기 있는 얼굴이 더 이쁜데. 당신이야말로 피어나는 봄의 여신 같구려.

부인 : 그래요? 고맙네요. 진수 낳고 몸매도 망가지고 얼굴도 말이 아닌데 그렇게 봐주니.

경호 : 내 눈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깨를 감싼다.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

부인 : 여보, 우리 벌써 대출금 3/4은 갚았죠? 반년만 지나면 다 갚을 것 같아. 그것만 끝나면 진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난 그 생각만 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경호 : 당신이 알뜰살뜰하게 살림해준 덕분이지. 난 언제나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부인 :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요. 여보, 우리 라이프 플랜 세워 봐요.(벤치에 앉는다)

경호 : 하하, 라이프 플랜? 벌써 몇 번째야? 외울 수도 있지. 앞으로 삼년 후 스물다섯 평으로 집 늘리고,

부인 : 또 삼년 후엔 서른세 평.

경호 : (부인 옆에 앉으며 은근하게)집만 늘릴 거야? 진수 동생도 낳아야지. 당신 닮은 예쁜 딸로 !

부인 : (살짝 얼굴 붉히며) 참 당신은……. 집도 늘렸으니 어머니

도 모셔 와야죠. 혼자서 많이 쓸쓸하실 텐 데.

경호 : 어휴, 요 귀여운 사람. 당신은 참 착하기도 하지. 이래서 내가 우리 마나님한테 꿈쩍 못한다니까.

부인 : 여보, 저 분들 좀 봐요. 저기 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경호 : 그러게.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꼭 스무살 연인 같은 모습 이군.

부인 : 어쩌면 저 나이에든 저렇게 다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넓은 공원에 단 둘만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속삭이며……. 부러운 모습이에요.

경호 : 부러워? 그럼 이리 와 봐. 우리도 이렇게 손잡고, 얼굴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 목도리를 매만져 드리는군. 당신도 내 옷깃이라도 세워 줘 봐요. 할아버진 할머니 손을 잡아 점퍼 속에 찔러 넣으시고. 자, 우리도 이렇게…….

부인 : 아이, 당신도 참. 장난이 아니고요. 난 정말 당신하고 오래 오래 저렇게 다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경호 :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 까지?

부인 :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 까지.

경호 : 모래알에 싹 틀 때까지?

부인 : 모래알에 싹 틀 때까지.

경호 : (장난스럽게)우리 진수가 증손자 볼 때까지?

부인 : 그래요, 우리 진수 증손자 볼 때까지.(마주보며 웃는다.)

그 때 아이의 울음 소리

부인 :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어쩔다더니 (유모차를 들추며) 켜나 봐요, 어휴, 저 얼굴 찡그리는 것 좀 봐. 찡그리는 것까지 예쁘다니까. 하여간 우유 먹을 시간은 잘도 맞춰요.

경호 : 하하.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그렇지.(유모차에서 아이를 안아 내며) 칸트 같은 철학자가 되려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되려나.

부인 : 당신 같은 남편, 당신 같은 아빠만 되면 좋겠어요.

경호 : 어휴, 요 감쪽한 아부의 달인. 고 예쁜 입으로 늘 날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다니까. 우유 가져 왔지?

부인 : 당신이 먹이시게요?

경호 : 나 같은 아빠 되게 하려면 아빠 노릇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하하. (우윳병을 받아 우유를 먹인다.) 그나저나 나도 먹을 시간 됐나봐. 벌써 출출한데.

부인 : 그럼 여보, 나 장봐 가지고 먼저 가서 저녁 지어 놓을게요. (돌아선다)

경호 : (아이를 안은 경호 당황스럽게)여보! 여보! (빠르게 압전)

5

빠르게 밝아지면 병원 침대 위, 링거 꽂은 경호 누운 채 의식이 없다. 초라한 행색의 수심에 찬 부인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다.

경호 : 여, 여보!(허공에 손을 짚는다.)

부인 : (놀라 환자를 살핀다.)

경호 :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두리번거리다) 여기가 어디지?

(부인 보며)누구세요?

부인 : (작은 소리로)물 좀 드릴까요?

경호 : (힘없는 목소리로 다시) 누구세요?

부인 : (일어서며)의사를 불러 드릴게요.

경호 : (갑자기 눈이 커지며) 다 당신!

부인 : (작은 소리로) 그래요. 나예요.

경호 : (좀 더 큰 소리로) 당신 맞지?

부인 : 맞아요.

경호 : 당신이 어떻게…….(일어나려다 힘이 부치는 듯 포기하며)
어떻게 당신이…….

부인 : 전화 받았어요. 쓰러졌다고…….병원이라고…….

경호 : 근데 누가 당신에게…….

부인 : 당신 직장 사람들이. 휴대폰 단축키에 저장돼 있다고…….

경호 : 휴대폰 단축키……. 그럼 그 번호를? 아직도…….

부인 : 그 번호를……. 잊지 않았나요?

경호 : 쓰고 있던 말이요? 정말 그 번호?

부인 : 난 오랫동안 그 번호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번호를…….

경호 : (고개를 돌려 천정을 보며 한동안 침묵. 혼잣말처럼) 휴대폰을 바꾸면 언제나 1번에 저장하게 되더군. 습관처럼. 당신과 함께 살던 때의 그 전화번호를……. (긴 한숨)정말로 통화가 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부인 : 고개 돌려 외면하며 눈물을 찍어낸다. (잠시 침묵) (일어나며)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경호 : (급히 제지) 아니, 부르지 말아요. 그네들 하는 소리야 늘

그거지 뭐.(침묵) 내 꼴이 말이 아니지. 다시 보리란 생각은 못했는데……. (부인을 찬찬히 살핀다.) 어떻게 지냈소?

부인 : (질문에 대답을 피하며) 많이 아프다면서요? 어찌다가 그렇게…….

경호 : 별거 아냐. 현기증이 나서 깜빡 했던 것뿐이요. 근데 이런 호들갑을…….

부인 : 의사한테 들었어요. 신장이 안 좋다고. 합병증이랑…….

경호 :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뿐이라니까.

부인 :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죠. 아직 나이도 있는데…….

경호 : 나이? (여인을 살피다) 당신도 나이를 먹었군.

부인 : (쓸쓸하게) 늙었죠. 많이…….

경호 : (만감이 교차 하듯) 세월이……. 흘렀지……. 칠년이면…….

잠시 침묵

부인 : 진수는…….

경호 : (냉정한 어조로) 당신이 진수를 왜? 진수 안부를 물을 자격이 있나?

부인 : …….

경호 : (돌아누우며) 이제 그만 가 봐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요.

부인 : (머뭇거리다가) 갈게요. 아이도 기다리고…….

경호 :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이……. 아이가 있단 말이지. 아이가 기다린단 말이지.(조소) 폐를 많이 끼쳤군.

부인 : (무슨 말인가 하려다 참으며) 몸조리 잘 하세요.(나간다)
경호 : 아이라! 아이……. 아이가 기다린다? (분노어린 표정, 주먹으로 벽을 치며) 그럼 그렇지. 줄줄이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단 말이지!

암전

6

관리사무실 소장 방 앞

온 몸이 비에 젖은 경호와 경비원들이 실랑이를 하고 있다.

경호 : 제발 저리 좀 비켜 주세요. 소장님 만나 봐야 한다고요.

직원1 : 이 사람아, 왜 이래? 진정하라고. 이 장마통에 우산도 안 쓰고 왔나? 옷은 다 젖어 가지고.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

직원2 : 그래요 김씨, 벌써 상황 종료야. 일주일 전부터 새 직원 와서 근무하고 있어. 이러면 김씨 건강만 나빠져. 말 들어.

직원3 : 시방 김씨 쪽이 쪽이겠어라? 사내자석 배창시를 배배 틀어 났는디! 지랄맞은 기상 모다 치워뿔고 으디 가서 술이나 한잔 묵어뿔자고?

직원1 : 이런 정신없는 사람 보게나. 환자한테 무슨 술이여, 술이. 술 먹을 힘 있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 해. 몸도 성치 않은데 직장 나와 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병만 더해. 자네 손해야.

경호 :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손해는 무슨 손해예요?
제발 좀 놔주세요. 소장님 하고 이야기는 해봐야 하잖아요.

직원3 : (비아냥거리듯) 자네는 깨묵도 모리겠지먼 자네 나타나면
소장은 읊는 것이여.

직원2 : (당황하며)시방 무슨 소리여.

경호 : 다 알아요. 핑계김에 나 자르고 자기 사람 데려다 안친 것.
이렇던 저렇던 다 좋은데, 얼굴 보고 얘기는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직원2 : 얘기를 해도 마음은 좀 가라앉히고. 일단 여기 좀 앉아.
(의자 끌어다 앉힌다.)

온 몸이 후줄근한 채 기진맥진 한 경호. 직원1 의자 끌어다 옆에 앉고,
직원2는 수건 갖다 닦아준다.

직원2 : 이게 빗물이야, 땀이야? 온몸이 흠뻑 젖었어. 멀쩡한 사
람도 이러면 생병 나겠네.

직원3 : 느자구 읊는 말이지먼 우리 원망은 말어. 죽지 못히고 살
아야 할 찢긴 목심 땀세 우리두 워쩔 수 읊이 시키는대루
허능거 뿐이여.

직원2 : (관리소장 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눈짓으로 나무란다.)

직원1 : 차분히 생각 좀 해봐. 어차피 자네가 회사에 나온다고 해
도 작업하는 건 무리야. 매정하게 들릴 진 모르지만 그 동
안 자네 맡은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솔직히 자네랑 한 조인 (2를 가리키며)여기 이 사람이
일인이역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 계속하긴 누구나 힘에 부치는 거고.

직원2 : 윗분들도 업무상 어려움이 있나봐. 주민들 보기도 그렇
고. 생각하면 자네도 서운하다고만 할 순 없을 거야.

직원3 : (눈치없이) 위치키 서운치 않겠어라. 병원에 입원한 새 척
허니 갈아 어퍼뿌렸는디.

직원1 : 하이 참, 그 사람. 눈치 없기는.

직원3 : 고리탐탐하게 원제꺼정 높은것들 눈치만 보고 산답디
여?

직원3 : 차라리 실업수당 받으면서 병원 가서 치료 받는 것이 나
을 수 있어. 우리 아파트 관리로 근무한 지 한 삼년은 넘
지? 실업수당을 받는다 치면…….

경호 : 네, 실업수당 받는 게 낫겠죠.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
서 형님들한테 얹혀서 월급 받는 거 염치없는 줄 다 알아
요. 그래도 제 입장이 돼서 한 번 생각 해 보세요. 삼, 사
년 넘게 직장이라고 다니던 것 병들어 못 쓰게 됐다고 보
따리 싸서 길 나서는데, 정식으로 절차도 못 밟고 내쳐지
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지요. 근무하는 동안은 저도 최선을
을 다 했다고요.

직원1 : 누가 모르나? 김씨도 건강할 땐 참 열심히 했지. 재작년
주민들이 뽑은 성실경비 아니었어? 과장님 말로는 자네
랑 합의 봤다고 얘기하던데…….

경호 : 합의요? 그 때 얘기는 정직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죠. 낫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와서 근무할 수 있게.

직원3 : 김씨가 여그서 꼬꾸라져 뽕게 후다닥 겁이 나뻘거여. 휴
직이니, 정직이니 혀쌈타가 콧 순직 해뽀면 곤란시러질
탱게. 참말로…….

경호 : 맞는 말이네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소장님만 골치아파질
테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나요? 죽는 게 그
렇게 쉬우면 차라리 마음 편히 죽어 버리지요.

직원2 : 아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험하게 하나. 쓸데없는 소리 그
만 하고 잘 생각해봐.

경호 : 제가 정말 속상한 거는 저와 한 얘기와 일처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도 제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정식직원을
채용하면 안 되지요. 요즘 임시직으로도 얼마든지 인력은
구할 수 있잖아요.

직원3 : 하이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아무리 발싸심 혀도 소
양없는 짓이여. 그 사람은 소장 친척이여, 친척! 똥을 알
고나 씨부리라고 시방.

직원1 : 친척이라 그랬겠어? 우리 모르는 그런저런 이유가 있겠
지.

직원2 : 김씨가 뭘 걱정 하는지 다 알겠는데, 일단 김씨한테 다
시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너무 흥분도 말고,
서운해도 말고 맘과 몸을 추스르라고. 나머지는 그 다음
이여.

경호 : (절망적으로) 제게 무슨 다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이리저리 떠돌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지요. (감정에 복 바쳐 울음이 터진다.)

직원1 : 또 무슨 말을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이겨 내겠다

는 의지를 가져야지.

직원2 :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 말아. 김씨나 우리나라 알고 보면 다 같은 처지지 뭐. 일회용 인간들 아냐? 필요하면 쓰고, 쓸모없어지면 버리는.(1, 2 다 같이 의기소침해 한다.)

직원3 : 성님 모처럼 씨잘떼기 있는 말 하시네. 우린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일회용 맞구마이라.

직원2 : (등을 토닥이려다) 아이구 이사람, 떨고있네. 옷이 다 젖었으니 그렇지. 이놈의 장마에 해 구경할 날이 없으니.

직원1 : 사무실에 놓고 입던 김씨 작업복 있잖나. 그 거 라도 좀 갈아입게 가져와 봐.

직원3 : 있긴 뭐가 있다? 엇그제 봉께 신입이 김씨 물건은 각단지게 개려서 내뿜든디.

경호 : 뭐라고요? 제 물건에 손을 댔단 말입니까.

직원 3 : 더 입을 일 읊을 거람서 백 리터 씨레기 봉투에 모다 담어다 베려 뿌렸어. 꺾적지근하담서 앓을개도 다시 산다 던디.

경호 : (허탈하게 웃으며) 빠르기도 하네요. 사람을 쫓아내고도 모자라 물건까지 죄다 없앴단 말이지요.

직원1 : (2에게) 그럼 자네 작업복이라도 좀 가져와 봐. 빨리 같이 입지 않으면 감기 걸리겠어.

직원2 : (일어선다)

직원1 : (3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뜻한 차라도 가져와.

경호 : (마음을 정리한 듯) 됐습니다. 가야죠. 제가 더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네요.

직원1 : 그래도 이사람 몸이라도 덮혀서 가야지. 병나겠어.

경호 : (자조적으로) 병이요? 이젠 더 날 병도 없습니다. 병이란
놈들도 비집고 들어앉을 자리가 있어야 오지요.

직원1 :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건강만 다
시 찾으면 직장이야 마음먹기 아니겠나.

경호 : (일어선다.)

직원2 : (옷가지고 등장)

직원3 : (차 가지고 등장) 워치키, 이거래두 마셔볼터?.

경호 : (대답 없이 일어서 허탈하게 문을 나선다)

직원1, 2 :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직원3 : 저러코롬 낙담 했는디 즈그 지비나 지대루 찾아갈수 있
을랑가 모르겠네. 씨부릴거, 승질나는 김에 철길로 확 떠
들어 뒤편 뺨지능거 아녀?

직원2 : 무슨 그런 악담을. 정씨는 거 말조심 좀 해야 해!

직원3 : (싸울 듯)요런 미꼬미 읊는 놈의 시상에 워치키 주렁이를
딱 다물고 살 수 있간디?

직원1 :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또 쏟아지네 그려. 저놈의
비.

암전

7

우산도 받지 않고 비 맞으며 하염없이 길을 걷는 경호.

휴대폰 진동소리를 깨닫지 못하다 벨 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정신이

난 듯 전화를 받는다.

경호 : 여보세요.

부인 : (소리) 김경호 씨 핸드폰이지요?

경호 : 네 그렇습니다만?

부인 : …….

경호 : 누구세요 말씀을 하세요.

부인 : (소리)저예요.

경호 : 누구시라고……. 진수엄마? 당신이 웬일이지?

부인 : (소리)병원에 갔었어요.

경호 : 왜?

부인 : (소리)당신을 만나야할 것 같아서요.

경호 :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부인 : (소리)지난 번 당신 직장사람들이 알려주었어요.

경호 : 만날 일이 뭐가 있지?

부인 : (소리)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경호 : 알아야 할 일?

부인 : (소리)그래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일.

경호 : …….

부인 : (소리)(강경하게)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경호 : 불일 없을 것 같은데?

부인 : (소리) 이미 알았어야 할 일이에요.

경호 : 그렇다면 굳이 피할 것도 없지. 엄마대왕이 그거 하고 왔다고 돌려보낼 것도 아니고. 여기는……. (흠칫 놀란다. 당황하여)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있는거지? 뭐한

테 흘린 건가?

부인 : (소리)무슨 말이에요?

경호 : (가다듬고 냉정하게)알 거 없고. 신정동 사거리 오리온…….

부인 : (소리)금방 갈게요. (전화 끊는 소리)

경호 : 죽을 자리를 찾아야 할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거지? 감쪽같이 교통사고 처리될 수 있는 곳을 고르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다만 몇 푼이라도 남겨놓고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잖나 말이야. 허술하게 일 꾸미면 보험 사기로 개죽음이야. 개죽음. 돈은커녕 되려 진수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고, 이 머저리야. (생각을 가다듬으며) 금방 오겠다고? 그럼 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인가? 여긴 신혼살림을 했던 곳인데. 이 근방에 살고 있었던 건가? (기억을 더듬어) 옛날 전화번호를 쓴다고 했어. 이 지역이 아니면 그 번호 쓸 수 없지. 그렇다면 다른 놈과도 이 동네에 산단 말이야? 젠장할! 헤어지기 전 부터 이 동네 놈팽이와 눈 맞았던 애긴데. 발칙한 계집! 내가 왜 흥분하는 거지? 벌써 7년 전에 끝난 일 아닌가. 어디 살던, 누구와 살던, 아이를 떼어나 낳았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지금 내가 왜 그 여편네를 만나야 하는 거지? 우습군. (사방을 둘러보며) 저놈의 다방조차 하나도 안 변했네. 저 다방 앞에서 날 기다리던 적도 있었지. (흉내 내며) “내 눈 못 봤어요? 어디 굴러다닐 텐데. 눈이 빠지도록 당신을 기다렸다고요.” 라고 애교 떨며 내 팔짱을 끼기도 했었는데. 뭐야,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빌어먹을!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열 받게 하더니 하루 종일이 엉망이네. 내가 지

금 그 여자를 만나야 할 이유가 뭐야? 미친 짓이지! (경호
휙 돌아선다.)

바로 뒤에 우산 쓰고 있는 부인, 여자 아이를 데리고 있다.

경호 : (마음을 들킨 듯 당황해서) 아니, 벌써?

부인 : 우산도 안 쓰고…….

경호 : (대답 없이 여자와 아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 아이
는……. 경숙이?

부인 : 진영이 예요.

경호 : (낮이 나간 듯) 아니야. 어릴 적 경숙이, 그 애야.

부인 : 그래요. 당신 동생 경숙씨……. 판박이지요.

경호 : 어떻게 경숙이가 당신에게…….

부인 : 내 딸이니까요.

경호 : 당신 딸…….

부인 : 당신 딸이기도 해요.

경호 : (어이없게) 내 딸이라고?

부인 : 그래요. 당신 딸. 진영아, 인사드려. 아빠서.

진영 : 안녕하세요, 아빠? 나 아빠 맨날 봤는데?

경호 : 날 봤다고?

진영 : 네. 집에 있어요.

경호 : 그럼 그렇지. 네 아빠는 집에 있겠지.

부인 : 진영아, 집에 계신 아빠가 누구지?

진영 : (경호를 가르키며 당연한 듯) 이 아빠. 사진 있잖아. 엄마
가 맨날맨날 아빠라고 했으면서…….

부인 : 들으셨죠?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이거예요.

경호 : (상황과악이 안되어) 대체 뭐라는 거야?

진영 : 뽀로로다! (장난감 가게를 가리키며) 엄마 나 저기 갈래.
(우산 밖으로 뛰어 나간다.)

부인 : 비 맞잖아.

진영 : 비 안와요.

부인 : 정말 그쳤네. (우산 접으며) 엄마 저기 다방에 있을게. 멀리 가면 안 돼.

진영 : 네. (모습을 감춘다)

부인 : 들어가서 얘기해요.

경호 : 얼떨떨한 채 진영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따라 들어가 앉는다.

부인 : 옷이 젖었어요.

경호 : (아랑곳 않고) 대체 뭐야?

아가씨 차 주문 받으러 온다.

아가씨 : 어떤 차로 드릴까요?

부인 : 홍차 괜찮죠? 홍차 두 잔.

경호 : 얼음물도 한 컵 주세요.

아가씨 : 네, 홍차 두 잔에 얼음 물. (퇴장)

경호 : 그 앤 대체 뭐야?

부인 : 당신 딸이라고 했잖아요?

경호 : 내 딸이 왜 당신에게 있느냐고?

부인 : 그 애가 몇 살인지 아세요?

경호 : 몇 살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부인 : 여섯 살이에요. 2005년 11월 25일 생. 내가 당신을 떠날
때 그 앤 이미 내 뱃속에 있었어요.

경호 : 당신 뱃속에 아이가?

부인 : 삼 개월이었어요.

경호 : 흥, 그 때 당신 뱃속에 있었다면 내 아인지 어떻게 알아?

부인 : 저 아이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해요?

경호 : 허긴 저 아인 얼굴만 봐도 내 아이가 틀림없는 것 같군. 제
고모 어릴 적 그대로니.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지? 당신의
못된 행실을 변명할 증거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 더욱 가
증스런 일이야. 임신한 몸으로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니.

부인 : 당신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호 : 뭐가 변하길 바라는데?

부인 : (단호하게) 모든 게 변해야 해요.

차 가져 온 아가씨 두 사람을 힐끗힐끗 살피며 차를 놓고 간다.

경호 : (얼음물 마시고) 자, 이제 얘기해 보시지. 무슨 대단한 사
연이 있었는지.

부인 : 맞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 모두. 술집에 나갔던 것도, 사
내들에게 술을 따랐던 것도 모두 사실이에요.

경호 : (벌떡 일어나며) 누가 그런 얘기 다시 듣고 싶다고 했나?

부인 : 그렇지만 모두 틀려요. 당신이 상상하는 건 모두 사실이 아
니라고요. 당신의 망상일 뿐이에요.

경호 : (분노에 차) 망상이라고? 내가 정신병자라도 된단 말인가?

부인 : 세월이 칠년이나 흘렀어요. 이젠 좀 객관적으로 그 시간을 돌아볼 순 없나요?

경호 : 객관이라? 변할 수 없는 진실이 객관적으로 보면 뒤집히더라도 한단 말인가? 괴변은 그만 두시지.

부인 : 그 시절의 당신 자신을 돌아봐요. 어땠었는지.

경호 : 날 보라? 그래, 그 때나 지금이나 난 형편없는 놈이지. 제마누라 하나 건사 못하고.

부인 : 그래요. 당신은 자기 마누라, 어린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때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잘 나갔던 당신은, 핑크빛 전망만 하며 이돈 저돈 다 끌어모아 주식을 샀고, 예고 없이 터진 악재에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빚만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 걸 만회해 보려고 또 다시 도박 같은 투자를 하고, 결국 결혼 사년 만에 장만한 스물한 평 아파트까지 잃고 거리로 나왔게 되었지요. 직장까지 잃어 세끼 끼니 걱정을 해야 했고, 사글세 방 한 칸도 얻기 힘들었어요.

경호 : 그래, 그랬어. 당신과 함께 짚던 라이프 플랜! 그 청사진에 한 발 먼저 다가가고 싶어 무리수를 두다 보니 일이 꼬였던 거라고.

부인 : 그래요. 알죠. 그 무리수에 나도 일조 했다는 걸.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경호 : 마음 넓은 척 하는군.

부인 : 그 후 당신의 모습은 어땠나요? 허구헌날 술만 마셔댔지요. 어린 입에 넣어줄 양식거리가 없는데, 술에 취한 당신은 세상을 탓하며 자신을 쥐어뜯었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지켜봐야 했던 내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월세 낼 돈이 없어 어린 새끼와 거리로 나왔어야 할 판에 내가 뭘 가릴 수 있겠어요? 아무 기술도, 사회 경험도 없는 여자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뿐이었다구요.

경호 : 그래서 그 짓을 했다고?

부인 : 그 짓, 그 짓 하지 말아요.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으니까.

경호 : 그럼 세 살짜리 어린 것까지 팽개치고 떠나야 했던 이유가 뭐였지?

부인 : 당신이었어요.

경호 : 또 나 때문이었다고?

부인 : 그래요, 당신. 내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은 집요하게 날 고문했죠. 자책에서 시작한 폭음이 어느새 내게 옮겨와 폭언에 폭행, 끊임없는 의심……. 당신은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망가뜨렸어요. 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고요. 내가 떠나야만 당신이 자신을 추스를 거라고 생각 했어요.

경호 : 그 어린 것까지 버리고?

부인 : 버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수마저 데려갔다면 홀로 남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했을까요? 당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그 아이를, 내 욕심만을 위해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호 : 핑계가 좋군.!

부인 : 처음에 당신은 당황스러워 했죠. 그리고 날 더 증오했지

요? 어린 진수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진수에게 먹
일 것, 입힐 것을 찾아다니며 당신을 추스르기 시작했어
요. 막노동도 했고, 노점상도 했고, 한 사년 전부턴 그 아
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죠? 난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경호 : 스토커였나? 속속들이 날 감시한!

부인 : 스토커도 감시자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떠나온 물을 바라보는 연어처럼, 언제나 나의 자리를 바
라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진영이와 함께 다시 돌아올 곳.
진영이 진수에게 오빠, 동생, 엄마,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
을 뿐이라구요.

경호 : 흥, 돌아올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긴 세월 동안 진수 한
번을 보러오지 않았단 말이지?

부인 : 진수요? 잘 자랐지요. 듄직하고, 건강하고, 총명하고. 사
내대장부답게 입도 무겁고. 진수가 서울에 있을 땐 어린이
집으로 찾아가 만났었어요. 당신이 어머님 택으로 보내고
부턴 하교 길에 보았고요.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보았을
걸요. 두 달에 한 번씩은 찾아 갔으니까.

경호 : (놀라며) 그럼 진수가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부인 : 물론이에요. 진수와 진영인 남매인 줄도 알고 있죠. 늘
함께 만났으니까. 진수는 어릴 때 일이 각인되어서인지,
내 말은 해선 안 되는 일로 알고 있어요.

경호 : 이런, 맹랑한!

부인 : 어머님도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경호 : 어머니까지?

부인 : 작년에 어머님 집에 들러 이 모든 걸 말씀 드렸어요. 어

머님은 제 애길 듣고, 진영이를 보면서 모든 걸 그대로 믿어 주셨어요. 내가 당신 찾아올 용기를 낸 것도 어머니의 힘이 컸지요.

경호 : 그래. 어쩐지 작년 이후 당신 애길 자주 하셨지. 나의 오해라고. 우리 모자는 만날 때 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곤 했어. 헤어질 무렵이면 어머니 당신 애기를 꺼냈고, 난 발작 난 정신병자처럼 격하게 화를 냈지. 당신이란 존재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처음엔 미워서, 그다음엔 그리워서, 마지막엔 망가진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

부인 : 나 역시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이, 당신 역시 내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진심을 말한다 해도, 당신이 내 마음을 받아줄까 확신할 수가 없었으니까.

경호 : 아아, 그래서 어찌란 말이야?

경호 얼굴을 파묻고 괴로워한다. 부인도 눈을 감고 울음을 삼킨다.

경호 : (마음을 추스르고 낮은 어조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당신도 알잖아.

부인 :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호 : 죽더라도 오해나 풀고 죽으라고? 누명이나 벗고 마음 편히 살아보겠다고?

부인 : 우리에게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경호 : 잔인하군. 내가 죽기 전 면죄부를 얻겠단 말인가?

부인 : (단호하게) 살면 되잖아요.

경호 : 흐흐흐, 살라고! 내게 살라고! 이 세상 죽어가는 존재 중에
살기 싫은 것도 있을까? 살라고!

부인 : 치료를 받아요. 의사가 권하던 혈액투석. 치료 받으면서
장기기증도 신청하고요. 내가 오늘 병원에 갔던 건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경호 : 검사라니? 당신도 어디 아픈 건가?

부인 : 내 신장을 당신에게 이식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검사요.

경호 : 당신 신장을 내게?

부인 : 뜻이 있는 곳엔 희망도 함께 있어요. 살려는 의지를 갖고
거기에 희망을 심어 봐요.

경호 :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처지에 그
많은 치료비와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부인 : 당신은 두 아이의 아빠예요. 어린 것들에게 해줄 일이 많
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라고요.

경호 :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

부인 : 당신과 헤어지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낮에는 리어카에 행
상을 하고, 저녁엔 반찬 주문을 받아 밤새 만들고 새벽이
면 집집마다 배달을 했지요. 이불 펴고 편안히 잠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년을 살았더니 전세지만 내 집이 생기
대요. 작년에는 이 근처 상가에 반찬가게도 하나 냈어요.

경호 :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구만.

부인 : 이제 당신과 진수, 어머님까지 한 집에 살면서 보통사람,
보통 가정의 행복을 누리보고 싶어요. 살아줄 수 있죠?

경호 : 아, 여보! 날 용서해줘! 그런 줄도 모르고……. 용서해줘!(

울먹인다.)

부인 : (경호의 손을 잡으며) 용서는 필요 없어요. 약속이 필요할 뿐이지요. 생각나요, 당신? 어느 봄날 진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었죠?

경호 : 그 때가 가장 행복했었지.

부인 : 다정하게 공원을 거니는 노부부를 보면서, 그들처럼 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했었죠?

경호 : 그래, 오래오래 그렇게 살자고 했었지.

부인 : 그 약속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경호 : (감격에 겨워 다시 부인의 손을 감싸쥐며) 여보!

부인 : 그래요, 그 것 뿐이에요, 여보!

두 사람 손을 꼭 잡는다. 마주 보는 두 눈에 눈물
그 때, 진영이 나타난다.

진영 : 엄마, 장난감 아저씨가 엄마랑 같이 오래. 나 뽀로로 사고 싶단 말야. (엄마 눈을 보며) 어어? 엄마 울어? 아빠도 우네. (얼굴빛이 어두워 지며) 아니야, 엄마. 나 뽀로로 안 사도 돼.

경호 : (눈물 닦고 천천히 일어서 진영의 눈높이로 눈을 맞추며)
진영아, 아빠가 뽀로로 사줄까?

진영 : (밝아지며) 네.

경호 : 그래, 아빠랑 뽀로로 사러 가자.

진영 : 엄마의 눈치를 살핀다.

부인 : 그래 진영아, 아빠랑 뽀로로 사러 가.

진영 : (좋아하며) 네, 아빠. 근데 진수 오빠 것도 사도 돼요?

경호 : 진수 오빠 것 사고 싶어?

진영 : (신나서) 네, 이제 진수 오빠 우리 집에 온댔어요. (노래 부르듯) 그럼 오빠도 줘야지.

경호 : (진영을 꼭 껴안고 얼굴을 묻는다.)

진영 : 아아, 숨 못 쉬어요.

경호 : 그래, 그래. 아빠가 미안. 진영이가 너무 예뻐서 그만…….

진영 : 아빠, 뽀로로…….

경호 : 그래, 뽀로로 사러 가야지. 어서 가자.

진영일 번쩍 안는다. 진영도 아빠에게 안겨 착 감긴다.

부인 : 진영이 무거워요. 내려놔요.

경호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더 껴안고 나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부인 감격과 기쁨의 얼굴로 따라 나간다.

창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맑은 햇살.

그들 떠난 자리에 남은 우산 스포트라이트로 비춘다.

암전



지난 가을, 낙엽지는 동안 키워냈던 희곡 '장마'가 신록이 아름다운 봄날 세상 구경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인물들 이름만 지어줬을 뿐인데 바퀴가 언덕을 구르듯 스스로 이끌어 가던 그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전 그저 받아 적기만 하면 됐거든요. 수상을 계기로 희곡에 한발 다가서보려 합니다. 졸작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과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강원 보건환경연구원

현 근 우

모래성과 홀로서기

범수 :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부족한 걸 지탱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봄이 : 지금 날 지탱해주는 건 노래예요. 누구도 날 지탱해줄 수 없어요.

범수 :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몰라도

봄이 : ...아마, 아마 올지도 모르지요. 내일은 누구도 모르니까요.

범수 : 그럴까?

봄이 : ...신께서 허락하신다면요.

-본문 중에서-

모래성과 홀로서기

등장인물

봄이 (주인공)
박씨 (봄이 아버지)
봄이 엄마
철호 (오빠)
고모
범수 (형)
순희 (언니)
유명한 (작곡가)
김시인 (작사가)
별이 (봄이 친구)
한씨 (별이 아버지)
별이 엄마
정도 (이웃사촌)
형사1
형사2
노름꾼
빠끼 (브로커1)
따라지 (브로커2)

구 성

제 1 막 제 1 장 : 봄이네 집(춘천)

제 2 장 : 소양강변(춘천)

제 2 막 제 1 장 : 작곡실(서울)

제 3 막 제 1 장 : 소양강변(춘천)

제 2 장 : 봄이네 집(춘천)

제 4 막 제 1 장 : 작곡실(서울)

줄 거 리

제 1 막 제 1 장 봄이네 집

화투판이 벌어졌다. 늘 벌어지던 화투판이 아닌 것 같다. 한씨(별이 아버지) 친구들이라면서 낯선 사람들이 동석한다. 노름꾼이 박씨(봄이 아버지)가 발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이다. 고스톱을 치는데, 박씨 꽃발이 최고다. 고도리에 쓰리고까지 거침없이 쌀 5가마니 되는 돈을 한 판에 따기도 한다. 별안간, 별이 엄마가 들이닥치고 남편인 한씨를 끌고 간다. 노름판이 난데없이 중간에 끝나자, 만 돈을 흔드는 박씨와 봄이 엄마는 희희낙락 봄 타령을 부른다. 헌데, 남자버릇 뉘 못준다고 박씨가 계집질에 돈을 펄펄 쓰고 와서 집에서 쫓겨날 지경인데, 다음 날 다시 노름판이 벌어진다. 박씨는 발 판 돈을 다 잃고, 결국 집문서를 내놓고 마지막 판을 벌인다. 꽤 한 곳에 밀려 집문서를 잃게 될 판에, 봄이 엄마의 신고로 형사가 들이닥치고 그 사이 봄이 엄마는 집문서를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엎어진다.

제 1 막 제 2 장 소양강변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렸다. 봄이, 별이, 철호가 “삼각관계”를 결성해서 노래를 부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심사위원인 유명한 작곡가가 봄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인정하고, 작곡가의 서울 사무실에 올라와서 노래를 배워도 된다고 격려한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하다. 노름으로 재산이 없어진 집안 상황과 가수가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합쳐진 봄이는 서울에 올라가기로 결심한다. 봄이는 철호를 만나 상경 소식을 전하고, 철이는 봄이에게 가보로 전해 내려온 금반지를 사랑의 증표로서 선물한다.

제 2 막 제 1 장 작곡실

작곡실에는 가수 범수(형)와 순희(언니)가 있다. 그 둘은 드러내지 않고도 친구처럼 마음이 통하는 동갑내기다. 범수를 내심 좋아하던 순희와의 사이에 봄이가 온 것이다. 범수는 어느덧 인기 가수가 됐다. 범수는 봄이가 와서 작곡실에 활력이 생겼다고 좋아한다. 하지만 봄이는 형의 관심을 애써 외면한다. 유명한 작곡가의 방에는 김시인 작사가가 들르곤 한다. 범수는 봄이의 멘토가 되어 봄이 노래의 장단점을 지적해준다. 그리고 2년 전 작고한 유명한 작곡가의 부인이 봄이와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봄이는 작곡실 멤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들을 고향집에 초대한다.

제 3 막 제 1 장 소양강변

작곡실 식구들이 봄이네 집에 놀러왔다. 소양강변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순희가 고향 신수도의 ‘처녀바위’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별의 상처로 자살한 처녀의 슬픈 사랑이야기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일순 소나기가 올 듯 날이 우중충하게 변하고, 봄이는 소나무숲 사이로 손잡고 나오는 철호와 별이를 발견한다. 봄이의 사랑인 철호와 별이가 손을 잡고 무대 밖으로 지나간다. 봄이는 자신의 사랑인 철호의 배신이 믿기 어려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자신의 뺨을 때려본다. 눈을 감고 고개도 흔들어본다. 봄이는 작곡실 식구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린다.

제 3 막 제 2 장 봄이네 집

집에 돌아온 봄이는 제정신이 아닌데, 노름꾼 일행이 가끔씩 집에 와서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곤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철호와 별이가 사귀고 있으며, 둘이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듣는다. 별안간 노름꾼 일행이 봄이네 집에 들이닥치고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다시 난동을 부린다. 마을의 해결사인 정도가 나타나서 덤벼드는 노름꾼 일행을 업어 메친다. 봄이의 신고로 형사가 들이닥치는데, 노름꾼 일행은 도리어 정도를 폭력범으로 몰아 부친다.

한편 박씨는 청년시절 순사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집문서를 잃을 것이라는 환영에 사로잡혀 자살을 한다. 다음 날 아침, 박씨의 시신을 부여잡고 봄이 엄마와 봄이가 오열을 한다. 봄이는 첫사랑과 아버지를 잃은 것이다.

제 4 막 제 1 장 작곡실

봄이가 작곡실에 출근해서 힘없이 청소를 하고 있다. 김시인 작사가가 노랫말을 지었다며,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붙인 악보 “소

양강 처녀”를 내민다. 봄이는 힘을 얻는다. 봄이는 범수의 아낌없는 관심이 고맙기도 했지만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투의 얘기를 한다. 범수는 속으로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없이 외로운 것이라는 말을 한다. 봄이는 모래성과 홀로서기를 말한다. 1년 후 봄이의 “소양강 처녀”가 가요대제전에서 대상을 받는다. - 막 -

장르 희곡

곳 춘천과 서울

때 70-80년대

제 1 막 제 1 장 봄이네 집

(시골마을이다. 봄이네 집 안방에서 화투판이 벌어졌다. 3월 초입이라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이다. 박씨(봄이 아버지), 한씨(별이 아버지), 노름꾼, 뽀끼(브로커1), 따라지(브로커2)가 앉아 있다. 마루 밖에는 봄이 엄마, 고모가 있다.)

고모 : 걱정이 얼굴에 쓰여 있어요. 세상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봄이 엄마 : 저 양반이 화투를 치고 있으니까.

고모 : 매일 저녁 벌어지는 게 화투판이잖아요.

봄이 엄마 : 이번은 달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켜어. 느낌이 좋

지 않아.

고모 : 그럴 리가요. (노름하는 곳을 쳐다보고는) 별이 아버지 친척이라면서요. 놀다 가겠지요.

봄이 엄마 : 맘이 찹찹하네. 판이 커진 모양임시. 저 양반은 돈 땀다고 좋아하고 있어도.

고모 : 하긴, 저 건너 마을에 노름꾼이 와서 강부자 집안 재산을 엄청 말아먹었다죠. 아는 사람 통해서 접근을 해서는 잃어주는 척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 작은 마을에 그런 일이 닥치겠어요.

봄이 엄마 : 논 판 돈이 있네. 저 양반 마음만 착해서 훌쩍 넘어갈까 걱정이야.

고모 : 멀쩡한 눈은 왜 팔았어요?

봄이 엄마 : 농협 빚 땀시, 이자 갚기도 바쁜 편에 소작 붙이는 게 편할까 해서.

고모 : 빚은 갚았어요?

봄이 엄마 : 저 양반이 다 갖고 있으니 걱정이네. 땅 판지 얼마나 됐다고.

고모 : 그나저나 봄이 시집갈 때 되지 않았어요. 한창 예뻐지던데.

봄이 엄마 : 시집보내야지. 근데 가수가 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속이 타제.

(방안에서는 고도리가 한창이다. 박씨(봄이 아버지) 앞에 돈이 쌓여 있다. 바닥판에는 화투장이 깔려 있다.)

한씨 : 자네 오늘 꽤가 풀리는 날이네그려.

박씨 : 자, 이제 스톱!

노름꾼 : 허허 피박을 못 면하네.

한씨 : 나도 피박이구만.

박씨 : 스톱! 고도리 5점에, 피가 6, 9, 12, 15점에 쓰리고 18점에
양피박! 고렘? 7만 2천원씩 내소.

노름꾼 : 양보도 해주셔야지. 냉혹하게 치십디다.

한씨 : 7만 2천원이면, 가만있어라. 쌀 5가마 벌었소그려.

박씨 : 이거 참, 내 개평은 충분히 드리겠소.

삐끼 : 개평이고 뭐고 손가락 빨게 생겼소. 아따, 이거 우리 형님
다 잃겠네. 왜 이렇게 죽을 쓰노. 우유 값도 안 남겠소.

노름꾼 : 꽤가 꼬이는 걸 어떡하나.

따라지 : 형님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름꾼 : 박씨! 집 한 채 사셔도 되겠소 그려. 내 몇 푼 안 남았으
니 ‘섰다’로 합시다.

한씨 : 그러쥬.

삐끼 : 빨리 손 털고 가는 게 속 편하지.

따라지 : 머, 빨리 끝내지비.

(체격이 남편인 한씨보다 큰 별이 엄마가, 황급히 무대로 들어오며)

별이 엄마 : 봄이 엄마, 별이 아빠 어딴소?

봄이 엄마 : 저기서 한 판 벌여졌다마.

별이 엄마 : 어휴! 이 양반이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서

봄이 엄마 : 자네 친척이라 안 했나?

별이 엄마 : 친척은 개뿔이 친척이요. 생판 모르는 것들이 와서 궁
시렁궁시렁거리더만

고모 : 쌀가마니 얘기 나오는 거 보니 판이 커요.

별이 엄마 : 내 이걸 그냥!

(그때, 별이 엄마의 언성이 높아지며, 노름판이 벌어진 안방으로 올라
가서, 남편인 한씨의 옷자락을 잡아챈다.)

별이 엄마 : 야! 이 놈의 서방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농사나 제대로 지을 것이지 노름은 웬 노름.

한씨 : 이게 웬 행패단가.

별이 엄마 : 어서 일어나라요!

(별이 엄마가 한씨를 강제로 끌고나가고, 소란 끝에 각자 판돈을 챙
겨 흩어진다. 박씨, 봄이 엄마, 고모가 남았다. 박씨는 입이 귀에 걸
려 있다.)

박씨 : (두둑해진 비닐봉지의 돈을 꺼내 흔들며) 꽃단장을 하려는
가. 봄 여행을 가려는가. 열일곱에 시집와서 온갖 고생 시
켰구려. 꼬인 매듭 풀리려고 논밭을 팔았던가. 인생을 즐
기려니 백발이 성성하네. 무병장수 부귀영화 돈에서 나왔
으니, 고진감래 면한 후에 참 행복이 찾아왔네. 조강지처
큰 은혜를 내 어찌 잊겠소! 여보! 당신 은혜를 내 어찌 잊
겠소!

봄이 엄마 : (역시 돈을 꺼내 흔들며) 정말인겨. 정말인겨. 봄꽃처럼 돌아와서 호강만이 남았는겨? 정말인겨. 정말인겨. 내 양 볼을 꼬집으소. 빨리 내 볼을 꼬집으소. 삼십년 고생 세월 먼 하늘로 날아가고, 고생 끝 행복보따리 제비가 물고 왔나. 정말인겨. 정말인겨. 강남 갔던 제비 와서 호강 팔자 물고 왔는겨?

박씨 : 하모!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자고로 체면이란 돈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허허. 내 마실 갔다 오세. (박씨, 뒷집 지고 나간다)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다. 봄이 엄마가 박씨를 기다리고 있다. 고모가 옆에 앉아 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박씨! 고주망태가 되어 문을 들어선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봄이 엄마 : 이게 웬 놈인겨. 여긴 여관이 아니니 나가쇼!

(박씨, 아내 목소리에 집에 왔다는 걸 알고, 마당에 열십자로 쓰러진다.)

봄이 엄마 : (윗옷을 들었다 놓으며) 어디보소. 어디보소. 여기보소. 봄이 아버지 맞소? 맞으면 대답하고, 안 맞으면 벌떡 일어나 나가시오!

박씨 : (박씨, 반쯤 일어나서) 맞소! (관객을 향해) 내가 박씨 맞지요? (다시 쓰러진다)

봄이 엄마 : (옷에서 향수 냄새를 맡고) 계집질하고 왔구만. 돈 벌어 호강하는 줄 알았더니, 그새 계집 품에서 놀다 오

소. 자네하고 살면서 고생한 게 누군데, 사람의 도리가 그것뿐이 안 되는가. 어휴! 이 웬쑤! (관객을 향해) 이 작자를 재워주는 게 맞소? 내쫓는 게 맞소?

박씨 : (반쯤 일어나서) 그래도 낭군잉께. (다시 쓰러지며 작은 소리로) 그래도 낭군잉께.

고모 : (쓰러진 봄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오빠! 정신 차리소.

봄이 엄마 : 놔두시게. (창고에서 거적을 하나 갖고 나와 던지며) 저런 양반은 이런 거적에서 자고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는 기라. 돈! 돈! 돈을 벌었다구! 돈은 웬 썩을 돈! 어제는 좋았지만 돈이 있어도 쓸 줄 알아야 돈이지. 돈! 돈! 돈을 벌었다구! 돈은 웬 썩을 돈! 어이구 내 팔자야. 꽃다운 열일곱에 물건처럼 팔려 와서 해 떠서 저물 때까지 식모처럼 일만하다 무릎병 허리병 마음병 남편병에 바람 잘 날 없는 팔자! 어이구 내 팔자야! (관객을 향해) 이 작자를 재워주는 게 맞소? 내쫓는 게 맞소?

고모 : 형님! 산다는 게 모질다 안했어요. 입에 풀칠만 하다가 예쁜 기생이 꼬리를 치니 눈이 뒤집힌 게지요. 한데서 자다 입 돌아가면 어찌실라요.

봄이 엄마 : 입 돌아가도 싸지.

고모 : 입 있다고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봄이 엄마 : 오빠라고 두둔하는 긴가. 하긴 한 뼚속에서 나왔으니 그 처지가 제 처지 같겠지.

고모 : 형님은 얼마나 잘 났소. 아무리 잘못이 크다고 해도, 삼십

넌 같이 산 서방, 거렁뱅이 취급해서 되겠어요. 다 돌려받는 법이라요.

봄이 엄마 : 허이구. 제 처지가 아니라고 이젠 아주 한 통속이 돼 버렸네. 그래 내가 못된 년이다. 못된 년!

고모 : 미안해요. 형님, 잘못은 지가 빌게요. 입장 바뀌면 나도 형님처럼 말했을 것이니. 방으로 누이세요.

봄이 엄마 : (무대를 오가며 생각하다가) 내가 무슨 남편한테 원수진 게 있다고 그러겠는가. 살아온 게 원통해서 그러지. 아이구, 사는 게 웬수지. 사는 게 웬수야!

(다음 날 저녁이다. 안방에 조명이 켜진다. 노름꾼, 삐끼, 따라지, 한씨와 다시 화투판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취기가 가시지 않았다.)

삐끼 : (박씨를 보며) 혈색이 좋네요.

박씨 : 과음을 했나보이.

삐끼 : 좋은데 가셨음등?

박씨 : 좋은데는 뭐, 기억이 나야지.

노름꾼 : 내 돈 다 따서, 새장가 들면 되겠구먼.

박씨 :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은 마소.

노름꾼 : 돈이 있어 보소. 돈이 그렇게 만들지 사람이 그렇게 만드오.

따라지 : 하모. 그 버릇 남 못 주는 법이지비. 돈이 있어야 첩질하지, 돈이 없는데 첩질하나. 옛날 옛적부터 내려오는 만고의 진리요.

한씨 : 아무려도, 농이 지나치네.

(판이 돌아갈 때마다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노름꾼 앞에 돈이 쌓인다. 판이 꽤 돌아갔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 박씨의 표정이 어둡다.)

빼끼 : (판돈이 떨어져가는 박씨에게 빈정대며) 어째 오늘은 박씨
 끗발이 안 서는가 봐.

따라지 : 잃을 때가 있으면 딸 때도 있는 법이지비.

박씨 : 짜고 치는 거 같으이.

따라지 :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소.

노름꾼 : 핑계를 대는 거 보니 판돈 없나 본데, 자! 그만 일어납
 세.

박씨 : 잠깐 기다리게. (두리번거리다 집문서를 꺼내오며) ‘쌌다’
 로 끝냅세!

노름꾼 : 그만 둬세. 그것마저 잃으면 어디서 살려고...

박씨 :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당장 앉으쇼.

한씨 : 예서 그만 둬시다. 도박에 미치면 아내도 판다고 하더라 집
 마저 잃으면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박씨 : 자네 집문선가. 내 집문서지.

노름꾼 : (자리에 앉으며) 그럼 ‘쌌다’ 단판으로 끝냅니다. 자고로
 노름판에서 따고 잃는 건 하늘의 뜻! 자 돌립세!

(판 가운데 집문서가 깔리고 그 위에 돈 뭉텅이가 쌓인다. 박씨와 노
 름꾼의 단판 승부다. 봄이 아버지가 패를 까본다. 4땡! 입가에 미소가
 감돈다. 그것도 잠시)

노름꾼 : (자기 패를 내려놓으며) 5땡!

(박씨가 패를 내려놓지 못하고 손을 부르르 떠는데, 봄이 엄마의 신고로 형사가 문을 들어서고, 그 소리에 박씨가 패를 내던진다. 봄이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서 집문서를 집고 가슴에 품는다. 빠끼가 판돈을 가방에 쑤셔 담는다.)

따라지 : 집문서 이리 내놓으소. (봄이 엄마의 옷섶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방바닥에 얹어져서 버티고)

(형사1이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노름꾼, 빠끼, 따라지 급히 도망가며)

노름꾼 : 나중에 집문서 찾으러 올 테니 기다리쇼.

형사 1 : (어수선한 안방을 둘러보며) 이놈들 어디로 날른 거야.

봄이 엄마 : (노름꾼 일행이 간 곳을 가리키며) 저어기 도망갔는데요.

형사1 : (방구석의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멍멍한 박씨를 보며) 다들 냅다 튀었구만. (박씨 어깨를 치며) 저기 얘기 좀 나놔시다...

형사2 : (무전기가 울리고) 파출소장님 호출인데요. 큰 사건이 터진 모양입니다. 빨리 들어오랍니다.

(형사1과 형사2가 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퇴장한다.)

제 1 막 제 2 장 소양강변

(소양강변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린다. 무대 아래에는 “떠날 때는 초특급 자가진공청소기로 앓은 자리 샴방샴방 부탁드립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회자 : (전국노래자랑 전주곡이 흐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혜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바다 해자 송해가 아니고 식해할 때 해자인 송해입니다. 출연료 관계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습지요? 다시 한 번, 송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기 여기 웃지 않으시는 분! 우습지요? (객석 반응을 보며) 자 그럼 박수로서 노래자랑의 막을 열어 볼까요? (객석 반응을 보며) 약합니다. 약해요. 박수소리가 너무 약해요. 박수를 치려면 앓은 자리가 터열! 썩! 하고 일어나게끔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박수 소리를 유도하고) 출연자를 모시겠습니다.

(봄이, 별이, 철호가 나오고)

사회자 : 여자 두 분과 남자 한 분인데요. ‘삼각관계’라, 그룹 이름인가요?

철호 : (웃으며) 그룹까지는 아니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봄이 : 그냥 같은 마을에 살아요.

사회자 : 어디?

별이 : 저어기, 춘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양강변이에요.

사회자 : (찾는 척하며) 네에, 저어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봄이 : 우리 노래가 더 아름다워요.

사회자 : 그래요? 궁금합니다. 아름다운 마을의 아름다운 노래! ‘삼각관계’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노래] 세상 하나뿐인 당신

봄이 : 세상 하나뿐인 당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멀어진다는 말

가까이 있어야 가까워진다는 말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 하나뿐인 당신을 생각하면

겨울에 봄꽃이 피고 한낮에 반달이 뜨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사회자 : (무대로 들어오며 퇴장하는 삼각관계에게) 잠깐! 삼각관계! 다시 무대로 들어오세요. 관객 여러분! 여기 ‘삼각관계’ 노래를 잘 부르는 관계 같지 않나요? (관객의 호응과 박수를 유도하며) 네 저기...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심사위원으로 유명한 작곡가님께서 오셨습니다. 실은 아까 몇 가지 물어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무슨 관계가 있는 듯 하던데요. 자!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유명한 : (사회자를 보고 손사래를 치며) 자네가 또 오버하는구만. 노래를 잘 부른다고 했지, 어디 나온다고 했는가.

사회자 : 모처럼 오셨는데 신인발굴도 하고 그래야죠.

유명한 : 내가 무대만 올라가면 떠는 체질이지 않나.

사회자 : 무대에서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같은
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봄
이를 보며) 그렇지요?

봄이 : 네에. 유명한 선생님 명성은 들었어요. 이렇게 뵈니까 미
남이신데요. ㅎㅎ

유명한 : (성화에 못이긴 척 무대로 나가며) 미인이 미남은 알아
보는구만.

사회자 : 그럼, 봄이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죠?

유명한 : 이 사람아, 아마추어인데 무슨 좋은 말씀인가.

사회자 : 그럼 나쁜 말씀이라도...

유명한 :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가. (잠시 생각한 후) 아무
얘기나 해도 될까요?

봄이 : 네.

유명한 : 노래를 좋아한다고 다 가수가 되는 건 아니죠. 주변에
서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노래를 아주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다들 아는 사람에겐
관대하고 돌아서서 수군거리거든요. 아마추어 수준에
서 프로 가수가 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연습이 필요해
요. 봄이씨 목소리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음정이 불안
해요. 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스쳐지나
가듯 노래를 듣는 사람에겐 그게 느껴지지 않지요. (잠
시 말을 멈추고) 봄이씨, 가수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취미로 부르는 것인가요?

봄이 : 가수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나요? 노래만 열심히 한
다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봄이 : 꼭 가수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 내가 연락처를 줄 테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봄이의 아
름다운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예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
죠. 실은 가수가 되는 길은 거기서 시작돼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가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가 자리에서 내려가고, 조명이 시나브로 꺼지며 사회
자의 멘트…)

사회자 : 감사합니다. 어려운 자리 나와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
셔서 봄이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노
래를 좋아했는데요. 제가 음치라는 겁니다. 가수라는 꿈
은 아예 꺾보지도 못 했어요. 귀로 듣는 것과 부르는 것
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면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저같이 음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은 참 불공평한 분이지요!

(사회자의 멘트를 끝으로 모두 퇴장하고, 봄이와 철호가 다시 등장
한다.)

봄이 : 서울로 떠나려고 해요.

철호 : 벌써?

봄이 : 사정이 생겼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노름으로 전 재산을 날렸어요. 집안에 보탬을 줘야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철호 : 부모님은 어떡하고.

봄이 :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니, 서울로 가서 돈도 벌고, 가수 로 꼭 성공할 거예요.

철호 : 늑대굴속에서 여자 홀몸으로 어찌 견디려나.

봄이 : 오빠! 나를 사랑하세요?

철호 : 처음 만날 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봄이 : 저도 그랬어요. 오빠만 변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건딜 수 있어요.

철호 : (봄이를 쳐다보며) 내 마음은 절대 변치 않아!

봄이 : 정말이죠?

철호 : 당근이지.

봄이 : 제 편지에 답장도 꼬박꼬박 해줄 거죠?

철호 : 당근이지.

봄이 :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곁에 있을 거죠?

철호 :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곁에 있어. 내 하나의 사랑이니까?

봄이 : 내 하나의 사랑!

철호 : 그래 내 하나의 사랑!

봄이 :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하죠?

철호 : (잠시 침묵하고) 때론,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남겨두는 거래. 서로 그리워하게 내버려두는 거래.

봄이 :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로,
그렇다고 이별하는 것을 이별하는 대로 놔두는 건 아니겠
죠?

철호 : 똥판지같은 소리는 하지 마. 산다는 건 홀로서기야. 홀로
서지 못하면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려.

봄이 : 홀로서기? (무대를 돌며) 저 홀로서기를 할 수 없을 것 같
아요. 아니요. 갈 수 없어요. 전 가지 않을 거예요.

(철호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서 봄이의 검지에 끼워
준다.)

철호 : 이걸 내 사랑의 증표!

봄이 : 꼭 맞는데요.

철호 : 우리 엄마가 생전에 껴던 반지야. 가운데 국화 문양 보이
지. 할아버지가 조선 왕실에서 받았던 선물이라. 보물급이
지. 아버지께서 엄마를 기억하라고 주시길래 새끼손가락
에 껴터니 꼭 맞더라고.

봄이 : 그렇게 귀한 걸 제게 줘도 돼요.

철호 : 봄이는 내게 그 반지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 됐으니까.

제 2 막 제 1 장 작곡실

(난초가 바람에 흔들린다. 토요일이다. 작곡실에 일찍 출근한 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고 있다. 범수(형)가 들어온다.)

범수 : 안녕, 좋은 아침!

봄이 : 상쾌한 아침!

범수 : 좋은 일이 있나봐.

봄이 : 항상 좋은 일이죠.

범수 : 같이 좋으면 안 되나?

봄이 : 가까이 오지 마시어요.

범수 : 비밀이 많군.

봄이 :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범수 : 난 없는데.

봄이 :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요. 자신을 좋게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암튼, 대부분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알려
고 하면 안 되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범수 : 봄이의 마음은 아예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야.

봄이 :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전 어려운 건 몰라요.

범수 : 미안! 그냥 해본 말

봄이 :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범수 : 그런가?

(순희(언니)가 들어온다.)

순희 : 안녕!

봄이 : 안녕하세요!

범수 : 좋은 아침!

순희 : 좋은 아침! 기분이 좋아 보이네이.

봄이 : 어제는 가수가 돼서 무대에 서는 꿈을 쫓어요. 클럽에서 뛰
어 달라고 제의가 들어왔고요.

순희 : 선생님이 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봄이 :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집에 생활비도 부쳐줘야 하고.

순희 : 거기서 몇 시간씩 일하면 힘든 건 견뎌도 목이 망가진다고
하더라. 유명가수 같으면 2-3곡 부르고 내려오면 되도.

봄이 : 형이 밤무대 댄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범수 : 내 집안형편이 그렇잖아.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선
생님께서도 묵인하셨어. 니들은 안 된다. 거기 빠지면 헤
어 나오기 힘들어.

순희 : 누가 그걸 모르나. 유명 가수가 되는 게 어디 쉽냐고. 작곡
가에게 좋은 곡 받아야지. 좋은 가사를 받아야지. 운이 따
라줘야지. 3박자 갖춰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범수 : 여기 들어와 있는 것만도 행운이야. 우리 작곡실 들어오려
고 하는 작자들이 얼마나 많다구.

(유명한 작곡가가 들어오고, 봄이가 커피를 원탁에 올려놓는다.)

유명한 : 범수는 음반이 좀 나갔다며.

범수 : 10만장 넘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창 뜨고 있어요.

유명한 : 다행이네. 생활 좀 펴야지. 순희는 소식이 잠잠하네.

순희 : 리듬이 너무 발랄했나요. 잘 안 먹혀요.

유명한 : 다음 곡 준비해야지. 길게 보자구. (커피를 마시며) 커피
란 묘한 중독성이 있단 말이지.

범수 :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고나 할까요. 나처럼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은 니코틴 대용품이죠. 묘한 것이 석잔 이상 마시면 다시 마음이 불안해져요.

유명한 : 니코틴도 약하고 비슷하나. 적당하게 쓰면 약이 되고, 많이 쓰면 독이 되고, 인생은 무언가 중독이 돼야 하는 것 같아. 커피가 그렇잖아. 커피에 카페인 들어있지 않다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릴 수가 있을까? 커피 종류는 많지만 그 속에 커피라는 원료는 빠지지 않아. 그 것이 중독의 원천일까?

범수 : 중독의 원천? 내겐 사랑의 원천처럼 들리는데요.

순희 : 하지만 남녀가 같이 중독되긴 어려운가 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한 사람이 외면하기 때문이죠. (순희가 범수를 힐끗 본다)

범수 : 왜 이리시나. 예쁜 아가씨가, 봄이하고 같이 오늘 저녁 어때?

순희 : 됐네. 봄이하고 둘이 가면 되는거라.

유명한 : 두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봄이, 오늘은 레슨 받는 날이지.

봄이 : 네. 오늘이요.

범수 : 봄이는 목소리가 좋아서, 음반을 내도 되겠는데요.

봄이 : 아직 멀었어요.

순희 : 봄이한테는 어찌 그리 좋은 말만 하노.

범수 : 난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미안해.

순희 : 저 비비꼬는 말투. 미안하단 소리 그만 해라.

유명한 : 자, 자, 우리 다 모였으니까 봄이 노래 좀 들어볼까? 나 혼자 평가하는 것보다 같이 들으면 더 낫겠지.

범수 : 고럼요! 봄이, 랫츠 고! 고!

[노래] 세상 하나뿐인 당신

봄이 : 세상 하나뿐인 당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멀어진다는 말

가까이 있어야 가까워진다는 말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 하나뿐인 당신을 생각하면

겨울에 봄꽃이 피고 한낮에 반달이 뜨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브라보! 일동 박수를 친다.)

유명한 : 우리 한 사람씩 느낌을 말해볼까. 전문가적인 시각이어도 좋고, 관객 입장이어도 좋고, 그런데 조건이 있네. 좋은 말은 가려하고 충고는 직설적으로 할 것. 순희부터 말해볼까?

순희 : 발성 연습을 해야겠는 걸요. 음정이 떨려요. 몇 명 되는데서 이렇게 흔들리면 관객들이 운집한 곳에 가면 덜덜 떨 거든요. 하지만 좋은 점은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호소력을 느꼈어요.

범수 : 봄이를 생각한다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뭐랄까? 소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솜씨가 미숙하다고 할까? 소리는 노래의 일부분이고, 감정을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는 기술

이 필요하거든요.

유명한 :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네들이 해줬네. 봄이 노래 속에는 묘한 향기가 있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나비가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것이 봄이의 개성일 거야. 아쉬운 점은 노래에 몰입한다고 할까? 집착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으니까 편하게 다가오지 않아. 감정에 몰입하다 못해 자신이 취하는 거야. 노래에 취하는 것은 관객이어야지, 가수가 취하면 좋지 않거든. 범수, 봄이의 멘토가 돼줄 수 있겠나?

범수 : 봄이, 날 멘토로 생각해?

봄이 : 당근이죠. 인기가수한테 노래를 배우는데요. 제 볼 꼬집어주세요. (범수가 볼을 살짝 꼬집는다) 아얏! 정말 꼬집어요. (불그스레 물들었다) 멘토만 아니면 그냥 확!

범수 : 확! 어쩔 건데.

봄이 : 신고해버릴 수도 있어요.

범수 : 무슨 죄로?

봄이 : 어쩌다 한 곡 떴다고 거만 떨지 말아요.

범수 : 왜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쏜나.

순희 : 사랑싸움 하지 말고 레슨이나 해.

봄이 : 세상 하나 뿐인 당신?

범수 : 그 노랜 2번이나 들었잖아. “착각은 당신의 자유” 어때?

순희 : 봄이 성량에 많지 않은데.

범수 : 맞지 않는 노랜 잘 불러야 실력 있는 가수지.

순희 : 아무리 그래도 모든 노랜 잘 할 순 없어.

봄이 : 너무 고음이라서...

범수 :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덩.

봄이 : (범수의 눈을 보며) 풀리거덩?

[노래] 착각은 당신의 자유

봄이 :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고집에 잠겨 있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범수 : 자, 말하자면, 저음, 고음, 흥성, 두성 이런 이론에서 벗어나자. 발성을 생각하면서 부르면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십상이야. 가슴을 울리든, 입천장을 울리든, 목을 울리든 소리의 공명점을 찾아봐. 내 안의 목소리를 찾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

[노래] 착각은 당신의 자유

봄이 :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고집에 잠겨 있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범수 : 그래. 무언가 울리잖아. 내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 그게 나만의 비법이고 나만의 목소리가 되고 청중을 울리는 거야. 다른 사람과 같은 소리를 내면 재미없잖아. 그런 건 관객들이 먼저 알아챈다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 있네. 선생님, 제가 같이 불러볼까요?

(유명한 작곡가가 OK 사인을 내고, 음악 반주가 새롭게 시작되며, 범수와 봄이가 2중창을 부른다. 유명한 작곡가 친구인 김시인 작사가 들어오고 눈인사를 나눈다.)

[노래] 착각은 당신의 자유

범수 :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어
 봄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착각에 빠져 있어!)
 사람들은 고집에 잠겨 있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고집에 잠겨 있어!)
 사람들은 슬픔에 취해 있어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하지
 (슬픔에 취해 있어!)

유명한 : 의외로 잘 어울리는 걸. 범수의 묵직한 소리 위로 봄이의 소리가 물방울처럼 튕겨 오르는 느낌? 바람이 불 때 이파리가 흔들리는 분위기랄까. 봄이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네. 범수와 같이 불러서 그런가.

순희 :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괜히 정분나요.

김시인 : 근데 가사가 가벼운 거 같지 않나.

유명한 : 가사가 시(詩)하곤 다르지 않은가. 노랫말은 빨라서 음미할 시간이 없네.

김시인 : 정답은 없지. 상징이나 비유가 들어가면 좋지만 이해가

어려우면 없느니만 못하니까.

유명한 :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첫째지. 마음이 통하면서도 귀를 후벼내는 듯한 상징이나 비유가 들어가면 으름이고 말이지.

유명한 : 봄이가 온지도 꽤 오래됐네.

봄이 : 반년이 돼가요.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가을에 우리 집에 놀러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유명한 작곡가의 손을 들며) 같이 가주실거죠? 기왕이면 김시인 작사가님도요.

김시인 : 나야 불러주면 영광이지.

봄이 : 멋진 가을이 되겠네요. 아버지가 어부시거든요. 매운탕도 끓이고 토종닭도 잡을게요. 아름다운 소양강변에서 좋은 얘기도 나누고요.

유명한 : 어린 시절 냇가 천렵 나가서 감자, 깻잎, 고추장, 파 송덩송덩 찢어 넣고 매운탕 끓여먹던 생각이 나는구만.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

범수 : 선생님 혼자되신지 벌써 두 해가 돼가네요?

유명한 : 그런가? 엇그제 같은데.

순희 : 사모님 정말 미인이셨지요. 봄이가 조금 닮았나요?

유명한 : 많이 닮았지. KBS 노래자랑에서 한눈에 띄더라구.

순희 : 그랬군요. 그래서 데려왔군요.

유명한 : (주위를 둘러보며) 그런가? 아무튼 옛날 생각이 나네.

제 3 막 제 1 장 소양강변

(작곡실 식구들이 봄이네 집에 놀러왔다. 식사를 마치고 소양강변으로 왔다. 군데군데 들국화와 코스모스가 흐드러져 있다. 순희와 봄이가 대화를 나눈다.)

순희 : 저 섬 이름이?

봄이 : 중도라고, 소양강 가운데 섬이에요. 강물이 흐르다가 만들어진 삼각주래요.

순희 : 내 고향도 섬인데.

봄이 : 어디요?

순희 : 삼천포라고, 대화 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잖아. 진주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삼천포로 가면, 갔던 길로 되돌아 나와야 해서 그 말이 생겼제. 돌아가 가는 길이 없거든. 내 고향은 삼천포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신수도’라는 섬이데이. 한려수도의 한가운데.

봄이 : 한려수도면 한산도에서 여수로 가는 뱃길이지요? 동백꽃 구경하러 여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순희 : 활짝 피면 예쁜데

봄이 : 제가 갔을 때는 막바지라서

순희 : 맞춰가기 힘들기라. 자주 오라고 꽃이 빨리 지는까.

봄이 : 자주 오라고 꽃이 빨리 진다고요?

(소나기가 올 듯 우중충해진다. 불안감의 전조를 암시하는 음악과 조명이 깔린다.)

순희 : 신수도에는 “처녀바위”의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능기라. 섬은 묘한 곳이라. 끊임없이 파도가 쳐서 자연은 한

시도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준데이. 섬은 마을 전체가 한집안이나 마찬가지로 옆집에 손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제. 가까우니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커갈수록 답답함이 느껴지지만.

봄이 : 물으로 마실 나가곤 하지 않나요?

순희 : 섬으로 돌아와야 하는 걸. 섬에 있는 시간은 한량없이 길고, 물에 있는 시간은 속절없이 짧은기라.

봄이 : 간헐 사는 느낌?

순희 : 커갈수록 그런 걸 느껴. 하루 두 번 오가는 배가 반갑게 느껴져서 그 시간이 되면 항구가 잘 보이는 둔덕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지. “처녀바위” 얘기는 말이지. 어느 어느 오래 전 날 한 처녀가 해안을 지키는 군인과 사랑에 빠졌어. 그들은 가끔 물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데이. 결혼을 약속했지. 섬처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

봄이 : 그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했겠죠.

순희 : 처녀에게는 그 군인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지라. 세상은 그로 인해 존재하고 그가 없이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어. 헌데 그는 제대하고 나서 소식이 감감해졌어.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에 대한 답장도 없었지. 훗날 편지가 왔는데,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자기를 잊어달라고 하더라. 사랑을 잃은 여자는 깎아지른 바위 위에서 몸을 던졌어. 열여덟 꽃다운 나이였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이. 그 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처녀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라.

봄이 : 슬픈 사랑얘기네요.

순희 : 섬은 그런 곳이제. 낭만적인 것 같으면서도 구속되는 게

이만저만 아닌기라. 생활에 묶여 있지 않으면,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일렁거려.

김시인 : 얘기가 진지해서 끼어들 수가 없는 걸. ‘처녀바위’라. 여자는 가끔 섬뜩한 면이 있네.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극단적인, 남자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봄이 : 남자는 뭐 안 그런가요?

김시인 : 그런가?

순희 : 남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요. 여자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것인데도 남자가 몰라주죠.

김시인 :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로, 영원한 딜레마네.

유명한 : 풀 수 없는 숙제,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좋아하는 걸 보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지.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고, 같지 않으면서도 같은 면이 있는, 뫼비우스의 띠라고 나 할까?

김시인 : 남자가 홀연히 집을 떠나 여행한다던가. 여자가 아픔을 빨리 잊어버린다던가. 그 비슷한 게 있지 않은가.

유명한 : 결국엔 같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지.

김시인 : 암튼 세월은 흐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유명한 : 암 그렇고 말구.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소양강변에 노을이 지고 있다.)

김시인 : 소양강 노을이 정말 아름답구만. 김삿갓처럼 시만 써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안타깝네.

유명한 : 그만큼 낭만이 없어진 것인가.

김시인 : 바빠졌지. 쉬는 시간을 줄이고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사회가 서민들을 채찍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유명한 : 낭만이 사라진 사회라는 뜻이군.

김시인 : 베짚이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야.

유명한 : 아름답구만.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네.

김시인 : 소양강 노을이 왜 아름다운가 했더니 소양강처녀가 있어서 아름답나!

봄이 : 농담두요.

김시인 : 농담이 아니야! 하하

범수 : 하모요! 맞는 말이죠. 하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불현듯 봄이의 사랑인 철호와 친구인 별이가 하하 호호 소나무숲 사이로 손을 잡고 뛰어나온다! 반대편 무대로 퇴장한다. 봄이 얼굴이 창백해진다.)

유명한 : 우리 이만 가야겠네. (봄이가 대답 없자) 봄이, 봄이!

봄이 : (놀라며) 예... 어, 저 부르셨어요.

김시인 : 이제 가 봐야 할 시간이라서

순희 : 뭘 보고 놀랐나? 못 볼 것 보았어?

봄이 : 아뇨, 그냥

유명한 : 우리가 간다니까 섬섬한 모양인 걸. (봄이가 또 대답 없자) 봄이, 봄이!

봄이 : (눈물을 글썽이며) 예... 어, 어떻게

김시인 : 우리가 간다니까 슬픈가? 눈물까지 흘리고

봄이 :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범수 : 서울에서 다시 만날 거잖아.

유명한 : 잘 먹고, 경치 잘 감상하고, 잘 놀다 가네. 부모님과 고
모님께 안부 전해줘.

김시인 : 고마우이. 안부 전해줘요.

봄이 : 네에~ 길 조심해 가세요.

순희 : 안녕! 서울에서 봐.

범수 : 미 투, 커밍 수은!

제 3 막 제 2 장 봄이네 집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 적막하다. 봄이, 봄이 엄마, 고모는 마당에, 박
씨는 안방에 있다.)

봄이 엄마 : 손님들은 잘 가셨니?

봄이 : ...

봄이 엄마 : (대답 없자 큰소리로) 손님들은 잘 가셨냐고?

봄이 : 네.

봄이 엄마 : 다른 말 없던?

봄이 : ...

봄이 엄마 : (대답 없자 큰소리로) 다른 말 없던?

봄이 : 네.

봄이 엄마 : 그것뿐이야?

봄이 : 아! 음식도 잘 먹고, 경치 잘 감상하고, 잘 놀다 간다고요.
고맙다는 말 전해 달랬어요.

봄이 엄마 : 말하는 게 너답지 않다. 표정이 안 좋아. 어디 아프니?

고모 : (다가와서, 봄이 표정을 살피며) 어디 아픈가? 열이 있네.

봄이 엄마 : 다들 떠나서 그러니? 빨리 올라가고 싶어?

봄이 : 모르겠어요.

고모 : 걱정거리가 생긴 모양이구나.

봄이 :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봄이 엄마 : 저기.

(봄이, 마루에 앉아 있는 아버지께 인사드리며)

봄이 : 아버지!

박씨 : 우리 공주님이 점점 예뻐지네.

봄이 : 시집갈 나이가 됐잖아요.

박씨 : 시집갈 사람 있나. 아빠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봄이 : 아버지하고 같이 살까요.

박씨 : 그냥 해본 말이구나. 좀 쉬어야겠다.

(박씨, 안방으로 들어간다.)

고모 : 오빠가 많이 피곤한가 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봄이 : 아버님 안색이 좋지 않아요.

봄이 엄마 : 말도 마라. 그 노름꾼과 브로커 그 사기꾼들이 가끔씩 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는 탓에...

고모 : 몹쓸 X들,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봄이 : 경찰에 연락은 하셨어요?

봄이 엄마 : 저 양반이 그러다 말겠지 하고 신고하지 말라고 눈알
을 부라리고 있으니...

고모 : 다시 오면 신고해야 돼요.

봄이 엄마 : 그래야지. 어디 견디겠냐.

고모 : 누가 잡혀 들어가든 결단내야지. 또 온다니까요.

봄이 엄마 : (한숨을 쉬며) 짓값이 있다면 받아야지.

고모 :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 X들이 작당한 일인데.

봄이 : 철호와 별이는 어떻게 지내요?

고모 : 둘이 사귀다고 하더라. 결혼할 거라는 소문도 있고.

봄이 : 정말요?

고모 : 한번 연락해보렴. 근데 너와 철호, 별이 같이 다니곤 하지
않았니? 그때 별이보다 너랑 친한 거 같더니.

봄이 : 아뇨.

고모 : 누구를 믿거나 맹세하지 마라. 그것이 네 머리카락을 희거
나 검게 할 수 없어. 그것이 선이라면 예라고 말하고, 그
것이 악이라면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실제 인
생이야.

봄이 엄마 : 혹시 서울 가기 전에 철호와 무슨 일 있었니?

봄이 : 아뇨 그럴 리가요.

봄이 엄마 : 너네 셋이서 삼각관계인가 뭐가 KBS 노래자랑에 나
가서 인기상 받고 그러지 않았어?

봄이 : 그게 다야요. 전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봄이 엄마 : 뭐가 찜찜하구나. 여기 네게 편지 한 통 온 게 있다.

(봄이가 철호의 편지를 펼쳐보고 읽는다. 봄이 엄마와 고모 퇴장한다.)

철호편지 : 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변명은 하지 않을 게. 사람 마음이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나 봐. 그래 나 같이 심지가 약한 사내들만 그렇겠지. 봄이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 그건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지. 미안해! 네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도 견딜 수 없어. 단지 운명이라고 믿어줘. 부디 행복하길. - 철호가

(봄이, 편지를 떨어뜨리고……. 무대를 이러 저리 뛰어다니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다. 칼을 찾아서 하늘 높이 든다.)

봄이 : (독백, 무대 앞으로 나가며) 하긴, 생각해보니, 요 몇 달 연락이 없었네. 의심을 하려 해도 사랑은, 사랑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단속했지요. 나를 구속하여 나를 자유롭게 하는 당신 곁에 행복이 있었으니까요. 아! 오매불망 당신 만날 날 기다렸는데, 행여 당신 걱정했는데, 비바람에 꽃사과 우수수 떨어지고, 교회의 십자가가 서글피 울고 있네.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떡하나요? 이제 어찌 살아가나요?

(그때, 조명이 바뀌며, 봄이 엄마와 고모가 들어온다. 뒤를 이어 노름꾼, 삐끼, 따라지가 들이닥친다.)

삐끼 : 박씨! 박씨! 어디 있습니까?

따라지 : 어딘, 어디야. 방에 있겠지. 오늘은 확! 끝장을 내버려야지.

(삐끼와 따라지가 안방으로 쳐들어간다.)

노름꾼 : 허라! 우리 집문서 빼앗고서 맘 편하쇼. 딸이 예쁘장하더만, 집문서 안 되면 딸이라도 내놓던가!

고모 : (봄이 엄마에게) 아무리 빚지고는 못 산다고 해도, 사기꾼한테 진 빚 갚을 필요가 있나요. 형님, 형사를 부릅시다.

노름꾼 : 파출소를 다 매수했으니 어디 불려보쇼. 노름을 그냥 하는지 아는가봐. 집문서 내놓기 전엔 빠져나갈 데가 있을라꼬.

봄이 엄마 : 아이고! 사면초가라고 하더니.

고모 : (봄이를 불러) 가서 파출소에 신고해라. 죄값이 있다면 치러야지. 이리는 더 못 산다. 노름꾼 말이지. 별이 아버지가 끌어들었다고 하더라. 믿을 사람 없다마.

봄이 : 정말요?

고모 : 그렇다마.

(봄이가 퇴장을 하고 정도(이웃사촌)가 등장한다. 봄이 엄마가 정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봄이 엄마 :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꼬...

정도 : (노름꾼들에게) 이게 무슨 난동질인가. 썩 나가게.

노름꾼 : 집문서를 내놔야 나가지.

정도 : 남의 집 문서를 니네들이 왜 달라 말라 참견이야.

노름꾼 : 판 것을 달라는 것뿐이네.

정도 : 노름빚이 어디 빚인가.

노름꾼 : 노름빚에 마누라 팔아먹었다는 소리 못 들어봤나.

정도 : 그건 법이 없을 때 얘기고

노름꾼 : 법이라, 그럼 법보다 높은 주먹맛을 보여줘야겠네. 삐끼!

이 분 손 좀 봐줘야 쓰것다.

삐끼 : 이 XX 자숙이!

(삐끼, 정도에게 대들다가 그에게 업어치기 한 판으로 내동댕이쳐진다. 따라지도 대들다가 내동댕이쳐진다. 그때, 형사1과 형사2가 등장한다.)

형사1 : 오늘에야말로 끝장을 내버려야지. 어디 있어? 내 이 자
숙들을 그냥... (삐끼와 따라지가 쓰러져 있는 모습에 주
춤하며)

노름꾼 : 형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저기 깡패인지 씨름꾼인지 잡아
가쇼. 내 동생들을 폭행했다 아닙니까. (형사와 관객을
향해 검지를 세우며) 폭력죄요! 폭력죄!

삐끼 : (누운 채 검지를 세우고 형사를 보며) 폭력죄 추가!

따라지 : (누운 채 검지를 세우며) 폭력죄 추가!

노름꾼 : 여기 보는 것처럼 사태가 발생했읍쥬.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양반이, 보시는 바와 같이 폭행해서리...

삐끼 : (허리를 움켜잡으며) 허리가 부러졌네. 어이구우

따라지 : (억지로 일어나 꺾꺾이를 뛰며) 아이구 내 다리 부러졌네. (마루로 가서 벌렁 드러눕는다)

노름꾼 : (형사를 보며) 결과가 이러코롬 됐읍쥬.

박씨 : (방에서 나오며) 이X들아, 나를 죽여라!

형사1 : (박씨를 말리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침착하게 설명해주세요.

봄이 엄마 : 그러니까 말이쥬.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노름꾼이 왔었어요. 화투판을 벌였쥬. 그제, 심심풀이인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집문서가지 걸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잘못된 것을 말씀 드리자면...

박씨 : 입 닥치라. 어이구!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형사1 : 자초지종을 말해야 도움을 드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박씨 : 순사를 믿지 마라. 어이구, 내가 죽어야 끝이나지...

고모 : 오빠, 사실대로 꼭 말해버리라. 왜 말을 못하나!

박씨 : 고것이, 집을 잃어버리면 집안이 결판나는기라. 내가 죽어버리는 게 속 편하지.

형사2 : 사실대로 얘기하면 도와드린 데도 왜 그러세요.

박씨 : 다들 한통속인 걸 내가 모르나. 어이구.

형사1 : 이형사, 일단 노름꾼 일당부터 심문해봐.

(노름꾼, 삐끼, 따라지가 도망간다. 형사2가 뒤쫓는다. 정도도 쫓아나간다. 박씨는 젊은 시절 순사에게 당했던 경험 때문에 형사들이 자기

에게 벌을 줄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형사1 : 무슨 사건을 조사하러 나온 건지 모르겠군. (안방으로 들어간다. 사각봉투를 들고 나오며) 이게 뭐니까? 그때 그 집문서 아닙니까?

봄이 엄마 : 이번만 용서해주이소. 잘 해결되겠지요.

형사1 :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덮는다고 없어질 일이 아니죠. 쿡아 터지는 수가 있어요.

봄이 엄마 : 죄송해서리.

형사1 : 일단 갑니다. 널 다시 오겠습니다.

(형사1 퇴장하고, 정도가 헉헉거리며 등장한다.)

고모 : 사실대로 얘기하면 다 용서될 텐데 뭘 망설여요.

박씨 : 그건 모른다. 집문서만이라고 남아야 되지 않겠나.

정도 : (숨을 고르며) 고집 부리지 마시라요. 집문서하고는 상관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요.

박씨 : 모르는 소리 마라. 엄연히 순사가 살아 있네. 순사가 우리 편인 줄 아는가. 돈 있고 힘 있고 사기 치는 사람들 편이지. 살아보면 안다.

정도 : 이제는 변했던 말입니다.

박씨 : 그게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정도 : 답답하십니다.

박씨 : 놈들은 잡혔나!

정도 : 감방에 쳐 넣고 왔어요.

박씨 : 그럼 다 불어버리겠구먼.

고모 : 뭐가 그리 두려우세요.

박씨 : 마지막 남은, 집문서만이라도, 지켜야지.

정도 : 집문서하고 상관없대도 그렇습니까.

박씨 : 모르는 소리 마라. 살아보면 안다.

봄이 : (고모와 정도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밤도 늦었는데,
죄송해요.

박씨 : 내가 죽어버리는 게 속 편하지.

봄이 : 아버지, 그 말 그만하세요.

박씨 : 모르는 소리 마라. 돈 있고 힘 있고 사기 치는 사람들 편
이지.

(다음 날 아침, 봄이 엄마의 구슬픈 울음소리, 헛간 입구에서 목을 매
단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된다. 봄이,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오열한다.
첫사랑과 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봄이의 어깨 위로 국화꽃잎이 비처
럼 뿌려진다.)

제 4 막 제 1 장 자취방과 입원실

(봄이가 작곡실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봄이가 따라 부른다. 무대의 한쪽에 1978년도와 1979년도
의 달력 2개가 걸려 있다. 범수와 유명한 작곡가가 들어온다.)

유명한 : 봄이에게 좋은 소식 가지고 왔다.

봄이 : 저한테요?

유명한 : (악보를 내밀며) 김시인이 봄이를 위해 작사를 해줬고 내가 곡을 붙였다.

봄이 : 소양강 처녀!

유명한 : 김시인이 소양강변에 가보고 너무 좋았다고 하던데, 또 가고 싶다고 말이야. 봄이를 생각하며 소양강 처녀를 썼다고 하더군. 내가 즉석에서 곡을 붙였지.

봄이 : 선생님, 언제든지 다시 놀러가요. 말씀만 해주세요.

유명한 : 그래야지. 이 곡으로 데뷔를 시켜줄 테니까, 열심히 연습해! 음반을 낸 가수가 되는 거야.

봄이 : (악보를 가슴에 꼭 품고) 감사합니다.

유명한 : 이걸 엉뚱한 말인데, 인생에 대해 조언해도 되나? (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랑 뒤에는 이별이 있어. 영원한 사랑은 없고 이별의 치료약도 없지. 긴 아픔을 견딘 사람만이 인생의 참의미를 알 수 있어. 그땐 더 강해지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지.

봄이 : 감사해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범수 :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 테니까.

봄이 : 이제부터 내가 지켜요.

범수 : 그게 될까? 여자는 남자가 지켜줘야 한다구.

봄이 : 남자는 다 똑 같아요. 이젠 사랑 따윈 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 나 자신의 것인데도 다른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것을 털어주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면 그건 모래성과 같아요.

범수 : 날 사랑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

봄이 : 내 사랑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범수 : 글썄. 사랑에 이유가 있나?

봄이 : 나를 위해선가요? 형을 위해선가요?

범수 : 서로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은데.

봄이 : 우린 이해가 부족해요. 뭔가 꼭 필요한 것, 형이 제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볼게요.

범수 : 언제까지?

봄이 : 진정 나를 생각한다면 그냥 지켜봐주는 것만으로 형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요.

범수 : 봄이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네. 들어갈 수 없는...

봄이 : 누구나 벽이 있으면서 또 없기도 해요. 삶과 죽음처럼요. 대부분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죽음은 내 곁에 있어요. 죽음이 말하고 있죠. 내 곁으로 오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이에요.

범수 : 삶에서 굳이 죽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봄이 : 삶속에는 죽음이 존재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범수 : 내 눈을 바라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봄이 : 알아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범수 :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부족한 걸 지탱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봄이 : 지금 날 지탱해주는 건 노래예요. 누구도 날 지탱해줄 수

없어요.

범수 :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지. 그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
몰라도

봄이 : ...아마, 아마 올지도 모르지요. 내일은 누구도 모르니까
요.

범수 : 그럴까?

봄이 : ...신께서 허락하신다면요.

(무대의 조명이 달력을 비춘다. 1년을 의미하는 12장의 달력이 뜯어진
다. 범수와 봄이가 소파에 앉는다. TV가 켜지면서 가요대제전의 서막
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온다.)

범수 : 요즘 '소양강 처녀'가 최고 인기라던데.

봄이 : 노래는 내 영혼이자 삶이 됐어요. 노래가 없었다면 여기
있지 못했겠죠.

범수 : 너무 틈이 없어. 어디 끼어들 틈이 없잖아. 비집고 들어갈
틈 좀 만들어보자구.

봄이 : 틈이요? 호호호

범수 : 지금이 웃을 때야!

봄이 : (봄이가 범수의 팔짱을 끼며) 저기 '가요대제전'이 방송되
는데 같이 봐요.

(무대 뒤 TV 화면에 가요대제전이 방영된다. '소양강 처녀'가 대상이
라는 발표가 나온다. TV에서 폭죽이 터진다. 봄이와 범수가 일어나서
노래를 따라 부른다.)

[노래] 소양강 처녀 반야월 작사의 “소양강 처녀”

봄이 : 해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찌나

아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 막 -



희곡으로서 내 첫 작품이다. 희곡과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곳에 내 문학의 본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노랫말을 먼저 쓰고 그 노랫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나, 이야기를 먼저 쓰고 그 이야기에 맞는 노랫말을 만들어나가는 것, 내가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다면 나는 그 노정의 어느 곳에 있을 것이다.



심사평



심사위원

| 시 |

김년균_현,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 · 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종섭_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전, 경북문인협회 회장
손희락_현, 한국문인협회 감사 · 현, 국제펜한국본부 감사/아가페문학회 회장

| 시 조 |

한분순_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전, 한국시조시인협회 명예 이사장
유상용_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 현,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

| 수 필 |

정목일_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 전,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장
권남희_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이철호_현, 새한국문학회 이사장 · 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단편소설 |

정종명_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 현, 한국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이광복_현,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전, 한국소설가협회 부이사장
최일욱_현, 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 · 전, 중앙일보 기자

| 동 시 |

김완기_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 현, 한국아동문학회 회장
최복형_현, 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 · 현,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고문

| 동 화 |

홍성훈_현, 한국문인협회 홍보위원장 · 현, 종로문인협회 회장
장경호_현, 한국문인협회 편집위원

| 회 곡 |

전옥주_현, 한국문인협회 자문위원 · 현, 문학의 집 서울 사무처장
성동민_현, 한국문인협회 위원 · 현,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심사평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다. 미래 사회의 주역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젠 정설에 속한다. 누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일까. 바로 문인들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공무원문예대전의 역할과 덕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정의하고 싶다.

이번 제15회 공무원문예대전은 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동화, 동시 등 7개 분야에 총 1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을 결정하기 까지 각 분야별 심사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오랜 논의와 숙고 끝에 시 부문의 〈로드킬(Road kill)〉을 수상작으로 결정함으로써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시

시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하면서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여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로드킬(Road kill)〉은 특히 시어(詩語)의 조화와 감각적인 표현의 기교가 잘 맞아떨어졌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시조

해를 거듭할수록 응모 편수가 급격히 늘어난 분야 중의 하나가 시조인데, 더욱 반가운 것은 입상권에 든 작품 모두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해후〉는 상의 전개와 묘사력이 유연하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필

정보의 평준화로 보고 듣고 생각하여 아는 것이 많은 시대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문장력만 갖추면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와 소설과 달라서 주로 경험을 매개로 글을 쓰는 수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번 제15회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한 작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작품이나 아쉽게 탈락한 작품 모두가 사실은 어슷비슷한 수준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을 골라내기 위해 여러 차례 작품을 바꿔 읽고 〈풍금소리와 함께 걷는 길〉을 금상으로 선정했다.

소설

71편의 응모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작품이 8편이었다. 세 심사위원은 작품의 이모저모를 거듭 확인하면서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무리 없는 서사구조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여명〉을 첫 머리에 얹는 기쁨을 함께 누렸다.

동시

이번 공무원문예대전에 응모된 동시는 총 224편이었다. 고만고만한 수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각에 치우친 작품, 농도와 탄력이 부족한 작품, 중심 생각이 분명하지 못한 작품, 함축미가 부족한 작품 등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끝에 시적 완성도가 높은 〈시험보는 누에〉를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하는 데 합의했다.

동화

우수한 작품이 많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대개 1, 2점 차이로 입상과 탈락의 갈림길을 맞아야 했다. 다만 동화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거나 설명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고도의 기교

가 꼭 필요하다는 기준에서 심사위원의 호감을 사기도 하고 비호감으로 전락하기도 했다는 점을 밝힌다. 슬기로운 삶의 메시지를 높이 산 <이사하기 싫어요>를 가장 먼저 뽑았다.

희곡

다른 장르와 달라서 희곡은 매우 까다롭다.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대와 시간과 공간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응모작이 많지 않은 까닭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용서>를 가장 먼저 뽑았다.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작품인데, 담임선생의 인간적 고뇌가 비교적 리얼하게 그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문예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의 질적 향상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수상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등단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꾸준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는 큰 작가로 대성해 주길 바란다.

